수호전

水滸傳 · 시내암 120회본(충의수호전)

제5권 (제49회 ~ 제60회)

시내암 (施耐庵, 약 1296–1372) 원작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 2026-06-03

책 정보

원전

시내암 『수호전(水滸傳)』 120회본(충의수호전, 袁無涯 간행본 계열), 引首 + 120회

원전 출처

zh.wikisource.org/wiki/水滸傳_(120回本)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 MTP drafter (GB10 로컬)

번역 방식

2-pass: 회별 인물·사건 사실 시트 추출 → 본문 번역 (누적 사전으로 표기 일관성 강제)

발행

sosig.shop/book · 2026-06-03

번역 정책

- 인명·지명은 한국 한자음(宋江 → 송강, 林沖 → 임충)

- 별호는 본명으로 통일(及時雨 → 송강, 黑旋風 → 이규, 花和尚 → 노지심)
- 옛 번역투(~하더라/이라) 금지, 초등 고학년 가독성 목표
- "話說/卻說" → "이야기는 이러하다/한편", 詩曰/詞曰 → 시·사 형식 유지

>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술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읽을거리 한 권 더"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용·연구는 원전 또는 정식 번역본을 권합니다.

목차

제49회 — 해진과 해보 형제가 함께 옥을 탈출하고, 손립과 손신 형제가 대대적으로 감옥을 털다 6

제50회 — 오 학구가 양손으로 연환계를 쓰고, 송공명이 세 번에 걸쳐 축가장을 치다 36

제51회 — 삽치호가 백수영을 곤장으로 때리고, 미염공이 소아내를 놓치다 60

제52회 — 이규가 은천석을 때려죽이고, 시진이 고당주에 갇히다 .. 88

제53회 — 대종이 지혜로 공손승을 얻고, 이규가 도끼로 나진인을 내리치다 116

제54회 — 입운룡이 도법으로 고렴을 물리치고, 흑선풍이 동굴을 탐색하여 시진을 구하다 149

제55회 — 고 태위가 세 갈래 군사를 크게 일으키고, 호연작이 연환마를 배치하다 177

제56회 — 오용이 시천을 시켜 갑옷을 훔치고, 탕륭이 서녕을 꼬드겨 산으로 불러들이다 197

제57회 — 서녕이 사신에게 구렴창을 가르치고, 송강이 연환마를 크게 격파하다 226

제58회 — 삼산이 의를 모아 청주를 치고, 여러 호랑이가 마음을 합쳐 수박으로 돌아가다 252

제59회 — 오용이 금령을 꾀어 매달고, 송강이 서악 화산을 뒤흔들다 276
제60회 — 공손승이 망동산에서 마를 굴복시키고, 조 천왕이 증두시에서 화살을 맞다 298

제49회 — 해진과 해보 형제가 함께 옥을 탈출하고, 손립과 손신 형제가 대대적으로 감옥을 털다

解珍解寶雙越獄 孫立孫新大劫牢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시 오용이 송강에게 말했다.

"오늘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석용의 소개로 우리 편에 합류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축가장의 난정옥과 아주 막역한 사이인 데다 양림, 등비와도 더없이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가 형님께서 축가장을 치는 일이 여의치 않았다는 것을 알고, 양산박에 몸을 의탁해 출세하는 대가로 이 계책을 바치러 곧 뒤따라 찾아올 것입니다. 닷새 안에 이 계책을 실행하면 좋을 듯한데, 어떠십니까?"

송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정말 절묘하구나!"

그러고는 비로소 얼굴 가득 웃음꽃을 피웠다.

도대체 어떤 계책인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대목을 잘 기억해 두시라. 본래 송강이 처음 축가장을 공격할 때 있었던 일인데, 이쪽 이야기를 한 마디 하면 저쪽 이야기가 한 번씩 튀어나오니, 우선 축가장과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를 모두 갈무리해 두고, 먼저 양산박에 합류하려 한다는 이의 이야기부터 이어가겠다.

원래 산동 해안가에 등주라는 고을이 있었다. 등주 성 밖에는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에는 승냥이와 이리, 호랑이와 표범이 많아 사람을 해치곤 했다. 이에 등주 지부(知府, 고을 수령)는 사냥꾼들을 소집하고, 관아의 공문에는 호랑이를 잡으라는 명령을 엄중히 적어 내렸다. 또한 산 앞뒤 마을의 이정(里正, 마을 우두머리)들에게도 호랑이를 잡으라는 문서를 내려, 만약 호랑이를 잡지 못하고 관아에 넘기지 못하면 엄하게 문책하고 옥에 가두겠다는 무시무시한 규정을 내걸었다.

한편, 등주 산 아래에 형제인 사냥꾼이 살고 있었는데, 형의 이름은 해진이고 아우의 이름은 해보라고 하였다. 두 형제는 모두 무거운 철로 만든 삼지창을 사용했으며, 사람을 놀라게 할 만큼 뛰어난 무예를 갖추고 있었다. 등주 고을의 사냥꾼들 가운데 이들을 따를 자가 없으니, 그 실력이 단연 으뜸이었다. 해진의 별호는 '양두사'였고, 해보의 별호는 '쌍미갈'이라 불렸다. 두 사람은 부모를 모두 여의고 아직 장가도 들지 않은 상태였다. 형 해진은 키가 칠 척(약 210cm)이 넘고 얼굴빛은 자줏빛을 띠었으며, 허리는 가늘고 어깨는 넓었다. 아우 해보의 실력은 더욱 대단했는데, 그 역시 키가 칠 척이 넘고 얼굴은 둥글며 피부는 검

었다. 양쪽 다리에는 날아다니는 야차 문신이 새겨져 있었는데, 때때로 성질이 나면 하늘을 찌르고 땅을 뒤엎으며 나무를 뽑고 산을 흔들듯이 날뛰곤 했다.

두 형제의 용맹함을 노래한 시가 있어 이를 전한다.

등주 땅 대대로 이어온 사냥꾼 집안에 태어나, 날 때부터 용맹하고 호방한 영웅이라.
산을 넘고 고개를 건너는 몸놀림은 원숭이처럼 날렵하고,
사슴과 노루는 그 모습만 보고도 혼비백산 놀라네.
손에는 연꽃 무늬 철 삼지창 들고, 허리에는 부들잎 모양 날카로운 칼을 찼구나.
표범 가죽 치마에 호랑이 힘줄 띠를 두른,
우열을 가릴 수 없는 해씨 집안의 빼어난 두 형제, 젊디젊은 사내들이라네.

두 형제는 관아에서 내려온 엄한 명령서를 받아 들고 집으로 돌아와 활과 화살, 쇠뇌와 삼지창을 정돈하였다. 그리고 표범 가죽 바지와 호랑이 가죽 옷을 챙겨 입고 철삼지창을 든 채 곧장 등주 산으로 달려갔다. 산에 도착한 형제는 활을 내려놓고 나무 위에 올라가 하루 종일 기다렸으나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자, 활을 거두어 내려왔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다시 마른 식량을 챙겨 산에 올라 호랑이를 기다렸다. 날이 저물 때까지 기척이 없자 형제는 다시 활을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가 오경(새벽 3~5시 사이)이 될 때까지 기다렸으나, 역시 아

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형제는 활을 옮겨 서쪽 산자락으로 내려가 동이 틀 때까지 앉아 기다려 보았지만, 끝내 호랑이를 만나지 못했다. 마음이 초조해진 두 사람이 말했다.

"사흘 안에 반드시 호랑이를 잡아 바쳐야 하는데, 기한을 넘기면 엄한 벌을 받게 될 터이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두 형제가 셋째 날 밤에 이르러 사경(새벽 1~3시 사이)쯤 되어 엎드려 기다리는데, 어느덧 몸이 나른해지고 졸음이 밀려왔다. 두 사람이 서로 등에 기대어 눈을 붙이려던 찰나, 갑자기 활시위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형제는 깜짝 놀라 뛰어 일어나 철삼지창을 움켜쥐고 사방을 살폈다. 그러자 화살에 맞은 호랑이 한 마리가 땅 위에서 몸을 뒤틀며 뒹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두 사람은 삼지창을 쥐고 앞으로 나아갔다. 호랑이는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화살을 맞은 채 도망치기 시작했다. 형제가 그 뒤를 쫓아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마침 약효가 퍼졌는지 호랑이가 견디지 못하고 포효를 내지르더니 산 아래로 데굴데굴 굴러떨어졌다. 해보가 말했다.

"됐다! 내가 이 산을 잘 아는데, 저건 모태공 장원의 뒷마당이다. 형님, 우리도 내려가서 저 호랑이를 가져가겠다고 그 집에 가서 따져보자꾸나."

그때 두 형제는 철삼지창을 들고 곧장 산을 내려와 모태공 장원의 문을 두드렸다. 마침 동이 틀 무렵이라, 두 사람이 장원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장원 하인이 모태공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잠시 후 모

태공이 밖으로 나오자, 해진과 해보는 삼지창을 내려놓고 예를 갖추어 인사하며 말했다.

"백부님, 그간 별거 없으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모태공이 물었다.

"조카들이 어찌 이리 이른 아침부터 왔느냐? 무슨 할 말이 있기에 그러느냐?"

해진이 대답했다.

"백부님의 잠을 깨울 일은 아니었어야 했는데 송구합니다. 실은 제가 관아로부터 호랑이를 잡으라는 엄한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사흘 내내 기다린 끝에 오늘 새벽 오경에 호랑이 한 마리를 화살로 맞혔는데, 뜻밖에도 그놈이 뒷산에서 굴러 내려와 백부님의 장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길을 좀 내어주셔서 호랑이를 가져가게 해 주십시오."

모태공이 말했다.

"괜찮다. 이미 내 장원으로 굴러 들어왔으니, 우선 좀 앉아 있거라. 배가 고플 터이니 아침 식사라도 좀 하고 가져가도록 해라."

그러고는 하인에게 일러 아침 식사를 대접하게 했다. 하인들이 두 형제에게 술과 밥을 차려 내오자, 해진과 해보는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를 표하며 말했다.

"백부님의 두터운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번거로우시더라도 어서 호랑이를 가져가게 길을 안내해 주십시오."

모태공이 말했다.

"내 장원 뒤편에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우선 앉아서 차나 마시고 가거라. 지금 가도 늦지 않다."

해진과 해보는 감히 거절하지 못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하인이 차를 가져와 두 사람에게 권했다. 모태공이 말했다.

"자, 이제 내가 조카들과 함께 호랑이를 가지러 가마."

해진과 해보가 말했다.

"백부님, 정말 감사합니다."

모태공은 두 사람을 데리고 장원 뒤편으로 갔으나, 하인에게 열쇠를 가져오라 일러 문을 열게 하려 해도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모태공이 말했다.

"이 정원은 오랫동안 사람이 들여다보지 않아 자물쇠가 녹슬어서 잘 안 열리는 모양이구나. 가서 철퇴를 가져와 부숴 열도록 해라."

하인이 철퇴를 가져와 자물쇠를 깨부수자, 사람들이 모두 정원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았다. 하지만 산기슭을 샅샅이 뒤져보아도 호랑이는 보이지 않았다. 모태공이 말했다.

"조카들아, 너희가 잘못 본 것 아니냐? 제대로 살핀 것이 맞느냐? 정말 내 정원 안으로 떨어진 게 맞단 말이냐?"

해진이 대답했다.

"저희가 어찌 잘못 보겠습니까? 여기서 나고 자란 저희가 이곳을 몰라보겠습니까?"

모태공이 말했다.

"그럼 너희가 직접 찾아보거라. 찾으면 알아서 가져가면 될 것 아니냐."

해보가 말했다.

"형님, 이쪽을 좀 보세요. 이 일대 풀들이 호랑이가 굴러온 듯 납작하게 다 누워 있고, 그 위에 핏자국까지 선명한데 어찌 여기 없다고 하십니까? 분명 백부님 댁 하인들이 호랑이를 치워버린 게 틀림없습니다."

모태공이 말했다.

"그런 망발을 하지 마라! 우리 장원 사람들이 정원 안에 호랑이가 들어온 걸 어떻게 알고 벌써 치웠겠느냐? 더구나 방금 내 눈앞에서 자물쇠를 깨고 너희와 함께 정원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 그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해진이 말했다.

"백부님, 그 호랑이를 돌려주셔야 제가 관아에 바칠 수 있습니다."

모태공이 말했다.

"이놈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내가 좋은 마음으로 술과 밥을 대접했더니, 도리어 나에게 호랑이를 내놓으라 생떼를 쓰는구나!"

해보가 외쳤다.

"생떼라니요! 백부님 댁도 현직 이정(里正)을 맡고 계시고, 관아에서 엄한 기한부 명령서까지 내려온 일 아닙니까. 호랑이를 잡을 능력이 없으니 다 잡아 놓은 우리 것을 가로채, 백부님은 그걸 가져가 공을 세우고, 우리 형제 둘은 기한을 넘겨 곤장을 맞게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모태공이 맞받아쳤다.

"네놈들이 곤장을 맞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해진과 해보가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감히 우리가 한번 뒤져봐도 좋다는 겁니까?"

모태공이 말했다.

"내 집과 네 집은 각각 안채와 바깥채(내외)가 따로 있는 법이다. 이거지 같은 놈들 둘이 도리어 찾아와 무례하게 구는 꼴 좀 보게!"

해보는 대청 앞을 뒤져봐도 호랑이가 보이지 않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대청 앞에서 부수며 날뛰기 시작했고, 해진도 대청 앞 난간을 부러뜨려 들고 안으로 쳐들어갔다. 모태공이 소리쳤다.

"해진, 해보! 이놈들이 대낮에 약탈을 한다!"

두 사람이 대청 앞의 의자와 탁자를 부수다가, 장원 사람들이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곧장 문밖으로 뛰쳐나가며 장원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우리 호랑이를 가로채다니, 관아에 가서 따져보겠다!"

해씨 형제는 호랑이를 잡으려 애썼으나, 모씨 일가는 교묘한 계책을 꾸며 그들을 옥에 가두었다.

그날 호랑이 한 마리를 두고 다투던 일이 결국 훗날 두 용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두 사람이 한창 욕설을 퍼붓고 있을 때, 말 두세 필이 장원으로 달려오는데 한 무리의 수하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해진은 그가 모태공의 아들 모중의인 것을 알아보고는 곧 말했다.

"당신네 장원의 장객이 우리 호랑이를 가로챘는데, 당신 아버지는 돌려주기는커녕 도리어 우리 형제를 때리려 하지 않소!"

모중의가 말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참으로 막무가내군요. 아버님께서 분명 그들에게 속으신 모양입니다. 두 분은 노여워 마시고 일단 저를 따라 집으로 가시지요.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진과 해보는 모중의에게 고마워했고, 모중의는 장원 문을 열게 하여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다. 해진과 해보가 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모중의는 장원 문을 닫게 하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쳐라!"

그러자 양쪽 행랑에서 장객 스무서너 명이 달려 나왔고, 방금 말 뒤에 데려온 자들까지 합세했는데, 그들은 모두 관아의 포졸(공인)들이었다. 형제는 미처 손쓸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드는 바람에 해진과 해보 둘 다 꽁꽁 묶이고 말았다.

모중의가 말했다.

"우리 집에서 어젯밤에 직접 호랑이 한 마리를 잡았는데, 어찌하여 와서 내 것이라 생떼를 쓰는가? 게다가 그 기세를 몰아 우리 집 재물을 약탈하고 살림살이를 부수었으니, 이게 무슨 죄에 해당하겠느냐? 본주(本州) 관아로 압송하면 본주의 골칫거리 하나를 없애는 셈이다."

알고 보니 모중의는 오경 무렵에 이미 호랑이를 먼저 관아로 압송해 두고는, 여러 명의 포졸을 데리고 와서 해진과 해보를 잡으려 한 것이었다. 뜻밖에도 이 형제가 돌아가는 판국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의 계략에 정통으로 걸려들어, 변명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모태공은 그들이 쓰던 강철 삼지창과 장물 한 보따리를 가져오게 하고, 부서진 살림살이

와 기물들도 잔뜩 둘러메게 한 뒤, 해진과 해보의 옷을 모조리 벗겨 발가벗긴 채 두 팔을 뒤로 꺾어 묶어 관아로 압송했다.

본주 관아에는 왕정(王正)이라는 육안공목(六案孔目, 여섯 부서를 맡은 우두머리 서리)이 있었는데, 그는 모태공의 사위로 이미 먼저 지부 앞에 나아가 사정을 일러바쳐 둔 터였다. 해진과 해보가 관아 대청 앞으로 끌려오자마자, 다짜고짜 엎어 놓고 매질을 가하며, 호랑이를 가로채려고 각자 강철 삼지창을 들고 재물을 약탈했다고 기어이 자백하게 하려 했다. 해진과 해보는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들이 시키는 대로 자백하고 말았다. 지부는 양면(두 짝)으로 된 스물다섯 근짜리 무거운 칼(枷)을 가져오게 하여 씌우고 큰 옥에 단단히 가두었다.

모태공과 모중의는 장원으로 돌아가 의논했다.

"이 두 놈은 그냥 놓아주어서는 안 되네. 차라리 아예 끝장을 내버려야 나중에 뒷탈이 없을 걸세."

그러고는 그때 부자 두 사람이 직접 관아로 가서 공목 왕정에게, 자기들을 위해 풀을 베고 뿌리째 뽑아 싹이 다시 돋지 못하게 해 달라고 당부하며, "지부 쪽은 내가 알아서 손을 써 두겠네"라고 했다.

한편, 해진과 해보는 사형수들이 갇힌 옥사에 압송되어 정자 중앙으로 끌려갔다. 그곳에는 관리들이 행패를 부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우두머리 격인 자는 성은 포, 이름은 길이라 하여 포길이라 불렸는데, 그는 이미 모태공에게 은자를 받아 챙긴 데다 왕정의 말까지 믿고 해진과 해보의 목숨을 해치려 작정하고 정자에 앉아 있었다. 옥사 관리가 형제

에게 말했다. “어서 이리 와서 정자 앞에 무릎을 꿇어라!” 포길이 호통을 치며 물었다. “네놈들이 바로 그 ‘양두사’니 ‘쌍미갈’이니 하는 놈들이냐?” 해진이 대답했다. “사람들이 저희를 그런 별호로 부르긴 합니다만, 결코 선량한 사람을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포길이 소리쳤다. “이 짐승 같은 놈들! 이번 기회에 양두사 놈은 머리 하나를 없애서 뱀 한 마리로 만들고, 쌍미갈 놈은 꼬리 하나를 없애서 전갈 한 마리로 만들어주마. 어서 대옥으로 끌고 가라!”

옥사 관리가 두 사람을 끌고 옥 안으로 들어왔다. 주변에 보는 눈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 그 관리가 슬쩍 말했다. “너희 둘, 나를 알아보겠느냐? 나는 네 형님의 처남이다.” 해진이 대답했다. “저희는 친형제 둘뿐이지, 다른 형님은 없습니다.” 그러자 관리가 말했다. “너희 둘은 분명 손 제할(孫提轄)의 형제일 것이다.” 해진이 말했다. “손 제할(손립)은 제 외사촌 형님이신데, 저는 당신을 뵌 적이 없습니다. 혹시 낙화(樂和) 외숙 어른이 아니십니까?” 그 관리가 말했다. “그렇다. 내 성은 낙, 이름은 화라 하며, 본래 모주(茅州) 사람이다. 선조께서 식솔을 이끌고 이곳으로 옮겨 오시면서 누이를 손 제할(손립)에게 시집보냈다. 나는 줄곧 이 등주에서 일하며 옥사 관리를 맡고 있다. 사람들이 내 노래 실력이 좋다고 하여 다들 나를 ‘철교자(鐵叫子)’ 낙화라고 부른다. 매형(손립)께서 내 무예가 뛰어난 것을 보시고는 창술 몇 초식을 가르쳐 주기도 하셨지.”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맑고 영롱한 마음씨에 옷차림은 정갈하고,
준수한 용모에 말씨는 명쾌하구나.
노래 솜씨로 사람들이 '철교자(鐵叫子)'라 일컬으니,
낙화의 총명함은 하늘이 타고난 것이라.

알고 보니 이 낙화는 아주 영리하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어서, 온갖 악기를 두루 알아 배우기만 하면 금방 익혔고, 일을 처리할 때도 처음만 보고 끝을 알 만큼 영민했다. 창봉 같은 무예 이야기가 나오면 사탕이나 꿀처럼 그렇게 좋아하였다. 낙화는 해진과 해보가 참으로 의로운 호걸임을 알고 마음속으로 그들을 구해주고 싶었으나, 실 하나로는 선을 이룰 수 없고 외손뼉이 울지 못하는 법이라, 우선 소식 하나를 전해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다.

낙화가 말했다. "너희 둘에게 알려줄 것이 있다. 지금 포길이 모태공에게 돈을 받아 챙겼으니, 필시 너희 둘의 목숨을 해치려 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어찌할 셈이냐?"

해진이 대답했다. "손 제할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다면 몰라도, 그분을 언급하셨으니 부디 소식 하나만 전해주십시오."

낙화가 물었다. "누구에게 소식을 전해주랴?"

해진이 말했다. "제게 사촌 누이가 한 명 있는데, 제 아버지 쪽 친척으로, 손 제할(손립)의 아우인 손신의 아내입니다. 지금 동문 밖 십리패(十里牌)에 살고 있지요. 그분은 제 고모의 딸, 곧 '모대충(母大蟲)'이라 불리는 고대소로, 주막을 운영하며 집에서 소도 잡고 도박판

도 벌입니다. 제 누이는 장정 스무남은 명이 달려들어도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이고, 매형인 손신 같은 실력자도 그에게는 지고 맙니다. 오직 그 누이만이 저희 형제와 가장 가깝습니다. 손신과 손립의 고모(아버지의 누이)가 바로 저희 어머니이니,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저와 외사촌 형제간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부디 몰래 소식을 전해주십시오. 제 사정을 말해주면 누이가 분명 직접 구하러 올 것입니다."

낙화는 말을 다 듣고는 이렇게 분부했다. "친척 아우님들, 우선 마음을 푹 놓게나."

낙화는 먼저 가서 구운 떡과 고기 같은 먹을거리를 좀 챙겨온 뒤, 옥사 문을 열어 해진과 해보에게 먹였다. 그러고는 일을 뒤로 미뤄둔 채 옥사 문을 잠그고 다른 관리가 지키도록 한 뒤, 곧장 동문 밖 십리패 쪽으로 달려갔다. 멀리서 보니 주막 하나가 보이는데, 문 앞에는 소와 양 같은 고기가 걸려 있고, 뒷채 아래에는 사람들이 모여 도박을 하고 있었다. 낙화가 주막을 살펴보니 한 여인이 탁자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은 이러했다.

눈썹은 굵고 눈은 크며, 뚱뚱한 얼굴에 살집 있는 허리라.
머리에는 기이한 비녀를 꽂고, 손목에는 유행하는 팔찌를 찼구나.
때로 성을 내면 우물 난간을 들어 남편 머리를 후려치고,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면 돌송곳을 들어 머슴 다리를 쳐부수네.
태생부터 바느질 하나 못 하더니, 몽둥이 휘두르고 창 잡는 것을 여자의 일로 삼네.

낙화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 고대소를 보고는 인사를 건네며 물었다. "이곳에 손 씨 성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고대소가 황급히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술을 사시려는 건가요, 아니면 고기를 사시려는 건가요? 도박을 하시려면 뒤편으로 가서 앉으십시오."

낙화가 말했다. "소인은 손 제할의 처남인 낙화라고 합니다."

고대소가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낙화 외숙부셨군요! 얼굴을 뵈니 형님(큰동서) 되시는 분과 꼭 닮으셨습니다. 우선 안으로 들어와 차부터 드십시오."

낙화가 안쪽 손님석에 가서 앉자, 고대소가 곧바로 물었다. "외숙부께서 주(州)에서 일을 하시느라 워낙 바쁘셔서 그동안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낙화가 대답했다. "별일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니고, 감히 폐를 끼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 관아에서 죄인 두 명을 새로 들여보냈는데, 직접 뵙지는 못했으나 그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은 '양두사' 해진이고, 다른 한 명은 '쌍미갈' 해보라고 합니다."

고대소가 말했다. "그 두 사람은 제 아우들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옥에 갇혔다는 말입니까?"

낙화가 말했다. "그 두 사람이 커다란 호랑이를 잡았는데, 고향의 재력가인 모태공이 그것을 자기 것이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러더니

오히려 두 사람을 강제로 도둑으로 몰아 가산을 약탈했다는 죄를 씌워 주(州)로 압송해 왔습니다. 게다가 모태공이 관아의 위아래 관리들에게 온갖 뇌물을 다 써서, 조만간 포길을 시켜 옥중에서 두 사람을 손봐 목숨을 끊게 만들 작정입니다. 소인이 길을 가다 불의를 보고도 혼자 힘으로는 구하기가 어려운데, 한편으로는 친척이요 한편으로는 의리가 중한지라 특별히 이렇게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직 누님만이 저희를 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더군요. 어서 마음을 써서 힘껏 손쓰지 않으면 구해내기가 쉽지 않을 듯합니다."

고대소는 그 말을 듣고는 비통한 소리를 내며 울먹였다. 그러고는 하인들을 불러 "어서 둘째 오라버니 댁으로 가서 말씀을 좀 드려라!" 하고 일렀다. 하인 몇 명이 달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손신을 찾아 데려왔고, 손신은 낙화와 마주 앉았다. 손신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었는지를 시로 이르되,

(시 생략)

군대의 재주 있는 젊은이, 눈매에 신령한 위엄이 서렸네.
몸은 신선의 섬에 머물고, 집안은 보석의 바다에서 옮겨왔네.
속으로는 큰 뜻을 품고 있으니, 호랑이 같은 아내와 마땅히 어울리네.
쌍룡을 휘두르는 채찍을 보면, 구렁이처럼 날아드는 창끝이 보이네.
나이는 손랑처럼 젊으나, 사람들은 그를 '소尉遲'라 부르네.

알고 보니 손신은 본래 경주 사람으로, 무관 집안의 자손이었다. 그러다 등주로 부임해 오면서 형제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다.

손신은 체격이 건장하고 힘이 장사였는데, 형인 손립의 재주를 그대로 물려받아 여러 종류의 창술과 편(鞭, 채찍 모양의 무기)을 능수능란하게 다루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 형제를 위지공 형제에 비유하며 그를 '소위지'라 불렀다.

고대소가 손신에게 방금 전의 사정을 이야기하자, 손신이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우선 외숙부께서는 먼저 돌아가 계십시오. 두 사람이 이미 옥에 갇혀 있으니, 모든 것은 외숙부께서 잘 살펴주셔야 합니다. 저와 제 아내가 의논하여 좋은 방책을 세운 뒤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낙화가 말했다. "소인이 힘을 보탤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앞장서서 돕겠습니다."

고대소는 술을 차려 정성껏 대접한 뒤, 은 조각이 든 주머니 하나를 꺼내 낙화에게 건네며 말했다. "외숙부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옥에 가셔서 죄수들과 옥사 관리들에게 이 은을 나누어 주어 두 아우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낙화는 감사를 표하고 은을 챙겨 들고는, 옥사에서 그 돈을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곧장 돌아갔다.

한편, 고대소가 손신과 상의하며 물었다. "두 아우를 구하려면 어떤 방책이 있겠소?"

손신이 대답했다. "모태공 그자는 돈도 많고 권세도 있는 자요. 두 아우가 옥에서 나오는 것을 막으려 들 것이 뻔하니, 분명 두 사람을 어

떻게 해치려 들 것이오. 이대로 두면 반드시 그놈 손에 죽고 말 것이오. 옥을 습격하지 않고서는 달리 구원할 방법이 없소."

고대소가 말했다. "그럼 오늘 밤 당장 가겠소."

손신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참으로 성급하구려. 나도 당신과 함께 좋은 방책을 세워야 하오. 옥을 습격하더라도 뒷수습할 방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소? 내 형님과 이 두 사람을 데려오지 않고서는 이 일을 도모할 수 없소."

고대소가 물었다. "그 두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오?"

손신이 말했다. "도박을 아주 좋아하는 숙질간인 추연과 추윤이오. 지금 등운산 골짜기에 모여 무리를 이끌고 도적질을 하고 있소. 그들은 나와 매우 친한 사이니, 그들 두 사람의 도움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 일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오."

고대소가 말했다. "등운산이라면 여기서 멀지 않으니, 당신이 밤을 도와 그 숙질을 데려와 함께 의논해 봅시다."

손신이 말했다. "지금 바로 다녀오겠소. 당신은 술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두시오. 내가 반드시 그들을 데려오리다."

고대소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돼지 한 마리를 잡게 하고, 여러 접시의 과일과 안주를 차려 상을 차리게 했다. 날이 저물 무렵, 손신이 솜씨 좋은 장정 두 명을 이끌고 돌아왔다. 앞장선 자는 성은 추요 이름은 연으로, 본래 내주(萊州) 사람이었다. 어려서부터 도박을 좋아해 한량으

로 지냈으나, 성품이 충직하고 의리가 있으며 통이 컸다. 게다가 무예 또한 뛰어났으나 성격이 강해 남에게 굽히는 법이 없었으니, 강호에서는 그를 '출림룡'이라 불렀다.

두 번째 장정은 그의 조카인 추윤으로, 나이가 숙부와 비슷했다. 두 사람 모두 체격이 건장하고 타고난 기색이 범상치 않았는데, 추윤은 뒷머리에 혹이 하나 있어 사람들이 그를 '독각룡'이라 불렀다. 추윤은 평소 다투는 일이 생기면 성질을 못 이겨 머리로 들이받곤 했는데, 어느 날은 계곡 옆에 있는 소나무를 머리로 들이받아 꺾어버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적도 있었다.

그 숙질의 용맹함을 서강월(西江月) 한 수로 이르되,

싸움터의 우두머리이며, 노름판 가운데서도 으뜸이라.
타고난 충직함은 무지개처럼 드높고, 무예는 놀랍도록 출중하구나.
등운대(登雲臺) 위에 진을 치니, 그 이름 산동 땅에 가득 퍼지고
강과 바다를 뒤흔드는 쌍룡 같으니, 어찌 연못 속에서 놀잇감이 되겠는가?

고대소가 그들을 보자 뒤편 안채로 안내하여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한 뒤, 옥을 습격할 방책을 상의했다.

추연이 말했다. "내 수하에 팔구십 명이 있어도, 정말 믿고 부릴 심복은 스무 명 남짓뿐이라오. 내일 이 일을 저지르고 나면 이곳에서는 더 이상 몸을 붙이고 살 수 없게 될 것이오. 다만 내게 갈 곳이 하나 있

는데, 나도 진작부터 가고 싶었으나 당신들 부부가 기꺼이 함께 가줄지 모르겠구려."

고대소가 대답했다. "어디든 상관없으니 당신을 따르겠소. 그저 내 두 아우만 구할 수 있다면 말이오."

추연이 말했다. "지금 양산박이 매우 번창하고 있어 송강이 인재를 모으는 데 아주 열심이라오. 마침 그곳에 내 지인 세 명이 이미 몸을 담고 있소. '금표자' 양림, '화안산예' 등비, 그리고 '석장군' 석용이 모두 그곳에서 합류한 지 오래되었소. 우리가 당신의 두 아우를 구한 뒤에, 모두 함께 양산박으로 가서 합류하는 게 어떻겠소?"

고대소가 말했다. "그거 참 좋구려. 만약 한 사람이라도 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내가 창으로 찔러 죽여버리겠소."

추윤이 말했다.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게 있소. 만약 우리가 사람들을 구출하고 나면, 등주 관아의 군사들이 쫓아오지 않겠소? 그땐 어찌해야 하오?"

손신이 대답했다. "내 친형님이 바로 이 지역의 군사제할(군관 직책)이시니, 지금 등주에서 그분만큼 대단한 분은 없소. 전에도 도적 떼가 성 근처까지 들이닥쳤을 때 그분이 모두 물리쳐서 이름이 자자하오. 내일 내가 직접 형님을 찾아가 청해볼 테니, 그저 허락만 해주시면 될 것이오."

추연이 말했다. "그분이 도적의 길을 걷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까 걱정되는구려."

손신이 말했다. “내게 분명 좋은 방책이 있소.”

그날 밤은 밤늦도록 술을 마시다 날이 밝을 때까지 쉬었다. 두 호걸(추연과 추윤)은 집에 남겨두고, 하인 한 명에게 한두 사람을 딸려 수레 한 대를 끌고 성안 영사(군영)로 급히 가게 했다. 가서 손립 제할과 그의 아내 낙대낭자를 찾아가 이렇게 말하도록 시켰다. “댁의 제수씨(고대수)께서 병세가 위중하시니, 부디 오셔서 살펴봐 주십시오.”

고대소가 하인에게 당부했다. “내가 병이 깊어 죽을 고비에 처했으니, 급히 전할 말이 있어 꼭 와야 한다고 말하거라. 그저 몇 마디 부탁할 것이 있다고만 해라.”

하인이 수레를 밀고 떠났다. 손신은 형을 맞이하기 위해 문 앞을 지키며 기다렸다. 식사를 마칠 무렵, 멀리서 수레 한 대가 오는 것이 보였다. 수레에는 낙대낭자가 타고 있었고, 그 뒤로는 손립이 말을 타고 있었으며, 십여 명의 군사들이 뒤따라 십리패 쪽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손신이 안으로 들어가 고대소에게 “형님과 형수님이 오셨습니다”라고 알리자, 고대소가 “내 말대로 하라”고 일렀다. 손신은 밖으로 나가 형님 내외를 맞이했다. 그는 형수님을 수레에서 내리게 한 뒤 방 안으로 모셔 제수(고대수)의 병세를 살피게 했다.

손립 제할이 말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오니, 참으로 늠름한 대장부였다. 얼굴빛은 옅은 황색을 띠었고 턱수염이 덥수룩하게 나 있었으며, 키는 여덟 자가 넘었다. 성은 손이고 이름은 입이며, 별호는 ‘병위지’라 불렸다. 그는 단단한 활을 잘 쏘고 거친 말도 능숙하게 탔으며, 긴 창 한 자루를 휘두르는 데다 손목에는 호랑이 눈무늬가 새겨진 대나

무 마디 모양의 강철 편(강철 채찍)을 차고 있었는데, 바닷가 사람들이 그를 보기만 해도 겁을 먹고 항복할 정도였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검은 수염은 안개처럼 휘날리고, 성격은 유성처럼 급하구나.
창을 다루는 솜씨는 누구보다 능숙하고, 활과 화살은 늘 익히는구나.
넓은 얼굴은 금칠을 한 듯 빛나고, 두 눈은 칠을 한 듯 검구나.
군중에서 이름을 떨치니, '병尉遲' 손립이라네.

그 자리에서 '병위지' 손립이 말에서 내려 문 안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아우야, 제수씨는 어디가 편찮으신 것이냐?" 손신이 대답했다. "증세가 아주 이상하고 위중합니다. 형님, 안으로 들어오셔서 말씀 나누시지요." 손립이 안으로 들어오자, 손신은 하인에게 명령하여 말을 따라온 군사들을 맞은편 가게로 보내 술을 먹게 했다. 그리고 하인에게 말을 끌어오게 한 뒤 손립을 안으로 모셔 앉혔다. 한참이 지나 손신이 말했다. "형님, 형수님과 함께 방에 들어가 병세를 좀 봐 주십시오." 손립이 낙대낭자와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갔으나, 정작 환자는 보이지 않았다. 손립이 물었다. "제수씨는 어느 방에 계시느냐?" 그때 밖에서 고대소가 걸어 들어왔고, 그 뒤를 추연과 추윤이 따르고 있었다. 손립이 말했다. "제수씨, 대체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 겁니까?" 고대소가 말했다. "아주버님, 인사 올립니다. 저는 아우들을 구해야 하는 병을 좀 앓고 있습니다." 손립이 되물었다. "거 참 괴이하구나. 무슨 아우들을 구한단 말이냐?" 고대소가 말했다. "아주버님, 귀먹은 척 벙어리인 척하지 마십시오. 아주버님이 성안에 계시면서 그 둘이 제 아우들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어찌 아주버님의 아우는 아니라고 하십니까?" 손립이 말했

다. “사정은 모르겠으나, 그 아우들이 대체 누구란 말이냐?” 고대소가 말했다. “아주버님, 사정이 급하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진과 해보가 등운산 아래 모태공과 왕 공목의 계략에 빠져 함정에 빠졌습니다. 조만간 그 둘의 목숨을 노릴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호걸들과 상의하여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안의 옥을 습격해 그 두 아우를 구해낸 뒤, 모두 양산박으로 가서 합류할 계획입니다. 내일 당장 일이 터지면 아주버님께도 화가 미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병을 핑계 삼아 아주버님과 형수님을 이곳으로 불러 상의를 드린 것입니다. 만약 아주버님이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그냥 양산박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조정의 법이 엄격하니, 도망친 자는 무사할지 몰라도 여기 남아 있는 자는 관가에 끌려가 고초를 겪게 될 것입니다. 속담에 ‘불이 가까우면 먼저 타는 법’이라 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저희 대신 죄를 뒤집어쓰고 옥에 갇히게 된다면, 그때는 아무도 아주버님께 밥을 가져다주며 구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버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손립이 말했다. “나는 등주의 군관인데, 어찌 감히 그런 일을 하겠느냐!” 고대소가 외쳤다. “아주버님이 도와주지 않겠다면, 오늘 여기서 아주버님과 생사를 걸고 맞서겠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고대소는 품에서 칼 두 자루를 뽑아 들었고, 추연과 추윤도 각각 단도를 뽑아 손에 쥐었다. 손립이 소리쳤다. “제수씨, 잠깐만 멈추시게! 너무 급하게 굴지 마시게! 내가 차분히 생각하고 천천히 의논해 봄세.” 낙대낭자는 너무 놀라 한동안 입도 떼지 못했다. 고대소가 다시 말했다. “아주버님이 도와주지 않겠다면, 차라리 형수님을 먼저 보내드리고 저희끼리 일을 치르겠습니다.” 손립이 말했다. “설령 그렇게 해야 한다 해도, 일단 집에 가서 짐을 챙기고 상황이 어떤지 살핀 뒤에 움직여야 하지 않겠느냐.” 고대소가 말했다. “아주버님, 아주버님의 처남 되시는 낙화(樂和)께서 이

미 저희에게 소식을 다 전해 주셨습니다. 옥을 습격한 직후에 바로 짐을 챙기러 가도 늦지 않습니다." 손립이 한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다. "너희들이 모두 이토록 결심했는데 내가 어찌 거절하겠느냐? 나중에 너희 대신 죄를 뒤집어쓰게 될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좋다, 좋다, 좋다. 모두 모여서 의논하자꾸나." 그는 먼저 추연을 등운산 채에 보내 재물과 인원을 챙겨오게 했다. 추연은 심복 스무 명을 데리고 가게로 와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어 손신을 성안으로 보내 낙화에게 소식을 묻고 약속을 잡게 했고, 이 소식은 해진과 해보에게도 은밀히 전해졌다. 다음 날, 등운산 채에서 금은보화를 챙긴 추연이 사람들을 이끌고 도착했다. 손신의 집에는 믿을 만한 심복 하인 일고여덟 명과 손립이 데려온 군사 십여 명이 있어, 모두 합쳐 마흔 명이 넘었다. 손신은 돼지 두 마리와 양 한 마리를 잡아 모두 배불리 먹였다. 고대소는 품속에 날카로운 칼을 숨긴 채 음식을 나르는 여인으로 변장하여 먼저 길을 나섰다. 손신은 손립을 따랐고, 추연은 추윤을 데리고 하인 일행을 거느리며 두 갈래로 나누어 안으로 들어갔다.

정말로 이러하니,

호랑이를 잡으려다 도리어 호랑이를 풀어놓는 재앙이 되었으니,
범 같은 관리와 아전들이 꾸민 안배도 부질없이 어그러졌네.
오로지 철규자(鐵叫子, 낙화)가 안에서 관절을 뚫어준 덕분에,
비로소 철옹성 같은 뇌성(牢城)의 옥문이 열렸네.

한편, 등주부 옥사에서는 절급(節級)인 포(包)가 모태공에게 재물을 받은 뒤, 해진과 해보의 목숨을 해치려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날 낙

화는 수화곤(水火棍, 붉고 검게 칠한 몽둥이)을 들고 옥문 앞 사자 입처럼 벌어진 틈에 서 있었다. 그때 방울 소리가 울리자 낙화가 물었다. "누구냐?" 고대소가 대답했다. "음식을 나르는 여인입니다." 낙화가 이미 겉모습을 살펴보고 문을 열어 고대소를 들여보낸 뒤 다시 문을 닫았다. 고대소가 복도를 지나가자, 정자 한가운데 있던 포 절급이 그를 보고 꾸짖었다. "저 여인은 누구냐? 감히 옥사에 음식을 나르러 들어오다니! 예로부터 옥사는 바람도 통하지 않게 하는 법이다." 낙화가 말했다. "해진과 해보의 누이인데, 평소에도 음식을 나르러 옵니다." 포 절급이 호통을 쳤다. "들여보내지 마라! 너희가 직접 전달해 주면 될 것 아니냐!" 낙화는 음식을 챙긴 뒤 옥문을 열어 해진과 해보에게 가져다 주었다. 해진과 해보가 물었다. "외삼촌, 어젯밤에 말씀하신 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낙화가 말했다. "네 누이가 들어왔으니, 이제 신호에 맞춰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 낙화가 그들의 형틀을 열어주었다. 그때 어린 옥사 관리 하나가 들어와 보고했다. "손 제할께서 문을 두드리며 들어오겠다고 하십니다." 포 절급이 말했다. "그는 군관인데 우리 옥사에 무슨 일로 온단 말이냐? 문을 열지 마라!" 고대소는 재빨리 정자 옆으로 몸을 숨겼다. 밖에서 다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손 제할께서 조급해하시며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포 절급이 분노하며 정자 아래로 내려왔다. 그 순간 고대소가 크게 소리쳤다. "내 아우들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품속에서 번쩍이는 날카로운 칼 두 자루를 뽑아 들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포 절급이 정자 밖으로 도망치려 했다. 그때 해진과 해보가 칼(형틀 칼)을 쓴 채 옥창 사이로 몸을 비집고 나와 도망치는 포 절급을 맞닥뜨렸다. 포 절급은 미처 손쓸 새도 없이 해보가 휘두른 칼 끝에 머리가 박살나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고대소 역시 칼을 휘둘러 옥사 관리 서너 명을 단번에 쓰러뜨리고, 사람들과

함께 함성을 지르며 옥에서 튀어나왔다. 손립과 손신이 앞을 막아선 사이, 네 사람이 옥에서 쏟아져 나오자 그들은 곧장 주(州) 관아 앞으로 달려갔다. 추연과 추윤은 이미 주 관아에서 왕 공목의 머리를 베어 들고 나왔다. 거리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먼저 성 밖으로 달아났다. 손립은 말을 타고 활에 화살을 메긴 채 뒤를 막으며 따랐으나, 거리의 집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감히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관아의 관리들도 상대가 손립인 것을 알고는 누구 하나 감히 앞을 가로막지 못했다. 사람들은 손립을 에워싸고 성문을 향해 질주하여 십리패에 이르러서야 낙대낭자를 수레에 태울 수 있었다. 고대소도 말에 올라타 그들을 도왔다. 해진과 해보가 사람들에게 말했다. "모태공 그 늙은 도적놈을 어찌 이대로 그냥 두겠습니까? 반드시 복수해야 합니다!" 손립이 말했다. "옳은 말이다." 그러고는 동생 손신과 외삼촌 낙화에게 먼저 수레를 호위하며 앞서가라고 명하고, 자신들은 뒤따라가기로 했다. 손신과 낙화가 사람들을 거느리고 수레를 앞세워 떠나갔다.

손립은 해진, 해보, 추연, 추윤 그리고 머슴과 하인들을 거느리고 곧장 모태공의 장원으로 들이닥쳤다. 마침 모중의와 모태공이 장원에서 생일 잔치를 벌이며 술을 마시고 있었으나, 전혀 대비하지 못한 상태였다. 호걸들이 기세 좋게 함성을 지르며 들이쳐 모태공과 모중의, 그리고 그 집안의 노소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니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침실을 뒤져 금은보화가 든 보따리 십여 개를 찾아냈고, 뒷마당에서는 좋은 말 일곱여덟 필을 끌어내어 그중 네 필에는 짐을 실었다. 해진과 해보는 좋은 옷 몇 벌을 골라 입은 뒤, 장원 전체에 불을 질러 몽땅 태워버렸다. 일행은 모두 말에 올라 길을 재촉했는데, 채 삼십 리도 못 가서 앞서가던 수레와 인마를 따라잡아 함께 길을 떠났다. 도

중의 장원 농가들에서도 좋은 말 서너 필을 더 빼앗아, 일행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양산박으로 달려갔다. 이를 증명하는 서강월(西江月) 한 수가 있다:

충의를 세우는 것은 몸을 일으키는 근본이요, 간사함은 나라를 망치는 단초라.
늑대 같은 마음과 비겁한 행실로 관직을 더럽히니, 영웅들이 탄식하며 가슴을 치는구나.
호랑이를 뺏는 교활함은 가증스럽고, 감옥을 털어내는 계책은 참으로 기가 막히네.
등주의 성곽은 슬프고도 비통하여, 순식간에 시신이 곳곳에 가득하였도다.

하루 이틀 지나지 않아 일행은 석용이 운영하는 주막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추연이 석용과 만나 양림과 등비 두 사람의 안부를 물었다. 석용이 대답하기를, "송강이 축가장을 치러 갈 때 두 사람 모두 따라갔으나 두 번이나 실패했네. 소문에 들으니 양림과 등비 모두 그곳에 갇혔다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군."이라고 했다. 듣기로 축가장에는 세 명의 호걸이 있고, 무예를 가르치는 '철봉' 난정옥이라는 자가 도와주고 있어 두 차례나 공격을 막아냈다고 했다.

손립이 이 말을 듣고 크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양산박에 들어가 합류하려 해도 아직 아무런 공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축가장을 격파할 계책을 하나 내놓을 터이니, 이를 통해 공을 세워 입단하는 보답으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석용이 기뻐하며 말했다. "좋은 계책을 듣고 싶

소." 손립이 말했다. "난정옥 그놈은 나와 같은 스승 밑에서 무예를 배웠소. 내가 창과 도를 배우는 것을 그도 알고, 그가 배운 무예 또한 내가 훤히 꿰뚫고 있소. 우리가 오늘 등주에서 운주로 교대하여 수비를 맡게 되었다고 소문을 내고 이곳을 지나다 마주치면, 그는 분명 마중을 나올 것이오. 그때 우리가 안으로 침투하여 안팎에서 호응한다면 반드시 큰일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오. 이 계책이 어떻소?"

석용과 계책을 나누고 있을 때, 한 하급 관리가 들어와 보고했다. "오 학구가 산을 내려가 축가장을 구하러 가고 있습니다." 석용은 그 말을 듣자마자 하급 관리에게 어서 군사에게 알려 이곳으로 오시라고 전하라 일렀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군마들이 주막 앞에 도착했는데, 바로 여방과 곽성, 그리고 완씨 삼형제였다. 이어 군사 오용이 오백 명의 군마를 이끌고 나타났다. 석용은 그들을 주막 안으로 안내하여 일행 모두를 만나게 한 뒤, 양산박에 합류하고자 하는 뜻과 계책을 올렸다.

오용이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여러 호걸께서 우리 산채의 일원이 되기로 결심하셨으니, 우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잠시 미뤄둡시다. 대신 번거로우시겠지만 축가장에 가서 이 일을 성사시켜 주어 공을 세워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손립을 비롯한 일행은 모두 기뻐하며 흔쾌히 승낙했다. 오용이 말했다.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군마를 이끌고 나갈 테니, 여러분께서는 뒤를 이어 곧장 출발해 주십시오."

오용이 상의를 마친 뒤 먼저 송강의 진영으로 향했다. 송강을 보니 미간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얼굴에는 수심이 서려 있었다. 오용은 술을

차려 송강의 시름을 달래며, 석용·양림·등비 세 사람과 서로 알게 된 내력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곧 손립은 등주 병마제할(兵馬提轄)로 별호가 '병위지(病尉遲)'이며, 축가장의 무예 교사 난정옥과는 같은 스승 밑에서 무예를 배운 사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이번에 온 일행은 모두 여덟 명이며, 양산박에 합류하고자 특별히 이 계책을 바쳐 공을 세우려 한다는 사실도 전했다. 이미 계책을 정해 두었으니 안팎에서 호응하여 일을 이렇게 치른 뒤 곧장 형님을 뵈러 오겠노라고 말했다. 송강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근심을 구만리 밖으로 날려 버렸다. 그러고는 서둘러 산채에 명하여 술을 준비하고 잔칫상을 차려 그들을 맞이할 채비를 하게 했다.

한편 손립은 자신의 머슴과 부하들에게 명하여 수레와 인마를 따라 한곳에 머물게 하고, 해진·해보·추연·추윤·손신·고대소·악화 일곱 사람만 데리고(자신을 포함해 모두 여덟 명) 송강을 찾아갔다. 모두 예를 갖추어 인사를 마치자, 송강은 술과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 대접하니 그 일은 더 말할 것이 없었다. 오용은 몰래 여러 사람에게 군령을 전하여, 셋째 날에는 이렇게 하고 다섯째 날에는 이렇게 하라고 일러 주었다. 분부를 다 마치자 손립 일행은 계책을 받들어, 수레와 인마를 거느리고 축가장으로 들어가 일을 치르러 떠났다.

다시 오용의 이야기로 돌아가, 오용이 말했다. "대원장(대종)을 수고스럽게 산채로 한 번 보내, 어서 저 네 명의 두령을 데려와 주시오. 내가 따로 쓸 데가 있소." 이렇게 대종을 보내 밤을 새워 이 네 사람을 데려오게 한 일이 바로, 양산박에는 새로운 날개가 더해지고 축가장(山

莊)에는 옛 의관(지체 높은 사람들)이 다시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결국 오용이 그 네 사람을 데려오게 될 텐데, 과연 어떻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50회 — 오 학구가 양손으로 연환계를 쓰고, 송공명이 세 번에 걸쳐 축가장을 치다

吳學究雙掌連環計 宋公明三打祝家莊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시 군사 오용이 대종에게 말했다. "아우님, 나와 함께 산채로 돌아가서 철면공목 배선, 성수서생 소양, 통비원 후건, 그리고 옥비장 금대견을 데려와 주게. 이 네 사람에게 이런 장비들을 챙겨서 밤을 도와 산을 내려오라고 전해주게나. 내가 따로 쓸 데가 있네." 대종은 곧바로 길을 떠났다.

산채 밖에서 군사들이 달려와 보고하기를, 서촌 호가장의 호성이 소를 끌고 술을 짊어진 채 특별히 뵙기를 청한다고 했다. 송강이 그를 안으로 들여오게 했다. 호성이 중군막 앞으로 다가와 다시 한번 절을 올리며 간곡히 말했다.

"제 누이가 잠시 거칠고 경솔한 데다 나이 어려 세상물정을 몰라, 그만 장군의 위엄을 범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붙잡혀

있는데, 부디 장군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제 누이가 본래 축가장으로 시집가기로 약속되어 있었는데, 앞서 한때의 용기를 부리다 그만 포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장군께서 놓아주신다면, 그 대가로 필요한 물건은 마땅히 명에 따라 바치겠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우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세. 축가장 놈들은 예의라곤 눈곱만큼도 없어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산채를 괴롭히고 있네. 그래서 내가 군사를 일으켜 복수를 하려는 것이지, 자네 호가장과는 아무런 원한이 없네. 다만 자네 누이가 우리 왕왜호를 끌어내 잡아갔기에, 나도 그에 대한 답례로 누이를 잡아온 것이라네. 자네가 왕왜호를 풀어 나에게 돌려준다면, 나도 자네 누이를 돌려보내 주겠네."

호성이 대답했다. "그 호걸을 축가장 놈들이 이미 잡아갔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자 오용이 물었다. "우리 왕왜호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호성이 말했다. "지금 축가장에 갇혀 있는데, 소인이 어찌 감히 가서 데려오겠습니까?"

송강이 말했다. "자네가 왕왜호를 데려와 나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누이를 되찾아갈 수 있겠는가?"

오용이 말했다. "형님, 너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 말대로만 하십시오. 앞으로 축가장에서 무슨 소란이 일어나더라도 자네 장원에서는 절대로 사람을 보내 구해주려 해서는 안 되네. 만약 축가장에서 사람을 피해 자네 쪽으로 도망쳐 온다면, 그때는 그자를 묶어두게나.

그러다 사람을 잡게 되면 그때 누이를 자네 장원으로 돌려보내 주면 되네. 다만 지금 왕왜호는 우리 산채에 없네. 엊그제 이미 사람을 시켜 산채로 보냈으니, 송 태공(송강의 아버지)께서 모시고 계시네. 그러니 자네는 안심하고 돌아가게나. 여기에는 다 생각이 있으니."

호성이 말했다. "이번에는 절대로 구하러 가지 않겠습니다. 만약 그쪽 장원에서 정말로 우리 쪽으로 도망쳐 오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잡아다가 장군 휘하에 바치겠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자네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금은보화를 보내주는 것보다 훨씬 낫겠네."

호성은 감사의 절을 올리고 물러갔다.

한편, 손립은 깃발에 '등주 병마제할 손립'이라 이름을 고쳐 적고, 한 무리의 인마를 거느린 채 축가장의 뒷문 앞에 도착했다. 장원 안에서 깃발에 적힌 등주 관직을 보고 장원 내부로 보고가 들어갔다. 난정옥은 등주의 손 제할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축씨 삼제에게 말했다. "이 손 제할은 내 형제나 다름없네. 어려서부터 함께 스승님 밑에서 무예를 배웠는데, 오늘 어찌 이곳까지 왔는지 모르겠군." 난정옥은 스무 명 남짓한 인원을 데리고 장원 문을 열고 조교(弔橋)를 내려놓은 뒤 마중을 나갔다. 손립 일행이 모두 말에서 내리고 서로 인사를 나눈 뒤, 난정옥이 물었다. "아우님은 등주에서 지키고 계시다가 어찌 이곳까지 오셨는가?"

손립이 대답했다. "총병부에서 공문을 내려 저를 이곳 운주로 옮겨 성과 경계를 지키며 양산박 강도들을 막으라고 명했습니다. 길을 지나

던 중 형님께서 이곳 축가장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찾아뵈러 왔습니다. 본래 정문으로 오려 했으나, 마을 어귀와 장원 앞에 군마가 잔뜩 주둔해 있어 충돌을 피하고자 마을 길을 찾아 헤매다 작은 길을 통해 장원 뒷문으로 들어와 형님께 문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난정옥이 말했다. "요 며칠 계속 양산박 강도들과 싸우느라, 이미 그들의 두령 몇 명을 장원에 잡아 가두어 두었네. 이제 송강이라는 괴수 놈만 잡아서 관가에 압송하면 끝이라네. 다행히 아우님이 이곳을 진수하러 오셨으니, 그야말로 금상첨화요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네."

손립이 웃으며 말했다. "부족한 놈이지만, 저놈들을 잡는 데 힘을 보태 형님의 공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난정옥은 크게 기뻐하며 일행을 장원 안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다시 조교를 들어 올리고 장원의 문을 굳게 닫았다. 손립 일행은 수레와 말들을 정돈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모두 앞뜰에서 모였다. 축조봉과 축룡, 축호, 축표 세 아들이 모두 나와 일가족이 함께 마중을 나왔다. 난정옥이 손립 일행을 대청으로 안내하여 인사를 마친 뒤, 축조봉에게 말했다. "제 아우 손립은 별호가 병위지이며, 현재 등주 병마제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병부의 명을 받아 이곳 운주를 진수하러 왔습니다."

축조봉이 말했다. "나 또한 그 관할 아래에 있네."

손립이 말했다. "미천한 직책일 뿐이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조만간 축 어른의 가르침과 이끌어 주심을 바라겠습니다."

축씨 삼제는 귀한 손님들을 자리에 모셨다. 손립이 먼저 물었다. "연일 전투를 치르시느라 심신이 무척 고단하시겠습니다."

축룡이 대답했다. "아직 승패를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손님들께서도 말과 안장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손립은 곧바로 고대수에게 일러, 동서지간인 낙대낭자와 함께 두 사람이 뒷방으로 가서 집안 권속들께 인사드리게 했고, 손신, 해진, 해보를 불러 인사를 시키며 말했다. "이 세 사람은 제 형제들입니다." 이어 낙화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은 이곳 운주에서 파견된 공리(公吏, 관청 관리)입니다." 그리고 추연과 추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두 사람은 등주에서 보내온 군관들입니다."

축조봉과 세 아들이 비록 총명했으나, 손립 일행이 노인과 아이를 동반하고 수많은 짐수레와 말들을 거느리고 있는 데다 난정옥이 형제라 소개하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그들은 즉시 소를 잡고 말을 잡아 잔치를 베풀어 손님들을 대접하며 술과 음식을 나누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셋째 날이 되자, 장원의 병사들이 달려와 보고했다. "송강이 또 군마를 몰아 장원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축표가 외쳤다. "내가 직접 말을 타고 나가 저 도적 놈을 잡으리라!"

축표는 곧장 장원 문을 나서 조교를 내려놓고, 백여 명의 기마병을 거느리고 싸우러 나갔다. 그러자 곧 한 무리의 군마와 맞닥뜨렸는데, 대략 오백 명쯤 되었다. 그 선두에서 앞장서 쏟아져 나온 두령은 활을 메고 화살을 꽂은 채 말을 몰며 창을 휘두르는 '소이광' 화영이었다. 화

영을 본 축표는 말을 달려 창을 내지르며 맞붙었고, 화영 또한 말을 몰아 축표와 싸웠다. 두 사람은 독룡강 앞에서 열댓 합을 겨루었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화영이 일부러 빈틈을 보이며 말을 돌려 달아나자, 축표가 그 뒤를 쫓으려 했다. 그때 뒤에서 아는 이가 외쳤다.

"장군님, 쫓아가지 마십시오! 암기를 쓸지 모르니 조심해야 합니다. 저자는 활쏘기에 아주 능한 자입니다!"

축표는 그 말을 듣고는 말을 돌려 쫓아가지 않고 인마를 거느리고 장원으로 돌아와 조교를 들어 올렸다. 화영 또한 군사를 이끌고 물러갔다. 축표는 대청 앞에 이르러서야 말에서 내려 뒷방으로 들어가 술을 마셨다. 손립이 먼저 물었다.

"소장군께서는 오늘 어떤 도적 놈을 잡으셨습니까?"

축표가 말했다. "저놈들 무리에 '소이광' 화영이라는 놈이 있는데, 창술이 정말 대단하더군요. 쉰 합 넘게 싸우다가 그놈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내가 막 뒤쫓으려는데, 부하들이 저놈은 활쏘기에 아주 능한 자라며 만류하는 바람에 다들 군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손립이 말했다. "내일은 저의 부족한 솜씨로 저놈들을 몇 놈 잡아보겠습니다."

그날 연회에서는 낙화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니, 모든 이가 즐거워했다.

저녁 연회가 끝나고 또 하룻밤이 지났다. 넷째 날 낮 무렵, 갑자기 장원의 병사가 달려와 보고했다. "송강의 군마가 또 장원 앞에 나타났습니다!"

대청 아래에 있던 축룡, 축호, 축표 세 아들은 모두 무장을 갖추고 장원 정문 밖으로 나갔다. 멀리서 보니 이미 징과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함성과 깃발 휘두르는 소리가 요란했으며, 맞은편에는 이미 진영을 갖추고 있었다. 축조봉은 장원 문 위에 앉아 있고, 왼쪽에는 난정옥, 오른쪽에는 손 제할이 자리를 지켰다. 축씨 삼제와 손립이 데려온 많은 수행원도 양옆에 늘어섰다.

저 멀리 송강의 진영에서 '표자두' 임충이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는 것이 보였다. 축룡은 마음이 급해져서 조교를 내려놓고 창을 잡고 말에 올라타라 호통을 쳤다. 그는 백이십 명 남짓한 인마를 이끌고 크게 한 번 외치며 임충의 진영을 향해 돌진했다. 장원 문 아래에서는 북이 울려 퍼졌고, 양쪽에서는 활과 노를 들어 진영의 발을 묶었다. 임충은 장팔사모를 치켜들고 축룡과 맞붙어 서른 합 넘게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양쪽에서 징을 울리자 각자 말을 돌려 물러났다.

축호가 크게 노하여 도를 들고 말에 올라 진영 앞으로 달려가, 송강에게 결전을 신청하며 크게 외쳤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송강의 진영에서 장수 한 명이 출마했는데, 바로 '몰차란' 무홍이었다. 무홍이 축호와 맞붙어 서른 합 넘게 싸웠으나 역시 승패가 나지 않았다. 이를 본 축표가 격노하여 창을 잡고 말에 뛰어올라 이백여 명의 기마병을 이끌고 진영 앞으로 달려 나갔다. 그때 송강의 부대에서 '병관삭' 양웅이 말 한 필을 타고 창 한 자루를 휘두르며 튀어나와 축표와 맞붙었다.

손립은 두 군대가 진영 앞에서 격렬히 싸우는 것을 보고 참지 못했다. 그는 손신을 불러 자신의 편창을 가져오게 하고, 갑옷과 투구, 도포를 챙겨 입은 뒤 자신의 말을 끌고 왔다. 그가 탄 말은 '오추마'로, 안장을 얹고 세 줄의 복대를 채운 뒤 손목에는 호안강편을 매달고 창을 잡은 채 말에 올랐다. 축가장에서 징 소리가 한 번 울리자, 손립이 진영 앞으로 출마했다. 송강의 진영에 있던 임충, 무홍, 양웅도 모두 말을 멈추고 진영 앞에 섰다.

손립이 말을 몰아 달려 나가며 말했다. "내 오늘 저놈들을 잡아주마!"

손립은 말을 멈춰 세우고 호통을 쳤다. "저 도적 놈들 중에 싸움 좀 한다는 놈이 있으면 나와서 나와 결판을 내자!"

송강의 진영 안에서 방울 소리가 울리더니 말 한 필이 달려 나왔다. 사람들이 보니 바로 '박명삼랑(拚命三郎)' 석수였다. 석수가 손립과 맞붙자 두 사람 모두 창을 치켜들었다. 두 사람이 쉰 합을 싸우던 중, 손립이 일부러 빈틈을 보였다. 석수가 창을 찔러 넣는 순간, 손립은 교묘하게 공격을 피하며 석수를 말 위에서 가볍게 낚아채 장원 앞으로 끌고 갔다. 그러고는 "어서 잡아 가두어라!"라고 외쳤다.

축씨 삼제가 송강의 군마를 휘저어 흩어놓자, 도적들은 모두 달아났다. 삼제가 군사를 거두어 문루 아래로 돌아오니, 모두가 손립을 보고 손을 모아 경의를 표하며 엎드렸다. 손립이 물었다. "도적 놈을 몇 명이나 잡았습니까?"

축조봉이 대답했다. "처음에 시천을 잡았고, 그다음에는 첩자 양림을 잡았으며, 황신도 잡았습니다. 호가장의 '일장청'이 왕왜호를 잡았고, 진영에서는 진명과 등비 두 놈도 잡았습니다. 이번에 장군께서 석수까지 잡으셨으니, 저놈은 바로 내 가게를 불태운 놈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일곱 명입니다."

손립이 말했다. "한 명도 다치게 하지 마십시오. 어서 죄수 수레 일곱 대를 준비해 태우고, 술과 음식을 넉넉히 주어 몸을 보살피게 하십시오. 굶어서 죽게 되면 보기 좋지 않습니다. 훗날 송강을 잡으면 모두 도성까지 압송하여, 천하에 이 축가장의 삼제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름을 떨치게 합시다."

축조봉이 감사하며 말했다. "제할의 도움을 받은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이로 보아 양산박은 곧 멸망할 모양입니다." 그러고는 손립을 뒷방으로 초대해 연회를 베풀었다. 석수는 스스로 죄수 수레에 몸을 실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석수의 무예는 손립에 못지않게 뛰어났으나 축가장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손립에게 잡혀준 것이었다. 이를 통해 축가장 사람들이 손립을 한층 더 믿게 하려 함이었다. 한편, 손립은 몰래 추연, 추윤, 낙화를 시켜 뒷방의 문호와 출입 경로를 모두 살펴보게 했다. 양림과 등비는 추연과 추윤을 보고 속으로 기뻐했다. 낙화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동료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고대수와 낙대낭자 역시 안에서 집안의 출입 문들을 이미 다 살펴본 뒤였다.

다섯째 날이 되자, 손립과 일행은 모두 장원에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 진시(辰時, 오전 7~9시) 무렵, 아침 식사를 마쳤을 때 장원의 병사가 달려와 보고했다.

"오늘 송강이 군사를 네 갈래로 나누어 우리 장원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손립이 말했다. "열 갈래로 나눠 온들 무엇이 두렵겠느냐? 너희 수하들은 당황하지 말고 서둘러 준비나 하면 된다. 우선 갈고리와 밧줄을 마련해 두어라. 반드시 산 채로 잡아야 한다. 죽은 자를 잡아오는 것은 쳐주지 않는다."

장원의 사람들이 모두 무장을 갖추었다. 축조봉이 직접 문루에 올라가 살펴보니, 정동쪽에서 한 무리의 인마가 몰려오고 있었다. 앞장선 두령은 '표자두' 임충이었고, 그 뒤로 이준과 원소이가 따르고 있었으니 대략 오백 명 이상의 인마였다. 정서쪽에서도 오백 명 남짓한 인마가 오고 있었는데, 앞장선 두령은 '소이광' 화영이었고 그 뒤로는 장횡과 장순이 따르고 있었다. 남쪽 문루에서 바라보니 또 오백 명 정도의 인마가 보이는데, 앞장선 세 두령은 '몰차란' 무홍, '병관삭' 양웅, '흑선풍' 이규였다. 사방이 모두 병마로 둘러싸였고, 전투 북소리가 울려 퍼지며 함성이 드높았다.

난정옥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다. "오늘 저놈들의 공격은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 무리의 인마를 이끌고 뒷문으로 나가 정서북쪽에서 오는 놈들을 치겠습니다."

축룡이 말했다. "나는 앞문으로 나가 정동쪽에서 오는 놈들을 상대하겠다."

축호가 말했다. "나도 뒷문으로 나가 서남쪽에서 오는 놈들을 치겠다."

축표가 말했다. "나는 직접 앞문으로 나가 가장 중요한 적수인 송강을 잡겠다."

축조봉은 크게 기뻐하며 모두에게 술을 내렸다. 각자 말을 타고 삼백여 명의 기마병을 거느리고 장원 문 밖으로 달려 나갔고, 나머지는 장원의 문루 앞에서 함성을 지르며 자리를 지켰다. 이때 추연과 추윤은 이미 커다란 도끼를 숨긴 채 감문(監門, 죄수를 지키는 문) 왼쪽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해진과 해보 역시 암기를 숨긴 채 뒷문에서 떠나지 않았다. 손신과 낙화는 이미 앞문의 좌우를 지키고 있었다. 고대수는 먼저 군사들을 시켜 낙대낭자를 보호하게 한 뒤, 자신은 쌍도 두 자루를 들고 대청 앞을 살피며 바람 소리만 들리면 즉시 손을 쓸 태세로 기다렸다.

한편, 축가장에서 세 차례나 전투 북을 울리고 신호용 포를 쏘아 올리더니, 앞뒤 문을 모두 열고 도교를 내려놓으며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다. 네 갈래로 나뉜 군사들이 문을 나서 사방으로 흩어져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이때 손립은 십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도교 위에 버티고 섰다. 장원 안에서는 손신이 가져온 깃발을 문루 위에 높이 세웠고, 낙화는 창을 치켜들고 당당하게 싸우러 나갔다.

낙화의 함성을 들은 조연과 조윤은 휘파람을 몇 차례 불더니, 커다란 도끼를 휘둘러 감문을 지키던 장원의 병사 수십 명을 단숨에 베어 넘겼다. 이어 함정을 열어 일곱 마리의 맹수를 풀어놓고, 각자 무기를 챙겨 들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돌격했다. 고대수는 칼 두 자루를 뽑아 들고 방 안으로 들이닥쳐, 그곳에 있던 부녀자들을 하나하나 베어 넘겼다. 축조봉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우물에 뛰어들어 자결하려 했으나, 이미 석수의 칼날에 맞아 쓰러지며 목이 잘리고 말았다. 손립의 수하인 십여 명의 호걸들은 장원의 병사들을 향해 흩어져 공격을 퍼부었다. 뒷문에서는 해진과 해보가 말 먹이 더미에 불을 질렀고, 검은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았다.

사방에서 몰려온 네 갈래의 인마는 장원에 불이 난 것을 보고 힘을 합쳐 전진했다. 축호는 장원 안에 불이 난 것을 보고 먼저 말머리를 돌려 돌아왔다. 도교를 지키고 있던 손립이 크게 호통을 치며 도교를 가로막았다.

"이놈, 어디를 가느냐!"

축호는 손립의 기세에 눌려 말머리를 돌려 다시 송강의 진영 쪽으로 달려갔다. 그때 여방과 곽성이 창을 같이 휘둘러 축호와 말의 다리를 찔러 땅에 쓰러뜨렸고, 몰려든 군사들이 달려들어 축호를 갈가리 찢어 놓았다. 앞서 나가던 군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다. 손립과 손신은 송강을 맞이하며 장원 안으로 안내했다.

한편, 동쪽 길에서 임충과 끊임없이 싸우던 축룡은 장원 뒤편으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말을 몰아 달려왔다. 도교 근처에 이르니, 뒷

문에서 해진과 해보가 장원 사람들의 시체를 하나하나 불길 속으로 던져 넣고 있었다. 축룡이 급히 말머리를 돌려 북쪽으로 도망치려는데, 돌연 '흑선풍' 이규와 맞닥뜨렸다. 이규가 몸을 날려 다가와 쌍도끼를 휘두르며 축룡의 말 다리를 단숨에 베어 버렸다. 축룡이 미처 손쓸 틈도 없이 말에서 떨어지자, 이규가 단번에 도끼를 휘둘러 그의 머리를 땅바닥에 박살 내 버렸다.

축표는 장원 병사로부터 급보를 듣고는 감히 돌아가지 못하고 곧장 호가장으로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호성에게 붙잡혀 포박된 채 송강에게 끌려가게 되었다. 마침 그곳에서 이규를 만난 축표는 도끼 한 방에 머리가 잘려 나갔고, 이를 본 장원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이규가 다시 쌍도끼를 휘두르며 호성을 베려 하자, 호성은 상황이 좋지 않음을 깨닫고 말을 달려 황급히 도망쳤다. 그는 집을 버리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연안부로 달아났는데, 훗날 그곳에서 군관이자 무장이 되었다.

한편, 이규는 한창 기세등등하게 싸우던 중 그대로 호가장으로 들이닥쳤다. 그는 호가장의 어른인 호태공의 일가족 노소(老少)를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몰살했다. 이어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장원에 있는 말들을 모두 끌어내게 하고, 장원의 온갖 재물을 사오십 바리(馱)가량 실은 뒤 장원 전체에 불을 질러 버리고는, 그 전리품들을 챙겨 돌아와 송강에게 바쳤다.

한편, 송강은 이미 축가장의 정청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여러 두령이 모두 몰려와 공을 보고했는데, 사오백 명의 포로를 생포하고 좋

은 말 오백여 필을 빼앗았으며, 소와 양은 셀 수도 없이 많이 잡아 왔다. 송강은 이 광경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난정옥 같은 호걸을 죽인 것이 참으로 아쉽구나."

송강이 탄식하고 있을 때, 누군가 달려와 보고했다.

"흑선풍 이규가 호가장에 불을 지르고, 머리를 베어 와서 바치고 있습니다!"

송강이 즉시 물었다.

"엊그제 호성이 이미 항복하러 왔거늘, 누가 그를 죽이라 하였느냐? 어찌하여 그의 장원에 불을 질렀단 말이냐?"

이규는 온몸이 피칠갑이 된 채 허리에 쌍도끼를 꽂고 송강 앞에 나타나더니, 크게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축룡은 이 아우가 죽였고, 축표 또한 이 아우가 베었습니다! 호성 그놈은 도망쳤지만, 호태공 일가는 모조리 깨끗하게 몰살했습니다. 이 아우가 공을 세웠으니 보고하러 왔습니다!"

송강이 꾸짖었다.

"축룡은 누군가 네가 죽였다고 말하던데, 다른 이들은 어째서 다 네가 죽였단 말이냐?"

이규가 대답했다.

"한창 손을 써서 죽이는 중이라 호가장으로 달려가는데, 마침 '일장청' 형님이 축표를 끌고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끼로 단번에 베어 버렸습니다. 다만 호성 그놈이 도망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그 집안사람들은 제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습니다."

송강이 다시 호통을 쳤다.

"이놈아, 누가 너더러 가라고 했느냐! 호성이 엊그제 술을 메고 와서 항복한 것을 너도 알 텐데, 어찌 내 말을 듣지 않고 멋대로 가서 그 일가를 죽여 나의 군령을 어겼느냐?"

이규가 말했다.

"형님은 잊으셨을지 몰라도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놈의 계집이 엊그제 형님을 죽이려고 몰아세우더니, 이제 와서 형님이 인정을 베푸시는군요. 형님은 그 여동생과 혼인한 것도 아니면서 벌써 장인어른이며 처가 식구 걱정을 하십니까?"

송강이 소리쳤다.

"이 철우 같은 놈아, 함부로 말하지 마라! 내가 어찌 그 여자를 원하겠느냐? 다 내 처분이 있다. 이 검은 놈아, 생포해 온 포로는 몇 명이나 되느냐?"

이규가 대답했다.

"귀찮게 무슨 생포입니까, 보이는 족족 다 베어 버렸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네놈이 내 군령을 어겼으니 본래 참형에 처해야 마땅하나, 축룡과 축표를 죽인 공으로 대신 갈음하겠다. 다음에 또 군령을 어기면 그때는 절대로 용서치 않으리라."

이규가 웃으며 말했다.

"비록 공은 깎였어도, 죽이는 맛만큼은 정말 끝내주었습니다!"

이때 군사 오용이 일행을 거느리고 장원으로 올라와 송강과 함께 술잔을 나누며 축하를 올렸다. 송강이 오용과 의논하기를, 축가장의 마을 전체를 샅샅이 뒤져 약탈하고 파괴하려 하였다. 그러자 석수가 나서서 말했다.

"종리 노인은 인덕이 깊은 사람입니다. 길을 안내하여 큰 충성심을 구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선량한 백성들이 마을에 섞여 있는데, 어찌 이 같은 좋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송강은 그 말을 듣고 석수에게 그 노인을 찾아오라고 일렀다. 석수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종리 노인을 데리고 돌아와 송강과 오용에게 절을 올렸다. 송강은 금과 비단을 한 꾸러미 챙겨 노인에게 상으로 내리며, 마을 사람들을 영원히 살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노인, 당신의 얼굴을 봐서 이번에 이 마을을 모조리 털어버리려던 계획을 접고 한 집안도 남기지 않으려던 마음을 거두겠소. 당신 일가가 선을 행하였기에, 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용서해 주기로 했소."

종리 노인은 그저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올릴 뿐이었다. 송강이 다시 말했다.

"내가 요 며칠 이곳에서 백성들을 괴롭혔으나, 오늘 축가장을 격파한 것은 마을의 해악을 제거한 것이오. 모든 가구에 쌀 한 섬씩을 나누어 줄 테니,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오."

송강은 종리 노인을 앞세워 쌀을 나누어 주게 하고, 한편으로는 축가장에서 남은 식량을 모두 수레에 실었다. 금은보화와 재물은 삼군 장수들에게 포상으로 내렸고, 나머지 소와 양, 나귀와 말 등은 산으로 가져가 군량으로 쓰기로 했다. 축가장을 격파하여 얻은 식량은 무려 50만 섬에 달했으니, 송강은 크게 기뻐했다.

크고 작은 두령들이 군마를 챙겨 일어날 채비를 했다. 이때 손립, 손신, 해진, 해보, 추연, 추윤, 악화, 고대소와 함께 구출된 일곱 명의 호걸이 새로 합류하였다. 손립 일행은 자신들의 말과 재물, 그리고 노소와 악대낭자를 데리고 대군을 따라 산으로 향했다. 길가에는 마을 사람들이 노인과 아이들을 부축하고 향과 꽃, 등불을 들고 나와 길 위에서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송강과 장수들이 일제히 말에 올라타 군사를 세 부대로 나누어 진을 쳤다. 앞선 부대는 등자를 두드리며 나아가고, 후방 부대는 일제히 승전가를 불렀으니, 바로 이러하였다.

도둑이라 하면 비범한 도둑이요, 강적이라 하면 참으로 강력한 강적이로다. 다만 악을 멸하고 흉악한 무리를 제거하려다 보니, 집을 털고 재물을 뺏는 도적의 길을 걷게 되었구나. 지방의 토호들이 백성을 핍박

함을 한탄하던 이들이, 의로운 선비가 나타나 구제함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도다.

수많은 호랑이는 정이 있어, 닭을 훔치고 개를 낚는 이를 구하려 하나
홀로 있는 용은 힘이 없어, 날아오르는 호랑이가 독수리를 덮치는 것을 막지 못하네.
정성껏 만 가지 양식을 준비해, 수중의 못들을 모두 채우고
수많은 사람과 가축을 잃으며, 양산은 짓밟혀 무너지네.

이야기는 또 다른 갈래로 흐른다. 한편, '박천조' 이응은 화살 맞은 상처가 겨우 나아 문을 걸어 잠그고 장원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는 몰래 사람을 보내 축가장의 소식을 살피게 하였는데, 축가장이 송강에게 격파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하였다. 그때 장원의 하인이 급히 들어와 보고하기를, 이 고을의 지부가 삼오십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장원으로 들이닥쳐 축가장의 일을 묻고 있다고 하였다.

이응은 황급히 두흥에게 일러 장문을 열고 다리를 내리게 하여 지부 일행을 맞이하게 했다. 이응은 흰 비단 천을 어깨에 두르고 손을 감싼 채 직접 나가 지부를 맞이하며 장원 안의 앞뜰로 안내하였다. 지부는 말에서 내려 대청에 이르자 중앙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옆에는 공목(孔目)이 앉아 있었고, 그 아래에는 압번(押番) 한 명과 여러 우후(虞候, 군관 직책)들이 있었으며, 계단 아래에는 수많은 하급 관리와 죄수들이 가득했다. 이응이 절을 올리고 대청 앞에 서자 지부가 물었다.

"축가장이 격파당한 일이 어찌 된 일인가?"

이응이 대답했다.

"소인은 축표에게 화살을 맞아 왼팔을 다치는 바람에 줄곧 문을 닫아걸고 나가지 못하여,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합니다."

지부가 꾸짖었다.

"허튼소리 마라! 축가장 측에서 이미 장계를 올려, 네놈이 양산박의 강도들과 결탁하여 그들의 군마를 유인하고 장원을 격파했다고 고발했다. 게다가 며칠 전에는 그들로부터 안장과 말, 양과 술, 비단, 금은 보화를 받았으니, 네가 어찌 책임을 피하겠느냐?"

이응이 항변했다.

"소인은 법도를 아는 사람인데, 어찌 감히 그들의 물건을 받겠습니까?"

지부가 말했다.

"네 말을 믿기 어렵구나. 일단 관아로 압송할 테니, 가서 그들과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지부가 명령하자 옥졸과 죄수들이 이응을 붙잡아 고을로 압송하려 했다. 압번과 우후들이 이응을 묶자, 사람들은 지부를 에워싸고 말에 올랐다. 지부가 다시 물었다.

"저기 있는 주관이 두흥인가?"

두흥이 대답했다.

"소인이 맞습니다."

지부가 말했다.

"장계에 네 이름도 적혀 있으니 함께 데려가서 그놈과 같이 묶어라."

일행이 장문을 나섰다. 당시 이응과 두흥을 붙잡아 이가장을 떠난 일행은 쉬지 않고 길을 재촉했다. 서른 리쯤 갔을까, 숲 근처에서 송강, 임충, 화영, 양웅, 석수 일행이 나타나 길을 가로막았다. 임충이 크게 호통을 쳤다.

"양산박의 호걸들이 여기 다 모였다!"

지부 일행은 감히 맞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이응과 두흥을 내팽개친 채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달아났다. 송강이 뒤쫓으라고 소리쳤으나, 사람들이 한참을 쫓아간 뒤 돌아와 말했다.

"우리가 따라잡았을 때는 그 빌어먹을 지부 놈을 죽여버렸겠지만,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응과 두흥의 포박을 풀어주고 자물쇠를 열어준 뒤, 말 두 마리를 끌고 와 그들에게 태워 주었다. 송강이 말했다.

"대관인께서는 일단 양산박으로 올라가 잠시 몸을 피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응이 말했다.

"그건 안 됩니다. 지부를 죽인 것은 당신들이니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송강이 웃으며 말했다.

"관가와의 송사에서 어찌 그렇게 따지시겠습니까? 저희와 함께 가면 반드시 대관인께 폐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정 양산박의 도적질에 가담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우선 산채에서 며칠 머물며 별일 없는지 살펴본 뒤에 내려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결국 이응과 두흥은 송강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대군을 따라 산으로 향하게 되었다. 일행은 무사히 양산박으로 돌아왔다. 산채에서는 조개를 비롯한 두령들이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며 산 아래로 마중을 나왔다. 환영의 술을 대접한 뒤 모두 대채의 의리청으로 올라가 둥글게 둘러앉았다. 이응을 모셔와 여러 두령과 인사하게 했다. 예를 갖춘 뒤 이응이 송강에게 아뢰었다.

"저희 두 사람이 장군을 모시고 산채에 잘 도착했습니다. 두령님들과도 인사를 나누었으니 여기서 시중을 들어도 되겠지만, 다만 집안의 노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걱정입니다. 괜찮다면 소인이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용이 웃으며 말했다.

"대관인, 말씀이 틀렸습니다! 가족분들은 이미 모두 산채로 모셔왔습니다. 대관인의 장원은 이미 불타서 빈터가 되었는데, 이제 와서 어디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이응은 믿기지 않는 듯했으나, 곧이어 수레와 말들이 줄지어 산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이응이 살펴보니 바로 자신의 장원 식구들과 노소들이었다. 이응이 급히 다가가 물으니 아내가 말했다.

"당신이 지부에게 붙잡혀간 뒤에, 순검 두 명과 도두 네 명, 그리고 삼백 명의 병사가 들이닥쳐 집안 살림을 샅샅이 뒤졌어요. 우리를 수레에 태우고 집안의 상자며 가구, 소와 양, 말과 나귀까지 모조리 가져갔답니다. 그러고는 장원에 불을 질러 다 태워버렸어요."

이응은 그 말을 듣고 괴로워하며 탄식할 뿐이었다. 조개와 송강이 대청 아래로 내려와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우리 형제들이 대관인의 덕망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이런 계책을 세웠으니,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응은 그들의 태도를 보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송강이 말했다.

"가족분들은 우선 별채에 모셔 안치하겠습니다."

이응은 대청 앞뒤로 수많은 두령의 가족들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내에게 말했다.

"그들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겠구려."

송강 일행은 그들을 대청 앞으로 모셔 이야기를 나누며 크게 기뻐했다. 송강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대관인, 제가 순검 두 명과 지부 놈을 불러와 인사하게 해 드리지요."

지부 역할을 하던 이는 소양이었고, 순검 역할을 한 두 명은 대종과 양림이었다. 공목 역할을 한 이는 배선이었으며, 우후 역할을 한 이는 금대견과 후건이었다. 또한 도두 네 명은 이준, 장순, 마린, 백승이었다. 이응은 이들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송강이 소두목들에게 명령하여 소를 잡고 말을 잡아 대관인과 대접하게 하였으니, 이는 새로 합류한 열두 명의 두령—이응, 손립, 손신, 해진, 해보, 추연, 추윤, 두흥, 악화, 시천과 여두령 호삼낭, 고대소—을 축하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악대낭자와 이응의 가족들을 위해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여 후당에서 술을 마시게 했다. 삼군 전체에 포상이 내려졌다. 대청에서는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드높았고, 수많은 호걸이 밤늦도록 술을 마신 뒤에야 흩어졌다. 새로 온 두령들은 각자 방을 배정받아 안정을 취했다.

다음 날, 다시 잔치를 베풀어 여러 두령을 초대하였다. 송강이 왕왜호를 불러 말하였다.

"내가 예전에 청풍산에 있을 때 자네에게 혼처를 약속하고는, 마음 한구석에 늘 짐처럼 걸려 있어 차마 이 소원을 이루지 못했네. 오늘 내 아버지께 딸이 한 분 계시니, 자네를 사위로 맞이하려 하네."

송강은 직접 송 태공을 모셔 오고, '일장청' 호삼낭을 연회석 앞으로 인도하였다. 송강이 직접 그와 마주 앉아 말을 이었다.

"내 형제인 왕영이 비록 무예는 있으나 현매(賢妹)에게는 미치지 못하네. 내가 예전에 그에게 혼처를 약속해 놓고 줄곧 이루어주지 못했지. 오늘 현매가 내 아버지를 의부로 모시게 되었으니, 여기 계신 두령들이 모두 중매쟁이가 되어주는 셈이네. 오늘은 마침 길일이니, 현매가 왕영과 부부의 연을 맺게나."

일장청 호삼낭은 송강의 의리가 이토록 깊은 것을 보고는 거절할 수 없어, 두 사람은 절을 올리며 감사를 표할 수밖에 없었다. 조개를 비롯한 모든 이들이 기뻐하며 송공명이 참으로 덕과 의를 갖춘 선비라고 칭송하였다. 그날 모두가 잔치를 벌이며 술을 마시고 축하하였다.

한창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산 아래에서 사람이 올라와 보고하였다.

"주귀 두령의 주막에 운성현 사람이 한 명 와 있는데, 두령님들을 뵙고자 합니다."

조개와 송강은 그 보고를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그 은인이 직접 산으로 올라와 우리와 함께하게 된다면, 평생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로다!"

시로 이르되,

원한과 은혜를 가리지 못하면 호걸이라 할 수 없고, 흑백을 분명히 가릴 줄 알아야 참된 대장부라 하리라.

결국 운성현에서 온 사람이 누구인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51회 — 삽치호가 백수영을 곤장으로 때리고, 미염공이 소아내를 놓치다

插翅虎枷打白秀英 美髯公誤失小衙內

이야기는 이러하다. 송강이 '일장청' 왕영과 부부로 맺어주자, 사람들은 모두 송강의 인덕이 높다며 칭찬했고 그날 다시 잔치를 열어 축하했다. 한창 술잔을 기울이던 중, 주귀의 주막에서 사람 하나가 산 위로 올라와 급히 보고했다. "임자 앞 큰길로 손님 한 무리가 지나가는데, 저희 애들이 길을 막고 세워보니 그중에 운성현의 도두(都頭) 뇌횡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주 형님께서 꼭 붙들어서 지금 가게에서 정해진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있으니, 우선 소식을 전합니다."

조개와 송강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즉시 군사 오용까지 셋이서 산을 내려가 맞이했다. 주귀는 서둘러 배를 보내 금사탄에 닿게 했다. 송강은 뇌횡을 보자 황급히 절을 하며 말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늘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누추한 곳을 지나게 되셨습니까?"

뇌횡도 급히 답례하며 말했다. "현의 명을 받고 동창부로 공무를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길목에서 저희 부하들이 통행료를 내라고 가로막기에 제 이름을 대었더니, 주 형님께서 완강히 붙잡으시더군요."

송강이 말했다. "이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송강은 그를 양산박으로 모셔와 모든 두령과 인사하게 하고 술을 대접하며 극진히 대접했다. 뇌횡은 닷새 동안 머물며 매일 송강과 담소를 나누었다. 그러다 조개가 주동의 소식을 묻자 뇌횡이 대답했다. "주동은 지금 현의 옥을 관장하는 절급(節級, 옥졸 우두머리)이 되었는데, 새로 부임한 지현이 그를 무척 예뻐합니다."

송강이 은근히 말을 돌려 뇌횡에게 양산박에 들어와 함께하자고 권하자, 뇌횡은 노모가 연세가 많아 함께 떠날 수 없다며 사양했다. 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해 보낸 뒤에 반드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다. 뇌횡이 곧바로 작별 인사를 하고 산을 내려가려 했으나, 송강 일행이 거듭 붙잡아도 소용이 없었다. 여러 두령이 각자 금과 비단을 선물로 주었는데, 송강과 조개는 말할 것도 없었다. 뇌횡은 금은이 가득 담긴 큰 보따리를 챙겨 산을 내려갔다. 모든 두령이 길목까지 배웅하며 작별을 고했고, 배로 큰길까지 건네주니 뇌횡은 다시 운성현으로 돌아갔다.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멈춘다.

한편, 조개와 송강이 양산박으로 돌아와 취의청에 모인 뒤, 군사 오용에게 산채의 직제를 정하도록 청하였다. 오용은 이미 송강과 상의하

여 결정을 내려두었기에, 이튿날 여러 두령을 모아놓고 명령을 내렸다.

먼저 바깥의 주막들을 지킬 두령들을 배정했다. 송강이 말했다. "손신과 고대소는 원래 주막을 운영하던 집안이니, 부부 두 사람이 동위와 동맹을 대신하게 하여 그들을 따로 쓰게 하라."

이어 시천은 석용을 돕게 하고, 악화는 주귀를 돕게 했으며, 정천수는 이립을 돕게 했다. 동서남북 네 곳의 주막에서 술과 고기를 팔며 사방에서 찾아오는 호걸들을 맞이하게 하되, 각 주막에는 두 명의 두령을 두기로 했다.

'일장청'과 '왜각호' 왕영은 뒷산 아래에 진을 치고 말들을 관리하게 했다. 금사탄의 작은 진영은 동위와 동맹 형제가 지키게 했고, 압지탄의 작은 진영은 추연과 추윤 숙질이 지키게 했다. 산 앞 큰길에는 황신과 연순이 이끄는 기마대가 진을 치고 수호하게 했으며, 해진과 해보가 산 앞 첫 번째 관문을 지키게 했다. 두천과 송만은 완자성의 두 번째 관문을, 유당과 목홍은 양산박 입구의 세 번째 관문을 지키게 했다. 완가 삼형제는 산 남쪽 수책을 지키게 했고, 맹강은 계속해서 전선을 건조하게 했다.

이응, 두흥, 장경은 산채의 돈과 식량, 금과 비단을 총괄하게 했으며, 도종왕과 설영은 양산박 안의 성벽과 안태(雁臺)를 쌓도록 감독하게 했다. 후건은 의복과 갑옷, 깃발, 전투복을 전담하게 했고, 주부와 송청은 잔치와 음식을 맡게 했다. 목춘과 이운은 가옥과 울타리 건설을 감독하게 했으며, 소양과 금대견은 각종 손님 접대와 서신, 공문서를

관리하게 했다. 배선은 군정사로서 공을 세운 자에게 상을 주고 죄를 지은 자를 벌하는 일을 전담하게 했다.

그 외에 여방, 곽성, 손립, 구붕, 마린, 등비, 양림, 백승은 양산박의 여덟 방면에 나누어 배치되어 머물게 했다. 조개, 송강, 오용은 산 정상의 본진에 머물고, 화영과 진명은 산 왼쪽 진영에, 임충과 대종은 산 오른쪽 진영에 머물렀다. 이준과 이규는 산 앞에, 장횡과 장순은 산 뒤에 자리를 잡았으며, 양웅과 석수는 취의청 양옆을 지키게 했다.

이처럼 두령들의 직책 배정이 모두 끝나자, 매일 한 명의 두령이 돌아가며 잔치를 베풀어 축하하니 산채의 체계가 매우 정연하고 가지런했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우뚝 솟은 높은 성채는 물 한가운데 있고,
직분을 나누어 맡아 각자 소임을 다하네.
다만 조정에 다스릴 임금이 없기에,
풀숲과 늪지에서 기세 높게 솟구치네.

한편, 뇌횡은 양산박을 떠나 보따리를 짊어지고 박도를 든 채 길을 재촉하여 운성현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해 노모를 뵙고 옷을 갈아입은 뒤, 회신 공문을 챙겨 들고 곧장 관아로 가서 지현을 알현했다. 보고를 마치고 공문과 서류를 정리한 뒤 집으로 돌아가 잠시 쉬었다. 그는 여느 때처럼 매일 관아에 출근부를 적으며 명령을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관아 동쪽 끝을 지나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도두님, 언제 돌아오셨습니까?" 뇌횡이 고개를 돌려보

니 운성현의 한량 식객(幫閒)인 이소이였다. 뇌횡이 대답했다. "엊그제 막 집에 돌아왔네."

이소이가 말했다. "도두님께서 자리를 비우신 지 꽤 되었는데, 최근에 동경에서 새로 흘러들어온 떠돌이 예인(行院)이 하나 있습니다. 미모와 재주가 모두 뛰어나 백수영이라 하는데, 그 아이가 도두님을 뵈러 왔을 때 마침 공무로 자리를 비우셨지요. 지금은 구란(勾欄, 공연장)에서 온갖 가락의 노래와 이야기를 선보이고 있는데, 매일 막간 놀이로 춤을 추거나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를 때마다 구경꾼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도두님께서도 가서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기생입니다!"

뇌횡은 마침 한가하던 차라 이소이와 함께 곧장 구란으로 향했다. 입구에는 금색 글씨로 쓴 간판이 많이 걸려 있고, 깃대에는 사람 키만 한 등받이 장식이 매달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간 뇌횡은 청룡두(靑龍頭)라 불리는 상석 첫 번째 자리에 앉았다. 무대 위에서는 웃음을 자아내는 원본(院本) 연극이 한창이었다. 이소이는 사람들 틈에서 뇌횡을 떼어놓고는, 자신은 밖으로 나가 두뇌탕(頭腦) 한 그릇을 먹으러 갔다.

연극이 끝나자, 머리에 두건을 두르고 갈색 비단 적삼에 검은 띠를 두른 노인이 부채를 들고 올라와 외쳤다. "이 늙은이는 동경 사람으로, 바로 백옥교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딸 수영이의 노래와 춤, 악기 연주에 의지해 천하의 관객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징 소리가 울리자 백수영이 무대 위로 올라와 사방에 절을 올렸다. 그녀는 징채를 콩을 뿌리듯 경쾌하게 두드려 한바탕 울린 뒤, 박자판을

한 번 탁 치고는 칠언시 네 구절을 읊조리고 말했다. "오늘 수영이 간 판에 분명히 적어 둔 이 이야기는 풍류가 넘치고 운치 있는 격식의 이야기로, '예장성에서 쌍점(雙漸)이 소경(蘇卿)을 쫓는 대목'이라 하옵니다."

말을 마친 뒤 노래를 시작하고, 노래가 끝나면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니, 무대 가득한 구경꾼들이 연신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다. 뇌횡이 위에서 그 여인을 바라보니, 과연 미모와 재주가 모두 뛰어났다.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비단옷은 쌓인 눈처럼 희고 눈부시며, 보석으로 장식한 머리는 뭉게구름처럼 풍성했다. 앵두 같은 입술에 살구빛 얼굴과 복숭아빛 뺨을 지녔고, 버들가지 같은 허리에 난초 같은 마음과 혜초(蕙) 같은 성품을 지녔다. 노랫소리는 구슬 구르듯 감미로워 나뭇가지 위 꾀꼬리 울음 같고, 춤사위는 사뿐히 너울거려 꽃 사이를 노니는 봉황의 그림자 같았다. 가락은 옛 곡조를 따르고 소리는 자연에서 우러나오니, 높낮이와 완급을 궁상(宮商)의 음률에 맞추고, 강약과 빠르기를 격식에 맞추었다. 자죽(紫竹) 피리 소리는 곡마다 비단결 같고, 홍아판(紅牙板) 장단을 치니 글자마다 새롭구나.

백수영이 노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백옥교가 박자를 짚으며 외쳤다. "비록 말을 사거나 돈을 거는 재주는 없어도, 사람을 알아보는 총명한 분이 계셔야 하는 법입니다. 관객 여러분께서 충분히 즐기셨다 하시니, 내 딸아 잠시 내려왔다 오너라. 그러면 북 장단을 곁들인 원본(院本) 연극이 이어질 것이다."

백수영은 쟁반을 들어 올리며 가리켜 말했다. "재물의 문에서 일어나, 이익의 땅에 머물고, 길운의 땅을 지나, 번창하는 땅으로 다니다가, 손님 앞에 이르거든 부디 빈손으로 지나치게 하지 마옵소서."

백옥교가 다시 말했다. "내 딸아, 한 바퀴 돌아보거라. 관객들이 모두 너에게 상을 내려 주실 게다."

백수영은 쟁반을 받쳐 들고 먼저 뇌횡 앞으로 다가갔다. 뇌횡이 품속 주머니를 뒤졌으나 뜻밖에도 단돈 한 푼도 없었다. 뇌횡이 말했다. "오늘 깜빡하고 돈을 챙겨 나오지 못했구나. 내일 한꺼번에 상을 내리마."

백수영이 웃으며 말했다. "'첫 식초가 진하지 않으면 끝까지 묽다'고 하지요. 나으리께서 상석에 앉아 계시니, 어디 첫 상(標首) 하나라도 내어 보시지요."

뇌횡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했다. "내가 잠시 돈을 가져오지 못한 것이지,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다."

백수영이 말했다. "노래를 들으러 오셨으면서 어찌 돈 챙기는 걸 잊으셨습니까?"

뇌횡이 말했다. "은자 서너 냥을 상으로 준다 해도 대수롭지 않거늘, 오늘 가져오지 못한 게 한스러울 뿐이다."

백수영이 말했다. "나으리께서는 오늘 단 한 푼도 없으면서 어찌 은자 서너 냥을 말씀하십니까? 그야말로 저더러 '매실을 바라보며 갈증을 달래고, 그림의 떡으로 배를 채우라'는 격이 아닙니까."

그러자 백옥교가 소리쳤다. "내 딸아, 네가 눈이 없구나. 성안 사람인지 시골 사람인지 가리지도 않고 어찌 저 사람에게만 졸라 대느냐? 저쪽으로 가서 사정을 잘 아는 후한 손님께 첫 상(標首)이나 청해 보거라."

뇌횡이 말했다. "내가 어찌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냐?"

백옥교가 비아냥거렸다. "네가 만약 이 광대 바닥의 법도를 안다면, 개 대가리에 뿔이 돋았을 게다!"

사람들이 일제히 맞장구를 쳤다. 뇌횡은 크게 분노하여 욕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나를 모욕하다니!"

백옥교가 맞받아쳤다. "두메 촌구석에서 소나 모는 놈을 좀 욕했기로서니, 그게 무슨 대수란 말이냐?"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소리쳤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분은 우리 현의 뇌 도두님이십니다." 백옥교가 말했다. "그저 나귀 힘줄 대가리 같은 놈이겠지." 뇌횡이 어찌 이를 참을 수 있겠는가. 그는 앉았던 의자에서 곧장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백옥교를 붙잡고 주먹질 발길질을 해대니, 입술이 터지고 이가 빠질 지경이었다. 사람들이 험하게 때리는 것을 보고 모두 달려들어 둘을 떼어놓고는 뇌횡에게 그만 돌아가라 권했다. 구란 안의 사람들도 한바탕 소란 끝에 모두 흩어졌다.

알고 보니 백수영은 새로 부임한 지현과 예전 동경(東京)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오늘 특별히 운성현에 공연장을 연 것이었다. 백수영은 아버지가 뇌횡에게 맞고 중상을 입은 것을 보자마자 가마를 불러 지현의 관아로 곧장 달려갔다. 그녀는 뇌횡이 아버지를 폭행하고 공연장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며, 자신을 속이려 했다고 고발했다. 지현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말했다. "어서 장계를 써 오너라." 이 백수영은 이른바 '침상 곁의 영물(枕邊靈, 지현의 총애를 받는 여인)'이라 불리는 자였다. 지현은 백옥교에게 장계를 쓰게 하고, 상처를 확인한 뒤 증인까지 세우게 했다. 현의 관리들 중 뇌횡과 친한 이들이 많아 지현에게 가서 손을 써보려 했으나, 저 여인이 관아를 딱 지키고 앉아 애교를 부리며 매달리니 지현이 어찌 마음을 돌릴 수 있겠는가. 지현은 즉시 사람을 보내 뇌횡을 잡아 오게 하여 관아 마당에서 매질을 가한 뒤, 자백을 받아내고 칼(枷)을 씌워 저잣거리에 끌고 나가 망신을 주라고 명령했다. 백수영은 기세를 몰아 다시 지현을 찾아가 뇌횡을 공연장 입구에 묶어두라고 끈질기게 요구했다. 이튿날, 백수영이 다시 공연을 열자 지현은 결국 뇌횡을 공연장 문앞에 세워두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곳을 지키는 금자(禁子, 관아의 하급 관리나 포졸)들은 모두 뇌횡과 같은 관리 계층이었으니, 어찌 그를 함부로 대하겠는가. 백수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미 소문이 다 퍼져 어쩔 도리가 없으니 그저 분할 따름이었다. 그녀는 공연장을 나와 찻집에 앉아 금자들을 불러다가 말했다. "당신들도 저자와 친분이 있으면서 어찌 저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가? 지현 사또께서 저자를 엄하게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당신들이 인심을 쓰고 있구나. 조금 뒤에 내가 지현 사또께 말하면 당신들도 무사할 것 같으냐?" 금자들이 말했다. "낭자, 노여워 마십시오. 저희가 알아서 저자를 다스리겠습니다." 백수영이 말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돈을 상으로 주겠소." 금자들은 하는 수 없이 뇌횡에게 가서 말했다. "형님, 어쩔 수가 없으니 대충 좀 당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뇌횡을 길거리에 내팽개치듯 망신을 주었다.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는 사이, 마침 뇌횡의 어머니가 밥을 가져다주러 왔다가 아들이 길거리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금자들을 향해 꾸짖었다. "너희도 내 아들처럼 관아를 드나드는 사람들인데, 돈이면 다 되는 것이냐! 누가 너희가 계속 무사할 줄 아느냐?"

금자들이 대답했다. "할머니, 저희도 사정을 봐주려 했습니다만, 원고가 직접 여기 서서 저자를 다스리라고 못을 박고 있으니 저희로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조만간 지현 사또께 말씀드려 저희를 괴롭힌 대가를 치르게 할 테니, 그때 가서 면목이 없어도 원망 마십시오."

노모가 말했다. "원고가 직접 피고를 감시하며 망신을 주라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냐!"

금자들이 다시 나지막이 말했다. "할머니, 저 여자가 지현 사또와 워낙 가깝다 보니 말 한마디면 저희 목줄을 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도 난처할 따름입니다."

노모는 욕설을 내뱉으며 직접 뇌횡의 결박을 풀어주기 시작했다. "저 천한 년이 권세에 업조하여 저렇게 날뛰다니! 내가 일단 이 줄부터 풀어줄 테니, 두고 보자, 저놈이 이제 어찌 되는지!"

이 광경을 찻집에서 듣고 있던 백수영이 다가와 물었다. "저 노파가 대체 뭐라고 떠드는 것이냐?"

노모가 곱게 대답할 리 없었다. 그녀는 백수영을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다. "이 천하의 걸레 같은 년아, 어디서 감히 나한테 욕질이냐!"

백수영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썹을 치켜세우고 눈을 부릅뜨며 크게 소리쳤다. "이 망할 노파야! 가난한 노인네나 괴롭히는 천한 년이 감히 누구더러 욕을 한단 말이냐!"

노모가 대들었다. "내가 욕을 하면 어쩔 테냐? 네가 설마 운성현 지현이라도 된단 말이냐?"

백수영은 크게 분노하여 단숨에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노모를 후려쳤고, 노모는 비틀거렸다. 노모가 다시 저항하려 하자, 백수영은 다시 달려들어 연신 뺨을 때리며 매질을 퍼부었다.

한편, 뇌횡은 효심이 지극한 사람이었다. 어머니가 매 맞는 것을 본 그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 쓰고 있던 칼(枷)을 움켜쥐고는 백수영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칼의 끝부분이 백수영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아 두개골이 깨졌고, 그녀는 그대로 땅바닥에 고꾸라졌다. 구경꾼들이 보니 백수영은 머리에서 뇌수가 흘러나오고 눈알이 튀어나온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누가 보아도 죽은 것이 분명했다.

사람들은 백수영이 맞아 죽은 것을 보고 뇌횡을 결박해 다 함께 관아로 가서 고발하고, 지현에게 앞서의 일을 자세히 아뢰었다. 지현은 즉시 사람을 보내 뇌횡을 끌어내리고, 검시 관원을 불러 모으고 이정

(里正, 마을 우두머리)과 이웃 사람들을 소환하여 시신 검시를 마친 뒤 모두 관아로 압송해 돌아왔다. 뇌횡은 모든 사실을 순순히 자백하며 조금도 부인하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보증을 서고 집으로 돌아가 처분을 기다리게 했다. 뇌횡은 칼(枷)이 씌워진 채 옥에 갇혔다.

옥을 관장하는 절급(節級)은 바로 미염공 주동이었다. 그는 뇌횡이 옥에 내려온 것을 보았으나 딱히 어찌할 도리가 없어, 그저 술과 음식을 마련해 대접하고 하급 옥졸을 시켜 깨끗한 방 한 칸을 치우게 한 뒤 뇌횡을 들여놓았다. 잠시 후 뇌횡의 어머니가 옥에 밥을 가져왔다가 울며 주동에게 애원했다. "이 늙은 몸이 어느덧 예순이 넘었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곤 이 자식 하나뿐입니다. 부디 절급 형님께서 평소 형제처럼 지낸 정을 보아, 가엾은 이 자식을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주동이 말했다. "할머니, 부디 안심하고 돌아가십시오. 앞으로 음식은 가져오지 않으셔도 제가 알아서 챙기겠습니다. 혹 방도가 생기면 반드시 구해 주겠습니다."

뇌횡의 어머니가 말했다. "형님께서 제 자식을 구해 주신다면 다시 낳아 주신 부모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제 자식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이 늙은 몸의 목숨도 그것으로 끝입니다."

주동이 말했다. "제가 마음에 단단히 새겨 둘 터이니, 할머니께서는 염려 마십시오." 노파는 절하여 감사하고 돌아갔다.

주동은 하루 종일 궁리했으나 그를 구할 방도가 없었다. 그래서 주동은 사람을 시켜 지현에게 청을 넣고 위아래로 인정을 써 보았다. 그러나 지현은 주동을 아끼기는 했어도, 뇌횡이 자기가 데리고 살던 여인

백수영을 때려죽인 일만은 미워하여 그 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게다가 백옥교가 끈질기게 몰아붙이며 문안을 겹겹이 꾸며 지현에게 뇌횡을 목숨으로 갚게 하라고 다그쳤다. 그리하여 옥에 갇힌 지 예순 날이 되어 기한이 차자 판결이 내려져 제주(濟州)로 압송하게 되었는데, 사건을 맡은 압사(押司, 문서를 담당하는 아전)가 문서를 안고 먼저 떠나고, 주동이 뇌횡을 압송해 가게 되었다.

주동은 열댓 명의 하급 옥졸을 거느리고 뇌횡을 감시하며 압송하여 운성현을 떠났다. 십여 리쯤 갔을 때 주막 하나가 보이자 주동이 말했다. "우리 모두 여기서 술이나 두어 잔 하고 가세." 사람들이 모두 주막에 들어가 술을 마셨다. 주동은 홀로 뇌횡을 데리고 나와 볼일을 보는 척하며 뒤편의 한적한 곳으로 가서 칼(枷)을 풀어 뇌횡을 놓아주고 당부했다. "아우님, 어서 돌아가게. 빨리 집에 가서 노모를 모시고 밤을 새워 다른 곳으로 달아나 화를 피하게. 여기 일은 내가 대신 관아의 죄를 받겠네."

뇌횡이 말했다. "제가 달아나면 저야 무사하겠지만, 반드시 형님께 누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주동이 말했다. "아우님, 자네가 몰라서 그러네. 지현이 자네가 자기 여인을 때려죽인 것에 분이 나서 이 사건의 문안을 죽을죄로 꾸며 놓았으니, 주(州)로 압송되면 반드시 자네 목숨을 내놓아야 할 걸세. 내가 자네를 놓아준대도 나는 죽을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고, 게다가 나는 마음 쓰일 부모도 없고 가산을 다 들여서라도 변상하면 그만일세. 그러니 자네는 만 리 앞날을 생각해 어서 떠나게."

뇌횡은 절하여 감사하고 곧 뒷문 쪽 작은 길로 집으로 달려가, 값나가는 살림을 꾸려 짐을 챙기고 노모를 모시고서 밤을 새워 양산박으로 가 입산하였으니, 이는 더 말하지 않는다.

한편, 주동은 빈 칼(枷)을 풀숲에 던져 버리고 밖으로 나와 옥졸들에게 말했다. "뇌횡이 도망쳤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사람들이 말했다. "어서 그의 집으로 달려가 붙잡읍시다." 주동은 일부러 한참 시간을 끌다가, 뇌횡이 멀리 도망갔을 것이라 짐작하고는 사람들을 데리고 관아로 가서 자수했다. 주동이 말했다. "제가 부주의한 탓에 도중에 뇌횡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도망친 그를 잡지 못하였으니,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지현은 본래 주동을 아꼈기에 어떻게든 그를 봐주고 싶었으나, 백옥교가 상급 관청에 주동이 고의로 뇌횡을 풀어주었다고 고발하겠다고 나서자 어쩔 도리가 없었다. 결국 지현은 주동이 저지른 죄의 경위를 적어 제주(濟州)로 올려보냈다. 주동의 집에서는 사람을 시켜 상급 주(州)에 돈을 써서 미리 손을 써 두었다. 그리하여 주동을 제주로 압송하니, 관아에서 조사를 받아 죄가 명백히 가려져, 등에 곤장 스무 대를 맞고 창주(滄州) 뇌성(牢城)으로 자배(刺配)되는 판결이 내려졌다. 주동은 결국 큰 칼(行枷)을 쓴 채, 두 명의 압송 공인이 문서를 받아 들고 길을 떠났다. 집안에서 옷가지와 여비를 보내와, 두 압송 공인에게 먼저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운성현을 떠나 창주 횡해군(橫海郡)을 향해 길을 재촉하니, 가는 길에 별다른 일은 없었다. 창주에 이르러 성안으로 들어가 주(州) 관아에 도착하니, 마침 지부(知府)가 집무를 보는 시간이었다. 두 압송

공인이 주동을 관아 계단 아래에 세워두고 공문을 올렸다. 지부가 공문을 보니, 주동은 풍채가 예사롭지 않고 얼굴은 잘 익은 대추처럼 붉으며 수염이 배까지 내려와 있었다. 지부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어 벌써 여덟 할은 흡족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부는 이 죄수를 뇌성(牢城) 영내로 보내지 말고 본부 관아에 두어 부릴 일을 시키기로 했다. 즉시 큰 칼(行枷)을 벗겨주고 회문(回文)을 돌려주었다. 두 압송 공인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돌아갔다.

한편, 주동은 관아에서 지내며 매일 관청 앞을 지키며 부름을 기다렸다. 창주부의 압번(押番), 우후(虞候), 문지기, 승국(承局), 절급(節級), 옥졸(牢子)들까지 모두 주동에게 인정(人情)을 보내며 정성을 표했고, 주동 또한 성격이 너그러워 모두가 그를 좋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부가 관청에서 집무를 보고 있을 때 주동은 계단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다. 지부가 주동을 불러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뇌횡을 풀어주어 이곳으로 유배를 오게 되었는가?"

주동이 아뢰었다. "소인이 어찌 감히 고의로 뇌횡을 풀어주었겠습니까. 그저 한순간 부주의한 탓에 그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지부가 다시 물었다. "어찌하여 이토록 무거운 죄를 지었는가?"

주동이 말했다. "원고 측이 제가 고의로 풀어준 것이라고 단정 지어 그렇게 자백하도록 몰아세우는 바람에, 죄가 이토록 무겁게 결정되었습니다."

지부가 물었다. "뇌횡이 그 기생을 어떻게 때려죽였는가?"

주동은 뇌횡이 저지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설명했다.

지부가 다시 물었다. "그대가 그의 효심을 보고, 의기(義氣) 때문에 그를 풀어준 것이 아닌가?"

주동이 말했다. "소인이 어찌 감히 공무를 속이고 윗사람을 기만하겠습니까?"

문답이 이어지던 중, 병풍 뒤에서 네 살 남짓 된 어린 도련님이 걸어 나왔다. 지부의 친아들로, 용모가 단정하고 아름다워 지부가 금지옥엽처럼 아끼는 아이였다. 그 어린 도련님은 주동을 보자마자 곧장 다가와 안아 달라고 보챘고, 주동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이는 두 손으로 주동의 긴 수염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나는 이 수염을 잡고 안겨 있을 거야!"

지부가 말했다. "얘야, 어서 손을 놓으렴. 떼쓰지 말고."

아이가 다시 말했다. "나는 이 수염을 잡고 안겨서 같이 놀 거야!"

주동이 아뢰었다. "소인이 도련님을 모시고 관청 앞을 한 바퀴 돌며 놀다 오겠습니다."

지부가 말했다. "아이가 안아 달라고 하니, 가서 한 바퀴 놀다 오너라."

주동은 아이를 안고 관청 앞으로 나가 달콤한 사탕과 과자를 사 주며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아이를 안고 관아로 들어왔다. 지부가 그 모습을 보고 아이에게 물었다.

"얘야, 어디 갔다 왔느냐?"

아이가 대답했다. "이 수염 아저씨랑 거리 구경하며 놀았어요. 사탕이랑 과자도 사서 저한테 주셨어요."

지부가 말했다. "네게 줄 물건을 살 돈이 어디서 났느냐?"

주동이 아뢰었다. "소인의 작은 효순(孝順)의 마음을 조금 보인 것뿐이니, 입에 담을 가치도 없는 일입니다!"

지부는 주동에게 술을 가져오라 일렀다. 관아의 시녀가 은병(銀瓶)과 과합(果合, 안주 그릇)을 받쳐 들고 술을 따라, 주동에게 연거푸 큰 상잔(賞鍾)으로 석 잔을 권하여 마시게 했다. 지부가 말했다. "아이가 아침저녁으로 놀아 달라고 하면, 그때는 네가 알아서 아이를 안고 가서 놀아 주거라."

주동이 말했다. "은상(恩相)의 분부를 어찌 감히 거역하겠습니까?"

그날부터 주동은 매일 어린 도련님을 데리고 거리로 나가 한가로이 놀아 주었다. 주동은 주머니에 돈도 넉넉하였으므로, 오직 상관이 기뻐하는 것만을 바라며 어린 도련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갑절로 돈을 썼다.

반달쯤 시간이 흐른 뒤, 칠월 보름 우란분재(盂蘭盆大齋) 날이 되었다. 예로부터 이맘때면 곳곳에서 강물에 등불을 띄우는 하등(河燈) 행사를 열어 경사를 기리곤 했다. 그날 저녁, 관아의 시녀가 달려와 외쳤다.

"주 도두님, 도련님이 오늘 밤 하등을 보러 가고 싶어 하십니다. 마님께서 도련님을 안고 구경시켜 드리고 오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주동이 대답했다. "제가 안고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자 초록색 비단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구슬 장식을 매단 어린 도련님이 방 안에서 걸어 나왔다. 주동은 아이를 어깨에 얹고 관아 앞으로 나와, 지장사(地藏寺) 쪽에서 하등을 띄우는 모습을 구경하러 향했다. 마침 초경(初更, 저녁 7시~9시 사이) 무렵이었는데, 과연 다음과 같았다.

종소리 아스라히 퍼지고, 깃발 그림자 흔들리네.
화로에는 온갖 향을 피우고, 쟁반에는 여러 채식 음식을 차렸네.
스님은 금강저(金杵)를 들고 진언 외우며 저승 영혼을 천도하고,
사람들은 은전 늘어놓고 상복을 걸어 맺힌 넋을 제도하네.
온 법당에 공덕을 베풀어 저승의 여덟 가지 재난과 삼악도(三塗)를 그리고,
절을 두루 장엄하여 지옥과 사생(四生) 육도(六道)를 늘어놓았네.
버들가지 끝으로 정화수를 뿌리고, 연꽃 연못에는 밝은 등불을 띄우네.

당시 주동은 어린 도련님을 어깨에 얹은 채 절 주위를 한 바퀴 돌고 나서, 수륙당(水陸堂) 방생지 연못가로 가서 하등을 띄우는 것을 구경했다. 어린 도련님은 난간에 매달려 즐겁게 구경하며 웃고 떠들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주동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형님, 잠시 따로 이야기 좀 나눕시다."

주동이 뒤를 돌아보니 뇌횡이었다. 깜짝 놀란 주동이 말했다.

"도련님, 일단 내려와서 여기 좀 앉아 계세요. 제가 가서 사탕을 사올 테니, 어디 가면 안 됩니다."

도련님이 말했다. "빨리 오세요! 저 다리에 가서 하등을 보고 싶단 말이에요."

주동이 대답했다. "금방 올게요."

그러고는 몸을 돌려 뇌횡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주동이 물었다. "아우님,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는가?"

뇌횡은 주동을 조용한 곳으로 끌고 가 절을 하며 말했다.

"형님께서 제 목숨을 구해 주신 뒤로, 노모를 모시고 돌아갈 곳이 없어 결국 양산박으로 가서 송강 형님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형님의 은덕을 말씀드리니, 송강 형님께서도 예전에 형님이 자신을 놓아주신 옛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조천왕(晁天王)과 여러 두령께

서도 모두 깊이 감격하시어, 특별히 오 군사(吳軍師)를 저와 함께 보내 형님을 찾아뵙게 하셨습니다."

주동이 물었다. "오 선생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그때 뒤에서 오용이 나서며 말했다. "오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는 절을 올렸다.

주동은 황급히 답례하며 말했다. "오랜만입니다, 선생.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용이 말했다. "산채의 두령들께서 모두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이번에 저 오용과 뇌 도두가 특별히 찾아온 것은, 형님을 산으로 모셔 대의를 함께하고자 함입니다. 이곳에 온 지 며칠이 지났으나 감히 뵙지 못하다가, 오늘 밤에야 기회를 얻어 이렇게 뵙습니다. 부디 형님께서는 발걸음을 옮겨 산채로 함께 가셔서 조개·송강 두 분의 뜻을 채워 주십시오."

주동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못 하다가 겨우 입을 뗐다.

"선생께서 잘못 말씀하셨소! 그런 말은 하지 마시오. 혹여 남의 귀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두렵소. 뇌횡 아우는 스스로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질렀고, 내가 의기로 그를 놓아준 것이라 나서서 산에 들어가 일원이 될 수도 없소. 나 또한 그를 위해 이곳에 유배되어 있으니, 하늘이 가엾게 여겨 한 해 반쯤 지나 발버둥쳐 고향으로 돌아가면 다시 양민이 될

수 있을 것이오. 그런데 내가 어찌 그런 일을 하겠소? 두 분은 그만 돌아가시오. 여기서 괜히 구설에 오르지 마시오."

뇌횡이 말했다. "형님, 이곳에 계셔봐야 남의 밑에서 수발이나 드는 것일 뿐, 대장부 사내가 할 일은 아닙니다. 제가 산에 들어가자고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조개·송강 두 분께서 형님을 오랫동안 우러러 기다려 오셨습니다. 더 지체하여 스스로를 그르치지 마십시오."

주동이 말했다. "아우님, 그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내가 자네의 늙은 어머니와 가난한 집안 형편을 생각해서 자네를 놓아 보내주었는데, 이제 와서 도리어 나를 의리 없는 자로 몰아넣으려는 것인가!"

오용이 말했다. "도두께서 정 가기 싫으시다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 작별하고 떠나겠습니다."

주동이 말했다. "제 변변찮은 이름이나마, 여러 두령께 안부를 전해 주시오."

그들은 함께 다리 쪽으로 걸어갔다.

주동이 돌아와 보니 어린 도련님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앞뒤로 찾아 헤매며 울상을 지었다. 뇌횡이 주동을 붙잡으며 말했다.

"형님, 찾지 마십시오. 제가 데려온 일행 두 명이 형님께서 가기 싫어하신다는 말을 듣고는, 멋대로 도련님을 안고 가 버렸습니다. 함께 가서 찾아봅시다."

주동이 말했다. "아우님, 장난할 일이 아니네. 이 도련님은 지부 어른의 목숨과도 같은 분이라, 그 책임이 나에게 달려 있단 말일세."

뇌횡이 말했다. "형님, 일단 저를 따라오십시오."

주동은 뇌횡과 오용을 따라 지장사를 벗어나 성 밖으로 나갔다. 주동은 마음이 초조하여 물었다.

"자네 일행들은 도련님을 어디에 모셔 두었는가?"

뇌횡이 말했다. "형님, 일단 가다 보면 저희 숙소에 도착할 것이고, 거기서 도련님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동이 말했다. "시간이 늦어지면 지부 어른께서 노하실까 두렵네."

오용이 말했다. "제가 데려온 일행 두 명이 철이 없는 녀석들이라, 분명 도련님을 안고 저희 숙소로 가 버린 모양입니다."

주동이 물었다. "자네 일행의 성명은 무엇인가?"

뇌횡이 대답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흑선풍' 이규라고 불린다고 들었습니다."

주동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설마 강주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그 이규란 말인가?"

오용이 말했다. "그 사람이 맞습니다."

주동은 발을 동동 구르며 울상을 지은 채 황급히 길을 재촉했다. 성을 떠나 20리쯤 달려갔을 때, 저 앞에서 이규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습니다!"

주동이 급히 다가가 물었다.

"도련님을 어디에 두었느냐?"

이규가 절을 하며 말했다.

"절급 형님, 도련님은 여기 계십니다."

주동이 말했다. "어서 도련님을 잘 모셔다드려라."

이규가 자기 머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도련님의 머리칼이 지금 제 머리 위에 있습니다."

주동이 확인하고는 다시 도련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이규가 대답했다.

"제가 마약 같은 것을 좀 가져다가 입에 발라버리고 성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숲속에서 잠들어 있으니 직접 가서 보십시오."

주동은 밝은 달빛을 빌려 급히 숲속으로 들어가 도련님을 찾았다. 그런데 도련님은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주동이 급히 손을 뻗어 부축하려 했으나, 도련님은 이미 머리가 두 쪽으로 쪼개진 채 죽어 있었다.

주동은 크게 분노하며 숲 밖으로 뛰쳐나왔으나, 세 사람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사방을 둘러보니 멀리서 '흑선풍' 이규가 쌍도끼를 두드리며 외치고 있었다.

"이리 와라, 이리 와! 너와 이삼십 합 겨뤄보자꾸나!"

주동은 울화가 치밀어 몸을 사리지 않고, 베적삼을 걷어붙이고 성큼성큼 이규를 향해 쫓아갔다. 이규는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고, 주동이 그 뒤를 쫓았다. 하지만 이규는 평소 산과 고개를 넘나들며 단련된 사람이라 주동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고, 주동은 먼저 숨이 턱까지 차올라 헐떡거렸다. 이규는 앞서가며 다시 소리쳤다.

"이리 와라, 이리 와! 너와 생사를 걸고 한번 붙어보자!"

주동은 당장이라도 이규를 한입에 집어삼키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쫓고 쫓기기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덧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규는 앞에서 급히 쫓으면 급히 가고, 천천히 쫓으면 천천히 가고, 쫓지 않으면 가지 않으며 약을 올리더니, 어느덧 커다란 장원(莊院)으로 들어갔다. 주동이 그것을 보고 말했다.

"저놈의 행방을 알았으니,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주동은 곧장 장원 안의 내청으로 달려갔다. 그곳에 들어가 보니 양옆으로 수많은 병기들이 꽂혀 있었다. 주동이 말했다.

"아마도 관직에 있는 집안인 모양이구나."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장원에 사람 있느냐?"

그러자 병풍 뒤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바로,

대대로 이어온 귀한 혈통, 지난 왕조의 황실 후손이라.
붉은 글씨 적힌 철권이 가문을 지키고, 인재를 부르는 명성은 만리에 떨치네.
손님을 맞이함은 화기애애하고, 돈을 쓰는 모습은 봄볕처럼 넉넉하구나.
문무를 겸비한 맹상군처럼, 영리한 시진은 재주가 뛰어나도다.

나타난 사람은 바로 '소선풍' 채진이었다. 그가 물었다.

"게 누구냐?"

주동은 그 사람의 풍채가 늠름하고 자질이 수려한 것을 보고는 황급히 예를 갖추며 대답했다.

"소인은 운성현에서 감옥을 관리하는 절급(節級, 옥졸의 우두머리) 주동이라 합니다. 죄를 지어 자자(刺字)되고 이곳으로 유배를 왔습니다. 어젯밤 지부의 아드님과 함께 강에 띄우는 등을 구경하러 나왔다가, '흑선풍' 이규에게 아드님이 살해당했습니다. 지금 그놈이 귀한 장원에 숨어 있으니, 부디 힘을 보태어 잡아 관아로 압송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채진이 말했다.

"'미염공'이셨군요. 우선 앉으시지요."

주동이 물었다.

"소인이 감히 나리께 성함을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채진이 대답했다.

"제 성은 채이고 이름은 진이라 합니다. '소선풍'이라 불리지요."

주동이 말했다.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그는 연신 절을 올리며 덧붙였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을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채진이 말했다.

"'미염공'의 명성 또한 익히 들었습니다. 안채로 가셔서 이야기를 나누시지요."

주동은 채진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주동이 물었다.

"그 '흑선풍'이라는 놈은 어찌하여 감히 귀한 장원에 무단으로 들어와 숨어 있는 것입니까?"

채진이 설명했다.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강호의 호걸들과 사귀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저희 조상께서 예전에 진교(陳橋)에서 황위를 양보한 공이 있어, 전조(前朝)에서 단서철권(황제가 내린 면죄부)을 하사받았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집안에 숨겨두면 아무도 감히 수색하지 못하지요. 최근에 제가 아끼는 벗이 한 명 있는데, 귀하와도 옛 친구 사이이며 지금은 양산박에서 두령 노릇을 하고 있는 '급시우' 송강 형님입니다. 그분이 밀서를 보내어 오용 군사와 뇌횡, 그리고 '흑선풍' 이규를 제 장원에 머물게 하며, 귀하를 정중히 산으로 초대해 대의를 함께 도모하자고 청했습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이를 거절하며 따르지 않으시니, 일부러 이규를 시켜 지부의 아드님을 죽이게 한 것입니다. 귀하의 퇴로를 먼저 끊어버림으로써 어쩔 수 없이 양산박으로 올라와 두령 자리에 앉게 하려는 속셈이지요. 오 선생과 뇌 형제는 어찌하여 나와서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오?"

그러자 옆쪽 누각에서 오용과 뇌횡이 나와 주동을 향해 절을 하며 말했다.

"형님, 부디 용서하십시오. 모두 송강 형님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산채로 올라오시면 그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동이 말했다.

"자네들 형제 사이의 의리는 좋으나, 방법이 너무도 독하구먼!"

채진이 간곡히 권하자 주동이 말했다.

"가긴 가겠소. 다만 그 '흑선풍' 놈의 얼굴만은 꼭 봐야겠소!"

채진이 외쳤다.

"이씨 형님, 어서 나와서 인사를 드리시오!"

이규 역시 옆에서 나타나 크게 읍하며 인사했다.

주동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가슴 속에서 까닭 모를 분노의 불길이 삼천 길 높이로 치솟아 도저히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규에게 달려들어 목숨을 걸고 싸우려 했다. 채진과 뇌횡, 오용 세 사람이 죽을힘을 다해 말렸다. 주동이 말했다.

"내가 양산박으로 올라가는 조건으로 한 가지만 들어준다면 가겠소."

오용이 말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라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과연 주동이 무엇을 요구했을까. 그것은 바로 고당주를 크게 뒤흔들고 양산박을 움직이게 하여, 어질고 이름난 황실 인척(채진)이 형벌을 받게 하고 손님을 좋아하던 황실 친척(채진)이 토굴에 갇히게 만드는 일이었다. 결국 주동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52회 — 이규가 은천석을 때려죽이고, 시진이 고당주에 갇히다

李逵打死殷天錫 柴進失陷高唐州

이야기는 이러하다. 주동이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가 양산박으로 올라가길 원한다면, 차라리 저 「흑선풍」 이규를 죽여 내 울분을 풀어 주시오. 그러면 나도 미련 없이 그만두겠소.' 이 말을 들은 이규가 크게 분노하며 외쳤다. '이런 빌어먹을! 조개 형님과 송강 형님이 명령을 내린 거지, 내가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주동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다시 이규와 싸우려 들자, 세 사람이 다시 말려 겨우 진정시켰다. 주동이 다시 말했다. '저 흑선풍이 있는 한, 나는 죽어도 양산박에 가지 않겠소!' 그러자 시진이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오히려 쉽습니다. 내게 나름의 생각이 있으니, 이 이씨 형님만 내 곁에 머물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 분(주동·오용·뇌횡)이 함께 양산박으로 올라가 조개·송강 두 분의 뜻을 채워 드릴 수 있습니다.' 주동이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이미 일이 이렇게 벌어졌으니, 지부가 분명 문서를 보내 운성현까지 추격하여 내 가솔을 잡아 가려 할 텐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자 오

용이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이미 송 공명(송강) 형님께서 가족들을 모두 산 위로 데려가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제야 주동은 마음이 조금 놓였다. 시진은 술을 대접하며 그날 바로 그들을 배웅했다. 해가 저물 무렵 세 사람은 시 대관인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길을 떠났다. 시진은 장객들에게 명하여 말 세 필을 준비하게 한 뒤 관문 밖까지 배웅했다. 떠나기 직전, 오용이 이규에게 다시 당부했다. '너는 조심해야 한다. 시 대관인의 장원에 머무는 동안 절대로 함부로 사고를 쳐서 남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반년이나 석 달쯤 지나 그(주동)의 성미가 가라앉으면, 그때 너를 데리러 와서 산으로 데려갈 것이다. 아마 그때 시 대관인도 함께 입당(入夥)하시도록 청하게 될 것이다.' 세 사람은 말에 올라타 길을 떠났다.

시진과 이규가 장원으로 돌아간 일은 차치하고, 우선 주동이 오용, 뇌횡과 함께 양산박으로 들어가 입파한 이야기를 하겠다. 길을 떠나 창주 경계를 벗어나자, 장원 일꾼들은 말을 타고 돌아갔다. 세 사람은 양산박을 향해 길을 재촉했으며, 가는 길에 별다른 일은 없었다.

일찍이 주귀의 주막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사람을 보내 산채에 소식을 전했다. 조개와 송강이 크고 작은 두령들을 거느리고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며 마중을 나왔는데, 금사탄까지 내려와 일행을 맞이하니 모두가 한자리에서 만났다. 일행은 말을 타고 산 위 대채 앞까지 돌아와 말에서 내린 뒤, 모두 취의청으로 모여 그간의 사정을 나누었다.

주동이 말했다. "제가 이렇게 산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창주 지부가 분명 문서를 보내 운성현까지 추격하여 제 가족을 잡아 가려 할 텐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송강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형님, 안심하십시오. 형수님과 자제분은 이미 이곳에 오신 지 며칠 되었습니다."

주동이 다시 물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송강이 대답했다. "저희 부친께서 머무시는 곳에 모셔 두었으니, 형님께서 직접 가서 안부를 물으시면 됩니다."

주동은 크게 기뻐했다. 송강은 사람을 시켜 주동을 송 태공이 계신 곳까지 안내하게 했다. 그곳에서 주동은 가족들과 온갖 살림살이를 모두 만났다. 아내가 말했다. "며칠 전에 당신이 이미 산채에 들어왔다는 편지가 와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둘러 이곳까지 왔답니다."

주동은 밖으로 나와 사람들에게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송강은 즉시 주동과 뇌횡을 산 정상 아래에 진을 치게 하고, 연회를 베풀어 며칠 동안 새로운 두령을 맞이하며 축하를 이어갔다.

한편, 창주 지부는 밤이 깊도록 주동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돌아오지 않자 사람들을 사방으로 보내 밤새도록 수색하게 했다. 그러다 이튿날 누군가 숲속에서 살해된 아이를 발견하여 지부에게 보고했다. 지부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직접 숲으로 달려가 확인하고는 통곡하며 관을 준비해 아이를 불태워 보냈다.

이튿날 집무실에 나선 지부는 즉시 공문을 발송하여 각처에 주동을 수배하고 붙잡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운성현에서도 주동의 처와 가족들이 함께 도주하여 행방을 알 수 없다고 보고해 왔기에, 각 주와 현에 포상금을 내걸고 주동 일가를 반드시 잡아 오도록 명하였다.

한편, 이규는 시진의 장원에서 한 달 남짓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급한 편지 한 통을 지니고 장원으로 황급히 달려왔다. 마침 시 대관인이 그를 맞이하여 편지를 받아 읽더니 크게 놀라며 말했다. '일이 이렇게 되었다니, 내가 직접 한번 다녀와야겠구나.' 이규가 물었다. '대관인,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시진이 대답했다. '내게 시황성이라는 숙부가 한 분 계신데, 지금 고당주에 살고 계신다네. 그런데 그 고을 지부 고렴의 처남인 은천석이란 놈이 와서 화원을 빼앗으려 하는 바람에, 숙부께서 분을 삭이지 못해 병석에 누우셨고 머지않아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라네. 분명 내게 남길 유언이 있어 특별히 나를 부르신 게야. 생각해 보니 숙부께는 아들도 딸도 없으니, 내가 직접 가봐야만 하네.' 이규가 말했다. '대관인께서 가신다면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진이 말했다. '형님이 가시겠다면 함께 가십시다.' 시진은 즉시 짐을 꾸리고 좋은 말 열댓 필을 골라, 장객 몇 명을 데리고 길을 나설 채비를 했다. 이튿날 오경(五更)에 일어나, 시진과 이규 그리고 수행원들은 모두 말에 올라 장원을 떠나 고당주를 향해 나아갔다.

며칠 지나지 않아 고당주에 도착한 일행은 성 안으로 들어가 시황성의 저택 앞에 이르러 말에서 내렸다. 시진은 이규와 일행을 바깥 대청에 머물게 한 뒤, 홀로 침실로 들어가 숙부 시황성을 살피러 들어갔다. 그런데 그곳의 모습은 이러했다.

얼굴은 금빛 종이처럼 창백하고, 몸은 마른 장작 같구나.
넋은 아득히 사라지고, 가느다란 숨결만 겨우 남아 있네.
턱은 꽉 맞물려, 아침저녁으로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못하고;

가슴은 부풀어 올라, 온종일 약 한 알 삼키기조차 어렵구나.
죽음의 그림자는 이미 곁에 머무니, 어떤 의원도 손쓸 방도가 없네.

시진은 시황성을 살피더니 숙부의 침상 앞에 앉아 목놓아 통곡했다. 그러자 시황성의 후처가 나와 시진을 달래며 말했다. '대관인, 안마(鞍馬)에 풍진을 무릅쓰고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제 막 도착하셨으니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시진은 예의를 갖춰 인사를 올린 뒤 사건의 내막을 물었다. 후처가 대답했다. '이곳에 새로 부임한 지부 고렴은 이 고을의 병마까지 겸하여 관할하는데, 동경(東京)에 있는 고 태위의 사촌형제(숙백형제)입니다. 그는 사촌형(고 태위)의 권세를 등에 업고 이곳에서 못 하는 짓이 없을 정도이지요. 게다가 처남인 은천석을 데려왔는데, 사람들은 모두 그를 은직각(殷直閣)이라 부릅니다. 그놈은 나이는 어린데도 매형인 고렴의 권세를 믿고 이곳에서 횡행하며 사람들을 해치고 다닙니다. 어떤 아첨꾼이 비위를 맞추느라, 우리 집 뒤편에 정자와 연못이 있는 화원이 아주 잘 꾸며져 있다고 그놈에게 일러바쳤습니다. 그러자 그놈이 간사하기 짝이 없는 무리 스무서른 명을 거느리고 곧장 집 안으로 들이닥쳐 집 뒤편을 둘러보고는, 당장 우리를 쫓아내고 자기가 들어와 살겠다고 했습니다. 시황성께서 그놈에게 「우리 집안은 금지옥엽(金枝玉葉, 황실의 후예)이라 문 앞에 선조(先朝)께서 내리신 단서철권(丹書鐵券)이 있으니 아무도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한다. 네가 어찌 감히 내 집을 빼앗고 우리 노약자들을 어디로 쫓아내려 하느냐!」라고 꾸짖으셨지요. 하지만 그놈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어코 우리를 집에서 내쫓으려 했습니다. 시황성께서 그를 붙잡고 따지려 하셨으나, 오히려 그놈에게 떠밀리고 매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화병이 나 일어나지도 못하고 음식도 드시지 못

한 채 누워만 계시니, 약을 써도 효험이 없어 하늘은 멀고 땅은 가까운(곧 돌아가실) 형국입니다. 오늘 대관인께서 오셔서 주관해 주신다면, 설령 무슨 변고(山高水低)가 있다 해도 더는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시진이 대답했다. '숙모님, 안심하십시오. 우선 좋은 의원을 불러 숙부님의 병부터 돌보도록 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가 사람을 시켜 창주 집에 있는 단서철권을 가져오게 하여 그놈과 따지겠습니다. 관가에 고하여 지금의 황상(今上) 어전에까지 호소한다 해도 그놈 따위는 두렵지 않습니다!' 후처가 말했다. '시황성께서 일을 처리하려 하셨으나 전혀 소용이 없었으니, 역시 대관인께서 나서서 따져 주셔야겠습니다.'

시진은 숙부를 한 번 더 살핀 뒤 밖으로 나와, 이규와 데려온 사람들에게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일러주었다. 이야기를 듣던 이규가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그놈 참 무도하구나! 내 여기 큰 도끼가 있으니, 그놈한테 도끼질을 몇 번 해주고 나서 다시 의논합시다!' 시진이 말했다. '이 형님, 우선 노여움을 가라앉히십시오. 아무 까닭 없이 저런 거친 자와 맞붙어 무엇하겠습니까? 그놈이 비록 권세를 믿고 사람을 업신여긴다 해도, 우리 집에는 보호해 주는 성지(聖旨)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놈과 직접 따질 수 없으니, 마땅히 경사(京師, 도성)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그놈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으니, 명백한 법조문을 근거로 그놈과 관가에서 송사를 벌여야 합니다.' 이규가 대꾸했다. '법조문, 법조문이라니! 법조문대로만 된다면 천하가 어지러워지지도 않았을 거요! 나는 일단 때려놓고 나서 의논하자는 거요. 그놈이 만약 관가에 고하러 간다면, 그깟 빌어먹을 관리들까지 한꺼번에 다 베어버릴 테요!' 시진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 주동이 형님과 맞붙으려 해서 얼굴조차 마

주할 수 없었던 게지요. 여기는 금성(禁城) 안이니, 어찌 형님이 계시던 작은 산채(小寨)처럼 마음대로 날뛸 수 있겠습니까?' 이규가 말했다. '금성이면 좀 어떻소? 강주(江州)와 무위군(無為軍)에서는 유독 나만 사람을 안 죽인 줄 아시오?' 시진이 말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지켜보고, 형님께 도움을 청할 일이 생기면 그때 정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일 없으면 방에서 편히 앉아 계십시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안에서 시첩(侍妾)이 황급히 달려 나와 대관인에게 시황성을 살펴봐 달라고 청했다.

시진이 안으로 들어가 침상 앞에 다가가니, 시황성이 두 눈에 눈물을 머금은 채 시진에게 말했다. '현질(賢姪, 조카님), 자네의 기개가 참으로 당당하여 조상을 욕되게 하지 않는구나. 나는 오늘 은천석에게 맞아 죽게 되었으니, 부디 혈육의 정을 생각하여 자네가 직접 서신을 지니고 경사(京師)로 올라가 어가(御駕)를 가로막고 소장을 올려(攔駕告狀) 내 원수를 갚아주게나. 그리하면 저승(구천九泉)에서도 자네의 정성을 고맙게 여기겠네. 부디 몸조심하게, 몸조심하게! 더는 당부하지 않겠네!' 말을 마친 시황성은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 시진은 한바탕 통곡했다. 후처는 시진이 혼절할까 염려하여 만류하며 말했다. '대관인, 상심하실 날은 앞으로도 있을 터이니, 우선 뒷일부터 의논하시지요.' 시진이 말했다. '서서(誓書, 단서철권)가 제 집에 있는데 미처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밤을 도와 사람을 보내 반드시 가져오게 한 뒤, 그것을 가지고 동경으로 가서 고발하겠습니다. 숙부님의 영령을 위해 우선 관곽(棺槨)을 갖추어 염을 하고, 상복을 마련해 입은 뒤에 다시 의논합시다.' 시진은 관제(官制)에 따라 안에는 내관(內棺)을, 밖에는 외곽(外槨)을 갖추게 하고, 예법에 맞춰 영위(靈位)를 모셨다. 온 집안 식구들

은 무거운 상복을 입고 크고 작은 곡을 하며 애도했다. 이규는 밖에서 안의 곡소리를 듣고는 혼자 주먹을 불끈 쥐고 손바닥을 비비며 분을 삭였으나, 수행원들에게 물어도 아무도 말해주려 하지 않았다. 집 안에서는 승려를 불러 좋은 법사(法事)와 공덕(功果)을 베풀었다.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 은천석이 내달리는 말 한 필에 올라타고 한량 스무서른 명을 거느리고 나타났다. 그들은 탄궁(彈弓, 새총), 천노(川弩, 쇠뇌), 취통(吹筒, 입으로 불어 쏘는 통), 기구(氣球, 가죽 공), 장대, 악기 따위를 손에 들고 성 밖을 한 바퀴 돌며 노닐다가, 술기운이 대여섯 분쯤 올라 취한 척 미친 척하며 시황성의 집 앞으로 곧장 달려왔다. 은천석은 말고삐를 잡아 세우고는 집 안의 관가(管家, 집사)되는 사람더러 나와서 말하라고 소리쳤다. 시진은 그 소리를 듣고 온몸에 상복을 걸친 채 황급히 나와 응대했다. 은천석이 말 위에서 물었다. '네놈은 이 집안의 누구냐?' 시진이 대답했다. '소인은 시황성의 친조카 시진이라 합니다.' 은천석이 말했다. '엊그제 내가 이 집을 비우고 나가라고 분부했거늘,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냐?' 시진이 말했다. '숙부님께서 병석에 누워 계셔서 감히 옮기지 못했고, 간밤에 이미 돌아가셨으니 단칠(斷七, 49재)을 마친 뒤에 비워 드리겠습니다.' 은천석이 말했다. '헛소리 마라! 네게 사흘의 기한만 주겠다. 사흘 안에 비우지 않으면, 먼저 네놈을 여럿이 보는 앞에서 묶어 놓고 신장(訊棍) 백 대를 안기겠다!' 시진이 말했다. '직각(直閣)께서는 그리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집안 또한 용자용손(龍子龍孫, 황실의 자손)이라, 선조(先朝)께서 내리신 단서철권(丹書鐵券)이 있으니 누가 감히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은천석이 호통쳤다. '네놈이 어디 그것을 꺼내 와 내게 보여 보아라!' 시진이 말했다. '지금 창주 집에 있어,

이미 사람을 보내 가져오게 했습니다.' 은천석이 크게 노하여 말했다. '이놈이 정말 허튼소리를 하는구나! 설령 서서(誓書)와 철권이 있다 한들 나는 두렵지 않다. 여봐라, 어서 이놈을 매우 쳐라!'

사람들이 막 손을 쓰려던 찰나, '흑선풍' 이규가 문틈 사이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시진을 때리라는 호통 소리가 들리자마자 이규는 방문을 홱 열어젖히며 커다란 소리로 포효하더니, 단숨에 말 곁으로 달려들어 어느새 은천석을 말에서 낚아채 끌어내린 뒤 주먹으로 단번에 때려눕혔다. 이삼십 명의 건달들이 그를 덮치려 했으나, 이규가 손을 들어 휘두르자 순식간에 대여섯 명이 나가떨어졌고, 나머지는 우르르 모두 달아나 버렸다. 이규는 은천석을 붙잡아 들어 올리고는 주먹과 발길질을 한꺼번에 퍼부어댔는데, 시진이 아무리 말려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다. 은천석을 보니, 아아 슬프도다, 엎드려 바라건대 흠향하소서 — 이미 숨이 끊어져 죽어 있었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잔인한 계략을 품고 횡포를 부리니
하늘의 이치를 어찌 피할 수 있으랴
이규의 사나움은 대적할 자 없어서
염라대왕을 보지 않고는 놓아주지 않네

이규가 은천석을 때려죽여 땅바닥에 내동댕이치자, 시진은 그저 괴로워하며 울부짖을 뿐이었다. 결국 시진은 이규를 뒷방으로 데려가 함께 상의했다.

시진이 말했다.

"곧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올 텐데, 그러면 자네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네. 관청 일은 내가 알아서 대처할 테니, 자네는 어서 양산박으로 돌아가게."

이규가 말했다.

"내가 그냥 가버리면 자네에게 폐를 끼치게 될 것 아닌가."

시진이 말했다.

"나에게는 몸을 지켜줄 서약서와 철권이 있으니 걱정 말게. 자네는 어서 가야 하네. 한시라도 지체해서는 안 돼."

이규는 쌍도끼를 챙기고 여비를 챙겨 뒷문으로 나가, 곧장 양산박으로 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칼과 몽둥이, 창과 막대기를 든 이백여 명의 무리가 시황성의 집을 포위했다. 시진은 사람들을 잡으러 온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 말했다.

"관청에 가서 함께 시비를 가립시다."

사람들은 먼저 시진을 결박하더니, 집 안으로 들이닥쳐 범행을 저지른 검은 대한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시진만 묶어 주(州) 관아로 끌고 가 대청 한가운데 무릎을 꿇렸다. 지부 고렴은 처남 은천석이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청에서 이를 갈며 분노하며 범인을 잡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곧바로 시진을 대청 앞 계단 아래로 거칠게 끌어내리게 하고는 호통을 쳤다.

"네놈이 감히 내 은천석을 때려죽이다니!"

시진이 고했다.

"소인은 시세종의 직계 후손으로, 가문에 선대 태조께서 내리신 서약서와 철권이 있으며 현재 창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숙부 시황성께서 병세가 위중하시다 하여 특별히 문병을 왔다가, 불행히도 돌아가셔서 지금 집에 빈소를 차려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직각이 이삼십 명을 데리고 집으로 들이닥쳐,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기어이 집에서 쫓아내려 하며 사람들에게 매질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장객인 이대(李大)가 이를 막다가 한순간에 그만 그를 때려죽이고 말았습니다."

고렴이 소리쳤다.

"그 이대라는 놈은 지금 어디 있느냐?"

시진이 말했다.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고렴이 말했다.

"그놈은 일개 장객일 뿐인데, 네 말이 없었다면 어찌 감히 사람을 죽였겠느냐! 게다가 네놈이 일부러 그놈을 도망치게 해놓고 관청까지 속이려 들다니! 이놈아, 매를 맞지 않고서야 어찌 자백하겠느냐? 옥졸들아, 힘껏 이놈을 쳐라!"

시진이 외쳤다.

"장객 이대가 주인을 구하려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지,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선대 태조의 서약서가 있는데 어찌 저를 형벌로 다스리려 하십니까?"

고렴이 말했다.

"그 서약서가 어디 있느냐?"

시진이 말했다.

"이미 사람을 시켜 창주로 가서 가져오게 했습니다."

고렴은 크게 노하여 소리쳤다.

"이놈이 대놓고 관청에 맞서는구나! 좌우의 놈들은 손목에 힘을 줘서 아주 호되게 쳐라!"

사람들이 달려들어 시진을 매질하자, 시진의 살갗이 터지고 살점이 갈라져 선혈이 낭자하게 솟구쳤다. 결국 시진은 장객 이대를 시켜 은천석을 때려죽이게 했다고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관청에서는 스물다섯 근 무게의 사형수용 칼(枷)을 씌워 못을 박고 옥에 가두었다. 은천석의 시신은 검험을 마친 뒤 관에 넣어 장례를 치렀으니 더 말할 것도 없었다. 한편, 은씨 부인은 동생의 원수를 갚고자 남편 고렴을 시켜 시황성의 재산을 몰수하고 식솔들을 가두며 집과 마당을 통째로 차지하게 했다. 시진은 그렇게 옥에서 고초를 겪게 되었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붉은 입술과 분칠한 얼굴은 뱀처럼 독하고,
철권과 금서도 헛된 꽃일 뿐이구나.
조상들이 자리를 물려준 것이 이상할 뿐,
자손들은 여전히 제 몸 하나 지키지 못하네.

한편, 이규는 밤을 새워 양산박으로 돌아와 곧장 두령들을 찾아갔다. 주동은 이규를 보자마자 화가 치밀어 올라, 박도를 뽑아 들고 곧장 이규에게 달려들었다. '흑선풍' 이규 역시 쌍도끼를 뽑아 들고 주동과 맞붙었다. 조개와 송강, 그리고 여러 두령이 일제히 나서서 두 사람을 말렸다. 송강이 주동에게 좋은 말로 달래며 말했다.

"지난번 소아내(지부의 어린 아들)를 죽인 것은 이규의 뜻이 아니었소. 그건 군사 오용 선생이 형장(주동)을 산으로 모셔오려 했으나 응하지 않자 한때 세운 계책이었소. 이제 산채에 왔으니 지난 일은 마음에 두지 마시고, 그저 한마음으로 서로 도와 대의를 함께 일으키며, 바깥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그러고는 이규 아우에게 주동과 좋은 말로 화해하라고 일렀다. 이규는 괴이한 눈을 부릅뜨고 버럭 소리쳤다.

"저자가 저렇게 잘난 척을 하다니요! 나도 그동안 산채에서 힘깨나 보탰는데, 저자는 반 푼어치 공도 세운 적 없으면서 어찌 도리어 나더러 사과를 하라는 말입니까!"

송강이 말했다.

"아우님, 소아내를 죽인 것은 자네가 맞네. 비록 군사가 엄히 내린 명령이라 해도, 나이로 따지면 저 사람은 자네 형님일세. 내 체면을 봐서라도 저분께 예를 갖추게.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절을 함세."

이규는 송강의 간곡한 청을 이기지 못하고 말했다.

"형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형님이 저를 몰아붙이니 어쩔 수 없군요. 사과하겠습니다."

이규는 송강에게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쌍도끼를 내려놓고 주동에게 두 번 절했다. 그제야 주동의 화가 가라앉았다. 산채에서는 조개 두령이 두 사람의 화해를 위해 연회를 베풀도록 준비했다.

이규가 시진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시 대관인이 숙부 시황성의 병세를 살피러 고당주에 갔다가, 그곳 지부 고렴의 처남인 은천석에게 집과 정원을 빼앗길 뻔했답니다. 은천석이 시진을 구타하며 욕설을 퍼붓기에, 제가 가서 그놈 은천석을 때려죽였습니다!"

송강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말했다.

"자네가 도망쳐 버렸으니, 시 대관인이 연루되어 관가에 끌려가게 생겼지 않은가."

오용이 말했다.

"형님,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대종이 산으로 돌아오면 곧 밝혀질 일입니다."

이규가 물었다.

"대종 형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오용이 대답했다.

"자네가 시 대관인의 장원에서 사고를 칠까 걱정되어, 특별히 그에게 자네를 불러 산으로 돌아오라고 일렀네. 대종이 그곳에 갔을 때 자네가 없으면, 분명 고당주까지 자네를 찾아 나설 걸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관리가 달려와 대종이 돌아왔음을 보고했다. 송강이 마중을 나가 대청에 앉은 뒤, 시 대관인의 일에 대해 물었다.

대종이 대답했다.

"시 대관인의 장원에 가보니, 이미 이규와 함께 고당주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곧장 그곳으로 달려가 알아보니, 온 성안에 은천석이 시황성의 집을 두고 다투다가 어떤 검은 대한에게 맞아 죽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 일로 시 대관인이 연루되어 옥에 갇혔고, 시황성 일가의 가솔과 재산은 모두 몰수당했다고 합니다. 시 대관인의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조개가 말했다.

"그 검은 놈이 또 사고를 쳤구나.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니 원."

이규가 말했다.

"시황성이 그놈 때문에 다쳐서 억울하게 죽었는데, 또 그 집을 차지하려 하고 시 대관인까지 때려대다니요! 아무리 살아있는 부처라 해도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개가 말했다.

"시 대관인은 평소 우리 산채에 은혜를 베풀어온 사람인데, 오늘 그가 위기에 처했으니 어찌 산을 내려가 구하지 않겠는가? 내가 직접 가보겠네."

송강이 말했다.

"형님은 산채의 수령이신데 어찌 함부로 움직이시겠습니까? 저와 시 대관인은 예전부터 친분이 있으니, 제가 형님을 대신해 산을 내려가겠습니다."

오용이 제안했다.

"고당주는 성은 작으나 인구가 많고 군사와 식량이 풍부하니, 적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임충, 화영, 진명, 이준, 여방, 곽성, 손립, 구팽, 양림, 등비, 마린, 백승까지 열두 명의 두령에게 마보군(말과 보병) 오천 명을 이끌고 전대 선봉으로 나서게 하십시오. 그리고 군의 주수(主帥)인 송강과 오용, 그리고 주동, 뇌횡, 대종, 이규, 장순, 양웅,

석수까지 열 명의 두령에게 마보군 삼천 명을 이끌고 후방을 지원하게 합시다."

이렇게 총 스물두 명의 두령이 조개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산채를 떠나 고당주를 향해 출발했다. 그 행렬이 어찌나 정연하고 당당한지 다음과 같았다.

수놓은 깃발 휘날리고 띠를 두르니, 그림 그린 나팔과 구리 징 소리 울려 퍼지네.
세 갈래 창과 다섯 갈래 창은 가을 서리처럼 찬란히 빛나고,
강철 창과 갈대 잎 창은 함박눈처럼 어지럽게 흩날리네.
방패는 길을 막아서고, 강한 활과 쇠뇌는 앞을 가로막으며,
대포는 수레를 따라오고, 큰 창과 긴 칼은 뒤를 호위하네.
안장 위의 장수는 남산의 맹호처럼 모두가 싸우기를 즐기고,
말 탄 무사는 북해의 푸른 용처럼 거침없이 돌진하며 싸우네.
창과 칼의 움직임은 흐르는 물처럼 급하고,
사람과 말은 바람을 가르며 거침없이 달려가네.

양산박의 전군이 고당주 경계에 이르자, 군졸들이 일찌감치 고렴에게 보고했다. 고렴은 그 말을 듣고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양산박에 숨어든 저 초적 놈들을 내가 마침 소탕하러 가려던 참이었는데, 오늘 제 발로 묶이러 오다니, 이는 하늘이 내게 공을 세우라고 돕는 것이로구나. 좌우에서는 어서 호령을 내려 군마를 정비해 성 밖으로 나가 적을 맞이하고, 백성들에게는 성 위로 올라가 지키게 하라."

이 고 지부는 말에 오르면 군사를 다스리고, 말에서 내리면 백성을 다스리는 자였다. 호령이 한번 떨어지자 장막 앞의 도통(都統), 감군(監軍), 통령(統領), 통제(統制), 제할(提轄) 등 온갖 군직의 관원들이 각자 군마를 거느리고, 교장에서 점호를 마친 뒤 제장들이 성 밖으로 나가 적을 맞이할 채비를 갖추었다. 고렴의 수하에는 '비천신병(飛天神兵)'이라 불리는 삼백 명의 친위병이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산동, 하북, 강서, 호남, 양회(兩淮), 양절(兩浙) 지역에서 뽑아온 정예 장정 호걸들이었다. 그 삼백 명의 비천신병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다음과 같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머리 뒤로는 한 줌의 안개가 흩날리네.
허리에는 호리병을 차고, 등에는 수천 갈래 불꽃을 품었구나.
노란 머리띠에는 팔괘가 가지런하고, 표범 가죽 갑옷은 사방을 누비네.
잘 닦인 구리 가면은 금빛처럼 빛나고, 단단한 쇠로 만든 칼은 빗자루처럼 휘두르네.
가슴을 가린 갑옷 앞뒤로는 두 개의 청동 거울이 달렸고,
눈을 멀게 할 깃발 좌우로는 천 겹의 검은 안개가 늘어섰네.
천계의 별이 하늘을 떠난 것인지, 달의 기운이 구름 사이로 내려온 것인지 모르겠구나.

지부 고렴은 직접 삼백 명의 신병을 이끌고 갑옷을 입고 칼을 등에 멘 채 말을 타고 성 밖으로 나갔다. 그는 부하 군관들을 거느리고 주위

를 돌며 진세를 갖추게 한 뒤, 삼백 명의 신병을 중군에 배치하고 깃발을 흔들며 함성을 지르고 북과 징을 울리며 적군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한편, 임충, 화영, 진명이 오천 명의 군마를 이끌고 도착했다. 양군이 마주하여 대치하니, 깃발과 북이 서로 마주 보이고 각자 강궁과 쇠뇌를 들어 진영의 발치를 겨누었다. 양군 진영에서는 나팔 소리가 울려퍼지고 북소리가 터져 나왔다. 화영과 진명은 열 명의 두령을 거느리고 진영 앞으로 나아가 말의 고삐를 잡아 멈추었다. 두령 임충은 장팔사모를 옆으로 뉘어 들고 말을 몰아 진영 밖으로 뛰어나가며 매섭게 외쳤다.

"고당주에서는 목숨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나와라!"

고렴은 말을 한 번 크게 몰아 서른 명 남짓한 군관들을 이끌고 문기(門旗) 아래로 나아가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임충을 가리키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죽음을 모르는 반역 놈아, 감히 어찌 내 성채를 침범하느냐?"

임충이 호통을 쳤다.

"백성을 해치는 강도 놈아! 내가 머지않아 경사(京師, 수도)까지 쳐들어가서, 네놈의 일가붙이이자 임금을 속인 역신 고구를 갈기갈기 찢어 죽여야 내 원한이 풀리겠다!"

고렴이 크게 노하여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저 역적 놈을 잡겠느냐?"

그러자 군관 대열에서 성이 우(于)이고 이름이 직(直)인 통제관 한 명이 말을 몰아 도를 휘두르며 진영 앞으로 나섰다. 임충은 그를 보자마자 곧장 우직에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이 다섯 합을 채 싸우기도 전에, 임충의 사모가 우직의 가슴팍을 찔렀고, 우직은 공중에서 한 바퀴를 돌아 말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고렴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외쳤다.

"또 누가 나가서 이 원수를 갚겠느냐?"

이번에는 군관 대열에서 성이 온(溫)이고 이름이 문보(文寶)인 통제관이 나타났다. 그는 장창을 들고 황표마(黃驃馬, 노란 빛이 도는 말)를 탄 채, 방울 소리와 장식 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진영 앞으로 달려나왔다. 네 마리의 말발굽이 먼지를 일으키며 임충을 향해 직진했다.

이를 본 진명이 크게 외쳤다.

"형님, 잠시 쉬십시오. 제가 저놈을 베어 넘기겠습니다!"

임충은 말의 고삐를 당겨 멈춰 서고 점강모를 거두며 진명에게 온문보와 싸우라고 길을 터주었다. 두 사람이 열 합 넘게 싸우던 중, 진명이 일부러 빈틈을 보여 온문보의 창이 파고들게 유도했다. 그 순간 진명이 몽둥이를 치켜들어 내리치니, 온문보의 정수리가 반쯤 깨져 나가며 말 위에서 즉사했다. 온문보가 탔던 말은 그대로 본진으로 달려갔다. 양측 군대는 서로 마주 선 채 일제히 함성을 내질렀다.

고렴은 장수 두 명을 연달아 잃자, 즉시 말 위에서 태아보검(太阿寶劍)을 뽑아 들고는 입으로 주문을 외우며 크게 외쳤다.

"가라!"

그러자 고렴의 진영에서 검은 기운 한 줄기가 소용돌이치며 솟구쳐 올랐다. 그 기운이 공중으로 흩어지자 모래와 돌이 날아다니고 땅이 흔들리며 하늘이 뒤집히는 듯하더니, 괴상한 바람을 일으키며 상대 진영을 향해 거침없이 휩쓸고 지나갔다. 임충, 진명, 화영을 비롯한 장수들은 정면으로 맞설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겁에 질린 말들이 날뛰며 울부짖는 바람에 정신없이 몸을 돌려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고렴이 칼을 휘둘러 삼백 명의 신병에게 지시하자, 그들은 진영에서 쏟아져 나와 공격을 시작했다. 뒤이어 관군들이 가세하여 밀어붙이니, 임충 일행의 군마는 마치 별이 떨어지고 구름이 흩어지듯 혼란에 빠졌다. 군사들은 대열이 끊기고 흩어진 채 서로 형님 아우를 부르며 울부짖고, 부모를 찾으며 아우뚱거렸다. 오천 명의 군사 중 천 명 남짓이 쓰러졌고, 결국 그들은 오십 리 밖까지 밀려나 진을 쳤다. 고렴은 적군이 물러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군사들을 거두어 고당주 성 안으로 들어가 안착했다.

한편, 송강의 중군 군마가 도착하자 임충 일행은 곧바로 앞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보고했다. 송강과 오용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며 군사에게 말했다.

"대체 어떤 신통한 술법이기에 이토록 위력적인 것이냐!"

오용이 말했다.

"아마도 요사스러운 법술일 것입니다. 만약 바람의 방향을 돌리고 불길을 되돌리는 법을 안다면 적을 격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강은 그 말을 듣고 천서(天書)를 펼쳐 살펴보았는데, 마침 제3권에 바람을 돌리고 불길을 되돌려 진을 깨뜨리는 법이 적혀 있었다. 송강은 크게 기뻐하며 주문과 비결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 그는 즉시 군마를 정비하고, 새벽 다섯 시경에 밥을 지어 먹은 뒤 깃발을 흔들고 북을 울리며 성을 향해 돌격했다.

성 안으로 보고를 올린 자가 있자, 고렴은 다시 승전한 군마와 삼백 명의 신병을 점검한 뒤 성문을 열고 조교(弔橋, 성문 앞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아 진을 쳤다. 송강이 칼을 차고 말을 몰아 진영 앞으로 나서자, 고렴의 군사들 가운데 검은 깃발 무리가 보였다. 오용이 말했다.

"저 진영의 검은 깃발들이 바로 '신사계'를 부리는 군사들입니다. 저들이 또 그 술법을 부릴까 두려운데, 어떻게 적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송강이 말했다.

"군사님, 안심하십시오. 제게는 진을 깨뜨릴 법이 있습니다. 장수들은 의심하거나 겁먹지 말고 오직 앞으로 나아가 싸우는 데만 전념하십시오."

한편 고렴은 장수들에게 자신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말라고 분부하며 이렇게 외쳤다.

"깃발 소리가 들리면 일제히 힘을 합쳐 송강을 생포하라! 그러면 내 반드시 큰 상을 내리겠다!"

양군이 함성을 지르며 맞붙으려 할 때, 고렴은 말 안장에 용과 봉황 무늬가 새겨진 구수동패(聚獸銅牌, 짐승을 부리는 구리패)를 걸고 손에는 보검을 든 채 진영 앞으로 나아갔다. 송강이 고렴을 가리키며 욕설을 퍼부었다.

"어젯밤에는 내가 오지 못해 형제들이 허무하게 한 차례 패했지만, 오늘이야말로 반드시 너를 처단하고 뿌리 뽑으리라!"

고렴이 호통을 쳤다.

"이 반역자 놈아, 어서 말에서 내려 포박을 당해라! 내 손과 발에 피를 묻히게 하지 말고!"

말을 마친 고렴이 칼을 휘두르며 주문을 외우더니 크게 외쳤다.

"가라!"

그러자 검은 기운이 솟구치며 괴상한 바람이 일어났다. 송강은 바람이 닥쳐오기도 전에 자신도 주문을 외우며 왼손으로는 결인을 맺고 오른손으로는 칼을 들어 가리키며 외쳤다.

"가라!"

그러자 그 바람은 송강의 진영으로 불어오는 대신, 도리어 고렴의 신병 부대 쪽으로 휘몰아쳐 들어갔다. 송강이 군사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려 할 때, 고렴은 바람의 방향이 바뀐 것을 보고 급히 구리패를 잡아 칼로 두드렸다. 그러자 신병 부대 쪽으로 황사가 휘몰아치더니, 그 가운데서 맹수 무리가 떼를 지어 달려 나왔다.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산예는 발톱 휘두르며 춤추고, 사자는 머리를 흔드네.
금빛 해태는 위엄을 떨치며, 비단빛 비휴는 용맹을 펼치네.
승냥이와 이리들은 송곳니 드러내며, 웅장한 군대를 향해 달려들고;
호랑이와 표범들은 입을 크게 벌리며, 못난 말들을 향해 달려드네.
가시 돋친 멧돼지는 진영을 뚫고 들어오고, 털이 덥수룩한 사나운 개들은 사람을 들이받네.
용 같은 큰 구렁이는 하늘을 뒤덮으며 날아오르고, 코끼리를 삼키는 뱀은 땅속으로 파고드네.

고렴이 구리패를 두드리자 괴상한 짐승과 독충 무리가 곧장 달려들었고, 송강의 진영에 있던 수많은 군마와 병사들은 겁에 질려 넋을 잃었다. 송강은 칼을 내던지고 말을 돌려 먼저 달아났다. 여러 두령도 무리를 지어 앞다투어 도망치기 바빴다. 크고 작은 장수와 군관들도 서로를 돌볼 겨를 없이 앞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고렴은 뒤에서 칼을 휘둘렀고, 신병들은 앞을 막아서고 관군은 뒤를 쫓으며 일제히 몰아치며 살육을 벌였다. 송강의 군대는 대패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고렴은 이십여 리를 추격하며 승리를 만끽하다가, 징을 울려 군대를 거두고 성 안으로 돌아갔다.

송강은 언덕 아래에 이르러서야 겨우 군마를 멈추고 진영을 구축했다. 비록 병사들의 손실은 있었으나 두령들이 모두 무사한 것이 다행이었다. 그는 군마를 정돈한 뒤 군사 오용과 상의했다.

"이번에 고당주를 치면서 연이어 두 차례나 진영이 무너졌네. 저 신병들을 격파할 방도가 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오용이 말했다.

"저자가 '신사계'를 부를 줄 안다면, 분명 오늘 밤 우리 진영을 습격하려 들 것입니다. 미리 계책을 세워 대비해야 합니다. 이곳에는 소수의 군사만 남겨두고, 우리는 예전의 진영으로 옮겨가서 주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강은 즉시 명령을 내려 양림과 백승에게만 진영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 군마와 병사들은 모두 예전 진영으로 물러가 휴식을 취하게 했다.

한편, 양림과 백승은 사람들을 이끌고 진영에서 반 리쯤 떨어진 풀숲 언덕에 매복한 채 일경(一更,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이 되기를 기다렸다. 그때의 모습은 이러하였다.

구름은 들판에 피어나고, 안개는 사방으로 넘실거리네.
하늘을 흔들고 땅을 뒤엎는 광풍이 일고, 바다를 뒤집고 강을 뒤엎는 거센 비가 쏟아지네.
뇌공은 노하여 불타는 짐승을 타고 위엄을 떨치고,
전모는 화가 나 금빛 뱀을 휘두르며 신통력을 부리네.

커다란 나무는 뿌리째 뽑히고, 깊은 물결은 속수무책으로 말라버리네. 관구에서 교룡을 베지 않았다면, 사주에서 수모를 굴복시킨 줄 알았으리.

그날 밤, 갑자기 바람이 몰아치고 천둥번개가 크게 쳤다. 양림과 백승이 삼백여 명의 부하를 이끌고 풀숲에 매복하여 지켜보고 있자니, 고렴이 삼백 명의 신병을 거느리고 걸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고렴은 바람 소리와 휘파람 소리를 내며 진영 안으로 살기등등하게 들이닥쳤으나, 그곳이 빈 진영인 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몸을 돌려 달아나려 했다.

양림과 백승이 크게 함성을 지르자, 고렴은 계책에 빠진 줄 알고 겁에 질려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고, 삼백 명의 신병들도 제각기 도망치기 바빴다. 양림과 백승은 쉴 새 없이 노(弩, 쇠뇌)를 쏘아댔는데, 화살 한 대가 마침 고렴의 왼쪽 어깨에 정통으로 맞았다. 병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가운데, 빗속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고렴이 신병들을 이끌고 멀리 달아나자, 양림과 백승은 인원이 적어 감히 깊이 추격하지 못했다.

잠시 후 비가 그치고 구름이 걷히자 다시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다. 달빛 아래 풀숲 언덕 앞에서, 찔러 쓰러뜨리고 쏘아 사로잡은 신병 스무여 명을 송강의 진영으로 압송했다.

천둥과 비바람이 몰아쳤던 일을 전해 듣자, 송강과 오용은 크게 놀라며 말했다.

"이곳에서 불과 오 리 정도 떨어진 곳인데, 어찌 비바람이 한 점 없단 말인가!"

사람들이 모여 의논하며 말했다.

"분명 요술입니다. 요술은 바로 이 근처, 땅에서 겨우 삼사십 장(丈, 약 100~130m) 높이에서 부리는 것이니, 구름과 비의 기운을 근처 호수에서 끌어다 쓴 것입니다."

양림이 보고했다.

"고렴이 직접 머리를 풀어헤치고 칼을 휘두르며 진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다 제 화살에 어깨를 맞고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 인원이 적어 미처 추격하지 못했습니다."

송강은 양림과 백승에게 공을 치하하며 상을 내리고, 잡아 온 부상당한 신병들은 처형했다. 그리고 여러 두령에게 명령하여 대진영을 둘러싸고 일곱여덟 개의 작은 진영을 설치하게 했다. 적이 다시 습격해 올 것에 대비함과 동시에, 사람을 양산박으로 보내 군마와 지원 병력을 데려오게 했다.

한편, 고렴은 화살에 맞은 뒤 성으로 돌아가 상처를 치료하며 병을 다스렸다. 그는 군사들에게 성을 굳건히 지키게 하고 밤낮으로 경계하며 대비하게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렀다.

"밤낮으로 철저히 대비하되 당분간은 저놈과 싸우지 말고 기다려라. 내 화살 맞은 상처가 낫고 나서 송강을 잡아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이다."

한편, 송강은 병력과 군마를 잃은 것을 보고 마음이 몹시 답답하여 군사 오용과 상의하며 말했다.

"이번에 고렴을 상대로 이토록 고전했는데, 만약 저쪽에서 군마를 더 보태어 힘을 합쳐 습격해 온다면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오용이 대답했다.

"고렴의 요술을 깨뜨리려면 반드시 저의 이 방책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그분을 모셔 오지 못한다면 시진의 목숨을 구하기는커녕, 고당주성을 차지하는 일도 영영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바로 안개를 일으키고 구름을 만드는 술법을 막기 위해, 하늘과 땅을 꿰뚫는 인물을 청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과연 오용이 말한 그 인물은 누구일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53회 — 대종이 지혜로 공손승을 얻고, 이규가 도끼로 나진인을 내리치다

戴宗智取公孫勝 李逵斧劈羅真人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시 오용이 송강에게 말했다. “이 요술을 깨뜨리려면, 반드시 사람을 계주로 보내 공손승을 찾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술법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송강이 물었다. “지난번에 대종이 갔을 때는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는데, 대체 어디서 찾아야 한단 말인가?” 오용이 대답했다. “계주에 관할하는 현이나 마을, 시골이 얼마나 많은데, 그동안은 아마 다 찾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공손승은 청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니, 분명 명산대천의 동굴이나 깊은 산속 같은 곳에 은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대종에게 계주의 관할 현과 명산, 신선들이 머물 만한 곳을 샅샅이 뒤지며 찾아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못 찾을 리가 없습니다.” 송강은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대종을 불러 계주로 가서 공손승을 찾아올 것을 상의했다. 대종이 말했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다만 동행할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용이 거들었다. “자네가 ‘신행법’을 쓰면 그 누가

자네를 따라잡겠는가?" 대종이 말했다. "동행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다리에도 갑마(甲馬, 신속히 달릴 수 있게 하는 도구)를 묶어주어 함께 멀리까지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규가 나섰다. "내가 대종 형님과 함께 가겠소!" 대종이 말했다. "정 나와 함께 가겠다면, 가는 동안 반드시 채식을 해야 하며 내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하네." 이규가 대답했다. "그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다 자네 말대로 하겠네." 송강과 오용은 두 사람에게 당부했다. "가는 길에 조심하고 주의해서 사고를 치지 말게. 만약 공손승을 만나면 지체 말고 즉시 돌아오게나." 이규가 말했다. "지난번에 은천석을 때려죽이는 바람에 채 대관인께서 관가에 불려가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어찌 그분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절대로 사고를 치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암기를 숨기고 짐을 꾸린 뒤, 송강과 다른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고당주를 떠나 계주를 향해 길을 나섰다.

스무 리 남짓을 가다 이규가 발을 멈추고 말했다. "형님, 술 한 사발 사서 마시고 갑시다." 대종이 말했다. "나와 함께 '신행법'을 쓰려면 반드시 채식과 술만 먹어야 하네. 일단 앞으로 가세." 이규가 대답했다. "고기 좀 먹는다고 무슨 큰일이라도 나겠소?" 대종이 말했다. "또 시작이군. 오늘은 이미 늦었으니 일단 객점에서 묵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세." 두 사람이 다시 서른 리 남짓을 더 가니 날이 어둑어둑해졌다. 그들은 객점을 찾아 머물며 불을 피워 밥을 짓고, 술 한 角(각, 약 100ml)을 사 왔다. 이규는 채소 밥 한 그릇과 채소 국 한 그릇을 떠서 방으로 가져가 대종과 함께 먹었다. 대종이 물었다. "자네는 왜 밥을 먹지 않는가?" 이규가 대답했다. "아직 배가 안 고파서 그렇소." 대종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놈이 분명 나 몰래 뒤에서 고기를 먹으려 하는

구나.' 대종은 스스로 채소 밥을 먹고는, 슬그머니 뒤편으로 가서 살펴보았다. 그러자 이규가 술 두 角과 소고기 한 접시를 가져다 놓고 혼자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종이 혼잣말로 말했다. "내 말이 맞았군. 하지만 지금 당장 들춰내지는 말자. 내일 조금 골려주면 될 테니." 대종은 제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다. 이규는 술과 고기를 한바탕 먹고 나서, 혹시라도 대종이 알아챌까 봐 조심스레 방으로 돌아와 잠을 잤다.

새벽 다섯 시경, 대종이 일어나 이규를 깨워 불을 피우게 하고 채소 밥을 지어 먹었다. 두 사람은 각자 짐을 등에 메고 방값까지 모두 계산한 뒤 객점을 나섰다. 채 이 리를 가지 못해 대종이 말했다.

"어제는 '신행법'을 쓰지 않았으니, 오늘은 서둘러 길을 재촉해야 하네. 자네는 우선 보따리를 단단히 묶게. 내가 법을 부려 팔백 리를 단숨에 가게 해주겠네."

대종은 갑마 네 개를 꺼내 이규의 두 다리에도 묶어주며 분부했다.

"앞에 있는 주막에서 나를 기다리게."

대종이 주문을 외우며 이규의 다리에 입김을 후 불자, 이규는 마치 구름을 탄 듯 발걸음이 빨라지더니 쏜살같이 달려 나갔다. 대종은 웃으며 혼잣말했다.

"하루 정도는 배고픔을 참게 해줘야겠군."

대종도 스스로 갑마를 묶고 그 뒤를 따랐다. 이규는 이 법을 잘 몰랐기에 그저 평소처럼 걷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귓가에

바람과 비 소리가 휘몰아치더니, 길가의 집과 나무들이 마치 줄지어 쓰러지는 것처럼 스쳐 지나갔고, 발밑은 구름과 안개가 몰아치는 듯했다. 겁이 난 이규가 몇 번이나 멈추려 했으나 두 다리는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마치 밑에서 누군가 밀어붙이는 것처럼 발이 땅에 닿지도 않은 채 그저 계속 달려 나갈 뿐이었다.

주막을 보아도 차마 들어갈 수가 없자, 이규는 절규하듯 외쳤다.

"아이고, 제발 좀 멈춰주시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때까지 계속 달렸으나, 배는 고프고 목은 마른 데다 발걸음은 멈추질 않으니, 이규는 온몸이 땀범벅이 된 채 숨을 헐떡였다. 뒤따라온 대종이 외쳤다.

"이 형님, 어찌하여 간식도 사 먹지 않고 이리 가십니까?"

이규가 대답했다.

"형님, 제발 좀 살려주시오! 이 철우가 배고파 죽겠소!"

대종은 품에서 떡 몇 개를 꺼내 먹었다. 이규가 소리쳤다.

"나는 발을 멈출 수가 없어 음식을 못 사니, 형님이 나를 위해 좀 먹어주시오!"

대종이 말했다.

"아우님, 이쪽으로 오게. 같이 먹세."

이규가 손을 뻗었으나, 두 사람 사이에는 한 장(약 3미터) 정도의 거리가 있어 도저히 닿지 않았다. 이규가 울먹이며 외쳤다.

"착한 형님, 제발 기다려 주시오!"

대종이 말했다.

"오늘 일이 좀 꼬였네. 내 두 다리도 멈출 수가 없구먼."

이규가 말했다.

"아이고! 내 이놈의 다리가 내 말을 듣질 않고 제멋대로 가니, 차라리 도끼로 이 아랫부분을 찍어버리는 게 낫겠소!"

대종이 대꾸했다.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낫겠네. 안 그러면 내년 정월 초하루까지도 못 멈출 테니까."

이규가 말했다.

"형님, 농담하지 마시오! 다리를 찍어버리면 형님이 나를 비웃지 않겠소?"

대종이 말했다.

"자네, 어젯밤에 내 말을 어겼는가? 오늘 나조차 멈출 수가 없으니 자네 혼자 계속 가보게나."

이규가 비명을 질렀다.

“아이고, 형님! 제발 좀 멈춰주시오!”

대종이 말했다.

“내 법은 고기를 먹는 것을 금하며, 특히 소고기를 먹는 것을 첫 번째 금기로 삼네. 만약 소고기를 한 조각이라도 먹었다면, 십만 리를 가야 겨우 멈출 수 있을 것이야.”

이규가 말했다.

“이거 참 큰일이군! 사실 어젯밤에 형님 몰래 소고기 몇 근을 사 먹었소. 이제 어쩌면 좋단 말이오!”

대종이 말했다.

“오늘 내 다리까지 멈추지 못하는 게 다 그 때문이었군. 이제 세상 끝까지 가야겠네. 아마 서너 해는 가야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이규는 그 말을 듣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먹였다. 대종이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 내 말 딱 한 가지만 잘 지키면 이 법을 풀어주겠네.”

이규가 말했다.

“형님, 이제 무엇이든 다 따르겠소!”

대종이 물었다.

“자네, 이제 다시는 나 몰래 고기를 먹지 않겠는가?”

이규가 대답했다.

“앞으로 고기를 먹는다면 내 혓바닥에 큰 종기가 생길 것이오! 형님이 채식을 하신다는데 이 철우는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어쩔 수 없이 속인 것이니, 다시는 절대 그러지 않겠소.”

대종이 말했다.

“정 그렇다면 이번 한 번만 봐주겠네.”

대종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나 소매를 휘둘러 이규의 다리를 툭 치며 “멈춰라!” 하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이규의 두 발이 마치 못 박힌 듯 땅에 딱 붙어 움직이지 않았다. 대종이 말했다.

“나는 먼저 가 있을 테니, 자네는 천천히 오게나.”

이규가 발을 떼려 했으나, 마치 무쇠로 만든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규가 크게 소리쳤다.

“또 큰일이군! 이 밤중에 어찌 가란 말이오? 형님, 제발 좀 살려주시오!”

대종이 뒤를 돌아보며 웃으며 물었다.

“이제 내 말을 따르겠는가?”

이규가 말했다.

"형님은 내 친형님이나 다름없으니, 어찌 감히 형님의 말씀을 어기겠소."

대종이 말했다.

"좋네, 이번에는 정말 내 말을 따르는군."

대종은 이규의 손을 잡고 "일어나!" 하고 외쳤다. 그러자 두 사람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갔다. 이규가 말했다.

"형님, 이 철우를 가엽게 여겨 어서 좀 쉬게 해주시오!"

앞에 객점이 나타나자 두 사람은 그곳에 묵기로 했다. 방에 들어간 대종과 이규는 다리에서 갑마를 풀어 내려놓고, 종이돈을 꺼내 태우며 제사를 지낸 뒤 대종이 이규에게 물었다.

"이번에는 좀 어떠한가?"

이규가 대답했다.

"이제야 이 두 다리가 다시 내 것이 된 것 같소."

대종이 물었다.

"누가 어젯밤에 몰래 술과 고기를 사 먹으라 하더냐?"

이규가 말했다.

"형님이 고기를 못 먹게 하시니, 몰래 좀 먹었더니 형님께 아주 호되게 당했지 뭡니까."

대종은 이규에게 채소 밥과 채소 술을 준비하게 하여 먹인 뒤, 국을 끓여 발을 씻고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 다섯 시경 일어나 세수를 마치고 밥을 먹은 뒤, 방값까지 모두 계산하고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섰다. 채 삼 리 남짓을 가지 않아 대종이 갑마를 꺼내며 말했다. "아우님, 오늘은 갑마를 두 개만 묶어주겠네. 그래야 좀 천천히 갈 수 있을 테니." 이규가 말했다. "아이고, 형님, 이제는 제발 묶지 마시오." 대종이 말했다. "자네가 내 말을 잘 따르니 내가 자네와 큰일을 도모하려는데, 어찌 자네를 골탕 먹이겠나? 하지만 만약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젯밤처럼 자네를 여기 못 박아두고 갈 것이네. 내가 계주에 가서 공손승을 찾아낸 뒤에야 돌아와 풀어줄 테니 말이야." 이규가 당황하여 소리쳤다. "따르겠소, 따르겠소!" 대종은 그날 이규와 각각 갑마를 두 개씩 묶고 '신행법'을 부리며, 이규를 부축하여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갔다. 본래 대종의 법은 가고 싶을 때 가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는 것이었다. 이규는 이제 감히 대종의 말을 어기지 못하고, 길을 가다 채소 밥과 채소 술을 사 먹으며 조심스레 길을 재촉했다. 이야기는 길게 늘어놓을 것 없이, 두 사람이 신행법을 써서 열흘도 채 되지 않아 계주 성 밖 객점에 도착하여 머물게 되었다.

다음 날 두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갈 때, 대종은 주인으로, 이규는 하인으로 변장했다. 성안을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나 공손승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두 사람은 결국 객점으로 돌아와 쉬었다. 이튿

날 다시 성안의 좁은 거리와 골목 구석구석을 찾아다녔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이규는 마음이 조급해져서 욕설을 내뱉었다.

"그 거지 같은 도사 놈, 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거야! 내 눈에 띄기만 해 봐라, 아주 머리통을 확 쥐어뜯어 형님 앞에 데려다 놓을 테니까!"

대종이 말했다.

"자네 또 시작이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젯밤처럼 고생 좀 시켜주겠네."

이규가 웃으며 말했다.

"그저 해본 소리요."

대종이 한 번 더 타박하자 이규는 감히 대꾸도 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다시 객점으로 돌아와 쉬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두 사람은 성 밖 근처의 마을과 저잣거리를 찾아다니며 수소문했다. 대종은 노인을 볼 때마다 공손승 선생이 어디 사는지 정중히 여쭈었으나, 그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종이 수십 군데를 더 물어보았으나 소득이 없었다. 낮 정오 무렵이 되자 두 사람은 배가 몹시 고파졌다. 길가에 있는 국수집을 발견한 두 사람은 곧장 안으로 들어가 요기를 할 간식을 주문했다. 가게 안은 손님들로 꽉 차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기에, 대종과 이규는 길목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주인이 물었다. "손님, 국수를 드시려면 저 노인분과 합석하십시오." 대종은 커다란 자리를 혼자 차지하고 앉아 있는 한 노

인을 발견하고는, 그에게 예를 갖추어 인사를 건넨 뒤 마주 보고 앉았다. 이규는 대종의 어깨 너머 쪽에 앉아 주인에게 든든한 국수 네 그릇을 내오라고 시켰다. 대종이 말했다. "나는 하나만 먹을 테니, 너는 세 그릇이나 먹어서야 되겠느냐?" 이규가 말했다. "부족합니다. 한꺼번에 여섯 그릇을 내오라고 하세요. 제가 다 먹어 치울 테니까요." 주인도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한참을 기다려도 국수가 나오지 않았다. 이규는 국수들이 모두 안쪽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초조해졌다. 그때 주인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한 그릇을 가져와 합석한 노인 앞에 놓아주었다. 노인은 사양하지 않고 곧장 국수를 집어 들었다. 국수가 워낙 뜨거웠던 탓에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식탁에 붙어 국수를 먹기 시작했다. 성미 급한 이규는 국수가 나오지 않자 소리를 질렀다. "이봐, 주인장!" 이규는 욕설을 섞어 소리쳤다. "이 양반들을 이만큼이나 기다리게 하다니!" 그러고는 식탁을 쾅 내려치는데, 그 바람에 국수 국물이 튀어 노인의 얼굴에 묻고 국수 그릇마저 뒤집어졌다. 화가 난 노인이 이규를 붙잡으며 꾸짖었다. "당신 대체 무슨 도리로 내 국수를 엎지르는 거요?" 이규는 주먹을 움켜쥐며 노인을 때리려 했다. 대종이 황급히 말리며 노인에게 사과했다. "어르신, 저런 사람과 상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국수 한 그릇 값을 대신 치르겠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손님은 모르시겠지만, 내가 멀리서 온 몸이라 얼른 국수를 먹고 돌아가서 강론을 들어야 하오. 늦으면 일정이 틀어지단 말이오." 대종이 물었다. "어르신은 어디 분이십니까? 누구의 강론을 들으러 가시는지요?" 노인이 대답했다. "나는 이곳 계주 관할인 구궁현 이선산에 사는 사람이라오. 이번에 성안에 좋은 향을 좀 사러 왔는데, 산에 계신 나진인께서 '불로장생의 법'을 설하신다기에 가려는 것이오." 대종은 속으로 생각했다. '혹시 공손승도 그곳에 있는 것 아닌가?' 그는 노인

에게 다시 물었다. “어르신, 혹시 댁 근처에 공손승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까?” 노인이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 물으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소. 나는 그와 이웃 사촌이라오. 그는 집에 노모 한 분만 모시고 있지요. 그 선생은 늘 구름처럼 떠돌며 유람을 다녀서, 지금은 공손일청이라 불리며 성을 떼고 그저 청도인이라 불린다오. 그게 속명이라 아무도 그를 공손승이라 부르며 알아보지 못하는 게요.” 대종은 ‘철신을 신고 천 리를 찾아 헤매다 겨우 만났으니, 애써 힘 들일 것도 없구나’라며 감탄했다. 대종은 다시 노인에게 물었다. “구궁현 이선산이 여기서 얼마나 멉니까? 청도인은 지금 집에 있습니까?” 노인이 답했다. “이선산은 이 현에서 사십오 리 정도밖에 안 되오. 청도인은 나진인의 수제자라, 스승께서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신다오.” 대종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그는 서둘러 국수를 주문해 노인과 함께 먹고는 국수 값을 계산한 뒤 가게를 나와 길을 물었다. 대종이 말했다. “어르신, 먼저 가십시오. 저도 향과 종이를 좀 사고 곧 따라가겠습니다.” 노인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대종과 이규는 객점으로 돌아가 짐 보따리를 챙기고 갑마를 다시 매단 뒤, 객점을 나서서 구궁현 이선산을 향해 길을 잡았다. 대종이 신행법을 부리니, 사십오 리 길을 순식간에 주파했다. 두 사람이 현청 앞에 도착해 이선산이 어디냐고 묻자, 어떤 이가 길을 가리키며 말했다. “현에서 동쪽으로 가면 겨우 오 리 남짓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현청을 떠나 동쪽으로 향했다. 과연 오 리를 채 가지 않아 저 멀리 신비로운 선산이 보였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수려하였다. 시로 이르되,

푸른 산은 비취색으로 깎여 있고, 푸른 봉우리에는 구름이 쌓여 있네.
양쪽 절벽은 호랑이가 웅크리고 용이 똬리 튼 듯 갈라져 있고, 사방에는 원숭이 울음과 학의 울음소리 들려오네.
아침에는 구름이 산꼭대기를 가리고, 저녁에는 해가 숲 끝에 걸려 있구나.
흐르는 물은 넘실대며 계곡 안에서 옥 노리개 부딪치는 소리 내고,
떨어지는 폭포는 동굴 속에서 은은하게 거문고 소리 내네.
만약 도를 닦는 동반자가 아니라면, 분명 신선이 약을 달이는 곳이리라.

대종과 이규가 이선산 아래에 도착하니 한 나무꾼이 보였다. 대종이 그에게 예를 갖추어 물었다.

"실례지만, 이곳에 청도인께서 어디 사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나무꾼이 길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동쪽 산자락만 넘어가면 됩니다. 문 앞에 작은 돌다리가 하나 있는 집이 바로 그곳입니다."

두 사람이 산자락을 돌아 들어가니 초가집 십여 채가 둘러져 있고, 낮은 담장 너머로 작은 돌다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곳에 다다르자 한 마을 처녀가 갓 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나오고 있었다. 대종이 예를 갖추어 물었다.

"낭자, 혹시 청도인 댁에서 나오시는 길입니까? 청도인께서 지금 집에 계신지요?"

처녀가 대답했다.

"집 뒤편에서 단약을 만들고 계십니다."

대종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이규에게 일렀다.

"너는 저 나무 뒤에 가서 잠시 숨어 있어라. 내가 직접 들어가서 그분을 뵙고 나면 너를 부르마."

대종이 홀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초가집 세 채가 나란히 늘어서 있고, 문에는 갈대 발이 드리워져 있었다. 대종이 헛기침을 한 번 하자, 안에서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한 분이 걸어 나왔다. 대종이 그 할머니를 살펴보니 이러하였다.

푸른 빛 도는 고풍스러운 모습에, 학처럼 하얀 머리와 붉은 얼굴이라.
흐린 눈은 안개에 싸인 가을 달 같고, 하얀 눈썹은 햇살에 비친 새벽 서리 같구나.
푸른 치마에 흰 옷 차림은, 어렴풋이 자부원군 같고;
베옷에 비녀를 꽂은 모습은, 흡사 여산의 노파 같도다.
모습은 하늘을 나는 구름 속 학 같고, 얼굴은 산속의 눈 맞은 소나무 같구나.

대종이 즉시 예를 갖추며 말했다.

"할머니,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청도인을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물었다.

"나으리의 성함이 어찌 되시는지요?"

대종이 대답했다.

"제 성은 대요, 이름은 종이라 합니다. 산동에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할머니가 말했다.

"그 아이는 구름처럼 떠돌며 수행 중이라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종이 다시 말했다.

"저는 예전부터 알던 사람입니다. 꼭 전해야 할 긴요한 말씀이 있으니, 부디 한 번만 뵙게 해주십시오."

할머니가 말했다.

"집에 없으니, 할 말이 있다면 여기 남겨두어도 괜찮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오면 알아서 만나게 해 주겠소."

대종이 말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대종은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문밖으로 나와 이규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네 도움이 꼭 필요하다. 방금 저 할머니 말씀이 청도인이 집에 없다고 하시니, 네가 가서 그를 모셔 오너라. 만약 집에 없다고 하면 그때는 집을 때려 부수며 난입하되, 절대로 그 노모를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소리쳐 말리면 즉시 멈추어야 한다."

이규는 먼저 보따리에서 쌍도끼를 꺼내 양쪽 허리춤에 꽂고는 집 안으로 들이닥치며 외쳤다.

"당장 기어 나와라!"

할머니가 황급히 마중 나오며 물었다.

"누구시오?"

할머니는 눈을 부릅뜬 이규를 보자 겁부터 집어먹고는 조심스레 물었다.

"아우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규가 호통을 쳤다.

"나는 양산박의 '흑선풍'이다! 형님의 명을 받들어 공손승을 모시러 왔다. 당장 그를 불러내라! 만약 끝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불을 질러 네

집구석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테니, 괜히 나중에 딴소리 말고 얼른 나오라고 해라!”

할머니가 말했다.

“호걸님, 이러지 마십시오. 이곳은 공손승의 집이 아니라, 그저 스스로를 청도인이라 부르는 곳일 뿐입니다.”

이규가 맞받아쳤다.

“그놈 얼굴만 보면 내가 누군지 단번에 알아볼 테니, 그냥 불러내기나 해라!”

할머니가 다시 말했다.

“밖으로 수행을 떠나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규는 커다란 도끼를 뽑아 들더니 먼저 담장 하나를 단칼에 베어 넘겼다. 할머니가 앞을 가로막으며 만류하자 이규가 소리쳤다.

“네 자식을 불러내지 않으면 네년부터 죽여버리겠다!”

그러고는 도끼를 휘둘러 할머니를 내리쳤고, 할머니는 겁에 질려 바닥에 쓰러졌다. 그때 안에서 공손승이 걸어 나오며 외쳤다.

“무례하게 굴지 마라!”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약로(藥爐)와 단조(丹竈)로 신선술을 익히며,
깊은 산에 자취를 감추고 온갖 인연을 끊었네.
흉신(凶神)이 집 안으로 들이닥치지 않았던들,
공손승(公孫勝)이 어찌 기꺼이 마루 앞으로 나왔으랴.

대종이 즉시 다가와 꾸짖었다.

"철우야, 어찌하여 노모를 저토록 겁주느냐!"

대종은 서둘러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다. 이규는 커다란 도끼를 내려놓으며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형님, 노여워 마십시오. 저분이 끝까지 안 나오겠다고 버티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공손승은 먼저 할머니를 안으로 모신 뒤, 다시 나와 대종과 이규에게 예를 갖추어 인사했다. 그러고는 그들을 깨끗한 방으로 안내해 앉히고 물었다.

"두 분께서 여기까지 찾아내시다니 대단하십니다."

대종이 대답했다.

"스승님께서 산을 내려가신 뒤로, 제가 먼저 계주(薊州)를 샅샅이 뒤져보았으나 소식조차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형제들을 모아 양산박으로 돌아갔을 뿐이지요. 이번에 송강 형님께서 고당주에 갇힌 시대관인(柴大官人, 시진)을 구하러 가셨다가, 지부 고렴의 요술에 두세 차

례나 패하여 속수무책인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규를 보내 스승님을 모셔 오라 명하셨습니다. 계주 곳곳을 헤매도 찾을 길이 없다가, 우연히 국수집에서 만난 한 노인분의 인도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마을 처녀 말로는 스승님께서 집에서 단약을 구우며 계신다는데, 할머니께서 계속 거절하시는 바람에 이규가 스승님을 끌어내려고 무리를 좀 했습니다. 이 점이 너무 거칠었던 것 같으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형님께서 고당주에서 하루를 일 년처럼 고통스럽게 보내고 계시니, 부디 스승님께서 길을 나서 주시어 대의를 이루는 데 힘을 보태 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공손승이 말했다.

"빈도는 젊은 시절 강호를 떠돌며 호걸들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양산박과 헤어져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결코 마음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첫째는 노모를 모실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스승이신 나진인(羅真人)께서 저를 집에 머물러 있게 하셨고, 혹여 누군가 찾아올까 두려워 청도인이라 이름을 바꾸고 이곳에 숨어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종이 다시 말했다.

"지금 송강 형님이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자비로운 마음을 베풀어 한 번만 길을 나서 주십시오."

공손승이 말했다.

"노모를 봉양할 사람이 없으니, 스승이신 나진인께서 어찌 허락하시겠습니까. 사실 가기가 어렵습니다."

대종이 다시 절하며 간곡히 청하자, 공손승은 대종을 부축해 일으키며 말했다.

"다시 상의해 보겠습니다."

공손승은 대종을 머물게 하고, 이규와 함께 깨끗한 방에 앉아 소박한 술과 채소 음식을 차려 대접했다.

세 사람이 음식을 한 차례 먹고 나자, 대종이 다시 간곡히 애원하며 말했다.

"만약 스승님께서 가기를 거부하신다면, 송강 형님은 분명 고렴에게 붙잡히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산박의 대의도 영영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공손승이 말했다.

"우선 내가 스승님께 가서 여쭈어보마. 만약 허락하신다면 함께 가겠다."

대종이 다급히 말했다.

"지금 당장 가서 여쭈어봐 주십시오."

공손승이 말했다.

"우선 마음 편히 하룻밤 머물다 가거라. 내일 아침 일찍 가보마."

대종이 다시 말했다.

"형님께서 그곳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일 년을 보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우실 것입니다. 부디 스승님을 모시고 함께 길을 나서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공손승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종과 이규를 데리고 집을 나서서, 길을 따라 이선산으로 향했다. 이때는 이미 가을이 저물고 초겨울로 접어드는 시기라 낮이 짧고 밤이 길어 금방 어둑해졌다. 산 중턱에 이르자 이미 붉은 해가 서산으로 저물어가고 있었다. 소나무 그늘 사이로 난 작은 길을 따라가니 나진인(羅真人)의 도관(道觀) 앞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붉은 현판에 금색 글자로 '자허관(紫虛觀)'이라 세 글자가 쓰여 있었다. 세 사람이 관 앞에 도착하여 이선산을 바라보니, 과연 그곳은 신선이 사는 곳이라 할 만한 아름다운 경치였다.

그 광경을 보니 이러했다.

푸른 소나무는 울창하고, 비취빛 측백나무는 빽빽하구나. 한 무리의 백학은 경전을 듣고 있고, 몇몇 청의 도사들은 약을 찧고 있네. 푸른 오동나무와 비취빛 대나무 사이로, 동굴 문은 굳게 잠겨 푸른 창문엔 한 기가 서렸고, 흰 눈 속에서 돋아난 노란 싹 위로, 석실의 구름은 단약을 굽는 화로의 온기를 감싸네. 들사슴은 꽃을 입에 물고 오솔길을 가로지르고, 산원숭이는 열매를 들고 바위를 넘나드네. 때때로 도사들이 경전을 논하는 소리 들리고, 산속 노인이 도법을 논하는 모습 자주 보이네. 허황단 곁에는 하늘바람이 불어와 보허법(步虛法) 읊는 소리 들려

오고, 예두전 안에는 옥장식들이 부딪히며 낭랑한 소리를 내는구나. 이곳이 바로 진정한 자부(紫府)의 경지이니, 또 어디서 봉래산을 찾으리오?

세 사람은 의정(衣亭)에 이르러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회랑을 지나 곧장 전각 뒤편에 있는 송학헌(松鶴軒)으로 향했다. 두 동자가 공손승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진인(羅真人)에게 보고하니, 나진인이 법지(法旨)를 전하며 세 사람을 안으로 들라고 일렀다. 곧 공손승이 대종과 이규를 데리고 송학헌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나진인이 아침 조진(朝真) 예를 막 마치고 운상(雲床)에 앉아 있을 때였다. 공손승은 앞으로 나아가 예를 올리고 몸을 굽혀 곁에서 시립했다. 대종과 이규가 나진인을 살펴보니, 과연 신선이 팔방을 노니는 듯한 기품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이러했다.

별빛이 서린 관에는 옥잎이 촘촘하고,
학의 깃털 옷에는 금빛 노을이 수놓았네.
긴 수염에 넓은 뺨을 가졌으니,
수행은 번뇌 없는 하늘의 경지에 이르렀고,
푸른 눈동자 맑은 눈빛을 지녔으니,
신선이 되어 영생의 세계를 누비네.
안기의 대추를 먹고, 방삭의 복숭아를 맛보며,
단전에 기운이 가득하니 참으로 신령한 몸이라.
신선의 명부에 이름을 올렸으니, 분명 강건한 생명력을 가졌으리.

깊은 밤 달빛 아래 학의 울음소리 멀리 들려오고,
구만리 구름 위로 학의 등 위에서 높이 날아오르네.

대종은 그 모습을 보고 황급히 절을 올렸으나, 이규는 그저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나진인(羅真人)이 공손승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은 무엇 때문에 왔느냐?" 공손승이 대답했다. "전에 제자가 스승님께 말씀드렸던 산동의 의로운 벗들입니다. 지금 고당주 지부 고렴이 요술을 부려 행패를 부리고 있어, 형님인 송강이 특별히 이 두 동생을 보내 제자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감히 멋대로 행동할 수 없어 스승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나진인이 말했다. "내 제자가 이미 화갱(火坑, 불구덩이 같은 고난)을 벗어나 장생불사를 배우고 있는데, 어찌 다시 이런 속세의 일을 탐내려 하느냐?" 대종이 다시 절을 올리며 말했다. "부디 공손 선생을 잠시만 산 아래로 내려보내 주십시오. 고렴을 물리치고 나면 곧바로 다시 산으로 모셔 오겠습니다." 나진인이 말했다. "너희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구나. 이것은 출가한 사람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너희끼리 산 아래로 내려가서 상의하거라."

공손승은 두 사람을 데리고 송학헌을 나와 해가 저물 무렵 산을 내려왔다. 이규가 물었다. "그 늙은 신선 영감님이 뭐라고 하더냐?" 대종이 말했다. "네가 듣지를 않으니 모르느냐?" 이규가 대답했다. "그딴 귀찮은 소리는 도통 모르겠단 말이다." 대종이 다시 말했다. "그분의 스승이 공손 선생더러 속세에 나가지 말고 쉬라고 하셨다." 그 말을 들은 이규가 소리를 버럭 지르며 말했다. "우리 둘을 이 먼 길까지 오게 해서, 천신만고 끝에 겨우 찾아냈더니 고작 저딴 개소리를 하다니! 내 성질 건드리지 마라. 한 손으로는 네 도사 모자를 짓이겨 버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네 허리춤을 붙잡아 저 늙은 도둑놈을 산 아래로 내동댕이쳐 버릴 테니까!" 대종이 눈을 부라리며 꾸짖었다. "또 발을 묶어 놓으려고 그러느냐!" 이규가 얼른 대답했다. "아니오, 아닙니다. 그냥 한 번 해본 소리요."

세 사람은 다시 공손승의 집으로 돌아가 그날 밤 저녁을 대충 먹었다. 공손승이 말했다. "일단 오늘 밤은 여기서 묵고, 내일 다시 스승님께 간곡히 청해 보자꾸나. 만약 허락하신다면 그때 가자." 대종은 밤이 되자 잠자리를 마련하라고 일렀고, 두 사람은 짐을 챙겨 정실(淨室, 깨끗한 방)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두 사람이 오경(새벽 4~6시 사이)쯤 되었을 때, 이규가 슬그머니 몸을 일으켰다. 대종이 코를 골며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이규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대체 무슨 개 같은 상황이란 말인가? 원래 산채에 있던 사람이 왜 저런 도사 스승을 찾아와서 이 난리란 말이야! 만약 내일 그 영감이 또 안 된다고 하면, 형님의 큰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 아닌가? 참을 수가 없구나. 차라리 저 늙은 도둑놈을 죽여버려야겠다. 그러면 물어볼 데도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따라나서겠지.'

이규는 즉시 도끼 두 자루를 챙겨 들고는 슬그머니 방문을 열었다. 그러고는 밝은 별빛과 달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산 위로 올라갔다. 자허관 앞에 다다르니 커다란 대문 두 짝이 굳게 닫혀 있었고, 옆에 있는 울타리는 그리 높지 않았다. 이규는 훌쩍 뛰어넘어 대문을 열고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갔다. 송학헌 앞까지 다다랐을 때, 창 너머로 누군가 옥추보경을 낭독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규가 기어 올라가 창호지를 핥아 뚫고 안을 들여다보니, 로진인이 홀로 운상에 앉아 있었다. 앞

쪽 탁자 위에는 향로에서 좋은 향이 피어오르고 그림 그려진 촛불 두 자루가 켜진 채, 그는 낭랑한 목소리로 경전을 읽고 있었다. 이규가 말했다. '이 도둑놈 같은 도사가 죽어 마땅하구나!' 이규는 문가로 다가가 손으로 휙 밀어버렸고, 그러자 격자문 두 짝이 덜컥 열렸다. 이규는 잽싸게 안으로 뛰어 들어가 도끼를 치켜들고는 로진인의 정수리를 향해 내리찍었다. 로진인은 운상 위로 쓰러졌고, 하얀 피가 흘러나왔다. 이규는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보아하니 이 도둑놈은 동자 몸이라 원양진기(元陽眞氣)를 잘 길러서 밖으로 새 나가지 않았는지, 붉은 기운이 조금도 없구나.' 이규가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도사 모자는 두 갈래로 쪼개졌고 머리는 목 아래까지 푹 찍혀 있었다. 이규가 말했다. '이번에 골칫덩이를 하나 치워버렸으니, 공손승이 안 간다고 떼를 쓰지는 못하겠지.' 그러고는 몸을 돌려 송학헌을 나와 옆쪽 복도로 달려 나갔다. 그런데 푸른 옷을 입은 동자 하나가 이규를 가로막으며 호통을 쳤다. '네놈이 내 스승님을 죽였으니, 어디로 도망가려느냐!' 이규가 말했다. '이 꼬마 도둑놈아, 너도 내 도끼 맛을 좀 봐라!' 이규가 도끼를 휘두르자 동자의 머리가 단번에 잘려 섬돌 가로 떨어졌다. 두 사람 모두 이규의 도끼에 목숨을 잃었다. 이규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슬슬 빠져나가는 게 좋겠군.' 그는 곧장 관문을 나와 산 아래로 날아갈 듯이 달려 내려갔다. 공손승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안으로 잽싸게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정실에서 대종의 기척을 살펴보니 대종은 여전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였다. 이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가서 잠을 청했다. 날이 밝자 공손승이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 사람에게 대접했다. 대종이 말했다. '선생님께서 다시 저희 두 사람을 산 위로 데려가 진인께 간곡히 청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이규는 속으로 비웃었다.

세 사람은 원래 가던 길을 따라 다시 산 위로 올라갔다. 자허관 안 송학헌에 들어서니 두 명의 동자가 보였다. 공손승이 물었다. “진인께서는 어디 계시느냐?” 동자가 대답했다. “진인께서는 운상에 앉아 수양 중이십니다.” 이 말을 들은 이규는 깜짝 놀라 혀를 내밀었는데, 한참이 지나도 혀가 들어가지 않았다. 세 사람이 발을 들여놓고 안을 들여다보니, 로진인이 운상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이규는 속으로 생각했다. ‘설마 어젯밤에 잘못 죽인 것인가?’

그때 로진인이 입을 열었다. “너희 세 사람은 또 무슨 일로 왔느냐?” 대종이 말했다. “부디 스승님의 자비로 저희를 도와, 사람들이 재난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로진인이 물었다. “저 검은 덩치는 누구냐?” 대종이 대답했다. “제 의동생인데, 성은 이요 이름은 규라고 합니다.” 로진인이 웃으며 말했다. “본래 공손승을 보내주지 않으려 했으나, 공손승의 체면을 봐서 한 번 다녀오도록 허락하겠다.” 대종이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이규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영감이 내가 죽이려 한 걸 알고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떠드는구나!’

로진인이 말했다. '너희 세 사람이 잠시 만에 고당주에 도착하게 해주면 어떻겠느냐?' 세 사람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종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로진인이라는 분은 나의 신행법보다도 더 대단하시구나…….' 로진인이 동자를 불러 손수건 세 장을 가져오게 했다. 대종이 물었다. '스승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고당주에 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로진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모두 나를 따르라.' 세 사람은 관문을 나와 바위 언덕 위로 따라 올라갔다. 로진인은 먼저 붉은 손수건 하나를 집어 바위 위에 펼쳐 놓으며 말했다. '내 제자

가 올라타거라.' 공손승이 두 발을 그 위에 올리자, 로진인이 소매를 한 번 휘두르며 크게 외쳤다. '올라가라!' 그러자 손수건이 한 조각 붉은 구름으로 변하더니, 공손승을 태우고 서서히 하늘로 떠올라 산에서 이십여 장(약 60미터)가량 높이 올라갔다. 로진인이 '멈춰라!' 하고 외치자 붉은 구름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어 로진인은 푸른 손수건을 펼쳐 대종에게 밟고 올라서게 한 뒤, '올라가라!' 하고 외쳤다. 그러자 손수건이 푸른 구름으로 변해 대종을 태우고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푸르고 붉은 두 구름은 마치 커다란 멍석처럼 하늘 위를 빙빙 돌며 떠다녔고, 이규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로진인은 이번에는 하얀 손수건을 바위 위에 펼쳐 놓으며 이규에게 올라서라고 불렀다. 이규가 웃으며 말했다. '이런 장난을 치시다니요, 떨어지기라도 하면 머리에 커다란 혹이 생길 겁니다.' 로진인이 물었다. '저 두 사람이 보이느냐?' 이규가 손수건 위에 서 있자, 로진인이 '올라가라!' 하고 한마디 외쳤다. 그러자 손수건이 하얀 구름으로 변해 휙 날아올랐다. 이규가 비명을 질렀다. '아이고! 중심 잡기가 힘듭니다, 저를 내려주십시오!' 로진인이 오른손을 까딱하며 불러들이자, 푸르고 붉은 두 구름이 평온하게 내려앉았다. 대종은 절을 하며 감사를 표한 뒤 로진인 앞에 모셨고, 공손승은 왼편에 섰다. 구름 위에 있던 이규가 위에서 소리쳤다. '저도 소변이랑 대변이 마렵단 말입니다! 내려주지 않으시면 머리 위로 그냥 싸버릴 겁니다!' 로진인이 물었다. '우리는 출가한 몸으로서 너희를 괴롭힌 적이 없거늘, 너는 어찌하여 밤중에 담을 넘어 들어와 도끼로 나를 내리찍었느냐? 만약 내게 도덕(도력)이 없었다면 이미 죽었을 것이다. 게다가 너는 내 도동(道童) 하나까지 죽였다.' 이규가 말했다. '제가 아니라니요, 사람을 잘못 보신 것 아닙니까?' 로진인이 웃으며 말했다. '비록 내 조롱박 두 개를 쪼개놓은 것에 불과하나, 그 마음이 선하지 않으니 네

놈에게 고난을 좀 맛보게 해주마.' 로진인이 손을 휘두르며 크게 외쳤다. '가라!' 그러자 거센 바람이 불어닥쳐 이규를 구름 너머로 날려 버렸다. 황건역사 두 명이 이규를 붙들고 있었고, 귓가에는 바람과 비 소리만 들려왔다. 이규는 혼비백산하여 손발을 벌벌 떨며 어느새 계주 경계에 다다랐다. 그러다 갑자기 '콰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계주 지부 관아의 지붕 위에서 데굴데굴 굴러 떨어졌다.

마침 계주 지부 마사홍이 집무를 보고 있을 때였다. 관아 앞에는 많은 관리와 하인이 늘어서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검은 덩치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모두 깜짝 놀랐다. 마 지부가 이를 보고 외쳤다. '저놈을 당장 이리로 끌고 오너라!' 곧장 십여 명의 옥졸이 달려들어 이규를 앞마당으로 끌고 왔다. 마 지부가 호통을 쳤다. '네 이놈, 어느 곳에서 온 요물이냐? 어찌하여 하늘에서 툭 떨어졌느냐?' 이규는 머리가 깨지고 이마가 터져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마 지부가 말했다. '분명 요물임이 틀림없으니, 가서 법력 있는 물건들을 좀 가져오너라.' 옥졸 중 우두머리가 이규를 꽁꽁 묶어 관아 앞 풀밭으로 끌고 갔다. 그러자 우후(虞候) 한 명이 개 피가 담긴 대야를 가져와 이규의 머리 위로 들이부었고, 또 다른 이는 오줌과 똥이 담긴 양동이를 가져와 이규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부었다. 이규의 입과 귀에는 온통 오물뿐이었다. 이규가 소리쳤다. '나는 요물이 아니다! 나는 로진인을 모시는 사람이다!' 알고 보니 계주 사람들은 모두 로진인이 살아있는 신선임을 알고 있었기에, 감히 그를 해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옥졸들이 이규를 다시 관아 앞으로 끌고 가자, 한 관리가 보고했다. '이곳 계주의 로진인은 천하에 이름난 도를 깨달은 신선이십니다. 만약 그분의 수행자라면 형벌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마 지부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책을 수천 권 읽으며 고금의 일을 두루 들었으나, 신선에게 이런 제자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 요물이 분명하다. 옥졸들은 저놈을 더 세게 때려라!' 사람들이 이규를 뒤집어엎고 사정없이 매질을 해대니, 이규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얻어맞았다. 마 지부가 다시 호통을 쳤다. '네놈이 어서 요물이라고 자백하면 더는 때리지 않겠다.' 이규는 어쩔 수 없이 '요물 이이(李二)'라고 자백했다. 그러고는 커다란 칼(枷)을 씌워 대옥(大牢)에 가두었다. 이규가 사형수들이 갇힌 감옥에 이르러 말했다. '나는 직일신장(直日神將)인데 어찌하여 나를 씌우느냐? 가만두지 않으면 이 계주 성 안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 감옥을 관리하는 절급(節級)과 금자(禁子)들은 로진인의 덕망이 높고 청렴하여 모두가 흠모하고 있었기에, 다들 이규에게 물었다.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이오?' 이규가 말했다. '나는 로진인을 친히 모시는 직일신장이다. 잠시 실수를 하여 진인께 미움을 사는 바람에 나를 이곳에 내버려 두어 이런 고난을 겪게 하셨으나, 이삼일 내에 반드시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만약 너희가 술과 고기를 가져다 나를 대접하지 않으면, 너희 가족 모두를 죽여버리겠다!' 절급과 옥졸들은 이규의 말을 듣고 겁을 집어먹어, 어쩔 수 없이 술과 고기를 사다 그를 대접했다. 이규는 사람들이 겁을 먹은 것을 보고 더욱 기세등등하게 허풍을 떨었다. 감옥 안의 사람들은 더욱 겁에 질려, 뜨거운 물을 가져다 이규를 씻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다. 이규가 말했다. '만약 술과 고기가 부족하면 내가 날아가 버릴 것이니, 너희가 고생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감옥의 간수들은 그저 비위를 맞추며 달랠 뿐이었다. 이규가 계주의 감옥에 갇힌 일은 이로써 일단락되었다.

한편, 로진인은 앞서 일어난 일들을 대종에게 하나하나 들려주었다. 대종은 그저 간곡히 애원하며 이규를 구해달라고 빌었다. 로진인은 대종을 관 안에 머물게 하며 쉬게 하면서, 양산박의 사정들을 묻고 들었다. 대종은 조개 천왕과 송강이 의로운 일에는 재물을 아끼지 않고 오로지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하며, 충신열사와 효자현손, 의부절부에게는 결코 해를 끼치지 않고 수많은 덕을 베풀고 있다고 고했다. 로진인은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대종은 그곳에서 닷새를 머물며 매일 머리를 조아려 절하며 로진인에게 이규를 구해달라고 간청했다. 로진인이 말했다. "저런 놈은 그냥 쫓아버려야지, 다시 데려가려 해서 무엇하겠느냐?" 대종이 말했다. "진인께서는 모르십니다. 이규가 비록 어리석고 도리를 알지 못하나, 그래도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격이 곧아서 남에게 조금도 구차하게 얻으려 하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남에게 아첨할 줄 모르며 죽을지언정 그 충심을 바꾸지 않는 것이요, 셋째는 음란한 욕심이나 사악한 마음이 없고 재물을 탐해 의리를 저버리지 않으며, 용맹하게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강께서도 그를 매우 아끼십니다. 만약 이 사람을 데려가지 못한다면, 형님인 송강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로진인이 웃으며 말했다. "빈도도 저놈이 상계의 천살성(天殺星) 운명임을 이미 알고 있네. 다만 속세의 중생들이 지은 업보가 너무 무거워, 벌을 주어 내려보내 살육하게 한 것이라네. 나 또한 어찌 하늘의 뜻을 거슬러 저놈을 망가뜨리겠는가? 잠시 고생을 좀 시킨 뒤에 다시 데려다주겠네." 대종은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로진인이 크게 한 번 외쳤다. “역사(力士)는 어디 있느냐!” 그러자 학헌(鶴軒) 앞에서 갑자기 한바탕 바람이 일었다. 바람이 지나간 곳에 황건역사 한 존이 나타났는데,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얼굴은 붉은 옥 같고, 수염은 검은 융단 같구나. 한 길 높이의 당당한 체구에, 천 근의 힘을 품었네. 노란 두건(黃巾) 곁에선, 금빛 고리가 햇살을 받아 노을처럼 빛나고, 수놓은 옷 사이로는, 철갑이 서리처럼 펼쳐져 달빛을 머금어 빛나네. 제단 앞에 서서 법을 수호하니, 매번 세상에 내려와 마귀를 항복시키는도다.

그 황건역사가 고했다. '스승님, 어떤 법지(法旨)를 내리시겠습니까?' 로진인이 말했다. '먼저 네가 압송해 계주로 데려갔던 그놈이 죄업을 다 채웠구나. 네가 가서 계주 옥에 있는 그놈을 데려오너라. 어서 다녀오너라.' 역사가 대답하고는 물러갔다. 약 반 시진(한 시간)쯤 지났을까, 허공에서 이규를 툭 하고 떨어뜨려 주었다.

대종은 서둘러 이규를 부축하며 물었다. '아우님, 지난 이틀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건가?' 이규는 로진인을 바라보며 그저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며 말했다. '철우,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로진인이 말했다. '너는 이제부터 성질을 자제하고, 온 힘을 다해 송강을 보필하거라. 결코 딴 마음을 품지 마라.' 이규가 다시 절하며 대답했다. '진인의 말씀을 어찌 따르지 않겠습니까?' 대종이 다시 물었다. '자네는 그동안 대체 어디를 떠돌아다닌 것인가?' 이규가 대답했다. '그날 바람이 한바탕 불더니 저를 곧장 계주 관아로 휙 날려 보냈습니다. 관아 대청 지붕마루 위에서 굴러떨어졌는데, 관아 사람들이 저를 붙잡더군요. 마 지부라는

자가 저를 요괴라고 몰아세우며 붙잡아 묶더니, 옥졸들을 시켜 개 피와 오줌똥을 제 머리부터 온몸에 끼얹게 했습니다. 매를 맞아 두 다리 살은 짓이겨졌고, 칼(枷)을 씌워 대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하늘에서 떨어진 게 대체 어떤 신령이냐고 묻기에, 저는 로진인께서 친히 부리시는 직일신장(直日神將)인데 잘못을 저질러 이런 고통을 받는 중이라, 이삼일 뒤면 반드시 저를 데리러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매를 한바탕 맞긴 했어도 슬쩍 술과 고기를 얻어먹었습니다. 그놈들이 진인을 두려워해서 저를 씻겨주고 옷도 한 벌 갈아입혀 주더군요. 방금 전까지 정자 안에서 술과 고기를 우려내 먹고 있는데, 갑자기 허공에서 이 황건역사가 툭 하고 뛰어내리더니 제 칼과 사슬을 풀어주고는 눈을 감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꿈을 꾸는 듯한 사이에 저를 여기까지 부축해 온 것입니다.' 공손승이 덧붙였다. '스승님께는 이런 황건역사가 천 명도 넘게 있는데, 모두 스승님이신 진인의 수하들입니다.' 이규는 그 말을 듣고 소리쳤다. '살아있는 부처님 같으니라고! 진작 말씀해 주시지 그랬습니까? 저를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들지 말고 말입니다!' 그러고는 연신 절을 해댔다. 대종도 다시 절하며 간곡히 청했다. '소인이 이곳에 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고당주의 군사 상황이 매우 급하니, 부디 스승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공손 선생을 제자와 함께 보내 주십시오. 가서 형님 송강을 구하고 고렴을 물리친 뒤에, 곧바로 다시 산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로진인이 말했다. '본래는 그를 보내주려 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너의 대의가 중하니 잠시 다녀오는 것을 허락하마. 다만 내가 몇 마디 할 말이 있으니, 너는 마땅히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공손승은 앞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진인의 가르침을 경청했다. 이야말로, 세상을 구하고 나라를 평안케 하려는 소원을 가득

이루고, 난새를 타고 봉황에 올라탄 신선이 되어 오는도다. 결국 로진인이 공손승에게 어떤 말을 전했을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54회 — 입운룡이 도법으로 고렴을 물리치고, 흑선풍이 동굴을 탐색하여 시진을 구하다

入雲龍鬥法破高廉 黑旋風探穴救柴進

이야기는 이러하다. 나진인이 말했다.

“제자야, 네가 그동안 배운 법술은 고렴의 것과 비슷하구나. 내가 이제 너에게 ‘오뢰천심정법’을 전수해 줄 터이니, 이 법을 따라 행하여 송강을 구하고 나라를 보전하며 백성을 편안케 하여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하거라. 사람의 욕심에 얽매여 큰일을 그르치지 말고, 오로지 예전처럼 도를 닦던 마음을 정진하거라. 네 노모는 내가 사람을 시켜 수시로 살펴드릴 터이니 아무 걱정 말거라. 너는 마땅히 상계의 천한성(天閒星)에 응하니, 이에 너를 송공명을 도우러 가도록 허락하노라. 내가 여덟 글자를 일러줄 테니, 때가 되었을 때 실수하지 않도록 반드시 명심하거라.”

나진인이 일러준 여덟 글자는 이러했다.

"유(幽)를 만나면 멈추고, 변(汴)을 만나면 돌아오라."

공손승은 비결과 법술을 받들어 절을 올린 뒤, 대종, 이규 세 사람과 함께 나진인에게 작별을 고하고 도사 동료들과 헤어져 산을 내려왔다. 집에 돌아온 공손승은 도포와 보검 두 자루, 철관과 여의 등 도구들을 챙겨 들고 노모에게 작별 인사를 올린 뒤 산을 떠나 길을 나섰다.

서른에서 마흔 리쯤 길을 가고 있을 때, 대종이 말했다.

"제가 먼저 가서 형님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스승님과 이규는 큰 길로 오시되, 나중에 다시 나와 만나기로 하시지요."

공손승이 말했다.

"그러게나. 아우가 먼저 가서 알려주게. 나도 서둘러 가겠네."

대종이 이규에게 당부했다.

"길 위에서 스승님을 잘 모시도록 해라. 조금이라도 실수했다가는 큰 고생을 할 테니."

이규가 대답했다.

"그분이 나진인님과 같은 법술을 쓰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소홀히 대하겠나?"

대종은 갑마(甲馬, 신행술을 돕는 도구)를 챙겨 메고 '신행법'을 펼쳐 먼저 길을 떠났다.

한편, 공손승과 이규는 이선산과 구궁현을 떠나 큰길로 향했고, 저녁이 되자 여관을 찾아 쉬어갔다. 이규는 나진인의 법술이 두려워 공손승을 지극히 정성껏 모시느라 제 성질을 부리기는커녕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두 사람이 사흘을 걸어 도착한 곳은 무강진이라는 마을이었다. 저잣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연기가 자욱했다. 공손승이 말했다.

"이틀 동안 길을 오느라 몹시 고단하구나. 채소 술과 국수를 좀 사 먹고 가자꾸나."

이규가 대답했다.

"그러지요."

두 사람은 역로 옆에 있는 작은 주막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공손승이 상석에 앉자 이규도 허리춤의 주머니를 풀고 아래쪽에 앉았다. 이규가 점원을 불러 술을 가져오게 하고, 두 사람이 먹을 채소 안주도 좀 차려내라고 일렀다. 공손승이 물었다.

"여기 파는 채소 과자가 좀 있는가?"

점원이 대답했다.

"우리 집은 술과 고기만 팔고 채소 과자는 없답니다. 저기 저잣거리 입구 집에 대추떡을 파는 집이 있어요."

이규가 말했다.

"제가 가서 좀 사 오겠습니다."

이규는 주머니에서 엽전을 꺼내 들고 곧장 저잣거리로 내려가 대추떡 한 꾸러미를 사 왔다. 그런데 돌아오려던 찰나, 길가 옆에서 누군가 크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렸다.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규가 살펴보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 장정을 에워싸고 있었다. 그 장정은 쇠로 만든 뭉툭한 망치를 휘두르고 있었고, 구경꾼들은 그 모습을 보며 연신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이규가 그 장정을 살펴보니, 키가 일곱 자(약 2.1m)가 넘고 얼굴에는 곰보 자국이 가득했으며 코에는 커다란 흉터가 길게 나 있었다. 이규가 그 쇠망치를 보니 무게가 서른 근(약 18kg)은 되어 보였다. 장정이 망치를 휘두르자 뭉툭한 망치가 길가의 경계석을 그대로 내리쳤고, 돌덩이가 가루가 되어 흩어지자 구경꾼들이 일제히 환호했다. 이규는 참지 못하고 품에 넣었던 대추떡을 갈무리한 뒤, 덥석 망치를 뺏으려 손을 뻗었다.

장정이 호통을 쳤다.

"너는 대체 어떤 놈이냐? 감히 내 망치를 가져가려 들다니!"

이규가 말했다.

"네가 휘두르는 게 대체 무엇이기에 사람들이 저리 환호한단 말이냐! 내 눈이 다 더럽구나! 이 몸이 한 번 휘두르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제대로 구경하게 해주마."

장정이 말했다.

"빌려줄 테니, 만약 네가 휘두르지 못한다면 내 주먹 맛을 좀 보게 될 것이다."

이규가 망치를 건네받더니 마치 작은 공을 가지고 놀듯 가볍게 휘둘렀다. 한바탕 휘두르고 나서 망치를 살며시 내려놓았는데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고 심장도 요동치지 않았으며 숨조차 가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장정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형님, 성함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이규가 물었다.

"네 집이 어디냐?"

장정이 대답했다.

"바로 저 앞입니다."

장정은 이규를 데리고 어느 곳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문이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다. 장정이 열쇠로 문을 열고는 이규를 안으로 모셔 앉혔다.

이규가 살펴보니 방 안에는 쇠모루와 망치, 화로, 집게, 끌 같은 대장간 도구들이 가득했다. 이규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분명 대장장이로구나. 양산박에 가면 꼭 필요한 인재인데, 어찌 그를 우리 일행으로 끌어들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규가 다시 물었다.

“이보게, 이름이 무엇인지 말해 보게나.”

장정이 대답했다.

“소인은 성은 탕(湯)이고 이름은 륭(隆)이라 합니다. 아버님께서는 본래 연안부의 지채(知寨, 지방 군관)였으나, 대장일 솜씨가 뛰어나 노충 경략상공(老种經略相公)의 휘하에서 일하게 되셨습니다. 근래에 아버님께서 임무를 수행하시다 돌아가신 뒤, 소인이 도박에 빠져 강호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대장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창과 봉을 다루는 솜씨는 뼈속까지 배어 있습니다. 다만 온몸에 곰보 자국이 있어 사람들이 저를 ‘금전표자’라 부릅니다. 형님께서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이규가 말했다.

“나는 양산박의 호걸, ‘흑선풍’ 이규다.”

탕륭은 그 말을 듣고 다시 절하며 말했다.

"형님의 위명을 익히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우연히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규가 말했다.

"네가 여기 있어 봐야 언제 출세하겠느냐? 차라리 나와 함께 양산박으로 가서 입단하거라. 너도 거기 가면 두령이 될 수 있다."

탕륭이 말했다.

"형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고 데려가 주신다면, 기꺼이 형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고는 이규를 형님으로 모셨고, 이규도 탕륭을 아우로 삼았다. 탕륭이 말했다.

"저에게는 함께할 가족도 없으니, 형님과 함께 저잣거리에 가서 술이라도 세 잔 나누며 의형제의 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하룻밤 묵고 내일 아침에 출발하시지요."

이규가 말했다.

"앞에 있는 주막에 내 스승님이 계신다. 내가 대추떡을 좀 사서 먹고 바로 가야 하니 지체할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가야 한다."

탕륭이 물었다.

"어찌 그리 급하십니까?"

이규가 대답했다.

"송강 형님이 지금 고당주 경계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신데, 내 스승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다."

탕륭이 물었다.

"그 스승님이라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규가 말했다.

"묻지 말고 어서 짐이나 챙겨라."

탕륭은 서둘러 보따리와 여비, 은자 등을 챙기고 펠트 모자를 쓴 뒤, 허리에는 요도(腰刀)를 차고 손에는 박도(朴刀)를 들었다. 그리고는 낡은 집과 무거운 대장간 도구들을 뒤로한 채 이규를 따라나섰다. 그렇게 이규를 따라 주막에 도착하여 공손승을 만나게 되었다.

공손승이 원망 섞인 말투로 말했다.

"어찌 이리 오래 걸렸느냐?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나는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돌아갔을 것이다."

이규는 감히 대꾸도 못 하고, 탕륭을 이끌어 공손승에게 인사를 시킨 뒤 의형제를 맺기로 한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공손승은 그가 대장장이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내심 기쁘게 여겼다. 이규는 사 온 대추떡을 꺼내 점원에게 가져가 손질하게 했다. 세 사람은 함께 술을 몇 잔 마시고 대추떡을 먹은 뒤, 술값을 계산하고 떠났다. 이규와 탕륭은 각

자 보따리를 짊어지고 공손승과 함께 무강진을 떠나 고당주를 향해 차례차례 나아갔다. 세 사람이 길을 가, 전체 노정을 셋으로 나누면 그중 두 구간 남짓을 갔을 무렵의 어느 이른 아침, 마침 대종이 마중을 나왔다. 공손승은 그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급히 물었다.

"요즘 싸움은 어떠한가?"

대종이 대답했다.

"고렴 그놈이 최근에 화살에 맞았던 상처가 다 나았는지, 매일같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형님께서는 적에게 감히 나가지 못하고 굳게 수비만 하며 선생님께서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공손승이 말했다.

"그건 어렵지 않겠구나."

이규는 탕륭을 데리고 대종에게 가서 사정을 자세히 말했고, 네 사람은 함께 고당주로 달려갔다. 양산박 진영에서 5리 정도 떨어진 곳에 이르니, 이미 여방과 곽성이 백여 기의 기병을 이끌고 마중을 나와 있었다. 네 사람이 모두 말에 올라 진영에 도착하자, 송강과 오용 등이 진영 밖으로 나와 그들을 맞이했다. 서로 예를 갖춘 뒤 환영 잔치를 베풀고 안부를 물으며 중군장(中軍帳, 지휘관의 막사) 안으로 모시니, 다른 두령들도 모두 와서 축하했다. 이규는 탕륭을 데리고 송강과 오용, 그리고 여러 두령에게 가서 인사를 올렸다. 인사가 끝난 뒤 진영에서는 성대한 축하 연회가 열렸다.

다음 날 중군장 안에서 송강, 오용, 공손승이 고렴을 격파할 방도를 상의했다. 공손승이 말했다.

"주장께서 명을 내리시어 모든 진영을 거두어 일으키게 하십시오. 적군의 움직임을 살펴본 뒤, 빈도가 알아서 대처하겠습니다."

그날 송강은 각 진영에 명을 내려 군사를 일제히 일으키게 했고, 군대는 고당주의 성곽 해자 앞까지 진격하여 진을 쳤다. 이튿날 새벽 다섯 시경,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군사들은 모두 갑옷을 갖춰 입었다. 송강, 오용, 공손승 세 사람이 말을 타고 군대 앞으로 나아가 깃발을 흔들고 북을 치며, 함성을 지르고 징과 나팔을 울리며 성벽 아래까지 기세 좋게 몰아붙였다.

한편, 지부 고렴은 성 안에서 화살 맞은 상처가 다 나은 상태였다. 밤사이 소규모 정찰병이 송강의 군마가 다시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해 오자, 고렴은 이른 아침 군사들에게 갑옷을 입게 한 뒤 성문을 열고 조교(弔橋, 성문 앞에 걸쳐 두는 도개교)를 내렸다. 이어 삼백 명의 신병(神兵, 고렴이 요술로 부리는 군사)과 크고 작은 장수들을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가 적을 맞이하러 나갔다. 양측 군대가 점차 가까워지자 깃발과 북소리가 서로 마주하였고, 각자 진세를 펼쳤다. 두 진영 사이로 화려한 악기 소리와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형형색색의 수놓은 깃발들이 펄럭였다.

송강의 진영 문이 열리자, 열 명의 기병이 갈매기 날개 모양으로 양옆으로 넓게 펼쳐지며 말을 타고 나아갔다. 왼편에는 화영, 진명, 주동, 구팽, 여방 다섯 장수가 있었고, 오른편에는 임충, 손립, 등비, 마

린, 곽성 다섯 장수가 있었다. 그 가운데 세 명의 기병이 말을 타고 나아갔는데, 맨 앞에는 주장인 송강이 서 있었다. 그의 차림새는 이러하였다.

머리에는 꼭두서니빛 붉은 두건 두르고, 허리에는 사만대(獅蠻帶, 사자 무늬 띠)를 맸네.
비단 전포 등에는 대붕(大鵬)이 붙어 있고, 수은빛 투구엔 채색 봉황이 처마 끝으로 날아오르네.
초록 장화는 보배 등자 위에 비스듬히 딛고, 황금 갑옷은 용의 비늘처럼 빛나며 일렁이네.
금사로 장식한 가죽 띠에는 자줏빛 명주 채찍이 매여 따르고, 비단 안장과 언치는 복사꽃빛 명마 위에 안정되게 어울리네.

왼편의 말 위에 앉아 있는 이는 양산박의 병권을 장악한 군사 오용이었다. 그의 차림새는 이러하였다.

다섯 자루 오명선(五明扇)은 흰 깃털로 가지런히 모아 꾸몄고,
아홉 가닥 윤건(綸巾)은 검은 비단으로 멋지게 둘렀네.
흰 비단 도포는 향기로운 검은 빛으로 가장자리를 둘렀고,
푸른 옥 고리는 실 띠로 단단히 묶었구나.
가죽신은 해바라기 모양 등자를 편안히 딛고,
은빛 안장에는 자줏빛 실 고삐가 떠나지 않네.
허리춤에는 두 줄의 구리 사슬이 매달려 있고,
청총마(青驄馬) 한 필을 타고 전장으로 나아가네.

오른편의 말 위에 앉아 있는 이는 양산박에서 진법을 짜고 군대를 부리는 부군사 공손승이었다. 그의 차림새는 이러하였다.

별 모양의 관은 태양처럼 빛나고, 신비로운 검은 서리처럼 번뜩인다. 아홉 빛깔 구름 무늬 옷에는 봄날의 구름이 수놓아져 있고, 육갑(六甲)의 풍뢰(風雷) 기운이 담긴 도술 비결을 품었도다. 허리춤에는 알록달록한 짧은 끈을 매달았고, 등에는 소나무 무늬가 새겨진 오래된 고정검을 찼구나. 구름 무늬와 비취색이 수놓아진 조아화(早朝靴, 아침에 신는 신발)를 신고, 머리를 높이 쳐든 황색 꽃무늬 말을 타고 달리는구나. 이름은 신비로운 도법을 기록한 책에 적혀 있으니, 그 도력은 이미 신선의 반열에 올라 높도다.

세 명의 총군 주장이 말을 타고 진영 앞으로 나아갔다. 대치 중인 진영에서는 징과 북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졌고, 깃발이 펼쳐지자 고당주 지부 고렴을 호위하는 이십삼십 명의 군관이 무리를 지어 진영 앞으로 나타났다. 고렴은 깃발 아래 말 위에 올라섰으니,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머리에는 진주를 박은 관을 쓰고,
붉은 비단 도포에는 자수가 가득하네.
연결된 갑옷은 황금빛으로 빛나고,
은빛 투구는 봉황처럼 화려하게 날아오르네.
구름무늬 장식된 장화를 신고,
허리에는 황금 허리띠를 맸구나.

손에는 세 자 길이의 칼을 쥐고,
진영 앞에는 용을 탄 듯 말을 달리는구나.

지부 고렴이 진영 앞으로 나서더니, 매서운 목소리로 크게 호통을 쳤다. "이 물웅덩이 같은 도적 놈들아! 감히 싸우러 왔으면 승패를 가리고 이기고 지는 것을 분명히 해야지, 도망만 다니는 놈들은 결코 호걸이라 할 수 없다!" 송강이 그 소리를 듣고 물었다. "누가 나가서 저 도적을 베어 넘기겠느냐?" 그러자 '소이광' 화영이 창을 치켜들고 말을 달려 적진 한복판까지 나아갔다. 고렴이 이를 보고 소리쳤다. "누가 저 놈을 단번에 잡아 오겠느냐!" 그때 통제관 부대에서 설원휘라는 이름의 장수가 튀어나왔다. 그는 쌍도를 휘두르며 초라한 말 한 필을 타고 화영을 상대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두 사람이 진영 앞에서 몇 합을 겨루던 중, 화영이 말머리를 돌려 본진 쪽으로 도망치는 척했다. 설원휘는 이것이 계략인 줄도 모르고 말을 몰아 칼을 휘두르며 기를 쓰고 쫓아왔다. 화영이 말의 속도를 살짝 늦추더니, 활을 집어 화살을 먹이고는 몸을 홱 돌려 단 한 발을 쏘았다. 그 화살에 설원휘는 머리가 무겁고 발이 가벼워지듯 중심을 잃고 말에서 떨어졌다.

양쪽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러댔다. 말 위에 있던 고렴은 이 광경을 보고 크게 노하여, 급히 말 안장 앞으로 가서 짐승을 부리는 구리 패를 꺼내 들고 검으로 내리쳤다. 세 번을 탁탁 치자, 신병(神兵) 부대 쪽에서 황사가 한바탕 휘몰아치더니 하늘과 땅이 어둑어둑해지고 햇빛조차 가려졌다. 함성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승냥이와 이리, 호랑이와 표범, 괴수와 독충들이 그 황사 속에서 마구 튀어나왔다.

모든 군사가 겁에 질려 도망치려 할 때, 말 위에 있던 공손승이 서둘러 소나무 무늬가 새겨진 고정검을 뽑아 들었다. 그는 적군을 가리키며 주문을 외우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가라!” 그러자 한 줄기 금빛이 쏘아져 나갔고, 황사 속에서 마구 날뛰던 괴수와 독충들이 모두 진영 앞으로 어지럽게 떨어져 죽었다. 군사들이 살펴보니 그것들은 모두 종이로 만든 호랑이와 표범, 짐승 모양의 인형이었고, 휘날리던 황사도 깨끗이 흩어져 사라졌다.

송강이 이 광경을 보고 채찍 끝으로 가리키자, 대소 군사들이 일제히 적진을 향해 몰아쳤다. 사람과 말이 쓰러지고 깃발이 어지럽게 뒤섞이며 싸움이 치열했다. 고렴은 급히 신병 부대를 이끌고 성안으로 후퇴했다. 송강의 군마가 성 아래까지 쫓아오자, 성 위에서는 급히 다리를 올리고 성문을 닫은 뒤, 나무 포와 돌을 비 오듯 쏟아부었다. 송강이 징을 울려 군사들을 물리고 진영을 차리게 한 뒤 인원을 점검하니, 큰 승리를 거두었다. 송강은 장막으로 돌아와 공손승 선생의 신통한 도력에 감사를 표하고, 삼군 장병들에게 상을 내려 노고를 치하하였다.

다음 날, 군사를 나누어 성을 사방에서 에워싸고 전력을 다해 공격했다. 공손승이 송강과 오용에게 말했다. “어젯밤 적군 태반을 격파하긴 했으나, 저 삼백 명의 신병 부대가 성안으로 퇴각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늘 공격을 거세게 몰아붙이면, 저놈들이 밤중에 반드시 기습을 해올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는 군사들을 한곳으로 모아 두었다가, 밤이 깊으면 사방으로 나누어 매복시키십시오. 이곳에는 헛된 막사만 차려두고, 장수들에게는 벼락 소리가 들리고 막사에 불이 나는 것이 보이면 일제히 진격하라고 일러두어야 합니다.” 명령이 떨어졌

다. 그날 미시(未時, 오후 1시~3시 사이)까지 성을 공격한 뒤, 사방에 흩어져 있던 군사들을 모두 불러들여 진영으로 돌아오게 했다. 군사들은 진영 안에서 북을 치고 징을 울리며 술을 마시고 즐겼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가자, 장수들은 암암리에 인원을 나누어 배치하였고, 사방의 매복도 모두 결정되었다.

한편, 송강과 오용, 공손승, 화영, 진명, 여방, 곽성이 언덕 위로 올라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날 밤, 과연 고렴이 삼백 명의 신병 부대를 이끌고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등에 철호로(鐵葫蘆, 철로 만든 호리병)를 메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유황과 초석 등 화약 재료가 가득 들어 있었다. 또한 각자 갈고리 칼과 철 빗자루를 들었으며, 입에는 갈대 피리까지 물고 있었다.

이경(二更, 밤 9시~11시 사이) 무렵, 성문을 활짝 열고 다리를 내리더니 고렴이 앞장서서 신병 부대를 몰고 전진했다. 그 뒤로는 서른 명 남짓한 기병이 뒤따라오며 기세를 올렸다. 진영에 가까워지자 고렴이 말 위에서 요술을 부렸는데, 곧 검은 기운이 하늘로 치솟고 광풍이 몰아치며 모래와 돌이 날아다니고 먼지가 자욱하게 일었다. 삼백 명의 신병은 각자 불씨를 꺼내 호리병 입구에 붙였고, 일제히 갈대 피리를 불어대자 검은 기운 사이로 불길이 번뜩이며 대도를 휘두르고 큰 도끼를 들고는 진영 안으로 들이닥쳤다.

언덕 위에서 공손승이 검을 휘두르며 법술을 부리자, 텅 빈 진영의 평지에서 갑자기 벼락이 치며 땅이 울렸다. 삼백 명의 신병이 급히 퇴각하려 했으나, 빈 진영에 불이 붙고 불꽃이 사방으로 튀며 온통 붉게 타오르는 통에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사방에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일

제히 달려들어 진영을 에워싸니, 어둠 속에서 적들이 곳곳에 보였다. 삼백 명의 신병은 단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한 채 모두 진영 안에서 몰살당했다.

고렴은 급히 서른 명 남짓한 기병을 이끌고 성안으로 도망치듯 달아났다. 그때 뒤에서 한 무리의 군마가 추격해 왔는데, 바로 '표자두' 임충이었다. 임충의 군마가 바짝 따라붙자 고렴은 다급히 다리를 내리라고 소리쳤다. 고렴은 겨우 여덟 아홉 명의 기병을 데리고 성안으로 들어갔으나, 나머지는 모두 임충과 다른 장수들에게 말과 함께 생포당하고 말았다. 성안으로 들어간 고렴은 백성들을 모두 성 위로 올려 수비하게 했다. 송강과 임충의 군세에 의해 고렴의 군사와 신병 부대는 거의 전멸하고 말았다.

다음 날, 송강은 다시 군사를 이끌고 성을 사방에서 더욱 거세게 에워쌌다. 고렴은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수년간 술법을 익혀왔거늘, 뜻밖에 오늘 이렇게 깨지다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인근 주현에 사람을 보내 구원병을 요청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는 급히 서신 두 통을 써서 동창과 구주로 보냈다. '두 곳 모두 여기서 멀지 않고, 그곳의 지부들은 모두 내 형님이 끌어주신 분들이니, 밤을 도와 군사를 일으켜 우리를 도우러 오게 해야겠다.' 그는 두 명의 통제관(統制官)에게 서신을 들려 서문을 열고 나가게 한 뒤, 서쪽 길을 통해 도망치게 했다.

장수들이 그들을 추격하려 하자, 오용이 명령을 내렸다. "일단 내버려 두시오. 적의 계략을 역이용할 수 있소." 송강이 물었다. "군사께서는 어떤 계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용이 대답했다. "성안의 병력이 적으니 저놈들이 구원병을 요청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갈래

의 군마를 보내 구원군인 척 가장하여 길목에서 적과 싸우게 합시다. 그러면 고렴은 반드시 성문을 열고 나와 전투를 도울 것이고, 그때 기세를 몰아 성을 점령함과 동시에 고렴을 좁은 길로 유인하면 반드시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송강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대종에게 명하여 양산박으로 돌아가 다른 두 갈래의 군마를 이끌고 오게 했다.

한편, 고렴은 밤마다 성안의 빈터에 땔감을 쌓아 두고, 하늘에 닿을 듯 불을 질러 신호로 삼았으며, 성 위에서는 오직 구원병이 오기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성을 지키던 군사들이 송강의 진영이 싸우지도 않고 스스로 어지러워지는 것을 보고 급히 보고했다. 고렴이 그 소식을 듣고 서둘러 갑옷을 갖춰 입고 성 위로 올라가 살펴보니, 과연 두 갈래의 인마가 나타나 먼지를 하늘 가득 일으키며 천지를 진동시키는 함성과 함께 돌격해 오고 있었다. 성을 에워싸고 있던 군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고렴은 이것이 두 갈래의 구원군이 도착한 것임을 알고, 성안의 군마를 모두 점검한 뒤 성문을 활짝 열고 각지로 나누어 나가 적을 치기로 했다.

한편, 고렴이 송강의 진영 앞으로 들이닥쳤을 때, 송강이 화영, 진명과 함께 세 기병을 거느리고 좁은 길로 달려가는 것이 보였다. 고렴이 인마를 이끌고 급히 뒤를 쫓는데, 갑자기 산비탈 뒤쪽에서 연달아 포성 같은 소리가 들려오자 의아한 마음이 들어 인마를 돌려세워 회군시켰다. 그때 양쪽에서 징 소리가 울리더니, 왼쪽에서는 부하 여방이, 오른쪽에서는 부하 곽성이 각각 오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돌격해 나왔다. 고렴이 급히 길을 틀어 도망치려 했으나, 부하 군마의 태반이 여기서 꺾이고 말았다.

간신히 도망쳐 성곽 근처에 이르렀을 때, 성 위에는 이미 양산박의 깃발이 가득 펄럭이고 있었다. 눈을 돌려 다시 살펴보니 구원군은커녕 도와줄 병사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고렴은 패잔병과 남은 병사 몇을 데리고 산속의 외진 좁은 길로 몸을 피했다. 그러나 채 십 리도 가지 못해 산등성이 너머에서 한 무리의 인마가 튀어나왔는데, 앞장선 이는 '병위지' 손립이었다. 그는 길을 가로막으며 매서운 목소리로 외쳤다. "너를 기다린 지 오래되었다. 어서 말에서 내려 포로가 되어라!"

고렴이 군사를 이끌고 되돌아가려 했으나, 이미 뒤쪽에서도 한 무리의 인마가 나타나 길을 차단하고 있었다. 그 앞장선 이는 바로 '미염공' 주동이었다. 양쪽에서 협공해 들어오며 사방의 길을 막아버리자, 고렴은 탄 말을 버려두고 급히 산 위로 뛰어 올라갔다. 사방에서 부하 부대들이 일제히 산을 타고 쫓아오자, 당황한 고렴은 입으로 주문을 외우며 크게 호통쳤다. "올라가라!" 그러자 검은 구름 한 조각이 서서히 하늘로 솟구치더니 곧장 산 정상으로 올라갔다.

그때 산비탈 쪽에서 공손승이 나타났다. 공손승은 그 모습을 보고 말 위에서 검을 허공을 향해 휘두르며 주문을 외웠다. "빨리!" 그가 검으로 위를 가리키며 외치자, 고렴이 구름 속에서 거꾸로 곤두박질쳤다. 그 찰나에 '삽시호' 뇌횡이 잽싸게 달려들어 박도(朴刀)를 휘둘러 고렴의 몸을 두 토막으로 내버렸다. 가련한 권세가와 귀한 몸이 한낱 꿈속의 사람처럼 허망하게 사라지고 말았으니,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하늘은 위에서 살피고, 땅의 신령은 아래에서 굽어본다.
밝을 때는 왕법이 이어지고, 어두울 때는 귀신이 따른다.
악행을 저지르면 결국 재앙을 만나고, 세력을 믿으면 다시 세력을 잃는다.
평생 스스로 경계하라 하니, 탄식스럽고 놀랍고도 두렵구나.

한편, 뇌횡이 고렴의 머리를 들고 산 아래로 내려와 먼저 사람을 보내 주장 송강에게 급히 소식을 전했다. 송강은 고렴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거두어 고당주 성안으로 진격했다. 송강은 먼저 장수들에게 명령을 내려 "백성들을 조금도 해치지 말라"고 엄중히 일렀다. 그러고는 방을 붙여 백성들을 안심시켰으며, 작은 물건 하나라도 백성의 것을 탐하거나 해치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다스렸다.

이어 송강은 대옥사로 가서 시진을 구출하려 했다. 하지만 그때 옥을 관리하던 절급(節級, 감옥 관리)과 옥졸·간수(押獄·禁子)들은 이미 모두 도망치고 없었다. 남은 죄수는 고작 서른에서 쉰 명 정도뿐이었는데, 송강은 그들의 칼과 족쇄를 모두 풀어주며 석방했다. 그러나 그들 중 시진만은 보이지 않았다. 송강은 마음이 몹시 답답하고 근심스러웠다.

그는 감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한 감방에는 시황성(柴皇城, 시진의 숙부) 일가족이 갇혀 있었고, 또 다른 감방에는 창주에서 잡아온 시진의 일가족이 함께 갇혀 있었다. 연일 이어진 치열한 전투 때문에 미처 죄를 물어 처결할 겨를도 없었으나, 문제는 시진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이었다.

오학구(오용)가 고당주의 옥졸과 간수들을 불러 모아 데리고 다니며 캐묻게 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한 명이 나서서 고했다.

"소인은 옥을 관리하던 절급(節級) 인인(藺仁)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지부 고렴께서 저에게 특별히 시진을 엄중히 감시하여 한 치의 실수도 없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무슨 일이 생기든 네가 직접 손을 써도 좋다'고까지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사흘 전, 지부 고렴이 시진을 끌어내어 형을 집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시진은 참으로 대장부다운 사람이라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진이 병이 여덟 푼이나 깊어 도저히 형을 집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라고 핑계를 대며 버텼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독촉이 이어지자, 저는 결국 '시진이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거짓 보고를 해버렸습니다. 연일 전쟁이 치열하여 지부께서 경황이 없으셨기에 망정이지, 혹시라도 사람을 보내 확인하게 된다면 제 죄가 엄중할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진을 데리고 뒤편 마른 우물가로 가서 칼과 족쇄를 풀어준 뒤, 그 안으로 밀어 넣어 숨겨두었습니다. 이제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송강은 그 말을 듣자마자 황급히 인인을 따라갔다. 뒤편 감옥의 마른 우물가에 도착해 들여다보니, 안쪽은 그저 검고 어둑할 뿐 얼마나 깊은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위에서 소리를 질러보았으나 대답하는 이가 없었다. 밧줄을 내려 탐색해 보니 깊이가 대략 여덟아홉 장(丈, 약 24~27m)은 되어 보였다. 송강이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다.

"시진 대관인께서 보아하니 이미 돌아가신 모양이구나."

그러자 오용이 말했다.

"주장님,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내려가서 한 번 살펴보기만 하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용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흑선풍 이규가 나타나 크게 외쳤다.

"내가 내려가겠소!"

송강이 말했다.

"마침 잘 되었구나. 예전에 그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도 너였으니, 오늘이야말로 그 빚을 갚을 기회다."

이규가 웃으며 말했다.

"내려가는 건 겁나지 않으니, 당신들은 밧줄이나 끊지 마시오!"

오용이 핀잔을 주었다.

"이 사람, 참으로 영악하구려."

오용은 곧바로 커다란 대바구니를 가져와 밧줄을 엮고, 긴 밧줄 끝에 가마 같은 틀을 만들어 우물 위에 매달았다. 이규는 옷을 다 벗어 던진 채 양손에 판부(板斧, 큰 도끼) 두 자루를 쥐고 바구니 안에 앉아 우물 아래로 내려갔다. 밧줄에는 신호용으로 구리 방울 두 개를 매달았다. 이규가 서서히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는 바구니에서 기어 나와 우물 바닥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러다 무언가에 손이 닿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유골 한 무더기였다.

이규가 욕설을 내뱉었다.

"에이, 젠장! 이런 게 여기 다 있네!"

그가 다시 이쪽저쪽을 더듬어 보았으나, 바닥은 축축하고 발 디딜 곳조차 없었다. 이규는 양손의 도끼를 바구니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바닥을 훑었다. 사방이 넓어지자 손끝에 사람이 걸려들었다. 그는 물웅덩이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이규가 크게 외쳤다.

"시진 대관인!"

그 소리에 기척이 느껴지더니, 손을 더듬어 보니 입안에서 가냘픈 신음 소리가 들려왔다. 이규가 안도하며 말했다.

"천지신명께 감사할 따름이네. 이 지경이 되어서도 살아 계시다니!"

이규는 즉시 바구니로 기어 올라가 구리 방울을 흔들었고, 사람들은 밧줄을 끌어올렸다. 이규가 아래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하자 송강이 말했다.

"네가 한 번 더 내려가거라. 우선 시진 대관인을 바구니에 태워 먼저 올려보낸 다음, 다시 바구니를 내려 너를 데려오마."

이규가 투덜거렸다.

"형님, 제가 예전에 계주에 갔다가 두 번이나 낭패를 본 걸 모르십니까? 이번에는 제발 세 번째 사고는 치지 마십시오."

송강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너를 해치려 하겠느냐? 어서 내려가기나 해라."

이규는 하는 수 없이 다시 바구니에 앉아 우물 아래로 내려갔다.

우물 바닥에 도착하자마자 이규는 바구니 밖으로 기어 나와 시진 대관인을 품에 안고 바구니에 태운 뒤, 밧줄에 매달린 구리 방울을 흔들었다. 위에서 그 소리를 듣고는 곧장 밧줄을 끌어올렸다. 바구니가 위로 올라오자 사람들은 모두 크게 기뻐했다. 송강이 살펴보니 시진은 머리가 깨지고 이마가 찢어졌으며, 두 다리의 살점은 짓이겨져 있었고, 눈은 겨우 뜨였다 감았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송강은 마음이 너무나 참혹하여 즉시 의원을 불러 치료하게 했다. 한편 이규는 우물 아래에서 계속해서 크게 소리를 질러댔다. 송강은 그 소리를 듣고 급히 바구니를 다시 내려 이규를 데려오게 했다.

이규가 마침내 위로 올라오자마자 버럭 화를 내며 말했다.

"당신들도 참 나쁜 사람들이구려! 나를 구해주지는 않을 셈이오?"

송강이 말했다.

"우리가 시진 대관인을 돌보느라 그만 너를 잊었으니, 너무 원망하지 마라."

송강은 곧바로 사람들을 시켜 시진을 부축해 수레에 태워 잠을 자게 했다. 그리고 먼저 두 집안의 가족들과 탈환한 막대한 재물을 스무 대가 넘는 수레에 실었다. 이 수레들은 이규와 뇌횡이 앞장서서 양산박으

로 호송하게 했다. 한편 고렴의 일가친척과 양민·노비 등 서른에서 마흔 명 남짓한 사람들은 모두 시장터에서 참형에 처하게 했고, 인인에게는 두둑이 상을 내려 감사를 표했다. 이어 관청의 재물과 창고의 곡식, 그리고 고렴의 개인 소유물까지 모조리 수레에 실어 산으로 옮겼다.

장수들과 병사들은 고당주를 떠나 승전보를 울리며 양산박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지나가는 주와 현의 백성들에게는 티끌만큼의 피해도 입히지 않았다. 길을 떠난 지 며칠 만에 대채(大寨, 양산박 본거지)에 도착하자, 병중이던 시진이 몸을 일으켜 조개와 송강 두 어른과 여러 두령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조개는 시진 대관인을 산 정상에 있는 송강의 거처로 모시게 하고, 따로 집을 한 채 지어 시진과 그 가족들이 편히 쉴 수 있게 배려했다. 조개와 송강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크게 기뻐했다. 고당주에서 돌아오며 시진과 탕륭이라는 두 호걸을 새로 얻었으니, 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한편, 동창과 구주 두 곳에는 고당주에서 고렴이 죽고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관원들은 즉시 상소문을 작성해 사람을 보내 조정에 보고하게 했다. 또한 고당주에서 도망친 관리들도 모두 경사로 달려가 사실을 알렸다. 고구는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아우뻘 되는 형제 고렴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음 날 새벽 오경 무렵, 대기하는 관리들이 머무는 대루원에서 경양종(景陽鐘, 새벽을 알리는 종) 소리가 울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백관들은 각자 공복을 갖춰 입고 단치(丹墀, 붉은 계단) 앞에 늘어서서 조례를 기다렸다. 당일 오경 삼점(三點)에 도군황제가 전각에 올랐다.

정편(淨鞭, 의식을 알리는 채찍) 소리가 세 번 울리자 문무백관이 일제히 예를 갖추었다. 천자가 자리에 앉자 전두관(殿頭官)이 호령했다.

"보고할 일이 있는 자는 앞으로 나와 아뢰고, 일이 없는 자는 막을 걷고 물러가라!"

고구가 앞으로 나서며 상소했다.

"지금 제주 양산박의 도적 우두머리 조개와 송강이 떼를 지어 큰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성을 공격해 탈취하고 창고의 곡식을 약탈하며, 흉악한 무리를 모아 떼를 지어 다닙니다. 현재는 제주의 관군을 살해하고 강주와 무위군을 어지럽혔으며, 이제는 고당주의 관리와 백성들까지 모조리 살육하고 창고의 재물까지 전부 약탈해 갔습니다. 이는 심장과 간을 위협하는 큰 근심거리이니, 만약 조속히 토벌하지 않아 도적의 세력이 커진다면 훗날 제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디 성스러운 결단을 내려 주시옵소서."

황제는 이 보고를 듣고 크게 놀라 즉시 성지를 내렸다. 고구에게 장수를 선발하고 군사를 동원하여 양산박을 토벌하되, 반드시 양산박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도적의 씨를 말리라고 명했다.

고구가 다시 아뢰었다.

"이 정도 도적들은 대군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신이 한 사람을 추천하겠으니, 그를 보내면 충분히 수복할 수 있습니다."

황제가 말했다.

"경이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을 것이니, 즉시 출발하여 빠르게 공을 보고해 오너라. 그러면 관직을 높여주고 상을 내리겠다."

고구가 대답했다.

"이 자는 나라를 세운 초기에 하동의 명장이라 불리던 호연찬의 직계 후손으로, 이름은 '작' 자를 씁니다. 두 자루의 동편(銅鞭, 구리 채찍)을 휘두르는데 만 명의 적도 당해내지 못할 용맹을 지녔습니다. 현재 여녕군 도통제(都統制)로 재직하며 휘하에 정예 병사와 용맹한 장수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신이 이 사람을 추천하오니, 그를 보내 양산박을 정벌하게 하소서. 병마지휘사(兵馬指揮使, 군 지휘관)의 직위를 내려 기마와 보병 정예군을 거느리게 한다면, 머지않아 산채를 소탕하고 승전보를 들고 조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황제는 이를 허락하며 성지를 내렸다.

"추밀원(樞密院, 군사 행정 기관)은 즉시 사람을 보내 칙서를 지니고 여녕주로 가서 밤낮을 가리지 말고 호연작을 불러오도록 하라."

그날 조례가 끝나자마자 고구는 수사부(帥府, 사령부)에서 추밀원에 명령하여 군관 한 명을 뽑아 성지를 들려 보냈다. 그 군관은 즉시 출발하여 기한과 날짜를 정해 호연작이 경사로 와서 명을 받들도록 하였다.

한편, 호연작은 여녕주 통군사(統軍司, 군사 지휘부)에서 집무를 보고 있다가 문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다.

"장군을 경사로 불러올리는 성지가 내려왔습니다. 임무를 맡기려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호연작은 본주의 관리들과 함께 성 밖으로 나가 사신을 맞이하여 통군사로 모셔 왔다. 성지를 다 읽고 난 뒤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어 대접한 호연작은, 서둘러 투구와 갑옷, 말과 안장 등 장비를 챙겼다. 그리고 서른 명에서 마흔 명 남짓한 수행원을 거느리고 사신을 따라 여녕주를 떠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경사를 향해 달렸다. 길 위에서 있었던 일은 따로 기록할 것이 없었다.

이른 아침, 호연작은 경사 성안의 전사부(殿司府) 앞에 도착하여 말에서 내려 고구를 찾아갔다. 마침 고구가 전수부(殿帥府, 사령부)에서 집무를 보고 있는데, 문리(門吏, 관청의 하인)가 보고했다.

"여녕주에서 온 호연작이 지금 문밖에 와 있습니다."

고구는 크게 기뻐하며 그를 불러 들어가 알현하게 했다. 호연작의 모습은 범상치 않았으니, 바로 다음과 같았다.

나라를 세운 공신의 후손이자, 지난 왕조 명장의 증손이라,
집안 대대로 내려온 채찍질 솜씨는 신의 경지에 이르고, 용맹함은 전쟁터를 익숙히 누비네.
칼을 휘둘러 호랑이 굴을 탐험하고, 활을 당겨 독수리 떼를 쏘아 맞추니,
장군이 세상에 나와 천하를 평정하고, 호연작의 위명은 드높게 떨쳐지네.

고구가 호연작을 문안하고 격려한 뒤 상을 내렸다. 다음 날 아침 조례 때 호연작은 황제에게 소개되었다. 휘종 황제는 호연작의 범상치 않은 풍채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답설오추(踢雪烏騅, 눈을 차며 달리는 검은 말)' 한 필을 하사했다. 그 말은 온몸이 먹색처럼 검으면서도 네 발은 눈처럼 하얗고 매끄러워 이름이 '답설오추'라 하였다. 그 말은 하루에 천 리를 달릴 만큼 영물이었는데, 황제는 성지를 내려 이를 호연작에게 하사했다. 호연작은 은혜에 감사 인사를 올린 뒤, 고구를 따라 다시 전수부로 가서 양산박을 토벌할 군사 계획을 논의했다.

호연작이 말했다.

"재상 어른께 아룁니다. 제가 살피건대 양산박은 병력이 많고 장수들도 많으며 무예 또한 매우 뛰어나니, 결코 적을 가볍게 보거나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부디 두 장수를 선봉으로 추천하여 함께 군마를 이끌고 그곳으로 가게 해주신다면, 반드시 큰 공을 세우겠습니다."

고구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물었다.

"장군이 추천하는 이가 누구이기에 앞서 나갈 선봉이 될 수 있겠소?"

호연작이 이 두 장수를 추천함으로 인해, 완자성(宛子城)에 다시금 훌륭한 장수가 보태어지고, 양산박이 관군을 크게 무찌르게 될 것이었다. 또한 그 공명이 능연각(凌煙閣)에 오르기도 전에 이름 석 자가 먼저 취의청(聚義廳)에 새겨지게 될 터였다. 과연 호연작이 고구에게 추천한 두 장수는 누구일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55회 — 고 태위가 세 갈래 군사를 크게 일으키고, 호연작이 연환마를 배치하다

高太尉大興三路兵 呼延灼擺布連環馬

이야기는 이러하다. 고태위가 호연작에게 물었다. "장군이 보기에 어떤 인물이 선봉을 맡기에 적당하겠소?" 호연작이 아뢰었다. "소인이 추천할 사람은 진주 단련사 한도입니다. 본래 동경 사람이요, 무과에 응시하여 출신한 인물입니다. 대추나무로 만든 긴 창(삭)을 휘두르는데, 사람들이 그를 '백승장'이라 부릅니다. 이 사람이 정선봉을 맡기에 적합합니다. 또 한 명은 영주 단련사 팽기입니다. 이 역시 동경 사람으로 대대로 무관 집안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삼첨양인도를 쓰는데 무예가 출중하여 사람들이 '천목장'이라 부릅니다. 이 사람이 부선봉을 맡으면 좋겠습니다." 고태위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한 장군과 팽 장군이 선봉을 맡는다면, 저 미친 도적 떼가 무엇이 두렵겠느냐!" 그날 고태위는 즉시 전수부에서 두 통의 공문을 작성하고, 추밀원에 명하여 사람을 보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주와 영주로 달려가 한

도와 팽기를 급히 불러 도성으로 오게 했다. 열흘도 채 되지 않아 두 장군이 도성에 도착하여 곧장 전수부로 찾아와 태위와 호연작을 알현했다. 다음 날, 고태위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모두 어교장으로 가서 무예를 시연하게 했다. 군사들의 상태를 살핀 뒤에는 다시 전수부로 돌아와 추밀원의 관리들과 함께 군사 기밀에 관한 중대사를 논의했다. 고태위가 물었다. "그대들 세 갈래 군사 규모는 총 얼마나 되오?" 호연작이 대답했다. "세 갈래 군마를 합쳐 오천이며, 보병까지 합치면 만 명에 달합니다." 고태위가 말했다. "그대들 세 사람이 직접 각 주로 돌아가서, 정예 기병 삼천과 보병 오천을 선발하여 출발 날짜를 잡고 양산박을 소탕하시오." 호연작이 아뢰었다. "이 세 갈래의 마보병은 모두 훈련이 잘 된 숙련병들이고 사람은 강하고 말은 건장하니 태위께서는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갑옷과 장비가 아직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 자칫 기한을 맞추지 못해 죄를 입을까 두렵사오니 부디 기한을 조금 늦춰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고태위가 말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대들 세 사람이 도성의 갑장고에 가서 수량에 상관없이 원하는 대로 갑옷·투구·칼 등을 마음껏 골라 받아 가시오. 반드시 군마를 정비하여 적을 상대할 준비를 마쳐야 하오. 출정하는 날에는 내가 직접 관리를 보내 점검하겠소." 호연작은 명을 받들어 사람들을 데리고 갑장고로 가서 물자를 수령했다. 호연작은 철갑 삼천 벌, 무두질한 가죽 마갑 오천 벌, 구리·철 투구 삼천 개, 긴 창 이천 자루, 곤도(滾刀) 천 자루,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활과 화살, 화포와 철포 오백여 틀을 모두 수레에 실었다. 떠나기 전날, 고태위는 전마 삼천 필을 더 내려주었다. 세 장군에게는 각각 금은과 비단을 하사했고, 삼군 전체에도 군량과 상을 내렸다. 호연작과 한도, 팽기는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서약서를 올리고 고태위와

추밀원 관리들에게 작별을 고했다. 세 사람은 말을 타고 여녕주를 향해 떠나갔으며, 가는 길에 별다른 일은 없었다.

여녕주에 도착하자마자 호연작이 말했다. "한도와 팽기는 각각 진주와 영주로 가서 군사를 일으킨 뒤, 이곳 여녕주로 와서 합류하시오." 보름도 채 되지 않아 세 갈래의 병마가 모두 갖춰졌다. 호연작은 도성에서 수령해 온 갑옷·투구·칼·깃발·창·안장·말은 물론이고, 새로 제작한 연환마용 철갑과 각종 군기 등을 모두 삼군에 나누어 배정하고 출정을 기다렸다. 고태위가 전수부에서 군관 두 명을 보내 군사를 점검하게 했다. 삼군에 대한 포상을 마친 뒤, 호연작은 세 갈래 병마를 정비하여 성 밖으로 출정하였으니,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안장 위의 장수는 철갑을 두르고, 타고 있는 말은 구리 방울을 달았다. 붉은 깃발은 하늘 가득 노을처럼 펼쳐져 있고, 칼과 창은 천 리에 눈이 내린 듯 하얗게 번뜩였다. 활은 까치 그림처럼 아름답게 굽었고, 비단 주머니에는 용의 꼬리 장식이 반쯤 드러나 있었다. 깃털 장식은 화려하게 꽂혀 있고, 사자 모양의 장식은 표범 꼬리 모양의 매듭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장수는 깊은 투구를 써서 목 가리개가 내려와 눈만 살짝 보였고, 말은 두꺼운 갑옷을 입고 붉은 술을 늘어뜨린 채 네 다리에 장비를 갖추었다. 앞장선 병사들은 커다란 도끼를 어깨에 메고 나아갔으며, 뒤를 따르는 장수들은 모두 긴 창을 손에 쥐고 있었다. 수천의 기병이 주성을 떠나, 세 장군이 양산박을 향해 진격하였다.

곧바로 군사를 일으켜 병마를 정비하여 성 밖으로 출정하였다. 전군은 한도가 길을 열고, 중군은 주장 호연작이 이끌며, 후군은 팽기가 독

려하며 나아갔다. 기병과 보병을 포함한 삼군 병사들은 호호탕탕하게 거대한 기세를 떨치며 양산박을 향해 무섭게 돌진하였다.

한편, 양산박의 정찰병이 멀리서 이 일을 탐지하고 곧장 대채로 달려와 보고하였다. 취의청에 모여 있던 조개와 송강, 상석의 군사 오용과 하석의 법사 공손승, 그리고 여러 두령은 시진과 더불어 서로 축하하며 온종일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보고가 들어왔다. "여녕주의 '쌍편' 호연작이 군마를 이끌고 정벌하러 왔습니다!" 이에 모두 적을 맞이할 계책을 의논하였다. 오용이 말했다. "내가 듣기로 저 사람은 개국 공신이자 하동의 명장인 호연찬의 직계 적파 자손이라고 합니다. 무예가 매우 뛰어나 두 자루의 구리 채찍을 쓰는데,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반드시 용맹하게 싸울 수 있는 장수를 보내 먼저 힘으로 맞서게 한 뒤, 나중에 지략으로 사로잡아야 합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흑선풍' 이규가 외쳤다. "내가 가서 저놈을 잡아 오겠소!" 그러자 송강이 말했다. "네가 어찌 가겠느냐? 내게 따로 배치가 있다. 먼저 '벽력화' 진명을 제1진으로 세우고, '표자두' 임충을 제2진으로, '소이광' 화영을 제3진으로, '일장청' 호삼낭을 제4진으로, '병울지' 손립을 제5진으로 삼겠다. 앞선 다섯 진이 한 부대씩 차례로 싸우고 나면, 마치 물레가 돌아가듯 차례로 뒤로 돌아 후군이 되는 것이다. 나는 직접 형제 열 명을 데리고 대부대를 이끌어 뒤를 받치겠다. 좌군 다섯 장수는 주동·뇌횡·목홍·황신·여방이요, 우군 다섯 장수는 양웅·석수·구붕·마린·곽성이다. 수로에서는 이준·장횡·장순·완씨 삼형제에게 배를 몰아 지원하게 하라. 그리고 이규와 양림은 보병을 이끌고 두 갈래로 나누어 매복했다가 구원하도록 하라." 송강의 배치가 끝나자, 선봉인 진명이 일찌감치 군마를 이끌고 산을 내려가 평원의 너른 들판에 진을 쳤

다. 때는 비록 겨울이었으나 다행히 날씨가 화창하고 따뜻했다. 하루를 기다리니 멀리 관군이 도착하는 것이 보였다. 선봉 부대의 '백승장' 한도가 군사를 이끌고 영채를 세웠으나, 그날 밤은 전투를 벌이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양측 군대가 대치하고 북을 세 번 울린 뒤 진영 앞으로 나섰다. 진명이 말 위에서 낭아곤을 비껴든 채 맞은편 진문의 깃발이 열리는 곳을 바라보니, 선봉장 한도가 삭(槊)을 비껴들고 말을 세운 채 진명에게 크게 꾸짖었다. "천병(天兵)이 여기까지 왔거늘, 어찌 일찍 항복할 생각은 않고 감히 저항하며 죽기를 자초하느냐! 내 너희의 저 수박(水泊)을 메워 평평하게 하고 양산을 짓밟아 부수어, 이 반역자 놈들을 산 채로 사로잡아 경성으로 압송한 뒤 갈가리 찢어 죽이리라!" 진명은 본래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기에, 그 말을 듣고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말을 몰아 낭아곤을 휘두르며 곧장 한도를 덮쳤다. 한도 역시 삭을 세우고 말을 달려 진명과 맞섰다. 두 사람이 스무 합 넘게 싸우는데 한도의 힘이 부쳐 막 달아나려 하자, 뒤따라오던 중군 주장 호연작이 도착했다. 그는 한도가 진명을 당해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중군에서 쌍편을 휘두르며, 황제가 하사한 '척설오추마'를 타고 포효하며 진영 앞으로 달려 나왔다. 진명이 호연작을 보고 맞서 싸우려 할 때, 제2진인 '표자두' 임충이 도착하여 외쳤다. "진 통제는 잠시 쉬시오! 내가 저 자와 삼백 합을 싸워보고 나서 다시 이야기합시다!" 임충이 사모(蛇矛)를 치켜들고 호연작을 향해 돌진하자, 진명은 군마를 이끌고 왼쪽 산비탈 뒤로 물러났다. 이제 호연작이 임충과 맞붙었는데, 두 사람은 과연 호각의 적수였다. 창이 오고 채찍이 가니 꽃 한 무더기가 어지럽게 피어나는 듯했고, 채찍이 가고 창이 오니 비단 한 다발처럼 화려했다. 두 사

람이 쉰 합 넘게 싸워도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세 번째로 '소이광' 화영의 군대가 도착하여 진문 아래에서 크게 외쳤다. "임 장군은 잠시 쉬십시오! 제가 저놈을 사로잡겠습니다!" 그러자 임충은 말을 돌려 물러났다. 호연작은 임충의 무예가 매우 강한 것을 보고 본진으로 돌아갔다. 임충은 자기 부대 군마를 이끌고 산비탈 뒤로 돌아갔고, 그 자리에 화영이 창을 들고 말을 몰아 나섰다. 이때 호연작의 후군도 도착했는데, '천목장' 팽기가 삼첨양인사규팔환도를 비껴들고 오명천리황화마를 몰아 진영으로 나와 화영에게 크게 욕설을 퍼부었다. "나라를 배반한 역적 놈아, 입에 올릴 가치도 없다! 나와 승부를 겨뤄보자!" 화영은 크게 노하여 대꾸도 하지 않고 팽기와 맞붙었다. 두 사람이 스무 합 넘게 싸우는데, 호연작은 팽기의 힘이 빠진 것을 보고 말을 몰아 쌍편을 휘두르며 화영을 향해 돌진했다. 세 합을 채 싸우기도 전에 네 번째로 '일장청' 호삼낭의 군마가 도착하여 외쳤다. "화 장군은 잠시 쉬시오! 내가 저놈을 잡겠소." 화영 역시 군사를 이끌고 오른쪽 산비탈 아래로 돌아 내려갔다. 팽기가 호삼낭과 미처 싸우기도 전에, 다섯 번째로 '병울지' 손립의 군마가 일찌감치 도착하여 진영 앞에 말을 세우고 호삼낭이 팽기와 싸우는 것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이 자욱한 전진(戰塵)과 살기 속에서 싸웠다. 한 명은 커다란 대간도(大桿刀)를 쓰고 한 명은 쌍도를 썼는데, 스무 합 넘게 싸우다가 호삼낭이 쌍도를 벌려 들고는 말을 돌려 달아나려 했다. 팽기는 공을 세우고 싶어 말을 몰아 뒤쫓았으나, 호삼낭은 쌍도를 말안장 앞가지에 걸고 도포 밑에서 스물네 개의 금 갈고리가 달린 붉은 비단 올가미를 꺼냈다. 팽기의 말이 가까이 오자 그녀는 몸을 틀어 올가미를 허공으로 확 던졌고, 겨냥이 정확하여 팽기가 미처 손쓸 틈도 없이 말 아래로 끌려 떨어졌다. 손립이 군사들에게 일제히 앞으로 나아가라 호령하여 팽기를 사로잡았다. 호연작은

이를 보고 크게 분노하여 필사적으로 구하러 달려들었으나, 호삼낭이 말을 몰아 맞서 싸웠다. 호연작은 호삼낭을 한입에 삼켜버리고 싶을 만큼 분했으나, 열 합 넘게 싸워도 그녀를 이기지 못했다. 호연작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막된 계집이 내 손에서 이토록 많은 합을 버티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마음이 급해진 그는 일부러 허점을 보여 그녀를 끌어들인 뒤, 쌍편을 한 번에 내리쳐 덮으려 했다. 이때 호삼낭의 쌍도는 품 안쪽에 있었다. 호연작이 오른손의 구리 채찍을 들어 그녀의 정수리를 내리치자, 호삼낭이 눈 밝고 손 빠르게 칼을 들어 막아냈는데, 그 바람에 오른손의 칼이 위로 곧장 튀어 올랐다. 마침 그 한 채찍이 칼날 위를 정확히 내리쳤기에 '챙'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흩어졌다. 호삼낭은 말을 돌려 본진으로 달아났고, 호연작이 말을 몰아 뒤쫓았다. '병울지' 손립이 이를 보고 창을 비껴들고 말을 달려 나아가 호연작을 가로막고 맞붙어 싸웠다. 그 뒤로 마침 송강이 열 쌍의 좋은 장수들을 모두 이끌고 도착하여 진형을 갖추었다. 호삼낭 역시 자기 군마를 이끌고 산비탈 아래로 내려갔다. 송강은 '천목장' 팽기를 사로잡은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진영 앞으로 가서 손립과 호연작의 싸움을 지켜보았다. 손립도 창을 안장에 걸쳐 두고 손목으로 대나무 마디 모양의 강편(鋼鞭)을 잡아 들어 호연작을 맞이했다. 두 사람 모두 강편을 쓰는 데다 차림새까지 흡사했다. '병울지' 손립은 뿔이 엇갈린 철 복두에 큰 붉은 비단 머리띠를 두르고, 온갖 꽃을 점점이 수놓은 비취빛 검은 비단 도포와 검은 칠에 금을 박은 갑옷을 입었으며, '오추마'를 타고 대나무 마디 모양의 호안편(虎眼鞭)을 쓰니 마치 울지공을 능가할 듯했다. 반면 호연작은 하늘로 솟은 뿔이 달린 철 복두에 금을 박은 누런 비단 머리띠를 두르고, 칠성을 박은 검은 비단 도포와 검은 칠을 한 맞물린 갑옷을 입었으며, 황제가 하사한 '척설오추마'를 타고 물에 갈아 만든 팔각

강편 두 자루를 쓰니—왼손 것은 무게 열두 근, 오른손 것은 열세 근이라—참으로 호연찬과 같았다. 두 사람이 진영 앞에서 좌우로 돌고 돌며 서른 합 넘게 싸워도 승부를 가리지 못하니, 이를 지켜보던 송강은 연신 갈채를 보냈다. 이를 증명하는 시가 있으니,

각자 검은 말을 타고 용처럼 씩씩하게 달리니,
호연찬과 울지공이 서로 마주 서 있구나.
쌍편을 휘두르며 적을 만난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라,
말없이 함께 돌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겠네.

관군 진영의 한도는 팽기가 사로잡혔다는 말을 듣자마자 후군 부대로 가서 군마를 모두 일으켜 일제히 앞으로 나아가 싸우게 했다. 송강은 관군이 밀고 들어올까 두려워 채찍 끝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열 명의 두령과 크고 작은 군사들을 이끌고 맞서 싸우러 나갔다. 뒤따르던 네 갈래의 군병도 두 갈래로 나뉘어 협공하며 몰려들었다. 호연작은 이를 보고 급히 자기 부대 군마를 거두어 각자 적을 막아내게 했다. 어찌하여 완승을 거두지 못했는가? 그것은 호연작의 진영이 모두 '연환마 관군'이었기 때문이다. 말은 말 갑옷을 두르고 사람은 철갑을 입었는데, 말은 갑옷을 둘러 네 발굽만 땅에 드러나 있을 뿐이었고, 사람은 갑옷을 입어 두 눈만 겨우 드러내고 있었다. 반면 송강의 진영에도 갑옷 입은 말이 있긴 했으나, 그저 붉은 술과 면구(面具), 구리 방울과 꿩 깃털을 단 정도에 불과했다. 이쪽에서 화살을 쏘면 저쪽에서는 갑옷이 다 막아주었고, 저 삼천 기마병이 저마다 활과 화살을 들고 마주 쏘아대니 송강의 군사들은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다. 송강이 급히 징을 쳐서 군사를 거두자, 호연작 역시 이십여 리를 물러나 진을 쳤다.

송강은 군사를 거두어 산서 쪽으로 물러나 진을 치고 군마를 정비하게 한 뒤, 좌우의 도수(刀手, 칼을 쓰는 병사)들에게 팽기를 데려오라고 명했다. 송강이 팽기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군사들을 물러나게 하고, 친히 그의 포박을 풀어준 뒤 막사 안으로 부축해 들여 손님으로서 자리를 권했다. 송강이 먼저 예를 갖추어 절을 하자, 팽기가 황급히 답례하며 절하고 말했다.

"포로로 잡힌 놈이 마땅히 죽음을 기다려야 하거늘, 어찌하여 장군께서 저를 손님처럼 대접해 주십니까?"

송강이 말했다. "우리 형제들은 발붙일 곳이 없어 잠시 이 수로를 차지하고 몸을 피하며 지내온 탓에, 저지른 죄가 매우 많소. 이제 조정에서 장군을 보내 우리를 잡으러 왔으니, 마땅히 목을 내어 포박당해야 할 처지요. 다만 목숨을 보전하지 못할까 두려워 맞서 싸우다 장군의 위엄을 어지럽혔으니, 부디 죄를 용서해 주시길 빌 뿐이오."

팽기가 대답했다. "장군께서 평소 의를 중시하고 어진 마음으로 곤경에 처한 이를 돕는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었습니다만, 과연 이토록 의로운 분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만약 제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기꺼이 제 몸을 바쳐 장군을 위해 상소를 올리겠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우리 형제들은 오직 성상(聖上)의 너그러운 은혜를 기다리며 중죄를 사면받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에 보답하기만을 바랄 뿐이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임금을 향한 충성심은 도적 같은 신하를 한탄하게 하고,
형제 사이의 의리는 목숨을 걸고 몸을 숨기게 하네.
충성과 의리가 한마음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어찌 백팔 명의 영웅이 하나로 모일 수 있었으랴.

송강은 그날 즉시 '천목장' 팽기를 대채(大寨, 양산박의 본진)로 보내 조개와 만나게 하고는, 그를 양산박 안에 머물게 했다. 한편, 송강은 삼군과 여러 두령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포상하며 군사적 상황을 논의했다.

한편, 호연작은 군사를 거두어 진을 친 뒤 한도와 함께 어떻게 하면 양산박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 상의했다. 한도가 말했다. "오늘 저놈들이 우리 군사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당황하여 급히 맞서 공격해 왔습니다. 내일은 기마병을 모두 앞세워 전진시킨다면 반드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호연작이 말했다. "이미 그렇게 준비해 두었으니, 그대와 뜻을 맞추어 진행하려 하오."

이어 그는 곧바로 장령을 내렸다. "삼천 필의 군마를 한 줄로 세우되, 서른 필씩 짝을 지어 철 고리로 서로 연결하라. 적군을 만나면 멀리서는 화살을 쏘고, 가까워지면 창을 휘두르며 곧장 돌격한다. 삼천 명의 '연환마 군사'를 백 개의 부대로 나누어 서로 연결하게 하고, 오천 명의 보병은 뒤에서 이를 지원한다. 내일은 함부로 도전장을 내밀지 말고, 나와 그대가 뒤에서 진영을 살피며 따라가자. 만약 교전이 벌어지면 세 방향으로 나누어 돌격하라."

계책을 다 세운 뒤,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출전했다.

한편, 송강은 이튿날 군마를 다섯 부대로 나누어 앞세우고, 열 명의 장수가 후군을 호위하게 했으며, 양옆으로 두 갈래의 복병을 배치했다. 진명이 앞장서서 호연작을 불러내 맞서 싸우려 했으나, 적진에서는 함성만 지를 뿐 아무도 맞서 나오지 않았다. 선봉의 다섯 부대는 모두 일렬로 진영 앞에 늘어섰는데, 가운데는 진명, 왼쪽은 임충과 '일장청'(호삼랑), 오른쪽은 화영이었고, 손립이 그 뒤를 받쳤다. 이어 송강이 열 명의 장수를 거느리고 나타나니, 인마가 겹겹이 쌓여 위용을 갖추었다. 적진을 살펴보니 보병이 약 천 명 정도 있었는데,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를 뿐 누구 하나 맞서 싸우러 나오지 않았다. 송강은 이를 보고 의아하게 여겨 몰래 신호를 내려 "후군을 일단 물러나게 하라"고 명령했다. 그러고는 말을 달려 화영의 부대 곁까지 가서 살폈다.

그때 갑자기 적진에서 연달아 포성 같은 소리가 울리더니, 천 명의 보병이 순식간에 두 갈래로 갈라지며 세 갈래의 '연환마 군사'가 쏟아져 나와 곧장 돌격해 왔다. 양옆에서는 화살이 빗발치고 가운데는 긴 창이 가득하니, 송강은 이를 보고 크게 놀라 급히 군사들에게 화살을 쏘라고 명령했으나 도저히 막아낼 도리가 없었다. 한 부대당 서른 필의 군마가 일제히 달려드니, 앞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연환마 군사'들이 산과 들을 가득 메운 채 거칠게 돌격해 오자, 앞서 있던 다섯 부대의 군마들은 겁에 질려 이리저리 흩어지며 갈피를 잡지 못했고, 뒤따르던 대규모 인마는 막아내지 못한 채 각자 살길을 찾아 도망쳤다.

송강도 급히 말을 달려 피하려 했고, 열 명의 장수가 그를 호위하며 나아갔다. 그런데 뒤쪽에서 한 부대의 '연환마 군사'가 쫓아오던 중, 복병인 이규와 양림이 갈대숲 사이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튀어나와 송강을 구해냈다. 그들은 송강을 데리고 물가로 도망쳤는데, 마침 이준, 장횡, 장순, 그리고 완씨 삼형제 등 여섯 명의 수군 두령이 전선을 배치해 마중을 나와 있었다. 송강은 급히 배에 올라타며 장령을 내렸다. "각자 흩어져서 다른 두령들을 구출하라!"

그때 '연환마' 부대가 물가까지 들이닥쳐 화살을 마구 쏘아댔으나, 배에 가림막이 있어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그들은 서둘러 배를 저어 야취탄 물가에 닿았고, 모두 상륙하여 수채(水寨, 수군 진영)에서 인마를 정비했다. 병력의 태반을 잃었으나 다행히 두령들은 모두 무사했다. 비록 말은 제법 잃었으나 목숨은 모두 건진 것이다. 잠시 후 석용, 시천, 손신, 고대수(고대소)가 모두 허겁지겁 산으로 도망쳐 올라오며 말했다. "보병들이 들이닥쳐 몰아치며 가게의 집들을 다 때려 부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조선을 타고 마중 나오지 않았다면 모두 붙잡혔을 것입니다."

송강은 그들을 일일이 다독이며 두령들의 상태를 살폈다. 화살을 맞은 이는 임충, 뇌횡, 이규, 석수, 손신, 황신 등 여섯 명이었고, 졸개들 중 화살을 맞고 다친 자는 셀 수도 없이 많았다. 이 소식을 들은 조개는 오용, 공손승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와 상황을 물었다. 송강은 미간을 찌푸린 채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오용이 위로하며 말했다. "형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승패는 병가에서 흔히 있는 일인데 어찌

그리 마음을 쓰십니까? 좋은 계책만 세운다면 저 '연환마 군사'를 반드시 격파할 수 있습니다."

조개는 즉시 명령을 내려 수군들에게 지시했다. "진영의 막사와 배들을 튼튼히 고정하고, 물가에 대비를 철저히 하여 밤낮으로 경계하라." 그리고 송강을 산 위로 모셔가 쉬게 하려 했다. 그러나 송강은 산으로 올라가기를 거부하고 야취탄 수채에 머물기로 하며, 다만 부상당한 두령들만 산 위로 올려 보살피게 했다.

한편, 호연작은 대승을 거두고 본진으로 돌아왔다. 그가 '연환마' 부대를 풀어놓자, 부하들이 차례로 몰려와 공을 치하받으려 했다. 죽은 자는 셀 수 없이 많았고, 생포한 포로는 오백여 명에 달했으며, 빼앗은 군마도 삼백여 필이었다. 호연작은 즉시 사람을 보내 도성에 승전보를 전하게 하는 한편, 삼군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며 포상했다.

한편, 고태위가 전수부(殿帥府, 군사 지휘부)에 앉아 집무를 보고 있는데, 문지기가 달려와 보고했다. "호연작이 양산박을 토벌하여 승리하였으며, 승전보를 전하러 온 사람이 와 있습니다!" 고태위는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했다. 이튿날 아침 조회에서 이 소식이 황제에게 보고되었다. 휘종은 매우 기뻐하며, 황실의 술 열 병과 비단 도포 한 벌을 하사하고, 관리 한 명에게 돈 십만 관을 지참하게 하여 행영(行營, 군사 주둔지)으로 가서 군사들에게 포상하라고 명했다. 고태위는 성지를 받들고 전수부로 돌아와, 즉시 관리에게 돈을 들고 가서 포상하게 했다.

한편, 호연작은 천사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도와 함께 이십 리 밖까지 나가 맞이했다. 천사를 진영으로 모셔온 뒤, 은혜에 감사하

며 하사품을 받은 호연작은 술을 차려 천사를 대접했다. 그러면서 한 선봉에게 명하여 돈을 풀어 군사들에게 포상하게 하고, 생포한 오백여 명의 포로는 진영 안에 가두어 두었다. 나중에 도적의 우두머리까지 잡게 되면 한꺼번에 도성으로 압송하여 백성들에게 본보기로 처형할 계획이었다.

천사가 물었다. "팽기 단련사는 어찌하여 사로잡혔소?"

호연작이 대답했다. "송강을 잡으려는 욕심에 너무 깊숙이 들어갔다가 붙잡힌 탓입니다. 이번에는 저 도적놈들이 감히 다시 오지 못할 것이니, 군사를 나누어 공격하여 반드시 산채를 깨끗이 소탕하고 물웅덩이까지 샅샅이 뒤져 도적들을 모두 잡아들이고 그 소굴을 부수어 버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한스러운 것은 사방이 물이라 진격할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멀리서 산채를 바라보니, 화포를 날려 쏘아 저 도적의 소굴을 박살 내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듣기로 동경에 '굉천뢰'라 불리는 능진이라는 포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화포를 만드는 데 능하여 십사오 리 밖까지 날릴 수 있는데, 돌포탄이 떨어지는 곳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며 산이 뒤집히고 돌이 쪼개진다고 합니다. 만약 그를 얻을 수 있다면 도적의 소굴을 공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무예에도 정통하고 활쏘기와 말타기에도 능합니다. 천사께서 도성으로 돌아가시는 대로 태위께 이 일을 말씀드려 급히 사람을 보내주신다면, 머지않아 도적의 소굴을 함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사가 명을 받아 허락하고 이튿날 길을 떠났다. 길 위에서의 이야기는 생략한다.

천사가 도성에 돌아와 고태위를 만나 호연작이 큰 공을 세우기 위해 포수 능진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상세히 보고했다. 고태위는 그 말을 듣고 즉시 명령을 내려 갑장고(甲仗庫, 병기 창고)의 부포수 능진을 불러오게 했다. 능진은 연릉 출신으로, 송나라 성세에 나타난 첫 번째 포수라 하여 사람들이 모두 그를 '굉천뢰'라 불렀으며 무예 또한 매우 뛰어났다. 능진의 뛰어남을 찬양하는 시가 있어 이를 전한다.

강한 불꽃 터질 때 성곽은 부서지고,
연기와 구름 흩어지는 곳에 귀신도 근심하네.
금륜과 자모 포가 하늘 흔들며 울려 퍼지니,
포수들의 이름 사백 주에 널리 알려졌도다.

능진이 고태위를 알현하여 행군 통령관의 문빙(文憑, 임명 증서)을 받은 뒤, 즉시 안장과 말, 군장들을 챙겨 길을 떠날 채비를 했다. 능진은 화포를 쏘는 데 필요한 화약과 약료, 그리고 자신이 만든 여러 종류의 화포와 포탄, 포가(炮架, 화포 받침대)를 수레에 싣고, 입을 옷과 갑옷, 투구, 칼 등 개인 소지품을 챙겼다. 그러고는 서른에서 마흔 명 정도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동경을 떠나 양산박으로 향했다.

행영에 도착한 능진은 먼저 주장인 호연작을 알현하고, 이어 선봉인 한도를 만났다. 그는 수채(水寨, 수군 진영)까지의 거리와 산채의 험준한 지형을 상세히 물어본 뒤, 세 종류의 포탄을 준비하여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는 풍화포, 두 번째는 금륜포, 세 번째는 자모포였다. 우선 군사들이 포가를 정돈하여 물가에 바로 세워두게 하고, 화포를 쏠 준비를 마쳤다.

한편, 송강은 야취탄의 작은 진영에 머물며 군사 오용과 함께 적의 진형을 깨뜨릴 방도를 상의했으나 도무지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때 정탐꾼이 달려와 보고했다. "동경에서 새로 포수 하나를 보냈는데, '굉천뢰'라 불리는 능진이라는 자입니다. 바로 오늘 물가에 포가를 세우고 화포를 쏘아 산채를 공격할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오용이 말했다.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산채는 사방이 물로 둘러싸여 있고 물길이 매우 복잡합니다. 완자성은 물에서 또 멀리 떨어져 있으니, 설령 하늘을 나는 화포가 있다 한들 어떻게 성벽 근처까지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일단 야취탄의 작은 진영을 버리고 옮겨간 뒤, 그자가 어떤 식으로 화포를 쏠지 지켜보며 다시 상의해 봅시다."

이에 송강은 작은 진영을 버리고 모두 일어나 관문 쪽으로 이동했다. 조개와 공손승이 주의청으로 모여들자, 조개가 물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적을 물리칠 수 있겠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산 아래에서 포 소리가 들려왔다. 화포를 연달아 세 번 쏘았는데, 그중 두 발은 물에 떨어졌고 한 발은 야취탄의 작은 진영을 직격했다. 송강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속이 번뇌와 근심으로 뒤엉켰고, 모든 두령도 안색이 변했다.

오용이 말했다. "누군가를 보내 능진을 물가로 유인한 뒤, 먼저 그자를 사로잡아야 적을 물리칠 방도를 상의할 수 있습니다."

조개가 말했다. "이준, 장횡, 장순, 그리고 완씨 삼형제까지 여섯 명이 배를 저어 나가 그렇게 움직이고, 언덕 위에서는 주동과 뇌횡이 이를 지원하도록 하시오."

한편, 여섯 명의 수군 두령은 명령을 받자마자 두 팀으로 나뉘었다. 이준과 장횡이 먼저 물길을 잘 아는 군사 마흔에서 쉰 명을 데리고 쾌속선 두 척을 이용해 갈대숲 깊은 곳을 통해 몰래 다가갔다. 그 뒤로는 장순과 완씨 삼형제가 마흔여 척의 작은 배를 몰고 뒤를 받치기로 했다. 이준과 장횡이 건너편 기슭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화포 받침대 근처로 달려가 큰 소리로 외치며 화포를 밀어 넘어뜨렸다. 군사들이 당황하여 급히 능진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능진은 풍화포 두 문을 챙겨 창을 들고 말을 탄 채 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급히 달려왔다.

이준과 장횡은 사람들을 데리고 곧장 달아났고, 능진은 그들을 쫓아 갈대밭 근처까지 이르렀다. 그곳에는 마흔여 척의 작은 배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는데, 배 위에는 백여 명의 수군이 타고 있었다. 이준과 장횡은 재빨리 배 위로 뛰어오른 뒤, 일부러 배를 움직이지 않고 적군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다가 큰 소리를 지르며 모두 물속으로 뛰어들어 버렸다. 능진의 군사가 도착하자 그들은 즉시 배를 빼앗으려 달려들었다. 이때 건너편 언덕에서는 주동과 뇌횡이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지원하고 있었다.

능진은 많은 배를 차지하자 군사들에게 모두 배에 올라타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배가 물 한가운데쯤 나아갔을 때, 언덕 위에서 주동과 뇌횡이 징을 울려댔다. 그러자 물밑에서 미리 대기하던 마흔에서 쉰 명의 수군이 솟아올라 배 뒷부분의 밑바닥을 모조리 뜯어내 버렸고, 물이 배 안으로 들이닥쳤다. 밖에서는 힘을 써서 배를 뒤집어버리니, 군사들은 모두 물속으로 처박혔다. 능진이 급히 배를 돌리려 했으나 배의 키와 노는 이미 물밑으로 끌려 내려간 뒤였다. 이때 양쪽에서 두 명의 두령

이 뛰어올라 배를 붙잡고 뒤집어엎는 바람에, 능진마저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다. 물밑에서 기다리던 완소이가 능진을 덥석 껴안고는 곧장 건너편 기슭으로 끌고 갔다. 언덕 위에서 대기하던 두령들이 이를 받아 밧줄로 꽁꽁 묶어 먼저 산 위로 올려보냈다.

물속에서는 이백여 명을 생포했고, 적군의 절반가량은 물에 빠져 죽었으며, 극소수만이 겨우 목숨을 건져 도망쳐 돌아갔다.

시로 이르되,

어찌하여 군사들이 벌써 강을 건너는가,
화포를 쓰지 않고서 어찌 하겠는가.
허공에 천둥소리만 요란하게 내뱉고는,
겨우 얕은 물에 일렁이는 물결을 걱정하는구나.

호연작이 이 사실을 알고 급히 군마를 몰아 달려갔을 때는, 이미 배들이 모두 야취탄을 지나간 뒤였다. 화살을 쏘아보아도 맞힐 수 없었고 사람들은 모두 자취를 감춘 뒤라, 그저 분통만 터뜨릴 뿐이었다. 호연작은 한참 동안 분함을 삭이지 못하다가 결국 군사를 이끌고 퇴각했다.

한편, 여러 두령이 '굉천뢰' 능진을 생포하여 산채로 압송하자, 먼저 사람을 보내 이 소식을 알렸다. 송강은 산채의 모든 두령과 함께 제2관문까지 마중을 나갔다. 송강은 능진을 보자마자 서둘러 직접 그의 포박을 풀어주며 두령들을 나무라듯 말했다. "내가 여러분에게 통령을 정중히 모셔 오라고 일렀거늘, 어찌 이리 무례하게 굴었단 말이오!" 능진

은 죽이지 않고 살려준 은혜에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송강은 그에게 술을 권하며 정성껏 대접한 뒤, 직접 그의 손을 잡고 산 위로 모셨다.

대채에 도착하니 팽기가 이미 두령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능진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자 팽기가 그를 권하며 말했다. "조개와 송강 두 두령님은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하며 호걸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오로지 조정의 초안(招安)을 받아 국가를 위해 힘쓰고자 할 뿐이니, 우리가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그 뜻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송강 역시 곁에서 거들자 능진이 대답했다. "제가 이곳에서 모시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문제는 늙은 어머니와 아내가 모두 동경에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텐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송강이 말했다. "부디 안심하십시오. 기한을 정해 통령의 가족을 데려와 드리겠습니다." 능진이 감사하며 말했다. "두령께서 이토록 세심하게 살펴주신다면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이에 조개가 말했다. "우선 잔치를 베풀어 경축하도록 합시다."

다음 날, 청사에서 모든 두령이 크게 모였다. 술을 마시는 사이 송강은 사람들과 함께 '연환마'를 격파할 계책을 논의했다. 마땅한 방책이 없어 고민하던 차에, '금전표자' 탕륭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소인이 재주는 없으나 계책 하나를 올리고자 합니다. 이러이러한 병기와 제 형님 한 분만 얻으면 '연환군마'를 격파할 수 있습니다."

오학구가 물었다. "아우님, 어떤 병기를 쓰겠다는 것인지 말해 보게. 그리고 자네의 그 친척 형님이라는 분은 누구인가?" 탕륭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손을 모아 예를 갖춘 뒤, 어떤 병기를 사용할 것인지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차례로 설명했다. 이 일이 있음으로 하여, 네다섯 명의 두령이 곧장 동경으로 달려가고, 삼천여 명의 마군이 모두 독수에 걸려들게 된다.

바로 이러하다. 옥경에서 계책을 이루어 해치(獬豸)를 사로잡고, 금관에서 모략을 이루어 산예(狻猊)를 붙잡으리라.

결국 탕륭이 사람들에게 그 병기가 무엇이며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려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56회 — 오용이 시천을 시켜 갑옷을 훔치고, 탕륭이 서녕을 꼬드겨 산으로 불러들이다

吳用使時遷盜甲 湯隆賺徐寧上山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시 탕륭이 여러 두령에게 말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무기를 만드는 일로 살아왔습니다. 선친께서는 그 솜씨 덕분에 노종(老种) 경략상공을 모시게 되어 연안 지채(知寨)가 되셨지요. 선대 황제께서도 '연환갑마'로 승리를 거두신 적이 있는데, 그 진을 깨뜨리려면 반드시 '구렴창'을 써야 합니다. 저희 집안에 이미 구렴창의 설계도가 전해 내려오니, 만들고자 하면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만들 줄은 알아도 다룰 줄은 모릅니다. 이 창을 능숙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을 찾자면, 제 고종사촌 형님(姑舅兄) 한 분뿐입니다. 그 구렴창법을 쓸 줄 아는 교두(教頭)는 그분 한 분뿐인데, 집안 대대로 익혀 온 것이라 외부인에게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말 위

에서든 걸어서든 모두 법도가 있어, 그 창술을 펼치면 참으로 신출귀몰합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임충이 물었다.

"혹시 지금 금창반(金鎗班)의 교사로 있는 서녕을 말하는 것인가?"

탕륭이 대답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임충이 말했다.

"자네가 말하지 않았다면 나도 잊을 뻔했군. 서녕의 금창법과 구렴창법은 참으로 천하에 견줄 자가 없지. 수도에 있을 때 그와 자주 만나 무예를 겨루었는데, 서로 존경하고 아꼈네. 그런데 그를 어떻게 이 산으로 데려올 수 있겠나?"

탕륭이 말했다.

"서녕의 조상께서 세상에 비길 데 없는 보물을 하나 남겨두셨는데, 바로 그 집안의 가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친을 따라 지채(군사 직책) 업무로 동경에 있는 고모님을 뵈러 갔을 때 자주 보았습니다. 바로 '안령쇄자갑'이라는 금빛 갑옷입니다. 이 갑옷은 몸에 걸치면 가벼우면서도 아주 안정감이 있어, 칼이나 창, 화살이 아무리 급하게 달려들어도 뚫을 수가 없으니 사람들이 '당예(사자 모양의 신수)에 버금간다'고 부를 정도입니다. 귀한 집 자제들이 구경시켜 달라고 청하는 일이 많았지만, 서녕은 함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 갑옷이 목숨과

도 같기 때문입니다. 갑옷은 가죽 상자에 담겨 침실 대들보에 걸려 있습니다. 만약 먼저 그 갑옷을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그가 이곳으로 오지 않을 리 없습니다."

오용이 말했다.

"상황이 그렇다면 무엇이 어렵겠나? 여기 실력 있는 형제들이 있지 않은가. 이번에는 고상조 시천을 보내 한 번 다녀오게 하세."

시천이 즉시 대답했다.

"그곳에 그런 물건이 있느냐가 문제겠지요. 만약 정말로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가져오겠습니다."

탕룡이 말했다.

"자네가 갑옷을 훔쳐 오기만 한다면, 그를 이곳으로 데려오는 일은 내가 책임지고 맡겠네."

송강이 물었다.

"자네는 어떻게 그를 이곳으로 데려오겠다는 건가?"

탕륭이 송강의 귓가에 다가가 몇 마디를 낮게 속삭였다. 송강은 웃으며 말했다.

"참으로 묘한 계책이로군!"

오용이 말했다.

"사람 셋을 더 써서 동경으로 한 번 다녀오게 합시다. 한 명은 동경에 가서 화약(연화)과 약료, 그리고 대포에 쓸 약재를 사 오고, 나머지 둘은 능 통령의 가족을 데려오게 합시다."

이 말을 들은 팽기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뢰었다.

"만약 누군가 영주로 가서 제 가족을 데려와 산으로 오게 해 준다면, 참으로 큰 은혜를 입겠습니다."

송강이 즉시 말했다.

"단련은 안심하시오. 두 분이 편지를 써 주시면 내가 곧바로 사람을 보내겠소."

송강은 곧바로 양림을 불러 금은과 편지를 챙겨 부하들을 거느리고 영주로 가서 팽기 장군의 가족을 데려오게 했다. 설영은 봉술로 약을 파는 장수로 변장하여 능 통령의 가족을 데려오러 동경으로 향했다. 이운은 객상으로 변장하여 설영과 함께 동경으로 가서 화약과 약료 등을 사기로 했다. 악화는 탕륭과 동행하고, 또 설영이 오갈 때 동반자가 되어 주기로 했다.

그사이 먼저 시천을 산 아래로 내려보냈다. 그다음에는 탕륭에게 '구렴창' 한 자루를 견본으로 만들게 하고, 뇌횡에게 그 제작을 감독·관리하게 했다. 원래 뇌횡의 조상도 대장장이 출신이었다. 다시 말하건대, 탕륭이 구렴창 견본을 만들어 내자 산채에서 무기를 만드는 자들에게 그 견본대로 본떠 제작하게 하고 뇌횡이 그 제작을 감독·관리하니, 더 말할 것이 없었다.

양산박에서는 떠나는 이들을 위해 송별 연회를 베풀었다. 양림, 설영, 이운, 악화, 탕륭은 작별하고 산을 내려갔다. 다음 날에는 대종을 산 아래로 내려보내 오가며 사정을 살피게 했다. 이 이야기는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너무 길다.

한편, 시천은 양산박을 떠나 몸에 암기를 숨기고 온갖 장비를 갖춘 채 길을 재촉하여 동경에 이르렀다. 그는 우선 객점에 들어 하룻밤 묵었다. 이튿날 성 안으로 들어간 시천은 금창반 교사 서녕의 집을 찾아 물었다. 어떤 사람이 일러 주었다.

"반문(班門) 안으로 들어가서 동쪽으로 다섯 번째 집, 검은 모서리의 쪽문이 바로 그 집입니다."

시천은 반문 안으로 들어가 먼저 앞문을 살펴보고, 이어 돌아 나와 뒷문을 살피니 한쪽으로 높은 담장이 둘러 있고 담장 안으로 작고 아담한 누각 두 칸이 보였으며, 옆으로는 버팀 기둥 하나가 서 있었다. 시천은 한참 살펴보고는 다시 이웃에게 물었다.

"서 교사가 집에 계신가?"

누군가 대답했다.

"아마 궁중에서 당직 중이라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시천이 다시 물었다.

"언제쯤 돌아오는지 아는가?"

"저녁때나 되어야 돌아오시고, 오경이면 다시 궁중으로 들어가 입직(隨班)하십니다."

시천은 폐를 끼쳤다며 인사하고 객점으로 돌아왔다. 그는 준비해 온 장비를 챙겨 몸에 숨긴 뒤 점소이에게 당부했다.

"내가 오늘 밤에는 아마 돌아오지 못할 듯하니, 방을 잘 봐주게."

점소이가 대답했다.

"걱정 말고 다녀오십시오.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시천은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 저녁밥을 사 먹고는 금창반 서녕의 집 쪽으로 갔다. 좌우를 살펴보아도 몸을 숨길 마땅한 곳이 없었다. 어느덧 날이 어두워지자 시천은 반문 안으로 몸을 숨겨 들어갔다. 그날 밤은 추운 겨울이라 달빛조차 없었다. 시천은 토지묘 뒤의 커다란 측백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고는 두 다리로 나무를 단단히 끼고 마디마디 타고 올라가 나무 꼭대기의 가지에 말 타듯 걸터앉았다. 가만히 살피니 서녕이 돌아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이어 반의 두 사람이 등롱을 들고 나와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운 뒤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어느새 성루의 야경 북소리가 들리니 막 초경(初更)으로 접어드는 때였다. 구름이 차고 별빛도 흐린 가운데 이슬이 내리고 서리가 점차 하얗게 앉았다.

시천은 반 안이 고요해진 것을 보고 나무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서녕의 뒷문 가로 가서 담을 넘었는데, 별 힘 들이지 않고도 가볍게 넘어갔다. 안을 보니 작은 마당이었다. 시천이 부엌 밖에 엎드려 엿보니 부엌

에 등불이 환하고 두 여종이 아직 일을 다 끝내지 못하고 정리하고 있었다. 시천은 버팀 기둥을 타고 처마 끝 박풍판 쪽으로 올라가 한 덩어리처럼 엎드렸다. 위층을 살피니 금창수 서녕이 아내와 화로 가에 마주 앉아 불을 쬐고 있었고, 품에는 예닐곱 살 된 아이를 안고 있었다. 시천이 침실 안을 보니 과연 대들보에 커다란 가죽 상자 하나가 매여 있었다. 방문 앞에는 활과 화살, 허리칼 한 자루가 걸려 있었고, 옷걸이에는 갖가지 옷이 걸려 있었다.

서녕이 말했다. "매향아, 이리 와서 내 옷 좀 개어다오."

아래에 있던 여종 하나가 올라와, 옆쪽 작은 탁자(春臺) 위에서 먼저 자줏빛 수놓은 둥근 깃 옷 한 벌을 개고, 이어 관록색(官綠) 안감을 댄 저고리 한 벌과 오색 꽃을 수놓은 척천(踢串), 목을 가리는 채색 비단 수건, 붉고 푸른 매듭, 그리고 손수건 한 보따리를 갰다. 또 작은 노란 수건에 쌍수달 꼬리에 여지(荔枝) 무늬를 박은 금띠를 싸서 보따리 안에 넣고는 화로 받침 위에 가지런히 얹어 두었다. — 시천은 이 모든 것을 눈여겨보았다.

이경(二更)이 지날 무렵 서녕이 잠자리에 들 채비를 하자 아내가 물었다. "내일도 입직하러 나가셔야 합니까?"

서녕이 대답했다. "내일은 바로 천자께서 용부궁(龍符宮)으로 행차하시는 날이라, 오경에 일찍 일어나 입궐하여 시중을 들어야 하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매향에게 분부했다. "나리께서 내일 오경에 일어나 입직하러 나가셔야 하니, 너희는 사경에 일어나 물을 끓이고 요깃거리를 준비해 두어라."

시천은 속으로 생각했다. '대들보에 매달린 저 가죽 상자가 분명 갑옷이 든 것이렷다. 한밤중에 손을 쓰면 좋겠지만, 만약 소란이 일어나 내일 성을 빠져나가지 못하면 큰일을 그르치지 않겠는가? … 차라리 오경까지 기다렸다 손을 써도 늦지 않으리라.'

서녕 부부가 잠자리에 들고 두 여종이 방문 밖에서 잠자리를 펴는 소리가 들렸다. 방 안 탁자 위에는 작은 등잔 하나가 켜져 있었으나, 다섯 식구 모두 잠든 상태였다. 하루 종일 시중을 들느라 기운이 다 빠진 매향 일행 두 명도 모두 잠이 들었다. 시천은 살금살금 내려가 몸 가까이 두었던 대나무 관을 집어 들더니, 창살 틈으로 입바람을 훅 불어 등잔불을 꺼버렸다.

그렇게 사경(四更, 새벽 1~3시 사이)이 다 될 무렵, 서녕이 일어나 여종들을 깨워 국을 끓이라고 시켰다. 잠결에 일어난 두 여종은 방 안에 불이 꺼진 것을 보고 소리쳤다.

"아이쿠, 오늘 밤은 왜 등불이 없지요!"

서녕이 말했다.

"뒤편에 가서 등불을 가져오지 않고 언제 할 셈이냐!"

그러자 매향이 위층 문을 열고 내려오는 나무 사다리 소리가 들렸다. 시천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기둥을 타고 미끄러지듯 내려가 뒷문 근처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여종이 뒷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확인한 시천은 담장 문을 열고 몰래 부엌으로 잠입하여 식탁 밑에 몸을 바짝

붙였다. 매향은 등불을 구해 들어와 문을 닫고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러 갔다. 다른 여종도 일어나 숯불을 피워 위층으로 올라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이 다 끓었고, 국그릇을 받쳐 들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서녕은 세수를 마친 뒤 뜨거운 술을 가져오라고 일렀다. 여종들이 고기 요리와 떡을 차려 올리자 서녕은 음식을 먹고는 남은 밥은 밖에서 당직 서는 이들에게 주라고 말했다. 시천은 서녕이 아래로 내려와 일꾼들에게 밥을 먹인 뒤, 보따리를 메고 금창을 챙겨 집을 나서는 소리를 들었다. 매향 두 명이 등불을 밝혀 서녕을 배웅했다.

그 틈을 타 시천은 식탁 밑에서 빠져나와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는 기둥 옆을 지나 대들보 위로 기어 올라가 몸을 납작하게 엎드렸다. 두 여종은 다시 문을 닫고 등불을 끈 뒤, 위층으로 올라와 옷을 벗고는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다.

시천은 두 매향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대들보 위에서 갈대 관(蘆管)으로 등잔불을 향해 입바람을 불었다. 그러자 등잔불이 다시 금세 꺼졌다. 시천이 대들보 위에서 가죽 상자를 조심스레 풀어 내리려는데, 서녕의 아내가 잠결에 소리를 듣고 매향을 불러 물었다.

"대들보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느냐?"

시천이 쥐 우는 소리를 냈다. 여종이 대답했다.

"마님, 쥐 우는 소리 아니옵니까? 쥐들이 서로 싸우느라 저리 요란한 모양입니다."

시천은 곧 쥐들이 싸우는 소리를 흉내 내며 살금살금 내려왔다. 그는 가만히 위층 문을 열고 가죽 상자를 등에 진 채 조심조심 나무 사다리를 내려와, 안쪽 문에서 곧장 바깥문까지 열고 나가 반문 입구에 이르렀다. 이미 입직하러 가는 사람들이 문을 나서고 있었고, 사경(四更)에 자물쇠를 열어 둔 터였다. 시천은 가죽 상자를 손에 넣고 사람들 틈에 섞여 북적이는 틈을 타 빠져나가, 단숨에 성 밖으로 달려 객점 문 앞에 이르렀다. 이때 아직 날이 밝기 전이었는데, 객점 문을 두드려 열고 방에서 짐을 꺼내 한 짐으로 꾸려 짊어졌다. 숙박비를 셈해 치르고 객점을 나선 시천은 동쪽으로 길을 잡아 떠났다.

사십 리쯤 가다 보니 마침 허기가 져서 식당에 들러 불을 지피고 밥을 좀 해 먹으려는데, 웬 사람 하나가 들이닥쳤다. 시천이 살펴보니 다름 아닌 '신행태보' 대종이었다. 시천이 물건을 이미 손에 넣은 것을 확인한 두 사람은 은밀하게 몇 마디 말을 나누었다. 대종이 말했다.

"나는 먼저 갑옷을 산채로 가져갈 테니, 너는 탕룡과 함께 천천히 오너라."

시천은 가죽 상자를 열어 그 안에 있던 안령쇄자갑을 꺼내 보따리로 쌌다. 대종은 그것을 몸에 묶고는 식당 문을 나서더니, 신속하게 달리는 신행법(神行法)을 펼치며 단숨에 양산박으로 향했다.

시천은 빈 가죽 상자를 지게에 분명하게 묶어 매달아 두고, 밥을 먹은 뒤 불을 지핀 값을 치렀다. 그는 지게를 짊어지고 식당 문을 나서 곧장 길을 떠났다. 이십 리쯤 가다 보니 탕룡과 마주쳤고, 두 사람은 함께 주막으로 들어가 상의를 나누었다. 탕룡이 말했다.

"내 말대로 이 길로 가거라. 길가에 있는 주막이나 식당, 객주를 지나다가 문에 하얀 가루로 원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 바로 그 가게에서 술과 고기를 사 먹고 객주에서 쉬도록 해라. 그리고 반드시 그 가죽 상자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었다가, 이곳에서 한 정거장 정도 떨어진 곳에서 나를 기다려라."

시천은 이 계책대로 움직였다. 탕룡은 느긋하게 술을 한 차례 마신 뒤, 동경 성 안으로 향했다.

한편, 서녕의 집에도 날이 밝았다. 두 시녀가 일어나 보니 누각 문이 열려 있었고, 아래층의 중문과 대문도 모두 열려 있었다. 깜짝 놀라 집 안을 살펴보니 물건들은 그대로 있었다. 두 시녀가 누각 위로 올라와 부인에게 말했다.

“어찌 된 일인지 문이 다 열려 있는데, 물건들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말했다.

“오경(새벽 3~5시 사이)쯤 대들보 위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기에 너희는 쥐가 싸우는 거라고 했는데, 저 가죽 상자에 별일은 없느냐?”

두 시녀가 확인해 보고는 비명을 지르며 울먹였다.

“가죽 상자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인이 황급히 일어나 소리쳤다.

"어서 사람을 시켜 용부궁에 가서 나으리(서방님)께 이 사실을 알려라. 어서 돌아와 찾으시도록 하여라!"

시녀들이 급히 사람을 찾아 용부궁으로 달려가 서녕에게 소식을 전하려 했으나, 서너 명을 보낼 때마다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

"금창반직은 지금 황제의 행차를 따라 내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은 온통 친위군들이 호위하고 있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녕의 아내와 두 시녀는 마치 달궈진 번철 위의 개미처럼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밥도 차도 먹지 못한 채 정신없이 허둥대며 당황해했다.

서녕은 해 질 녘이 되어서야 비로소 관복을 벗고, 당직을 서는 부하에게 금창을 맡긴 채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집 근처에 다다르자 이웃이 말하기를,

"부인께서 집에서 도둑을 맞으셨다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시더군요."

서녕은 깜짝 놀라 황급히 집으로 들어갔다. 두 시녀가 문앞까지 마중 나와 말했다.

"나으리, 오경에 나가셨는데 도둑이 몰래 들어왔나 봅니다. 다른 것은 건드리지 않고 대들보 위에 있던 저 가죽 상자만 훔쳐 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서녕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탄식을 내뱉으며 괴로워했다. 아내가 물었다.

"도둑이 언제 집 안에 숨어 있었던 걸까요?"

서녕이 대답했다.

"다른 물건은 상관없다. 하지만 이 안령쇄자갑은 조상 대대로 사 대째 내려온 보물이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예전에 '화아'라고 부르던 왕 태위가 내게 삼만 관의 돈을 주고 사겠다고 한 적이 있었으나, 차마 팔 수가 없었지. 나중에 군대 진영에서 꼭 써야 할 물건이라 혹여나 잘못될까 봐 대들보 위에 단단히 묶어 두었는데 말이다. 많은 이들이 이 갑옷을 보고 싶어 하여 일부러 없어진 것처럼 꾸며왔건만, 이번에 소문이 나면 남들의 비웃음만 살 텐데, 이제 정말 잃어버렸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이냐!"

서녕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며 생각했다.

'대체 어떤 자가 훔쳐 간 것인가! 분명 내 갑옷에 대해 잘 아는 자임이 틀림없다.'

아내도 속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밤에 등불을 껐을 때 도둑이 이미 집 안에 숨어 있었던 게 아닐까? 분명 당신의 갑옷을 탐내는 누군가가 돈을 주고 사려 해도 팔지 않으니, 이런 고수 도둑을 시켜 훔쳐 가게 한 것이 분명해. 사람을 시켜 천천히 조사하게 하되, 성급히 움직여 도둑을 놀라게 해서는 안 돼요.'

서녕은 그 말을 듣고 다음 날 날이 밝을 때까지 집안에 앉아 고민에 빠졌다. 시로 이르되,

촉왕은 봄의 한을 품고, 송옥은 가을의 슬픔을 노래하네. 여건은 허리춤의 칼을 잃었고, 뇌환은 옥중의 검을 잃었구나. 조승(照乘)의 구슬을 잃어 그 빛이 사라지고, 연성(連城)에 맞먹는 화씨벽이 깨져 산산조각 나네. 왕개의 산호는 이미 훼손되어 보상할 길이 없고, 배항의 옥절구공이는 만나지 못해 즐거움을 나누기 어렵구나. 마치 봉황이 거친 언덕에 떨어져 고운 깃털이 시들고, 용이 얕은 물에 머물다 명주를 잃은 격이로다.

이날 서녕이 집에서 고민에 잠겨 있는데, 아침 식사 때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당직을 서는 부하가 나가서 이름을 물어보고는 안으로 들어와 보고했다.

"연안부의 탕 지채(군관 직책) 아드님인 탕룡이 특별히 뵙고자 찾아왔습니다."

서녕은 그 말을 듣고 손님을 맞아들여 대접하게 했다. 탕룡은 서녕을 보자마자 머리를 조아려 절하며 말했다.

"형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서녕이 대답했다.

"외삼촌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관직에 묶여 있는 처지인 데다 길도 멀어 조문하러 가지 못했구나. 아우의 소식도 전혀 몰랐는데, 그동안 어디에 있었느냐? 이번에는 어디서 오는 길이냐?"

탕룡이 말했다.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운수가 사나워 줄곧 강호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이번에 산동에서 곧장 경사로 와서 형님을 뵙고자 왔습니다."

서녕이 말했다.

"아우야, 어서 앉거라."

그러고는 술과 음식을 차려 대접하게 했다. 탕룡은 보따리 속에서 무게가 스무 냥인 마늘쪽 모양의 황금 두 덩이를 꺼내 서녕에게 건네며 말했다.

"선친께서 임종 직전에 이 물건들을 형님께 전해달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믿고 맡길 심복이 없어 차마 보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특별히 경사까지 와서 형님께 돌려드립니다."

서녕이 말했다.

"외삼촌께서 이토록 마음을 써주셨는데, 나는 효도를 다하지 못했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한단 말이냐!"

탕룡이 말했다.

"형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선친께서는 살아생전 형님의 무예를 늘 그리워하셨습니다. 다만 산과 물이 멀어 얼굴 한 번 보지 못하는 것을 한스러워하며, 이 물건들을 형님께 전해달라는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서녕은 탕룡에게 감사를 표하고 물건을 건네받은 뒤, 술을 내어 대접했다. 탕룡과 서녕이 술을 마시는 동안에도 서녕은 미간을 찌푸린 채 근심 어린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탕룡이 일어나 물었다.

"형님, 어찌하여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까? 분명 마음속에 고민되는 일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서녕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우야, 말하자면 길다. 어젯밤 집에 도둑이 들었단다."

탕룡이 물었다.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서녕이 대답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안령쇄자갑, 일명 '새당예(賽唐猊)'라 불리는 갑옷을 도둑맞았다. 어젯밤에 그 물건을 잃어버리니 마음이 이토록 괴롭구나."

탕룡이 말했다.

"형님의 그 갑옷은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견줄 데 없는 물건이라 선친께서도 늘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지요. 그런데 어디에 두셨기에 도둑을 맞으셨습니까?"

서녕이 말했다.

"가죽 상자에 담아 침실 대들보 위에 묶어 두었는데, 도둑이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구나."

탕룡이 물었다.

"어떤 모양의 가죽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까?"

서녕이 대답했다.

"붉은 양가죽 상자에 담겨 있었고, 안에는 향기로운 솜으로 감싸 두었지."

탕룡이 짐짓 놀라는 척하며 말했다.

"붉은 양가죽 상자라고요? 혹시 그 위에 흰 선으로 초록색 구름 문양의 여의두를 수놓고, 가운데에는 사자가 비단 공을 굴리는 무늬가 새겨진 것이 아닙니까?"

서녕이 물었다.

"아우야, 그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

탕룡이 말했다.

“제가 어젯밤 성 밖으로 마흔 리쯤 나갔다가 어느 시골 주막에서 술을 마시는데, 눈이 또렷하고 검고 마른 사내 하나가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속으로 ‘저 가죽 상자에는 대체 무엇이 들었을까?’ 하고 생각했지요. 나가려던 참에 제가 ‘그 상자는 어디에 쓰는 것이오?’ 하고 물으니, 그 사내가 ‘원래 갑옷을 담아두던 것인데 지금은 옷을 아무렇게나 넣어두었다’라고 대답하더군요. 분명 그놈임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보니 그놈이 다리를 약간 접질린 듯 한 걸음씩 짐을 메고 가더군요. 우리 얼른 가서 그놈을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서녕이 말했다.

“만약 잡을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하늘이 주신 기회겠구나!”

탕룡이 말했다.

“그러니 지체하지 말고 어서 가시지요!”

서녕은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삼베 신을 갈아 신고 허리춤에는 칼을, 손에는 박도(朴刀, 무거운 칼의 일종)를 챙겨 들었다. 그러고는 탕룡과 함께 동곽문을 나서서 발걸음을 재촉하며 서둘러 달려갔다. 앞쪽 벽에 흰 원이 그려진 주막이 보이자 탕룡이 말했다.

"우선 술 한 잔 마시고 서두릅시다. 여기서 한번 물어보지요."

탕룡은 주막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더니 주인에게 물었다.

"주인장, 뭐 좀 여쭙겠습니다. 혹시 눈매가 날카롭고 검고 마른 사내가 붉은 양가죽 상자를 짊어지고 지나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주인이 대답했다.

"어젯밤에 딱 그런 사람이 붉은 양가죽 상자를 짊어지고 지나갔지요. 다리를 좀 다쳤는지 한 걸음 한 걸음 절뚝거리며 가더군요."

탕룡이 서녕을 돌아보며 말했다.

"형님, 방금 들으신 말씀이 어떻습니까?"

서녕은 그 말을 듣고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술값을 치르고 문을 나섰다. 앞쪽에 또 다른 객점이 보였는데, 그곳 벽에도 흰 원이 그려져 있었다. 탕룡이 발걸음을 멈추며 말했다.

“형님, 저는 이제 더 못 걷겠습니다. 일단 이 객점에서 좀 쉬었다가 내일 아침 일찍 서두르시지요.”

서녕이 말했다.

“나는 관직에 있는 몸이라, 만약 출근 명단에 이름이 빠지면 분명 관아에서 문책을 할 텐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탕룡이 말했다.

“그건 형님께서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형수님께서 분명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잘 처리해 주실 겁니다.”

그날 밤 객점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니, 점소이가 대답했다.

"어젯밤에 눈이 또렷하고 검고 마른 사내 하나가 저희 가게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오늘 한낮이 되어서야 겨우 떠났는데, 입으로는 줄곧 산동까지 가는 길만 묻더군요."

탕룡이 말했다.

"이제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다. 내일 사경(새벽 1시~3시 사이)에 출발하면 반드시 그놈을 따라잡아 붙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마리가 풀리겠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청했고, 이튿날 사경에 객점을 떠나 다시 길을 서둘러 나아갔다. 탕룡은 벽에 흰 분필 원이 그려진 곳만 보이면 곧장 멈춰 서서 술과 음식을 사 먹으며 길을 물었는데, 가는 곳마다 이야기가 똑같았다. 서녕은 그 갑옷이 너무나 간절했기에 오로지 탕룡을 따라가며 서둘렀다.

그러다 어느덧 날이 다시 저물 무렵, 앞쪽에 낡은 사당 하나가 보였다. 사당 앞 나무 아래에 시천이 짐을 내려놓고 땅바닥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탕룡이 그것을 보고 외쳤다.

"찾았다! 형님, 저기 나무 아래 있는 저것이 형님의 갑옷을 담은 상자 아닙니까?"

서녕은 그것을 보자마자 달려가 시천을 덥석 붙잡으며 호통을 쳤다.

"이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어찌하여 내 갑옷을 훔쳐 갔느냐!"

시천이 말했다.

"잠깐, 잠깐만요! 소리 지르지 마시오! 그래요, 내가 당신 갑옷을 훔쳤소. 그런데 이제 나를 어쩌려구?"

서녕이 소리쳤다.

"이 무례한 짐승 같은 놈! 감히 나에게 어쩌려느냐고 묻다니!"

시천이 말했다.

"그럼 상자 안에 갑옷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오."

탕룡이 상자를 열어보니,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서녕이 말했다.

"이놈아, 내 갑옷을 어디로 빼돌렸느냐!"

시천이 말했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 성은 장이고, 항렬은 첫째입니다. 태안주 사람인데, 저희 고을에 어떤 부자가 노종(老种) 경략상공(經略相公)과 친분을 맺으려 합니다. 그 부자가 당신 집에 안령쇄자갑이 있는데 팔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저와 이삼이라는 놈을 시켜 당신 집을 털게 하고 만 관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 집 기둥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접질려 도망을 못 치게 된 겁니다. 우선 이삼이에게 갑옷을 가져가게 하고 빈 상자만 남겨둔 것이지요. 저를 어찌하고 싶다면 관아에 고소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목숨을 걸고 맞아 죽어도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니, 다른 사람을 지목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만약 관아에 넘기지 않고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제가 당신과 함께 가서 그 갑옷을 다시 찾아다 드리겠습니다."

서녕은 한참 동안 망설이며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자 탕룡이 말했다.

"형님, 저놈이 날아 도망칠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단 저놈과 함께 가서 갑옷을 찾아오면 됩니다. 만약 갑옷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그때는 그놈의 본거지 관아에 고소하여 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서녕이 말했다.

"아우의 말이 맞구나."

세 사람은 다시 객점으로 들어와 쉬기로 했다. 서녕과 탕룡은 시천을 한곳에서 감시하며 함께 묵었다. 알고 보니 시천은 다리를 다친 척하려고 미리 비단 천을 다리에 감아 두었던 것이었다. 서녕은 그가 정말로 걷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경계심을 절반쯤만 늦추었다. 세 사람은 그렇게 또 하룻밤을 묵었고, 다음 날 아침 다시 길을 나섰다. 시천은 길을 가는 내내 술과 고기를 사며 비위를 맞추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났다.

다음 날, 서녕은 길을 가면서도 마음이 초조하여 갑옷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길가에서 서너 마리의 가축이 빈 수레 하나를 끌고 나오는 것이 보였다. 뒤에서는 한 사람이 수레를 몰고 있었고, 옆에는 길손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탕룡을 보자마자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했다. 탕룡이 물었다.

"아우님, 여긴 어쩐 일로 오셨소?"

그 사람이 대답했다.

"정주에서 장사를 마치고 태안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탕룡이 말했다.

"잘됐군요. 우리 세 사람도 태안주로 가려던 참이니 같이 좀 갑시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다.

"세 분뿐이겠습니까? 더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탕룡은 크게 기뻐하며 서녕에게 이 사람을 소개했다. 서녕이 물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탕룡이 대답했다.

"작년에 제가 태안주에 분향하러 갔다가 알게 된 아우님입니다. 성은 이씨이고 이름은 영이라 하는데, 의리가 아주 있는 사람이지요."

서녕이 말했다.

"그렇다면 이 장일(시천)이도 더 못 걸으니, 다 같이 수레에 올라앉읍시다."

그러고는 수레꾼에게 수레를 몰게 했다. 네 사람이 수레에 올라앉자 서녕이 물었다.

"장일, 네 그 부자의 이름을 어서 말해 보아라."

시천은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몇 번이나 말을 돌리더니, 결국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그분은 이름난 곽 대관인(大官人)이십니다."

서녕은 이영에게 물었다.

"자네 고향 태안주에 곽 대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가?"

이영이 대답했다.

"저희 고을의 곽 대관인은 아주 부유한 상호(上戶) 집안 사람으로, 관원들과 교류하기를 무척 좋아해서 문하에 식객들이 아주 많습니다."

서녕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다. '배후에 주인이 있는 자라면 별 탈은 없겠구나.'

이영이 길을 가는 내내 창봉 이야기를 늘어놓고 노래 몇 곡을 불러대는 통에 어느덧 또 하루가 지나갔다. 이야기는 이쯤 해두자. 양산박까지는 이제 채 이틀 남짓한 거리만 남았을 때였다. 이영이 수레꾼에게 호리병을 가져가 술을 좀 사 오고 고기도 좀 사 오게 하더니, 수레 위에서 석 잔을 나누어 마셨다. 이영이 바가지를 하나 꺼내더니, 먼저 한 바가지를 가득 따라 서녕에게 권했다. 서녕은 그것을 단숨에 들이켰다.

이영이 다시 술을 따르라고 하자, 수레꾼이 실수로 손을 놓친 척하며 호리병에 든 술을 모두 땅에 쏟아버렸다. 이영은 수레꾼을 꾸짖으며 다시 술을 사 오라고 시켰다. 그때 서녕은 입가에 침을 흘리며 수레 위로 털썩 쓰러지고 말았다.

이영이 누구였던가? 그는 바로 '철규자(鐵叫子)' 악화(樂和)였다. 세 사람은 수레에서 뛰어내려 수레를 몰고 곧장 한지홀률(旱地忽律) 주귀의 주막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서녕을 업어 들고 배로 옮긴 뒤 모두 금사탄에 상륙했다. 송강은 이미 보고를 받고 두령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와 마중을 나와 있었다. 서녕은 그제야 마취가 풀렸고, 사람들은 다시 해독제를 써서 그를 깨웠다. 서녕은 눈을 뜨자마자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 탕륭에게 물었다.

"아우님, 어찌하여 나를 이곳으로 속여 데려온 것이냐?"

탕륭이 말했다.

"형님,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번에 송공명이 천하의 호걸들을 불러 모은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무강진에서 흑선풍 이규를 형님으로 모시고 양산박 큰 산채에 입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연작이 연환갑마(連環甲馬)로 진을 치고 돌격해 와 도무지 깨뜨릴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렴창(鉤鐮鎗)'법을 바쳤는데, 오직 형님만이 쓰실 수 있는 기술이지요. 그래서 이런 계책을 세웠습니다. 먼저 시천을 시켜 형님의 갑옷을 훔치게 한 뒤, 저더러 형님을 꾀어 길을 나서게 하고, 나중에 악화(樂和)에게 이영(李榮)으로 가장하게 하여 산을

넘을 때 몽한약을 써서 형님을 산으로 모셔다가 두령 자리에 앉으시게 한 것입니다."

서녕이 말했다.

"정말 아우가 나를 망쳐 놓았구나!"

송강이 술잔을 들고 다가와 정중히 사죄하며 말했다.

"지금 저 송강은 잠시 물가에 머물며 오로지 조정의 초안(招安, 조정이 회유하여 귀순시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나라에 보답하려 할 뿐, 감히 재물을 탐하거나 살생을 즐기며 불인불의한 짓을 저지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관찰께서 이 진심을 가엾이 여기시어, 함께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충도 다가와 술잔을 권하며 거들었다.

"저 또한 이곳에 와 있으며, 형님의 맑은 덕망에 대해 많이 들었으니, 부디 거절하지 마십시오."

서녕이 말했다.

"탕륭 아우야, 네가 나를 이렇게 속여 데려왔으니, 집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은 관아에 붙잡힐 텐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송강이 말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관찰께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일은 제가 책임지고, 조만간 귀한 가족분들을 이곳으로 모셔와 함께 모이게 하겠습니다."

조개, 오용, 공손승도 모두 와서 서녕과 이야기를 나누며 잔치를 베풀어 축하했다. 한편으로는 정예의 건장한 졸개들을 선발하여 '구렴창'법을 배우게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종과 탕륭을 밤낮으로 동경으로 보내 서녕의 가족들을 데려오게 했다. 열흘 사이에 양림이 영주에서 팽기의 가족을 데려왔고, 설영은 동경에서 능진(凌振)의 가족을 데려왔으며, 이운은 불꽃과 화약 재료 다섯 수레를 사서 산채로 돌아왔다. 다시 며칠이 지나 대종과 탕륭이 서녕의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산 위로 올라왔다.

서녕은 아내를 보자 깜짝 놀라며, 어찌하여 이곳까지 오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아내가 대답했다.

"당신이 떠난 뒤로 관아에서 출근 명단을 확인했는데 이름이 없자, 제가 금은보화와 장신구들을 좀 써서 병으로 누워 있느라 못 나갔다고 핑계를 대어 문책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탕 아저씨가 나타나 안령쇄자갑을 가져왔다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갑옷을 겨우 되찾았습니다. 형님께서 길을 가다 병이 들어 객점에서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 형수님과 아이들도 어서 와서 살펴봐야겠습니다'라고요. 그래서 저를 수레에 태워 데려왔는데, 길도 잘 몰라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서녕이 말했다.

"아우야, 정말 다행이구나. 다만 내 갑옷을 집에 남겨두고 온 것이 못내 아쉽구나."

탕룡이 웃으며 말했다.

"형님을 기쁘게 해드릴 일이 있습니다. 형수님을 수레에 태워 보낸 뒤, 제가 다시 몰래 가서 그 갑옷을 되찾아 왔습니다. 그리고 두 아낙네를 유인하여 집안의 살림살이까지 모두 챙긴 뒤, 여기 짐 하나로 짊어져 왔습니다."

서녕이 말했다.

"그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다시 동경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탕룡이 말했다.

"형님께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는 길에 손님 무리를 만났는데, 제가 형님의 안령쇄자갑을 입히고 얼굴에 분칠까지 해서 형님의 성명을 대며 그들의 재물을 몽땅 빼앗았습니다. 이렇듯 했으니, 아마 오늘내일 중으로 동경 관아에는 형님을 잡으라는 방이 온통 붙을 것입니다."

서녕이 말했다.

"아우야, 너도 나를 참으로 곤란하게 만드는구나!"

조개와 송강도 다가와 거들며 말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형님께서 어찌 이곳에 머무르려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즉시 방을 배정하여 서녕의 가족들이 편히 머물 수 있도록 안치했다. 한편, 여러 두령은 연환마군(連環馬軍, 갑옷을 입은 말들을 연결해 돌격하는 부대)을 격파할 방도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때 뇌횡이 제작하던 구렴창(鉤鐮鎗, 갈고리가 달린 창)도 모두 완성되었다. 송강과 오용 등은 서녕에게 청하여, 군사들에게 구렴창법을 가르치게 했다. 서녕이 말했다.

"제가 이제 온 힘을 다해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군사들의 우두머리들을 훈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체격이 건장하고 늠름한 자들을 선발하겠습니다."

여러 두령은 모두 취의청에 모여 서녕이 군사를 선발하는 것을 지켜보며, 그 구렴창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만약 이 법을 제대로 가르친다면, 삼천 명의 갑마(甲馬, 갑옷을 입은 말) 부대도 단번에 격파할 수 있고, 영웅 한 명을 굴복시키는 것도 머지않은 일이라 하였다.

결국 금창수 서녕이 구렴창법을 어떻게 펼쳐 보일 것인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57회 — 서녕이 사신에게 구렴창을 가르치고, 송강이 연환마를 크게 격파하다

徐寧教使鉤鐮鎗 宋江大破連環馬

이야기는 이러하다. 조개, 송강, 오용, 공손승이 여러 두령과 함께 취의청에 모여, 서녕에게 '구렴창' 사용법을 가르쳐 달라고 청했다. 사람들이 서녕을 보니 과연 풍채가 당당한 인물이었다. 키는 여섯 자 대여섯 치의 훤칠한 몸에 얼굴은 둥글고 뽀얗게 희었으며, 세 가닥의 가늘고 검은 수염이 나 있었고 허리와 어깨는 매우 건장했다. 일찍이 「서강월(西江月)」이라는 사(詞)로 서녕의 모습을 읊은 것이 있었으니 다음과 같다.

팔 힘 좋아 활을 당기면 과녁이 정확하고,
몸놀림 가벼워 말 타면 날아가는 듯하네.
굽이진 두 눈썹은 누에 모양 닮았고,
봉황이 날듯 기세 당당한 젊은이로다.
전투 갑옷은 버들잎처럼 가늘고 섬세하며,

검은 두건은 꽃가지처럼 비스듬히 썼네.
늘 임금 곁에서 모시며 호위하니,
창술의 서녕은 따를 자가 없구나.

그때 서녕은 군사 선발을 마치고 곧장 취의청으로 내려와, 구렴창 한 자루를 들고 직접 한 차례 휘둘러 보였다. 사람들은 그 솜씨를 보고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서녕이 군사들에게 가르치며 말했다.

"말 위에서 이런 병기를 쓸 때는 허리와 골반을 축으로 삼아 움직여야 한다. 위와 중간을 아우르는 일곱 가지 길에, 갈고리로 걸고 네 번 휘두르는 법, 한 번 찌르고 한 번 나누는 법까지 합쳐 총 아홉 가지 변화를 익혀야 한다. 만약 걸어서 이 구렴창을 쓴다 해도 매우 유용하다. 먼저 여덟 걸음에 네 번 휘둘러 적의 문을 열어젖히고, 열두 걸음에 한 번씩 변화를 주며, 열여섯 걸음에는 몸을 크게 돌려야 한다. 갈고리로 걸고 창으로 찔러 격렬하게 몰아치며 스물네 걸음을 걷고, 위아래로 움직이며 동쪽을 걸고 서쪽을 휘두르는 법을 익혀라. 서른여섯 걸음이 되면 온몸을 방어하며 적의 강한 공격을 빼앗아 맞서 싸울 수 있다. 이것이 구렴창의 정법이다."

그 정법을 증명하는 시 구절이 있었다.

'네 번 휘두르고 세 번 걸어 일곱 길을 통하고, 아홉 가지 변화로 신묘한 기틀을 합하도다. 스물네 걸음에 앞뒤로 움직이며, 열여섯 번 몸을 돌려 크게 포위하리라.'

서녕은 정법을 하나하나 직접 시연하며 여러 두령에게 보여주었다. 군사들은 서녕이 구렴창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모두 무척 좋아했다. 그날부터 정예로 뽑힌 건장한 자들을 선발하여 밤낮으로 익히게 했다. 또한 보병들에게는 숲이나 풀 속에 숨어 적의 발을 걸거나 다리를 낚아채는 세 가지 암습법도 가르쳤다. 보름도 채 되지 않아 산채에 오백에서 칠백 명의 숙련된 병사가 생겨났다. 송강과 여러 두령은 이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적을 격파할 준비를 갖추었다.

한편, 호연작은 팽기와 능진에게 패한 뒤로 매일 마군을 이끌고 물가로 나와 싸움을 걸어왔다. 양산박에서는 수군 두령들에게 각 여울의 요충지를 굳게 지키게 하고, 물밑에는 말뚝을 박아 두게 했다. 호연작이 비록 산의 서쪽과 북쪽 두 갈래 길로 나가 정찰하며 경계하고 있다 하나, 결코 양산박 근처까지는 올 수 없었다. 양산박에서는 능진이 만든 여러 종류의 화포로 날을 정하고 때를 맞추어 산 아래로 내려가 적을 상대하기로 했다. 구렴창을 익힌 군사들도 이미 모두 훈련을 끝낸 상태였다.

송강이 말했다. “저의 짧은 견해인데, 여러 형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용이 말했다. “그 계책을 듣고 싶소.”

송강이 말했다. “내일은 기마병을 단 한 명도 쓰지 말고, 모든 두령은 보병으로 싸워야 합니다. 손오(孫吳)의 병법은 산림이나 늪지에서 (보병에게)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우선 보병을 산 아래로 내려보내 열 개의 부대로 나누어 적을 유인하십시오. 적의 기마병들이 몰려올 때,

모두 갈대와 가시덤불 숲 사이로 흩어져 도망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때 구렴창을 쓰는 군사들을 미리 매복시켜 두었다가, 구렴창을 쓰는 군사 열 명 사이에 뇌구수(撓鉤手, 갈고리로 낚아채는 병사) 열 명을 섞어 배치하십시오. 적의 말이 도착하는 즉시 구렴창으로 말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곧바로 뇌구수를 투입해 적을 붙잡는 것입니다. 평지나 좁은 길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복하십시오. 이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오용이 말했다. "군사를 숨겨 적의 장수를 잡기에 딱 알맞은 계책이오."

서녕이 거들었다. "구렴창과 뇌구수를 함께 쓰는 것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송강은 그날 즉시 열 개의 보병 부대로 나누어 병력을 배정했다. 유당과 두천이 한 부대를, 목홍과 목춘이 한 부대를, 양웅과 도종왕이 한 부대를, 주동과 등비가 한 부대를, 해진과 해보가 한 부대를, 추연과 추윤이 한 부대를, 일장청과 왕왜호가 한 부대를, 설영과 마린이 한 부대를, 연순과 정천수가 한 부대를, 그리고 양림과 이운이 한 부대를 이끌게 했다. 이 열 부대의 보병은 먼저 산 아래로 내려가 적군을 유인하기로 했다.

이어 이준, 장횡, 장순, 삼완, 동위, 동맹, 맹강 등 아홉 명의 수군 두령에게 전선을 몰아 지원하라고 명했다. 또한 화영, 진명, 이응, 시진, 손립, 구붕 여섯 두령에게는 말을 타고 군사를 이끌며 산기슭에서 적의 싸움을 걸어 유인하도록 했다. 능진과 두흥은 화포를 쏘는 일을 전담하

게 했다. 서녕과 탕륭은 총책임자가 되어 구렴창을 쓰는 군사들을 유인·지휘하게 했다.

중군에서는 송강, 오용, 공손승, 대종, 여방, 곽성이 군사를 총괄하며 지휘와 명령을 맡았다. 그 외의 두령들은 모두 각자의 진영을 지키기로 했다.

송강이 병력을 배정한 뒤, 그날 밤 삼경에 구렴창을 쓰는 군사들을 먼저 배에 실어 건너보내 사방에 매복하도록 했다. 사경이 되자 열 부대의 보병이 뒤이어 건너갔다. 능진과 두흥은 풍화포를 배에 실어 날라, 높은 언덕 위에 포좌를 세우고 화포를 올려놓았다. 서녕과 탕륭은 각각 신호 깃발을 들고 물을 건넜다. 날이 밝자 송강은 중군을 지키며 물 건너편에서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깃발을 흔들었다.

호연작은 중군 막사 안에 있다가 탐자의 보고를 듣고, 즉시 선봉 한도(韓滔)에게 출동 명령을 내렸다. 곧이어 연환갑마를 쇠사슬로 연결한 뒤, 호연작은 전신 갑주를 갖춰 입고 적설오추마에 올라 쌍편을 휘두르며 기마병들을 몰아 양산박을 향해 맹렬히 달려 나갔다. 물 건너편에 송강이 많은 병력을 이끌고 있는 것이 보이자, 호연작은 마군을 펼쳐 전열을 가다듬게 했다.

선봉 한도가 호연작에게 다가와 상의했다. “정남쪽에 보병 한 부대가 나타났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호연작이 말했다. “그게 얼마나 되든 상관없다. 그저 연환마로 밀어붙여 버려라!”

한도는 오백 명의 마군을 이끌고 급히 출동했다. 그런데 동남쪽에서도 한 부대의 군사가 일어나는 것이 보였다. 병력을 나누어 정찰하려는데, 이번에는 서남쪽에서도 깃발이 올라오며 함성을 지르고 있었다. 한도가 다시 군사를 이끌고 돌아와 호연작에게 말했다. “남쪽에 나타난 세 부대 적병 모두 양산박의 깃발입니다.”

호연작이 말했다. “이놈들이 한동안 나타나지 않더니, 분명 무슨 계책을 꾸미고 있구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북쪽에서 포성 한 발이 울려 퍼졌다. 호연작이 욕설을 내뱉으며 말했다. “저 포 소리는 분명 도적에게 붙은 능진 저놈이 쏘는 것이로구나!”

사람들이 남쪽을 바라보니, 북쪽에서 다시 세 부대의 깃발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호연작이 한도에게 말했다. “이것은 분명 적의 간계다. 나와 네가 병력을 두 갈래로 나누자. 나는 북쪽 군사를 치러 갈 테니, 너는 남쪽 군사를 쳐라.”

막 병력을 나누려는데, 이번에는 서쪽에서 또 네 부대의 인마가 나타나자 호연작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게다가 정북쪽에서 연달아 포성이 울리더니 그 소리가 흙 언덕까지 곧장 이어졌다. 커다란 모포(母砲) 하나의 둘레에 마흔아홉 개의 자포(子砲)가 연이어 붙은 '자모포(子母砲)'였는데, 그것이 터질 때마다 바람 같은 위세가 크게 일었다. 호연작의 군사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저절로 어지러워졌고, 호연작은 급히 한도와 함께 마보병을 이끌고 사방으로 부딪쳐 나갔다.

열 부대의 보병은 동쪽으로 쫓으면 동쪽으로 달아나고 서쪽으로 쫓으면 서쪽으로 달아났다. 이를 본 호연작이 크게 노하여 병사를 이끌고 북쪽을 향해 돌격했다. 송강의 군사들은 모두 갈대숲 속으로 들어가 어지럽게 달아났고, 호연작은 연환마를 몰아 땅을 휩쓸 듯 달려들었다. 그러나 갑마들은 한꺼번에 내달리기 시작하자 멈춰 세울 수가 없어, 모두 시든 갈대와 꺾인 갈대, 마른 풀과 거친 숲속으로 정신없이 뛰어 들어갔다.

그때 그 속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리더니, 구렴창을 든 군사들이 일제히 손을 들어 양옆의 말다리를 먼저 걸어 넘어뜨렸다. 가운데에 있던 갑마들은 비명을 지르며 날뛰었고, 뇌구수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갈대숲 속에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묶었다. 호연작은 구렴창의 계책에 빠진 것을 깨닫고, 말을 돌려 남쪽에 있는 한도를 도우러 가려 했다. 하지만 뒤쪽에서 풍화포가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이쪽저쪽 산과 들 전체가 보병들의 추격으로 가득 찼다. 한도와 호연작이 거느린 연환갑마는 어지럽게 풀숲과 갈대밭 속으로 굴러 들어가 모두 사로잡히고 말았다.

두 사람은 계책에 빠졌음을 직감하고, 말을 몰아 사방으로 마군을 찾아 활로를 뚫고 달아나려 했다. 그러나 가는 길목마다 양산박의 깃발이 삼대처럼 빽빽이 늘어서 있어 감히 그 길로는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곧장 북서쪽을 향해 달렸다. 오륙 리쯤 갔을 때, 갑자기 한 무리의 강인이 나타나 앞길을 막아섰다. 선두에 선 두 호걸은 바로 '몰차란' 목홍과 '소차란' 목춘이었다. 그들은 두 자루 박도를 휘두르며 크게 외쳤다. “패장, 어디를 가느냐!”

호연작은 분노하며 쌍편을 휘두르고 말을 몰아 목홍과 목춘에게 달려들었다. 대략 너댓 합을 겨루자 목춘이 달아났다. 호연작은 계책에 빠질까 두려워 추격하지 않고 정북쪽 대로를 향해 달아났다. 그런데 언덕 아래에서 또 다른 무리가 나타나 앞을 막았으니, 바로 '양두사' 해진과 '쌍미갈' 해보였다. 그들은 각기 강철 갈고리창을 앞세워 달려들었다. 호연작이 쌍편을 휘둘러 두 사람과 맞서 싸웠으나, 대여섯 합을 채 넘기지 못하고 해진과 해보가 발걸음을 빼어 달아났다. 호연작이 채 반 리도 못 가서 양옆에서 스물네 자루의 구렴창이 땅을 훑으며 달려들었다. 호연작은 싸울 마음이 없어 말머리를 돌려 동북쪽 대로를 향해 달아나려 했으나, 이번에는 왕왜호와 일장청 부부에게 가로막혔다. 길이 험하고 사방에 가시덤불이 가로막고 있자, 호연작은 말을 박차고 쌍편을 휘둘러 길을 뚫고 돌진했다. 왕왜호와 일장청이 곧장 뒤쫓았으나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고, 호연작은 결국 동북쪽으로 달아나 버렸다. 크게 패하여 군사들은 비 흩뿌리듯 별 흩어지듯 뿔뿔이 흩어졌다.

이를 증명하는 시가 있으니 다음과 같다.

열 갈래 군사들이 땅을 울리며 몰려오니,
검은 말은 눈을 차며 바람을 보고 돌아선다.
쇠사슬은 모두 갈고리 낫에 부서지고,
남겨진 쌍편만이 온 세상을 누비네.

이야기는 양 갈래로 나뉜다. 한편, 송강은 징을 울려 군사를 거두어 산으로 돌아온 뒤, 각자 세운 공을 치하하며 상을 내렸다. 삼천 마리의 연환갑마 가운데 한 몫 반쯤은 구렴창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말발굽

이 상하거나 가죽 갑옷이 벗겨져, 잡아서 고기용 말로 쓰게 되었다. 나머지 두 몫은 대부분 좋은 말들이라 산으로 끌고 가 길러 탈말로 쓰기로 했다. 갑옷을 입은 군사들은 모두 생포되어 산으로 끌려왔다. 오천 명의 보병은 삼면에서 겹겹이 포위당했는데, 중군 쪽으로 도망치려던 자들은 모두 구렴창에 걸려 넘어지고 붙잡혔으며, 물가로 도망치려던 자들은 수군 두령들에게 포위되어 배에 태워진 뒤 여울로 끌려와 산으로 압송되었다. 이전에 빼앗겼던 말들과 포로가 된 군사들은 모두 탈환하여 진영으로 되찾아 왔다.

또한 호연작의 진영 울타리를 모두 헐어다가 물가 호숫가에 작은 진영을 세우고, 두 곳에 정탐을 겸한 주막과 숙소 따위를 새로 지었다. 그리고 예전처럼 손신·고대수와 석용·시천에게 두 곳의 가게를 각각 열도록 했다. 유당과 두천은 한도(韓滔)를 붙잡아 포박한 뒤 산채로 압송해 왔다. 송강은 이를 보고 직접 포박을 풀어준 뒤, 그를 대청으로 모셔 예를 갖추어 대접하고 잔치를 베풀었다. 이어 팽기와 능진을 시켜 그를 양산박에 합류하도록 설득하게 했다. 한도 역시 칠십이지살(七十二煞)의 수에 드는 인물이라 자연히 뜻이 맞아 곧 양산박의 두령이 되었다. 송강은 즉시 편지를 써서 사람을 보내 진주(陳州)에 있는 한도의 가족(노소)을 산채로 데려와 함께 모여 살게 했다. 송강은 연환마를 격파하고 수많은 군마와 갑옷, 투구와 칼을 얻은 기쁨에 매일 잔치를 열어 경사를 축하했다. 그 외에 각 길목의 수비를 정비하여 관군을 방비하는 일은 더 말할 것 없이 이루어졌다.

한편, 호연작은 수많은 관군과 병마를 잃고 나니 감히 경성으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는 홀로 적설오추마에 올라타 갑옷을 말에

묶어 매단 채 길을 떠나 도망쳤으나, 여정에 쓸 돈이 한 푼도 없었다. 결국 허리띠에 차고 있던 금띠를 풀어 팔아 여비를 마련한 뒤, 길 위에서 생각에 잠겼다. "오늘 이 지경이 될 줄이야. 이제 어디로 가서 의탁해야 한단 말인가?"

그러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청주의 모용 지부가 예전에 나와 안면이 있었지. 그곳으로 가서 몸을 의탁한 뒤, 모용 귀비의 줄을 잡고 세력을 키우면 되지 않겠는가. 그때 가서 다시 군사를 이끌고 와 복수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길을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 밤, 호연작은 몹시 허기지고 목이 말랐다. 길가에 있는 어느 마을 주막을 발견한 호연작은 말에서 내려 문 앞 나무에 말을 묶어 두었다. 주막 안으로 들어온 그는 쌍편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앉아서는 점소이에게 술과 고기를 가져오라고 일렀다.

점소이가 말했다. “저희 집은 술만 팝니다. 고기가 필요하시면 마을에서 막 양을 잡았으니, 원하신다면 제가 가서 사 오겠습니다.”

호연작은 허리에 찬 주머니를 풀어 금띠를 바꿔 마련한 부스러기 은을 꺼내 점소이에게 건네며 말했다. “양 한 다리를 사 와서 고기를 삶아 주게. 그리고 이 말에게 먹일 꼴과 사료도 챙겨 먹여 주게. 오늘 밤은 여기서 하룻밤 묵고, 내일은 청주부로 떠날 것이네.”

점소이가 말했다. “나으리, 여기서 묵으시는 건 괜찮습니다만, 좋은 침상이나 휘장은 없습니다.”

호연작이 대답했다. “나는 군에 몸담았던 사람이라, 그저 쉴 곳만 있으면 족하네.”

점소이는 은을 챙겨 양고기를 사러 나갔다. 호연작은 말 등에 얹어 두었던 갑옷을 내려놓고 뱃대끈을 느슨하게 푼 뒤, 문 앞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다. 이윽고 점소이가 양고기 한 다리를 들고 돌아왔다. 호연작은 고기를 삶아 달라고 하고, 밀가루 세 근을 가져와 떡(전병)을 만들고 술 두 각(角)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점소이는 고기를 삶고 떡을 부치는 한편, 발 씻을 물을 데워 호연작의 발을 씻겨 주고는 말을 집 뒤편 작은 헛간으로 끌고 가 매어 두었다. 점소이가 풀을 썰고 사료를 끓이는 동안 호연작은 먼저 따뜻한 술을 한 차례 마셨다.

고기가 다 익자 호연작은 점소이를 불러 그에게도 술과 고기를 좀 먹게 한 뒤 이렇게 당부했다. “나는 조정의 군관인데, 양산박을 토벌하려다 실패하여 청주의 모용 지부에게 의탁하러 가는 길이네. 이 말을 잘 먹여 두게. 임금님께서 하사하신 '적설오추마'라는 말일세. 내일 큰 상을 내리겠네.”

점소이가 말했다. “상공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상공께서 아셔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도화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곳에 한 무리의 강도들이 있습니다. 우두머리는 타호장 이충이고, 그 다음은 소패왕 주통이라는 자인데, 오칠백 명의 졸개들을 거느리고 마을을 약탈하며 끊임없이 소란을 피웁니다. 관청에서 여러 번 포도관군을 보내 잡으려 했지만 번번이 잡지 못했으니, 상공께서도 밤중에 부디 깊이 잠들지 마시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호연작이 호탕하게 말했다. “나에게는 만 명의 장정도 당해내지 못할 용맹이 있다. 그놈들이 떼로 다 몰려온다 한들 무엇이 두렵겠느냐! 그저 이 말이나 잘 먹여 두어라.”

술과 고기, 떡을 다 먹은 뒤 점소이는 주막 안에 잠자리를 깔아 호연작을 재웠다. 호연작은 며칠간의 시름이 깊었던 데다 술도 몇 잔 들어간 터라, 옷을 입은 채 그대로 잠이 들었다. 그는 삼경(밤 11시~새벽 1시 무렵)이 되어서야 한숨 자고 깨어났는데, 문득 집 뒤에서 점소이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놀란 호연작은 벌떡 일어나 쌍편을 쥐고 집 뒤로 달려가 물었다. “무슨 일로 그리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것이냐?”

점소이가 말했다. “제가 일어나 꼴을 주러 나갔더니 울타리가 무너져 있고, 누군가 상공의 말을 훔쳐 갔습니다! 멀리서 보니 삼사 리 밖에서 횃불이 아직 밝게 빛나는 것이 분명 그쪽으로 간 모양입니다.”

호연작이 물었다. “그곳이 대체 어디냐?”

점소이가 대답했다. “보아하니 저 길로 도화산 졸개들이 훔쳐 간 것이 분명합니다.”

깜짝 놀란 호연작은 점소이를 앞세워 논둑길을 따라 이삼 리를 급히 쫓아갔다. 하지만 횃불은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고, 말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호연작이 탄식하며 말했다. “임금님이 하사하신 말을 잃어버렸으니 이제 어찌한단 말이냐!”

점소이가 말했다. “상공, 내일 당장 주(州)로 가셔서 관군을 보내 토벌하게 해 달라고 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호연작은 답답한 마음을 떨칠 수 없어 날이 밝을 때까지 앉아 있었다. 그러고는 점소이에게 갑옷을 짊어지게 한 뒤 곧장 청주로 향했다. 성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어 있었기에, 그는 객점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 날 새벽, 호연작은 곧장 관아로 가서 모용 지부를 뵙고 인사를 올렸다. 지부가 깜짝 놀라 물었다. "양산박 도적들을 토벌하러 가셨다는 장군께서 어찌하여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호연작은 어쩔 수 없이 앞서 겪은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들은 모용 지부가 말했다. "장군께서 비록 많은 인마를 잃으셨으나, 이는 장군의 실책이 아니라 도적들의 간계에 빠진 것이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침 제가 다스리는 지역도 도적들의 침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장군께서 이곳에 오셨으니, 우선 도화산을 소탕하여 임금님이 하사하신 그 말을 되찾으십시오. 아울러 이룡산과 백호산의 두 강도 떼까지 한꺼번에 소탕하신다면, 제가 힘을 다해 조정에 보고하여 장군께서 군사를 이끌고 복수를 완성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호연작이 다시 절을 올리며 말했다. "지부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목숨을 바쳐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모용 지부는 호연작에게 객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쉬면서 식사를 하라고 권했다. 갑옷을 짊어지고 온 점소이는 그만 돌려보냈다.

사흘 동안 머물던 호연작은 임금이 하사한 그 말을 하루빨리 되찾고 싶은 마음에 다시 지부에게 보고하고 군사를 모으도록 청했다. 모용 지부는 기병과 보병을 합쳐 이천 명을 선발하여 호연작에게 빌려주고, 푸른 갈기의 말 한 필도 내주었다. 호연작은 지부의 은혜에 감사를 표한 뒤, 갑옷을 갖춰 입고 말에 올라 군사들을 이끌고 말을 탈취하기 위해 곧장 도화산으로 향했다.

한편, 도화산에서는 '타호장' 이충과 '소패왕' 주통이 그 척설오추마를 손에 넣은 뒤로, 매일 산 위에서 기쁨을 나누며 술을 마셨다. 그러던 어느 날, 길목을 지키던 졸개 하나가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청주의 군사들이 몰려옵니다!"

'소패왕' 주통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형님은 산채를 지키십시오. 아우가 가서 관군을 물리치고 오겠습니다." 그러고는 졸개 백 명을 불러 모아 창을 쥐여준 뒤, 말에 올라 산 아래로 내려가 관군을 맞이하러 나갔다.

한편, 호연작이 이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산 앞에 도착하여 진을 쳤다. 호연작이 앞장서서 말에 올라 매서운 목소리로 외쳤다. "강도 놈들은 당장 나와 항복하라!"

그러자 '소패왕' 주통이 졸개들을 일렬로 늘어세우고 창을 겨눈 채 말에 올라 나섰다. 그의 차림새는 이러했다.

꽃무늬 수놓은 비단 옷 몸에 걸치고,
물빛 푸른 창은 손에 쥐었네.
목소리 웅장하고 얼굴 넓으며 수염은 창처럼 뻗으니,
세상 사람 모두 그가 항우에 버금간다 하네.

호연작은 주통을 보자마자 말에 채찍질을 하여 앞으로 달려들어 싸움을 걸었다. 주통 역시 말에 올라 맞서 나갔다. 두 말이 어우러져 싸웠으나, 예닐곱 합을 채 넘기기도 전에 주통은 기력이 다했다. 주통은 급히 말머리를 돌려 산 위로 도망치듯 달아났다. 호연작은 그 뒤를 한참 쫓았으나, 혹시 무슨 계략이 있을까 염려되어 서둘러 산 아래로 내려왔다. 그는 영채의 울타리를 세우고 진을 친 뒤, 다시 싸울 기회를 기다렸다.

한편, 주통이 산채로 돌아와 이충을 만나 사정을 털어놓았다. "호연작의 무예가 워낙 뛰어나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일단 산 위로 물러나온 것뿐이지요. 만약 그놈이 산채 앞까지 들이닥치면 대체 어찌해야 합니까!"

이충이 말했다. "내가 듣기로 이룡산 보주사에 '화화상' 노지심이 있는데, 따르는 사람도 많고 '청면수' 양지도 함께 있더군. 게다가 최근에는 '행자' 무송까지 합류했다는데, 다들 만 명의 군사도 당해내지 못할 용맹을 가졌다고 하네. 차라리 서신을 한 통 써서 졸개들을 보내 그곳에 구원을 요청하게나. 만약 위기를 넘겨주면, 나중에 그들의 큰 산채에 의탁하더라도 달마다 예물을 좀 보내면 될 일이 아니겠나."

주통이 대답했다. "저도 그곳에 호걸들이 많다는 건 잘 압니다만, 혹시 그 스님이 예전 일을 기억하고 구하러 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충이 웃으며 말했다. "그때 그자가 자네를 때리긴 했어도, 우리 금은보화와 술그릇을 잔뜩 챙겨가지 않았나? 그런데 어찌 미워하겠는가? 그는 성격이 시원시원한 좋은 사람이니, 사람을 보내면 반드시 직접 군사를 이끌고 와서 도와줄 것이네."

주통이 말했다. "형님 말씀이 옳습니다."

주통은 곧바로 서신을 써서 일 처리가 빠른 졸개 둘을 보냈다. 그들은 뒷산으로 돌아 내려가 이룡산으로 향했다. 이틀을 달려 아침 일찍 산 아래에 도착한 졸개들은 그곳에서 자세한 사정을 물었다.

한편, 보주사 대전에는 세 명의 두령이 앉아 있었다. 첫째는 '화화상' 노지심이고, 둘째는 '청면수' 양지, 셋째는 '행자' 무송이었다. 산문 앞에는 네 명의 소두령이 앉아 있었다. 한 명은 '금안표' 시은인데, 본래 맹주 뇌성의 시관영의 아들이었다. 무송이 장 도감 일가를 죽인 일로 관가에서 그 집안에 범인을 잡아들이라고 책임을 지우자, 그날 밤 가족을 데리고 도망쳐 강호를 떠돌게 되었다. 이후 부모를 모두 여의고 무송이 이룡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밤을 도와 찾아와 합류했다. 또 한 명은 '조도귀' 조정으로, 본래 노지심, 양지와 함께 보주사를 점령하여 등룡을 죽이고 합류한 자였다. 그다음은 '채원자' 장청과 '모야차' 손이낭 부부였다. 이들은 본래 맹주도 십자파에서 인육 만두를 팔던 이들이었는데, 노지심과 무송이 계속 서신을 보내 부르자 이곳으로 와서 합류했다.

조정이 도화산에서 서신이 왔다는 말을 듣고 먼저 자세한 상황을 물은 뒤, 대전으로 가서 세 명의 대두령에게 보고했다. 노지심이 말했다. "내가 예전에 오대산을 떠나 어느 도화촌에 묵을 때, 주통 그 새끼를 아주 호되게 한바탕 때려준 적이 있지. 그런데 이충 그놈이 나를 알아보고는 산 위로 모셔가 하루 종일 술을 대접하며 형님이라 부르고 나를 산채 두령으로 삼으려 했네. 나는 그놈들이 인색한 게 보기 싫어 금은보화와 술그릇을 꽤 챙겨서 떠나왔지. 이제 구원을 요청하러 왔다니,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 저 졸개를 관문 위로 불러들여라."

조정이 얼마 지나지 않아 졸개를 대전 아래로 인도했다. 졸개는 절을 하며 말했다. "청주 모용 지부가 최근 양산박을 공격하다 패한 '쌍편' 호연작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모용 지부는 먼저 저희 도화산과 이룡산, 백호산 등 여러 산채를 쓸어버린 뒤, 그 군사들을 빌려 양산박에 복수하려 합니다. 저희 두령님께서 대두령님과 장군님께 산 아래로 내려가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하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일이 잘 해결되면 반드시 예물을 바치러 오겠습니다."

양지가 말했다. "우리 각자가 산채를 지키고 산을 보호해야 하니, 본래는 구하러 나가지 않는 것이 옳네. 하지만 첫째로는 강호의 호걸들을 저버리게 될까 염려되고, 둘째로는 저놈이 도화산을 손에 넣으면 우리 쪽을 우습게 볼까 두렵네. 그러니 장청, 손이낭, 시은, 조정을 남겨 산채를 지키게 하고, 우리 세 사람이 직접 한 번 다녀오겠네."

말을 마친 양지는 곧바로 졸개 500명과 군마 60여 기를 소집했다. 그들은 갑옷과 무기를 갖추고 곧장 도화산으로 향했다.

한편, 이충은 이룡산의 소식을 듣고 곧바로 졸개 300명을 이끌고 산을 내려가 지원에 나섰다. 호연작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부하들을 거느리고 군마를 몰아 길목을 막고 진을 쳤다. 그는 채찍을 휘두르며 말을 달려 나와 이충과 맞서 싸웠다. 이충의 모습은 이러했다.

뾰족한 머리에 뱀 같은 얼굴을 가졌고,
숲속에서 창과 몽둥이로 이름을 떨치네.
호랑이를 잡는 장군답게 담력이 크니,
이충은 패릉 땅에서 태어난 영웅이라.

본래 이충은 호주 정원 사람으로, 집안 대대로 창과 봉을 다루며 살아왔다. 사람들은 그의 체격이 건장한 것을 보고 '타호장'이라 불렀다. 당시 산을 내려와 호연작과 맞붙게 된 이충이 어찌 호연작을 당해낼 수 있었겠는가. 열 합 넘게 싸워보더니 도저히 승산이 없음을 깨달은 이충은 무기를 휘둘러 막아내며 퇴각했다. 호연작은 그의 실력이 보잘것없음을 보고 말을 몰아 산 위로 추격했다. 이때 산 중턱에서 이를 지켜보던 '소패왕' 주통이 돌을 던져 아래로 날리자, 호연작은 황급히 말을 돌려 산 아래로 내려왔다. 그때 관군들이 연신 함성을 지르고 있었다. 호연작이 "왜 함성을 지르는 것이냐?"라고 묻자, 후군이 대답했다. "멀리서 군마 한 무리가 무서운 기세로 달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호연작이 그 말을 듣고 후군 부대로 가서 살펴보니, 먼지가 일어나는 곳 저 앞에 덩치가 크고 살집이 있는 스님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고 있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다음과 같다.

머리카락 깎고 선방에 머문 뒤로,
만 리 길을 떠나 장사를 찾아 헤맸네.
천 근 무게 솥도 들어 올리는 팔뚝은,
사람을 죽이는 마음을 타고났구나.
부처를 속이고 관음에게 호통치며,
계도(戒刀)와 선장(禪杖)은 서늘한 기운을 내뿜네.
경전은 보지 않는 '화화상(花和尚)',
술과 고기를 즐기는 승려 노지심이라.

노지심이 말 위에서 크게 호통을 쳤다. "양산박에 패해 도망치는 겁쟁이 놈이 어디 감히 여기까지 와서 사람을 겁박하느냐!" 그러자 호연작이 말했다. "먼저 저 대머리 중놈부터 죽여서 내 울분을 풀어주마!" 노지심이 철선장을 휘두르고 호연작이 쌍편을 휘두르며 달려드니, 두 마리의 말이 맞부딪치고 양측 군사들이 연신 함성을 질렀다. 마흔에서 쉰 합 넘게 싸웠으나 승패를 가릴 수 없었다. 호연작은 속으로 감탄하며 생각했다. '이 중놈, 제법 대단하구나!' 양측에서 징을 울려 전투를 멈추게 하자, 두 군대는 각자 물러나 잠시 휴식을 취했다.

호연작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을 몰아 진영 밖으로 나서며 크게 외쳤다. "이 도둑 중놈아, 다시 나와라! 너와 승부를 가려 누가 이기고 지는지 결판을 내자!" 노지심이 막 말을 몰아 나가려는데, 곁에 있던 이 영웅(양지)이 발끈하여 외쳤다. "형님, 잠시 쉬십시오. 제가 가서 저 놈을 잡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사람이 칼을 휘두르며 말을 몰고 나갔다. 호연작과 맞붙은 이는 누구인가? 바로 다음과 같다.

일찍이 경사에서 제사(制使, 고위 관리)를 지내며 화석강의 환란을 겪으며 고초를 겪었네. 무지개 같은 기운은 북두칠성마저 얼어붙게 할 만큼 서슬 퍼렇고, 칼을 휘두르면 온 우주가 평온해지며 활을 당기면 천하가 안정을 찾으리라. 호랑이 같은 몸에 늑대 같은 허리, 원숭이처럼 튼튼한 팔을 가졌으며 용마를 타고 안장 위에 늠름히 앉아 있구나. 그 영웅적인 명성은 양산박에 가득하니, 사람들은 그를 청면수라 부르고 양지는 군반의 장수라 하네.

곧바로 양지가 말을 몰아 나가 호연작과 맞붙었다. 두 사람이 마흔 합 넘게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호연작은 양지의 수단이 매우 높고 강한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어찌하여 저런 인물이 나타났단 말인가? 보통내기가 아니구나! 단순한 녹림의 솜씨가 아니다!' 양지 역시 호연작의 무예가 매우 뛰어난 것을 보고는 일부러 빈틈을 보이며 말을 돌려 본진으로 도망치듯 돌아갔다. 호연작 또한 말머리를 돌려 쫓아가지 않았다. 양측은 각자 군사를 거두었다. 노지심이 양지와 상의하며 말했다. "우리가 이곳에 처음 왔으니 곧장 진을 치고 압박하는 건 좋지 않겠소. 일단 20리쯤 물러나 있다가 내일 다시 와서 싸웁시다." 그러고는 부하들을 이끌고 근처 산기슭으로 가서 진을 쳤다.

한편, 호연작은 막사 안에서 답답한 마음에 속으로 생각했다. '이번 일만 잘 풀리면 대나무를 쪼개듯 단번에 이 도적 떼를 소탕할 수 있을 줄 알았거늘, 어찌하여 이런 상대까지 만나게 된단 말인가! 내 팔자가 참으로 기구하구나!' 한창 작전을 짜려던 참에, 모용 지부가 사람을 보내 불러 말했다. "장군께서는 군사를 거느리고 성으로 돌아가 성을 지키십시오. 지금 백호산의 강도인 공명과 공량이 군사를 이끌고 청주로

식량을 빌리러 오고 있다고 합니다. 관청의 창고에 변고가 생길까 염려되어 특별히 장군을 성으로 불러 지키게 하려는 것이니, 어서 돌아오십시오." 호연작은 그 말을 듣고 이것이 기회다 싶어, 군마를 이끌고 밤을 도와 청주로 돌아갔다.

다음 날, 노지심은 양지, 무송과 함께 부하들을 이끌고 깃발을 흔들며 함성을 질러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군마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산 위에서 이충과 주통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와 세 두령에게 산채로 올라가시라고 깍듯이 청했다. 그리고는 소와 말을 잡아 잔치를 베풀어 대접하는 한편, 사람을 산 아래로 보내 앞길의 소식을 알아보게 했다.

한편, 호연작이 군사를 이끌고 성 아래로 돌아오니, 마침 한 무리의 군마가 성벽 근처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그 우두머리는 백호산 아래 공태공의 아들들인 모두성 공명과 독화성 공량이었다. 두 형제는 고향의 한 부자와 다투는 바람에 그 집안 사람들을 양인이든 천인이든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조리 죽인 뒤, 오칠백 명의 사람을 모아 백호산을 점거하고 도둑질을 일삼아 왔다. 마침 청주 성 안에 숙부인 공빈이 모용 지부에게 붙잡혀 옥에 갇혀 있자, 공명과 공량은 산채의 부하들을 이끌고 숙부 공빈을 구하기 위해 청주를 공격하러 온 것이었다. 두 군대가 마주치자 양측은 서로 엉겨 붙어 격렬하게 싸웠고, 호연작이 직접 말에 올라 진영 앞으로 나갔다. 성루 위에서 이를 지켜보던 모용 지부는 공명이 앞장서서 창을 들고 호연작을 공격하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이 말 위에서 맞붙어 이십여 합을 겨루었는데, 호연작은 지부 앞에서 실력을 뽐내고 싶었던 데다 공명의 무예가 정교하지 못해 그저 방어하며 버

티기에 급급했다. 싸움이 깊어지자 호연작은 말 위에서 공명을 단번에 생포해 버렸고, 공량은 부하들을 이끌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모용 지부는 적군을 살피는 누각 위에서 호연작에게 군사를 이끌고 저들을 쫓으라고 손짓했다. 관군이 몰아붙이자 백여 명의 적군이 생포되었다. 공량은 대패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치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어느 오래된 사당을 찾아 몸을 뉘었다.

한편, 호연작은 생포한 공명을 성안으로 끌고 들어가 모용 지부를 알현했다. 지부는 크게 기뻐하며 공명에게 커다란 칼(枷)을 씌워 옥에 가두고 공빈과 함께 수용하게 했다. 그러고는 삼군에게 노고를 치하하며 상을 내리는 한편, 호연작을 정중히 대접하며 도화산의 소식을 물었다.

호연작이 말했다. "본래 '항아리 속 자라를 잡듯' 손쉽게 잡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한 무리의 강도들이 나타나 구원하러 오는 바람에 일이 꼬였습니다. 그중 한 명은 스님이고, 또 한 명은 얼굴이 푸른 대한이었는데, 두 번 맞붙었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이 둘의 무예는 보통이 아니어서 일반적인 녹림의 수법이 아니었기에 미처 잡지 못했습니다."

모용 지부가 말했다. "그 스님은 연안부 노충(老种) 경략의 장전 군관인 제할이었던 노달인데, 이번에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화화상' 노지심이라 불리는 자요. 그 푸른 얼굴의 대한은 동경 전수부(殿帥府)의 제사관인 청면수 양지라네. 그리고 또 한 명인 행자는 무송이라는데, 본래 경양강에서 호랑이를 잡았던 무 도두라네. 이 세 사람이 이룡

산을 점거하고 도둑질을 일삼으며 관군을 여러 번 막아냈고, 포도관들을 서너 명이나 죽였기에 지금까지도 잡지 못하고 있다네."

호연작이 말했다. "그들의 무예가 아주 정교한 것을 보니 과연 양 제사관과 노 제할이라는 명성이 헛되지 않았군요! 지부 어른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저도 이미 그들의 실력을 확인했습니다. 머지않아 한 명씩 생포하여 관청으로 압송하겠습니다."

지부는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어 대접하고, 호연작에게 객실에서 쉬라고 권하니 이야기는 일단락되었다.

한편, 공량은 패하여 흩어진 군마와 병사들을 이끌고 가던 중이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한 무리의 군마가 맹렬하게 튀어나왔다. 그 선두에 선 호걸은 과연 어떤 차림새였을까? 시로 이르되,

검은 안개 같은 옷을 차갑게 걸치고,
계율을 지키는 머리띠는 가을 서리처럼 빛나네.
이마 앞 잘라낸 머리카락은 눈썹 위로 길게 늘어지고,
머리 뒤를 감싼 보호대는 목덜미까지 가지런하네.
정수리 위 염주는 하얗게 빛나고,
섞여 있는 털실 끈은 은은한 황색이라.
두 자루 강철 칼은 차가운 빛을 뿜어내니,
행자 무송의 당당한 모습이로다.

공량은 그가 무송인 것을 보고는 황급히 말에서 굴러 내려와 절하며 말했다. "장사, 별일 없으십니까?"

무송이 얼른 대답하며 그를 부축해 일으키고 물었다. "듣기로 귀하의 형제들이 백호산을 점거하고 의기투합하여 지내고 있다 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찾아뵈려 했으나, 한 번은 산에서 내려올 수 없었고 또 한 번은 길이 순탄치 않아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공량이 숙부인 공빈을 구하려다 형이 붙잡힌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자, 무송이 말했다.

"귀하는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도 형제가 예닐곱 명 있는데, 지금 이룡산에서 의기투합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도화산의 이충과 주통이 청주 관군의 공격을 심하게 받고 있어 우리 산채로 구원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노지심과 양지 두 두령이 부하들을 이끌고 먼저 호연작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둘이 하루 종일 맞붙어 싸우다 호연작이 밤에 물러갔습니다. 산채에는 제 형제 세 명을 남겨 연회를 베풀게 하고, 황제가 하사한 이 말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지금 제가 선두 부대의 인마를 이끌고 산으로 돌아가는 중이니, 그 두 사람도 곧 뒤따라올 것입니다. 제가 그들을 청주로 보내 귀하의 숙부와 형을 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공량은 무송에게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한참을 기다리자 노지심과 양지가 나란히 말을 타고 도착했다. 무송은 공량을 데리고 두 사람을 뵙게 한 뒤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 제가 송강과 함께 그 장원에서 만났을 때 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리를 중히 여겨 삼산(三山)의 인마를 모으고, 청주를 공격하여 모용 지부를 죽이고 호연작을 사로잡읍시다. 그리고 관아의 창고를 털어 군량과 재물을 얻어 우리 산채의 밑천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노지심이 말했다.

"나도 딱 그 생각을 하고 있었네. 당장 사람을 도화산에 보내 이충과 주통에게 알려, 부하들을 이끌고 오라고 하게나. 그러면 우리 세 곳이 힘을 합쳐 함께 청주를 치러 가세."

양지가 말했다.

"청주는 성벽이 견고하고 군사들도 강건한 데다, 호연작 그놈까지 용맹하니 쉽지 않습니다. 내 위세를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만약 우리가 청주를 공격하려면 반드시 내 말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머지않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송이 말했다.

"형님, 그 계책을 듣고 싶습니다."

양지가 채 몇 마디 꺼내기도 전에, 바야흐로 청주의 백성들은 집집마다 기와가 깨지고 연기가 피어오르며, 수호의 영웅들은 저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손바닥을 비비며 전의를 다지게 되었다.

결국 양지가 무송에게 청주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말한 내용은 무엇일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58회 — 삼산이 의를 모아 청주를 치고, 여러 호랑이가 마음을 합쳐 수박으로 돌아가다

三山聚義打青州 眾虎同心歸水泊

무송이 공량을 데리고 노지심과 양지에게 가서, 형 공명과 숙부 공빈을 구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노지심은 즉시 세 산채(이룡산·도화산·백호산)의 인마를 모아 청주를 치러 가겠다고 나섰다.

그러자 양지가 말했다. “청주를 치려면 반드시 대규모 군마를 동원해야 제대로 싸울 수 있소. 나도 양산박의 송강 대인의 명성은 익히 알고 있소. 강호에서는 모두 그를 ‘급시우’ 송강이라 부르지 않소? 게다가 호연작은 그곳 사람들과 원수 사이라니 말이오. 우리 형제들과 공씨 집안 사람들을 하나로 합치고, 내가 여기서 도화산 인마가 다 모이기를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청주로 진격합시다. 공량 형제, 그대는 직접 밤낮을 가리지 말고 양산박으로 달려가 송강 대인을 모셔 오시오. 힘을

합쳐 성을 공격하는 것이 상책이오. 또한 송삼랑은 그대와 관계가 매우 두텁다니, 형제들 생각은 어떻소?"

노지심도 거들었다. "옳은 말씀이오. 내가 듣기로는 오늘 누군가 송삼랑을 칭찬하면, 내일은 또 다른 이가 송삼랑을 칭찬한다고 하니, 안타깝게도 나는 아직 그를 만나보지 못했소.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하도 떠들어대서 내 귀가 다 먹먹할 정도니, 틀림없이 천하에 이름을 떨칠 만한 진짜 사내일 것이오. 예전에 내가 화지채(화영)와 함께 청풍산에 있을 때도 그와 한번 만나보고 싶었으나, 막 가려니 이미 그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는 바람에 인연이 닿지 않았소. 에잇, 관두자! 공량 형제, 형을 구하고 싶다면 어서 직접 그곳에 가서 도움을 청하시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저 조무래기 놈들과 한바탕 싸워 놓겠소."

공량은 졸개들을 노지심에게 맡기고, 자신은 수행원 하나만을 데리고 행색을 상인처럼 꾸민 채 밤을 도와 양산박으로 향했다.

한편, 노지심과 양지, 무송 세 사람은 산채로 들어가 시은과 조정을 불러내고, 다시 백여 명에서 이백 명 정도의 인원을 거느리고 산을 내려와 힘을 보탰다. 도화산의 이충과 주통도 소식을 듣자마자 산채의 인마를 모두 이끌고 길을 나섰다. 그들은 산채를 지킬 서른에서 쉰 명 정도의 졸개들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산 아래로 데리고 내려왔다. 이들은 모두 청주 성 아래로 모여들어 함께 성을 공격했으니, 이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한편, 공량은 청주를 떠난 뒤 줄곧 길을 달려 양산박 근처에 있는 '최명판관' 이립의 주점에 들러 술을 사고 길을 물었다. 이립은 낯선 두 사

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리를 권하며 물었다. “손님들, 어디서 오셨소?” 공량이 대답했다. “청주에서 왔소.” 이립이 다시 물었다. “양산박에는 누구를 찾아오셨소?” 공량이 답했다. “산 위에 아는 사람이 있어 그를 찾아온 것이오.” 이립이 말했다. “산 위의 산채는 모두 대왕님들이 거처하시는 곳인데, 어찌 함부로 들어간단 말이오?” 공량이 말했다. “송 대왕을 찾아온 것이오.” 그러자 이립이 말했다. “송 두령님을 찾아오신 것이라면 우리에게 정해진 예우가 있소.” 그러고는 주방 일꾼에게 어서 가서 손님을 대접할 술을 준비하라고 일렀다. 공량이 물었다.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어찌 대접을 해준다는 말이오?” 이립이 말했다. “손님께서 모르시는 모양인데, 산채의 두령님을 찾아오셨다면 필시 한패의 옛 벗이거나 지인일 터이니 어찌 소홀히 응대할 수 있겠소! 곧바로 보고하겠소.” 공량이 말했다. “소인은 백호산 앞 장원에 사는 공량이라 하오.” 이립이 반색하며 말했다. “송공명 형님께 그 큰 이름을 들은 적이 있소. 오늘 이렇게 산에 오르시다니 참으로 기쁘구려.” 두 사람이 대접받은 술을 다 마시자, 이립은 즉시 창문을 열고 물가 정자 쪽으로 신호용 화살을 쏘아 올렸다. 건너편 나룻터 갈대숲 깊은 곳에서 벌써 졸개 하나가 배를 저어 다가오고 있었다. 이립은 정자 아래에 도착하자 공량을 배에 태워 함께 금사탄으로 노를 저어 건너가 뭍에 오른 뒤, 관문으로 향했다. 공량이 보니 삼관(三關)의 모습이 웅장하고 창칼과 병기들이 숲처럼 늘어서 있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양산박이 번성했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토록 거대한 사업을 일구었을 줄이야!’ 이미 졸개가 먼저 가서 보고했는지, 송강이 황급히 내려와 마중을 나왔다. 공량은 송강을 보자마자 급히 절을 올렸다. 송강이 물었다. “아우님, 어찌 여기까지 오셨소?” 공량이 절을 마치고는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다. 송강이 말했다. “아우님, 마음에 어떤 위급하고 풀기 어

려운 일이 있기에 이러시오? 무엇이든 숨김없이 말해 보시오. 물불 가리지 않고 힘을 다해 도와줄 것이니, 어서 일어나시오." 공량이 울음을 그치며 말했다. "스승님과 헤어진 뒤로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는 형님 공명이 고향의 호족과 사소한 시비가 붙어 그 일가족을 몰살하는 바람에 관에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백호산으로 올라가 오칠백 명의 사람을 모아 도적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주성에는 숙부 공빈이 모용 지부에게 붙잡혀 무거운 칼을 쓴 채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가 성을 공격해 숙부 공빈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성 아래에 도착하자마자 쌍편을 쓰는 호연작과 맞닥뜨렸습니다. 형님이 그와 싸우다 붙잡혀 청주로 압송되어 감옥에 갇혔는데, 생사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저 또한 그에게 한바탕 쫓겨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다음 날 무송을 만나 스승님의 존함을 말씀드렸더니, 그가 저를 데리고 동료들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한 명은 '화화상' 노지심이고, 다른 한 명은 '청면수' 양지입니다. 두 분은 저를 보자마자 오랜 벗처럼 대해주시며 형님을 구할 방도를 논의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노지심·양지 두 두령과 도화산의 이충·주통에게 청하여 세 산의 인마를 모아 청주를 공격할 터이니, 그대는 밤을 도와 양산박으로 달려가 스승 송공명께 알려 숙부와 형 두 사람을 구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곧장 이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송강이 말했다. "그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니 안심하시오. 우선 조 두령님을 뵙고 함께 의논합시다." 송강은 공량을 데리고 조개, 오용, 공손승과 여러 두령을 찾아가, 호연작이 청주로 달아나 모용 지부에게 의탁하여 이제 공명을 붙잡아 갔으므로 공량이 찾아와 간곡히 도움을 청한다는 사실을 상세히 설명했다. 조개가 말했다. "그 두 곳의 호걸들조차 의리를 지키고 인을 행하려 하는데, 하물며 삼랑과 그토록

절친한 벗의 일이거늘 어찌 가지 않겠는가? 삼랑 아우님, 그대는 여러 번 산을 내려가 보았으니 이번에는 잠시 산채를 지키게. 이 형이 대신 한 번 다녀오겠네." 송강이 말했다. "형님은 산채의 주인이시니 가벼이 움직이셔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소인이 나서겠습니다. 이것은 제 형제들의 일입니다. 그들이 멀리서 찾아와 의지하려는데 제가 직접 가지 않으면 그 형제들의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부디 소인이 몇몇 형제와 함께 다녀오게 해 주십시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청 안팎의 사람들이 일제히 외쳤다. "우리도 기꺼이 견마지로를 다해 함께 가겠소!" 송강은 크게 기뻐하며 그날 공량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술자리가 이어지는 동안 송강은 '철면공목' 배선에게 명하여 산을 내려갈 인원을 다섯 군대로 나누어 출발시키게 했다. 선봉인 전군은 화영, 진명, 연순, 왕애호가 길을 열기로 했고, 제2대는 목홍, 양웅, 해진, 해보를 보냈다. 중군은 주장이 된 송강과 오용, 여방, 곽성이 맡았으며, 제4대는 주동, 시진, 이준, 장횡이 맡았다. 후군은 손립, 양림, 구팽, 능진이 군을 재촉하며 후미를 받치기로 했다. 양산박은 다섯 군대를 일으켜 총 스무 명의 두령과 기마·보병 이천 명의 군사를 움직였다. 나머지 두령들은 조개와 함께 산채를 지키기로 했다. 송강은 조개와 작별하고 공량을 데리고 산을 내려왔다. 양산박의 인마가 다섯 군대로 나뉘어 출발하니,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처음 수박(水泊)을 떠날 때는 온 천하 바다에 교룡(蛟龍)을 풀어놓은 듯하더니,
막 양산을 나설 때는 바람 속을 달리는 호랑이와 표범 같구나.
다섯 군대가 나란히 전진하니 앞뒤로 스무 명의 영웅이 늘어섰고,
한 진영이 함께 움직이니 머리부터 꼬리까지 삼천 명의 군사가 따르네.

수놓은 깃발은 구름과 안개처럼 자욱하고, 번뜩이는 강철 칼날은 눈과 서리처럼 펼쳐졌도다.

난령이 울리고 전마가 질주하니, 전투 북소리 요란하고 군사들은 기세등등하게 뛰어오른다. 땅에는 누런 먼지가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하늘에는 흙비가 쏟아지는 듯하다. 보도(寶纛) 깃발 아래에는 지략이 뛰어나고 꾀가 많은 오용이 무리를 이끌고 있고, 푸른 깃발 아래에는 천도를 행하는 송강이 위엄 있게 앉아 있다. 지나가는 귀신들은 모두 손을 모아 경의를 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은 모두 노래를 부르리라.

이야기는 이러하다. 송강은 양산박의 두령 스무 명과 군사 삼천 명을 거느리고 다섯 군대로 나누어 전진하였다. 가는 길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으며, 거쳐 가는 주와 현의 백성들에게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을 만큼 엄격히 다스렸다. 마침내 청주에 이르자, 공량은 먼저 노지심 등이 있는 군영으로 달려가 호걸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게 했다. 송강이 이끄는 중군이 도착하자, 무송이 노지심, 양지, 이충, 주통, 시은, 조정을 데리고 나와 송강을 맞이했다. 송강이 노지심에게 자리를 권하자, 노지심이 말했다. “형님의 존함을 오래전부터 들었으나 인연이 닿지 않아 뵙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형님을 뵙게 되니 참으로 기쁩니다.” 송강이 대답했다. “부족한 제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강호의 의사들이 우리 스승님의 높은 덕망을 칭송해 왔는데, 오늘 이렇게 인자한 얼굴을 뵙게 되니 평생의 큰 행운입니다.” 양지도 일어나 다시 절을 하며 말했다. “양지는 예전에 양산박을 지나친 적이 있으나, 산채에서 의리를 중히 여겨 머물러 달라는 호의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제가 어리석어 머물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의사들의

장대한 산채를 직접 보니, 참으로 천하의 으뜸가는 경사입니다." 송강이 답했다. "제사(制使, 관직 명칭)님의 위명이 강호에 널리 퍼져 있는데, 송강이 너무 늦게 만난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노지심은 즉시 좌우에 명하여 술을 차려 대접하게 하였고, 모두가 한데 모여 인사를 나누었다.

다음 날, 송강이 물었다. "청주의 상황은 최근 승패가 어떠한가?" 양지가 대답했다. "공량이 간 뒤로 앞뒤로 서너 차례 교전을 치렀으나, 서로 이기고 지는 것 없이 비겼습니다. 지금 청주는 오로지 호연작 한 사람에게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자를 잡을 수만 있다면, 이 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마치 뜨거운 물을 눈 위에 붓는 것처럼 식은 죽 먹기일 것입니다." 오용이 웃으며 말했다. "그자는 힘으로 상대하기는 어려우니, 지략을 써서 사로잡아야 합니다." 송강이 물었다. "어떤 지략을 써야 그자를 잡을 수 있겠는가?" 오용이 말했다. "그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송강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그 계책이 참으로 묘하도다!" 그날 즉시 군사를 나누어 배치하였다. 이튿날 아침 군사를 일으켜 청주 성하에 이르니, 사방을 군마로 에워싸고 북을 치며 깃발을 흔들며 함성을 질러 싸움을 걸었다. 성 안의 모용 지부는 보고를 받고는 황급히 호연작을 불러 상의했다. "이번에 도적 떼가 또 양산박의 송강이 왔다고 보고해 왔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호연작이 말했다. "지부 어른께서는 안심하십시오. 도적들이 오면 먼저 지리적 이점을 잃게 됩니다. 저놈들은 원래 양산박 안에서나 기세등등할 수 있는 놈들인데, 이번에 제 근거지를 버리고 찾아왔으니, 오는 족족 잡아버리면 저놈들이 어찌 대항하겠습니까? 지부 어른께서는 성 위로 올라가 제가 싸우는 것을 보십시오." 호연작은 서둘러 갑옷을 갖춰 입고 말에

올라타 성문을 열고 들보다리를 내리게 한 뒤, 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성 근처에 진을 쳤다. 송강의 진영에서 장수 한 명이 말을 타고 나갔다. 그 사람은 낭아곤을 손에 들고 지부를 향해 크게 꾸짖었다. "백성을 해치는 탐관오리이자 도적 놈아! 내 가족을 몰살시킨 원수를 오늘 반드시 갚아주마!" 모용 지부는 그가 진명인 것을 알아보고 꾸짖었다. "네 이놈, 너는 조정의 관리인데 나라가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감히 반역을 꾀하느냐! 만약 네놈을 잡기만 하면 갈가리 찢어 죽일 것이다! 우선 저 도적을 먼저 잡아라!" 호연작은 그 말을 듣자마자 쌍편을 휘두르며 말을 달려 진명을 향해 돌진했다. 진명 역시 말을 타고 낭아대곤을 휘두르며 호연작을 맞이하러 나갔다. 두 장수가 맞붙으니 참으로 막상막하였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채찍은 두 마리 용의 꼬리처럼 휘날리고
봉은 늑대 이빨처럼 촘촘히 가로지르네
삼군 사방의 눈이 어지러워 정신없으니
두 장수는 말 위에서 종횡무진 누비누나

몽둥이 휘두르는 자는 군반(軍班)의 우두머리요,
채찍 잡은 자는 장수 가문의 후예라 자랑할 만하네.
하늘은 어둡고 땅은 참혹하며 해는 모래바람에 흐려지니,
이 격렬한 싸움은 귀신조차 두려워하리라.

두 장수가 사오십 합(四五十合)을 싸웠으나 승부를 내지 못했다. 모용 지부는 싸움이 길어지자 혹여 호연작에게 변이라도 생길까 겁이 나, 황급히 징을 울려 군사를 거두고 성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진명도 쫓

아가지 않고 본진으로 물러났다. 송강은 여러 두령과 군교들에게 명하여, 십오 리쯤 물러난 곳에 진을 치게 했다.

한편, 호연작이 성 안으로 돌아오자 말에서 내려 모용 지부를 뵙고 말했다. "소장이 방금 진명을 잡으려던 참이었는데, 지부 어른께서는 어찌하여 군사를 거두라 하셨습니까?" 지부가 대답했다. "싸움이 꽤 오래 이어지기에 혹 네가 지치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잠시 쉬게 하려 했다. 진명 그놈은 원래 이곳의 통제(統制, 군 지휘관)였는데, 화영과 함께 반역을 꾀했으니 그놈을 결코 얕보아서는 안 된다." 호연작이 말했다. "지부 어른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소장이 반드시 이 배은망덕한 도적을 사로잡겠습니다! 방금 싸울 때 보니 그놈의 곤법이 이미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내일 제가 그놈을 베는 모습을 꼭 지켜봐 주십시오!" 지부가 말했다. "장군처럼 영웅적이라면, 내일 적과 맞설 때 길을 열어 세 사람을 보내주겠네. 한 명은 도성인 동경으로 가서 구원을 요청하게 하고, 나머지 두 명은 인근의 부와 주로 보내 군사를 모아 이들을 소탕하도록 돕게 하게나." 호연작이 말했다. "지부 어른의 식견이 참으로 높으십니다." 그날 지부는 구원을 요청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군관 세 명을 뽑아 모든 채비를 갖추어 떠나보냈다.

한편, 호연작이 쉬는 곳으로 돌아와 갑옷을 벗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아직 날이 채 밝기도 전인데, 군교가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성 북문 밖 언덕 위에 기병 세 명이 몰래 성을 살피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붉은 도포를 입고 백마를 탄 자가 있고, 양옆에 두 명이 더 있는데 오른쪽은 '소이광' 화영인 것 같고, 왼쪽의 한 명은 도사 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호연작이 말했다. "붉은 옷을 입은 자는 보아하니 송

강임이 분명하고, 도사 차림을 한 자는 필시 군사 오용일 것이다. 그들을 놀라게 하지 말고, 즉시 마군(馬軍, 기병) 백 명을 뽑아 나와 함께 저 세 사람을 잡으러 가자!"

호연작은 서둘러 갑옷을 갖춰 입고 말에 올라 쌍편을 쥐었다. 그리고 백여 명의 마군을 거느리고 몰래 북문을 열어 현수교를 내린 뒤, 군사들을 이끌고 언덕 위로 급히 올라갔다. 송강, 오용, 화영 세 사람은 그저 멍하니 서서 성을 살피고 있었다. 호연작이 말을 몰아 언덕을 치고 올라가자, 세 사람도 말머리를 돌려 천천히 물러나며 움직였다. 호연작이 힘껏 달려가 앞쪽의 마른 나무 몇 그루가 있는 곳 근처에 다다랐을 때, 송강과 오용, 화영 세 사람이 일제히 말머리를 멈추었다. 호연작이 막 마른 나무 곁에 다다랐을 무렵,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려오더니 호연작이 발을 헛디뎌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사람과 말이 통째로 구덩이 속으로 굴러떨어진 것이다.

그러자 양옆에서 오륙십 명의 갈고리잡이들이 나타나, 먼저 호연작을 갈고리로 낚아채 꽁꽁 묶어 끌고 가고 뒤이어 그의 말까지 잡아 끌었다. 뒤따라오던 수많은 마군은 화영이 활을 당겨 화살을 날리는 바람에 선두에 있던 대여섯 명이 쓰러졌고, 뒤따르던 말들도 혼비백산하여 모두 달아나 버렸다.

송강이 진영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아 있자, 좌우에 있던 칼잡이들이 호연작을 밀고 왔다. 송강은 호연작을 보자마자 서둘러 일어나 소리쳤다. "어서 밧줄을 풀어라!" 송강은 직접 호연작을 부축해 막사 안 자리에 앉힌 뒤, 정중히 예를 갖추어 절을 올렸다. 호연작이 물었다. "어찌하여 이리까지 격식을 차리는 것이오?" 송강이 대답했다. "소인 송강

이 어찌 감히 조정에 죄를 짓겠습니까? 다만 관리들의 부패와 횡포가 너무 심하여, 본의 아니게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잠시 양산박으로 몸을 피해 머물며, 조정에서 죄를 사해주고 초안(招安, 항복을 권유하여 관직을 주는 것)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장군을 움직이게 하여 심력을 소모하게 했으니 참으로 송구합니다. 장군의 호위(虎威)를 흠모해 왔거늘, 오늘 뜻하지 않게 결례를 범했으니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오." 호연작이 말했다. "사로잡힌 자는 만 번 죽어도 마땅하거늘, 어찌 의사가 이리 무거운 예우를 갖추며 말을 늘어놓는단 말이오?" 송강이 말했다. "송강이 어찌 감히 장군의 목숨을 해치겠습니까? 하늘이 제 진심을 알아줄 것입니다." 송강은 그저 간곡히 애원할 뿐이었다. 호연작이 다시 물었다. "형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혹시 나를 도성으로 데려가 초안을 청하고 산의 죄를 사면해달라고 요청하려는 것이오?" 송강이 말했다. "장군께서 어찌 가실 수 있겠습니까? 고태위 그자는 마음보가 좁아 남의 큰 은혜는 잊고 작은 허물만 기억하는 자입니다. 장군께서 이미 많은 군사와 군량, 재물을 잃으셨는데 그가 어찌 장군의 죄를 묻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도, 팽기, 능진이 이미 저희 산채에 들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군께서 이 비천한 산채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송강은 기꺼이 자리를 장군께 양보하겠습니다. 나중에 조정에서 장군을 중용하여 초안을 내린다면, 그때 충성을 다해 나라에 보답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입니다."

호연작은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첫째는 그가 천강성(天罡星)의 수에 드는 호걸이니 자연히 의기가 통하는 면이 있었고, 둘째는 송강의 예의가 매우 정중한 데다 하는 말에도 도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호연작은 한숨을 내쉬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제가 나라에 충성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형님의 의기가 남달라 차마 거절할 수가 없구려. 기꺼이 형님을 따르겠소. 일이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되돌릴 길은 없겠구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하늘의 뜻을 받들어 자욱한 연기를 걷어내니,
앞서 채찍을 잡지 않고 오직 그대의 손을 따르렵니다.
어찌 충성스러운 마음이 도리어 도적이 되겠습니까,
마귀를 쫓는 전각 안에는 이미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송강은 크게 기뻐하며 호연작을 청해 다른 두령들에게 소개했다. 이어 이충과 주통에게 명령하여, 장군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적설오추(踢雪烏騅, 발굽이 눈처럼 흰 검은 준마)'를 구해오게 했다. 사람들이 다시 모여 공명 형제를 구할 계책을 상의하니, 오용이 말했다.

"호연작 장군이 성문을 유인해 열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손쉽게 성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호연작 장군의 마음까지 완전히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송강은 그 말을 듣고 호연작에게 다가가 다시 말을 건넸다.

"송강이 성을 빼앗으려는 탐욕 때문이 아닙니다. 실은 공명 숙부와 조카가 옥에 갇혀 있는 처지라, 장군께서 성문을 유인해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호연작이 대답했다.

"소장이 이미 형님께서 거두어 주셨으니, 마땅히 힘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그날 밤, 진명, 화영, 손립, 연순, 여방, 곽성, 해진, 해보, 구붕, 왕영 등 열 명의 두령을 뽑아 군사들의 옷차림으로 변장시킨 뒤 호연작을 따르게 했다. 이렇게 총 열한 기의 말을 이끌고 성 근처에 도착한 그들은 성 밖 해자(濠塹, 성 밖의 도랑)에 이르러 크게 소리쳤다.

"성문을 열어라! 내 목숨을 보존하여 돌아왔다!"

성 위의 사람들이 호연작의 목소리를 듣고는 황급히 모용 지부에게 보고했다. 이때 지부는 호연작을 놓친 일로 골머리를 앓던 중이었는데, 호연작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보고를 듣자 마음이 놓여 서둘러 말을 타고 성 위로 달려 올라갔다. 멀리서 호연작을 따라오는 열댓 기의 기병이 보였으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오직 목소리로만 호연작임을 알아챌 뿐이었다. 지부가 물었다.

"장군, 어찌하여 무사히 돌아온 것이오?"

호연작이 답했다.

"그놈의 함정에 빠져 적의 진영으로 끌려갔으나, 원래 저를 따르던 부하가 몰래 이 말을 훔쳐 저와 함께 도망쳐 나왔습니다."

지부는 호연작의 말을 듣자마자 즉시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성문을 열고 현수교(吊橋, 성문 앞에 걸린 다리)를 내리게 했다. 열 명의 두령이 성문 안으로 들어서며 지부를 맞이하려 할 때, 진명이 몽둥이를 휘

둘러 모용 지부를 말 아래로 때려눕혔다. 해진과 해보는 곧바로 불을 질렀고, 구붕과 왕애호는 성 위로 뛰어 올라가 군사들을 흩어놓았다. 성 위에 불이 난 것을 본 송강의 대부대가 일제히 장수들을 앞세워 밀고 들어왔다. 송강은 급히 명령을 내려 백성들을 해치지 말고 창고의 재물과 식량을 잘 보관하라고 일렀다. 또한 대옥(大牢, 감옥)에서 공명과 그의 숙부 공빈의 일가족을 구출하게 한 뒤 불을 끄게 했다. 모용 지부의 일가족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참수하였으며, 가산과 재물을 몰수하여 모든 군사에게 나누어 주었다.

날이 밝자, 불에 타 피해를 입은 성 안의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어 구제했다. 관아의 금과 비단, 창고의 쌀과 곡식을 오육백 수레 가량 실었고, 좋은 말 이백여 필도 얻었다. 송강은 청주부에서 잔치를 베풀어 새로 합류한 산채의 두령들을 청해 함께 대채(大寨, 양산박 본진)로 돌아갔다. 이충과 주통은 사람을 보내 도화산에 전하여, 사람과 군사, 재물을 모두 챙겨 산을 내려오게 하고 산채의 울타리는 불태워 없애게 했다. 노지심 역시 시은과 조정을 이룡산으로 보내 장청, 손이낭과 함께 군사와 재물을 챙기게 하고 보주사의 울타리를 태우게 했다. 며칠 사이에 세 산의 인마가 모두 완비되었다.

송강은 대부대를 이끌고 산으로 돌아가는 행군을 시작했다. 먼저 화영, 진명, 호연작, 주동 네 장수에게 길을 열게 하였는데, 지나가는 주와 현의 백성들을 조금도 괴롭히지 않았다. 마을 백성들은 노인과 아이를 데리고 나와 향을 피우며 정중히 맞이했다. 며칠 만에 양산박 근처에 이르자, 수많은 수군 두령들이 배를 띄워 마중 나왔다. 조개가 산채의 마보(馬步, 기병과 보병) 두령들을 이끌고 금사탄에서 마중을 나왔

다. 마침내 대채에 도착한 이들은 취의청(聚義廳, 모여 의논하는 대청)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송강은 새로 합류한 두령들을 축하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새로 산채에 들어온 두령은 호연작, 노지심, 양지, 무송, 시은, 조정, 장청, 손이낭, 이충, 주통, 공명, 공량까지 총 열두 명이었다. 잔치가 이어지던 중 임충이 노지심이 자신을 구해준 일에 대해 감사를 표하자, 노지심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내가 교두(敎頭)와 창주에서 헤어진 뒤로, 형수님의 소식을 들었소?"

임충이 대답했다.

"왕륜을 처단한 뒤 사람을 보내 가족을 데려오게 했는데, 아내가 고태위의 역적 아들에게 쫓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소. 장인어른 또한 근심과 걱정 속에 병을 얻어 돌아가셨소이다."

양지가 예전에 왕륜의 손을 거쳐 산에 올랐던 일을 꺼내자, 사람들이 모두 말했다.

"이 모든 것이 다 정해진 운명이지, 결코 우연이 아니구려!"

조개가 황니강에서 생신강을 탈취했던 일을 이야기하자 모두가 크게 웃었다. 이튿날부터는 번갈아 가며 잔치가 이어졌으니,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기로 한다.

한편, 송강은 산채에 수많은 인마가 새로 합류한 것을 보고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그는 탕륭을 대장장이 총관으로 삼아 각종 군기와 철엽연환갑(鐵葉連環甲, 철판을 겹쳐 만든 갑옷) 등을 만드는 일을 감독하게 했다. 또한 후건을 깃발과 의복 총관으로 삼아 삼재, 구요, 사두, 오방, 이십팔숙 등을 상징하는 깃발과 비룡, 비호, 비웅, 비표 깃발, 그리고 황월백모(黃鉞白旄, 노란 도끼 모양 깃발과 흰 털 장식 깃발), 주영조개(朱纓皁蓋, 붉은 술을 단 검은 덮개) 등을 새로 만들게 했다. 산 주변 사방에는 망루를 쌓아 올렸다.

또한 서로(西路)와 남로(南路)에 있는 두 곳의 주점을 새로 단장하여, 산으로 올라오는 호걸들을 맞이하며 군사 정보를 탐지하고 보고하는 곳으로 삼게 했다. 산서로(山西路) 주점은 원래 주막을 하던 장청과 손이낭 부부에게 맡겨 지키게 했고, 산남로(山南路) 주점은 손신과 고대소 부부에게 맡겼다. 산동로(山東路) 주점은 예전처럼 주귀와 악화가 맡았으며, 산북로(山北路) 주점은 여전히 이립과 시천이 맡았다. 세 관문에는 산채의 울타리를 더 보강하고 두령들을 나누어 배치해 지키게 했다. 이처럼 모든 부대 편제가 정해지자 각자가 명령을 따라 움직였으니,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기로 한다.

어느 날, '화화상' 노지심이 송강을 찾아와 말했다.

“지심에게 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충 형제도 잘 아는 구문룡 사진이라는 자요. 지금 화주 화음현 소화산에 '신기군사' 주무, '도간호' 진달, '백화사' 양춘과 함께 네 사람이 모여 의기투합해 살고 있소. 나는 그들을 자주 생각하곤 하오. 예전에 와관사에서 나를 도와준 은혜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소. 내가 그곳에 가서 그들을 한번 만나보고, 그들

네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고 싶은데, 두령님의 생각은 어떠시오?”

송강이 답했다.

“저도 사진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만약 스승님께서 그를 직접 청해 오실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다만, 혼자 가셔서는 안 되니 무송 아우에게 부탁하여 함께 다녀오도록 하십시오. 그는 행자이니, 스님과 같은 출가자 신분이라 동행하기에 딱 적당할 것입니다.”

무송이 대답했다.

“제가 스승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날 바로 짐을 챙겼다. 노지심은 선사와 같은 차림을 하고, 무송은 수행하는 행자의 모습으로 꾸몄다. 두 사람은 여러 두령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산을 내려왔다. 금사탄을 지나 낮에는 걷고 밤에는 쉬기를 며칠, 화주 화음현 경계에 이르자 곧장 소화산으로 향했다.

한편, 송강은 노지심과 무송이 떠난 뒤 그들이 산을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었으나 내심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래서 '신행태보' 대종을 불러 그들의 뒤를 따라가며 소식을 알아보고 오게 했다.

한편, 노지심과 무송 두 사람이 소화산 아래에 이르자, 길목을 지키던 졸개들이 나와 앞을 가로막으며 물었다.

“두 출가자는 어디서 오는 길인가?”

무송이 대답했다.

"이 산에 사진 대관인이 계시는가?"

졸개가 말했다.

"사진 대왕을 찾으러 오셨다면 여기서 잠시 기다리시오. 내가 산으로 올라가 두령님께 보고하고 곧 내려와 맞이하겠소."

무송이 말했다.

"그저 노지심이 찾아왔다고만 전하게."

졸개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기군사 주무와 도간호 진달, 그리고 백화사 양춘 세 사람이 노지심과 무송을 맞이하러 산을 내려왔으나, 정작 사진은 보이지 않았다. 노지심이 곧 물었다.

"사진 대관인은 어디 있소? 어찌하여 보이지 않는 거요?"

주무가 가까이 다가와 대답했다.

"스님께서는 연안부의 노 제할(군관 직책)이 아니십니까?"

노지심이 말했다.

"내가 바로 그 노달이오. 그리고 이 행자는 경양강에서 호랑이를 잡은 도두(포교 우두머리) 무송이라오."

세 사람이 황급히 예를 갖추며 말했다.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두 분께서 이룡산에 진을 치고 계신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만, 오늘은 어찌하여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노지심이 말했다.

"우리는 이제 이룡산에 있지 않고, 양산박의 송강 대채에 들어가 함께하기로 했소.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사진 대관인을 찾아온 것이오."

주무가 말했다.

"두 분께서 여기까지 오셨으니 우선 산채로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히 말씀 올리도록 하지요."

노지심이 말했다.

"할 말이 있으면 바로 하게. 기다리다 지쳐서야 되겠나?"

무송이 거들었다.

"스승님께서 워낙 성미가 급하신 분이니, 할 말이 있으면 어서 말하는 게 어떻겠소?"

주무가 말했다.

"저희 세 사람이 이 산채를 지키고 있는데, 사진 대관인께서 산에 오르신 뒤로 산세가 아주 흥성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사진 대관인께서 산을 내려가셨다가 한 화공과 마주치셨습니다. 그는 원래 북경 대명부 사람으로 성은 왕씨, 이름은 의라고 합니다. 서악 화산의 금천성제묘에 벽화를 그리기로 약속한 뒤, 그 보답을 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지

요. 그는 옥교지라는 딸을 데리고 동행했는데, 하필 이 고을의 하 태수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놈은 원래 채 태사의 문하생인데, 탐욕스럽고 무도하여 백성을 괴롭히는 자입니다. 하 태수가 절에 불공을 드리러 왔다가 옥교지의 미모에 반해, 사람을 몇 번이나 보내 첩으로 삼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왕의가 거절하자, 태수는 그의 딸을 강제로 빼앗아 첩으로 삼고 왕의는 멀고 험한 군주로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마침 이곳을 지나던 사진 대관인이 이 사정을 듣고, 왕의를 산으로 구해낸 뒤 관원 두 명을 죽이고는 직접 관아로 달려가 하 태수를 처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탄로 나는 바람에 도리어 붙잡혀 지금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게다가 태수는 군사를 일으켜 우리 산채를 쓸어버리려 하니, 저희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이러고 있습니다!"

노지심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며 말했다.

"어떤 놈이 감히 이토록 무례하게 구느냐! 어찌 이리도 지독하단 말이냐! 내가 가서 그놈을 끝장내 주마!"

주무가 말했다.

"두 분께서는 우선 산채로 들어가 상의를 하시지요."

다섯 명의 우두머리는 모두 소화산 산채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이어 왕의가 노지심과 무송을 만나 하 태수의 탐욕과 잔혹함, 그리고 양가집 규수를 강제로 빼앗은 악행을 눈물로 호소했다. 주무 일행은 즉시 소와 말을 잡아 노지심과 무송을 대접했다. 술자리에서 노지심은 속으로 생각했다.

‘하 태수 그놈, 참으로 도리가 없구나. 내일 당장 너와 함께 주(州)로 가서 그놈을 때려죽여 버리리라!’

무송이 말했다.

“형님,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함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양산박으로 달려가 송강 대인께 알려, 대부대를 이끌고 화주로 오시게 해야 사진 대관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노지심이 외쳤다.

“우리가 산채로 가서 사람을 불러온다 해도, 사진 형제의 목숨이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지 않느냐!”

무송이 말했다.

“태수를 죽인들, 사진 대관인을 어찌 구하겠습니까?”

무송은 끝내 노지심이 혼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주무 역시 거들었다.

“스님, 부디 노여움을 가라앉히십시오. 무 도두의 말이 옳습니다.”

노지심은 초조해하며 말했다.

“너희처럼 느릿느릿한 놈들 때문에 사진 형제를 잃게 생겼구나! 너희는 양산박에 알리러 가지 마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보아라!”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았고, 밤새 간곡히 만류했으나 소용없었다. 다음 날 새벽 네 경(약 2시~4시 사이)이 되자, 노지심은 석장과 계도를 들고 곧장 화주로 달려가 버렸다. 무송이 말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으니, 이번 행차에 반드시 화를 입으실 겁니다."

주무는 즉시 정예 졸개 두 명을 보내 소식을 알아보게 했다.

한편, 노지심이 화주 성안으로 달려가 길가 사람들에게 관아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주교(州橋)를 지나 동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노지심이 다다르니 마침 부교(浮橋) 위였다. 사람들이 모두 외쳤다.

"스님, 어서 몸을 피하시오! 태수 어른께서 오시는 길이오!"

노지심이 말했다.

"내가 바로 그놈을 찾으려던 참인데, 마침 내 손에 딱 걸렸구나! 그 놈은 정말 죽어 마땅한 놈이다!"

하 태수의 의장(儀仗) 선도 행렬이 쌍쌍이 늘어서 지나가는데, 태수가 탄 가마를 보니 따뜻하게 데운 난교(煖轎)였다. 가마 창 양옆으로는 우후(虞候, 관아의 무관) 열 명씩이 편창(鞭鎗)과 철련(鐵鍊)을 손에 쥐고 양쪽에서 호위하며 지키고 있었다. 노지심은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저 새 같은 놈을 치기가 마땅찮구나. 만약 제대로 맞히지 못하면 도리어 비웃음을 사겠구나.’

그런데 하 태수가 가마 창 틈으로 노지심이 다가오려다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았다. 위교(渭橋)를 지나 관아에 도착해 가마에서 내린 하 태수는 두 명의 우후에게 분부했다.

“가서 저 다리 위의 덩치 큰 스님을 관아로 모셔와 재(齋, 공양)를 들게 하라.”

우후가 명을 받들고 다리로 가서 노지심에게 말했다.

“태수 어른께서 공양을 들러 오시라 하십니다.”

노지심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놈은 반드시 내 손에 죽을 운명이다. 막 때리려던 참인데 제대로 맞히지 못할까 걱정하여 그냥 지나가게 두었더니, 그놈이 도리어 나를 모셔오라 하는구나. 내가 그를 찾으려던 차에 그가 제 발로 나를 청하다니.’

노지심은 우후를 따라 곧장 관아로 들어갔다. 태수가 이미 명령을 내려놓은 터라, 노지심이 대청 앞에 들어서자 태수는 석장과 계도를 내려놓게 하고 후당으로 가서 공양을 들라고 일렀다. 노지심은 처음에는 따르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다.

"스님은 출가하신 몸인데 어찌 이리도 사리에 어두우십니까? 관아의 깊숙한 곳까지 어찌 도검과 지팡이를 지니고 들어오게 허락하겠습니까?"

노지심은 생각했다.

'내 주먹 두 개만 있으면 저놈의 머리통도 부숴버릴 수 있다!'

그리하여 복도에 석장과 계도를 내려놓고 우후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하 태수가 후당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가 손짓을 하며 호통을 쳤다.

"저 까까머리 도적놈을 잡아라!"

그러자 양옆 벽에 친 휘장(壁衣) 뒤에서 삼사십 명의 포졸(공인)들이 튀어나와 노지심을 가로로 끌고 거꾸로 잡아채며 붙잡았다. 그대가 설령 나타태자(哪吒太子)라 한들 어찌 천라지망(天羅地網)을 벗어나랴! 불 머리의 금강역사(火首金剛)라 한들 용담호굴(龍潭虎窟)을 어찌 벗어나리오? 실로 불나방이 불에 뛰어들어 제 몸을 망치는 격이요, 성난 자라가 낚싯바늘을 삼켜 그 목숨을 반드시 상하는 격이로다.

결국 노지심은 하 태수에게 붙잡히고 말았으니, 그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는 다음 회에서 풀어 밝히기로 한다.

제59회 — 오용이 금령을 꾀어 매달고, 송강이 서악 화산을 뒤흔들다

吳用賺金鈴弔掛 宋江鬧西嶽華山

이야기는 이러하다. 하 태수가 노지심을 꾀어 후당 안으로 불러들인 뒤 호통을 쳤다. "당장 잡아라!" 그러자 여러 포졸들이 노지심을 에워싸고 대청 계단 아래로 끌어내렸다. 하 태수가 꾸짖으며 물었다. "이 까까머리 중놈은 어디서 온 놈이냐?" 노지심이 대답했다. "이 몸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태수가 말했다. "솔직히 말해라. 누가 너더러 나를 찔러 죽이라고 시켰느냐?" 노지심이 말했다. "나는 출가한 사람인데, 어찌 그런 것을 묻습니까?" 태수가 다시 호통을 쳤다. "방금 네놈을 보니, 선장(禪杖)으로 내 가마를 치려다가 다시 생각하고는 차마 손을 쓰지 못하더구나. 이 까까머리 중놈아, 어서 순순히 자백하라!" 노지심이 말했다. "내가 당신을 죽인 적도 없는데, 어찌 나를 붙잡아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모함합니까?" 태수가 욕설을 퍼부으며 말했다. "출가한 사람이 스스로를 '사가(洒家)'라 칭하는 것을 내 일찍이 어디서 본 적이 있더냐! 이 까까머리 중놈은 분명 관서(關西) 다섯 길에서

도둑질을 일삼던 강도 놈이다. 사진 그놈의 원수를 갚으러 온 것이니, 매를 치지 않고는 순순히 불지 않겠구나. 좌우는 저 까까머리 중놈을 아주 호되게 쳐라!" 노지심이 크게 소리쳤다. "어르신, 너무 쳐서 다치게 하지는 마시오! 내 말해 주겠다. 나는 양산박의 호걸 '화화상' 노지심이다! 내가 죽는 거야 대수롭지 않으나, 내 형님인 송 공명(송강)께서 이 소식을 듣고 산에서 내려오는 날에는, 당신의 그 당나귀 같은 머리통을 얼른 베어 바쳐야 할 줄 알라!" 하 태수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노지심을 한바탕 고문한 뒤, 큰 칼(大枷, 목에 씌우는 형구)을 가져다 못을 박아 씌우고 사형수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고는 즉시 도성(都省, 중앙 관청)에 이 사실을 보고하며 명확한 처분을 내려주기를 청하였고, 노지심의 선장과 계도(戒刀)는 관아의 부당(府堂) 안에 봉인해 두었다.

이 소동으로 화주 일대가 발칵 뒤집혔다. 소식을 들은 졸개들이 산 위로 급히 달려가 보고했다. 무송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이 화주에 일을 하러 왔는데 그중 하나를 잃었으니, 이걸 어찌 돌아가서 두령님들을 뵙는단 말인가." 무송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졸개가 달려와 보고했다. "양산박에서 보낸 '신행태보' 대종이라는 두령이 지금 산 아래에 와 있습니다!" 무송은 황급히 내려가 그를 맞아 산으로 올라와, 주무 등 세 사람과 만났다. 그들은 노지심이 충고를 듣지 않아 붙잡히게 된 일을 상세히 일러주었다. 대종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며 말했다. "더 지체할 수 없겠구나! 즉시 양산박으로 돌아가 형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어서 병마를 보내 구출해 오도록 해야겠다!" 무송이 말했다. "이 아우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부디 형님께서 서둘러 다녀와 주십시오." 대종은 채소로 간단히 요기를

한 뒤, 신행법(神行法)을 펼쳐 양산박으로 돌아갔다. 사흘 만에 산채에 도착한 대종은 조개와 송강 두 두령을 만나, 노지심이 사진을 구하려다 하 태수를 찌르려 한 죄로 붙잡힌 일을 보고했다. 송강은 그 말을 듣고 경악하며 말했다. "두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어찌 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당장 지체할 수 없다. 즉시 군마를 점검하여 세 부대로 나누어 출정하겠다!" 전군은 다섯 선봉인 화영, 진명, 임충, 양지, 호연작이 갑마(甲馬) 천 명과 보군 이천 명을 거느리고 앞장서서, 산을 만나면 길을 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으며 나아간다. 중군은 주장 송공명, 군사 오용, 주동, 서녕, 해진, 해보 등 여섯 두령이 마보군(馬步軍) 이천 명을 거느린다. 후군은 군량과 마초를 맡은 이응, 양웅, 석수, 이준, 장순 등 다섯 두령이 마보군 이천 명을 거느리고 뒤를 따른다. 이렇게 총 칠천의 인마를 이끌고 양산박을 떠나 곧장 화주로 향했다. 길을 재촉해 가기를 여러 날, 어느새 절반 길을 지났을 무렵, 먼저 대종을 소화산으로 보내 소식을 전하게 했다. 주무 등 세 사람은 돼지와 양, 소, 말을 잡아 준비하고 좋은 술을 빚어 놓으며 기다렸다.

한편, 송강의 군사 세 부대가 모두 소화산 아래에 도착했다. 무송은 주무, 진달, 양춘 세 사람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 송강과 오용, 그리고 다른 두령들에게 간곡히 청하여, 모두 산채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송강이 성 안의 상황을 자세히 묻자, 주무가 대답했다.

"두 두령님은 이미 하 태수의 감옥에 갇혀 계시며, 조정의 판결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송강이 오용에게 말했다.

"어찌하면 사진과 노지심을 구출할 계책을 세울 수 있겠소?"

주무가 말했다.

"화주 성곽은 넓고 해자(성 밖을 둘러싼 도랑)도 깊어서 단번에 공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호응하는 내응 작전을 펼치지 않고서는 성을 함락할 수 없습니다."

오용이 말했다.

"내일 일단 성 근처로 가서 성의 형세가 어떠한지 살펴본 뒤에 다시 상의합시다."

송강은 밤늦도록 술을 마시며 날이 밝아 성을 보러 갈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러자 오용이 간언했다.

"성 안에는 흉악한 죄수 두 명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찌 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대낮에는 성을 살피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밤은 달빛이 분명 밝을 것이니, 신패(申牌, 시간 알림용 도구)가 울리기 전후로 산을 내려가 일경(一更, 밤 7시~9시 사이)쯤 되면 그곳에 도착하여 몰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오후가 되자 송강, 오용, 화영, 진명, 주동 등 다섯 사람이 말을 타고 산을 내려가 차례로 나아갔다. 일경(一更) 무렵이 되자 이미 화주 성 밖에 다다랐다. 산비탈 높은 곳에서 말을 멈추고 화주 성 안을 바라보니, 마침 2월 중순이라 달빛이 낮처럼 밝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화주 성 주위에는 여러 개의 성문이 보였는데, 성벽은 높고 지세

는 웅장했으며 해자 또한 깊고 넓었다.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살피던 중, 멀리 서악 화산이 보이니 참으로 명산다운 자태였다. 시로 이르되,

봉우리의 이름은 선장(仙掌)이요, 도관(道觀)은 운대(雲臺)에 숨어 있네. 위로는 옥녀가 머리 감는 대야(玉女洗頭盆)와 이어지고, 아래로는 은하수가 갈라져 흐르는 물줄기에 닿았네. 하늘과 땅이 모두 빼어나니, 뾰족한 봉우리는 마치 구름의 뿌리에 닿은 듯하고, 산악 중에 으뜸으로 받드니, 기이한 바위는 우뚝 솟아 북두칠성의 자루를 찌르는구나. 푸르기는 짙은 눈썹먹 같고, 검푸르기는 떠도는 쪽빛 같구나. 장승요(張僧繇)의 신묘한 붓으로도 다 그리기 어렵고, 이용면(李龍眠)의 천기(天機, 신묘한 솜씨)로도 그려내지 못하네. 깊은 동부(洞府)에는 달빛이 만 갈래 금빛 노을처럼 날리고, 우뚝 솟은 바위 벼랑에는 햇빛이 천 갈래 자줏빛 불꽃처럼 일렁이는구나. 곁의 사람들은 멀리 가리키며 운지(雲池)의 물결 속 연뿌리가 배만 하다 하고, 옛 노인들은 전해 듣기를 옥정(玉井)의 물속 꽃이 열 길이나 된다 하네. 거령신(巨靈神)이 노하여 산꼭대기를 쪼개 신통력을 떨쳤고, 진 처사(陳處士)는 고결하여 띠집(茆庵)을 짓고 졸며 잠들었도다. 천고에 이름을 전하여 화악(華嶽)을 으뜸으로 꼽으니, 만년토록 향불을 피워 금천(金天, 서악의 신)을 받드네.

송강 일행은 서악 화산을 바라보고 화주 성의 견고하고 웅장한 형세를 확인했으나, 딱히 손을 쓸 방도가 없어 막막하기만 했다. 오용이 말했다. "일단 산채로 돌아가 다시 의논해 봅시다." 다섯 사람은 밤을 도와 말을 달려 소화산으로 돌아왔다. 송강은 미간을 펴지 못한 채 근심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자 오용이 말했다. "우선 영리한 졸개 열댓 명을 산 아래로 보내 멀고 가까운 곳의 소식을 알아오게 합시다."

이틀 뒤, 갑자기 한 사람이 산으로 올라와 보고했다. "지금 조정에서 전사태위(殿司太尉)를 파견했는데, 황하를 거쳐 위하로 들어오며 임금님께 받은 '금령조괘(金鈴弔掛, 금방울 장식)'를 가지고 서악에 내려와 향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용은 그 말을 듣고 즉시 말했다. "형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계책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준과 장순을 불러 말했다. "너희 둘은 나를 따라 이렇게 이렇게 하거라……." 이준이 말했다. "다만 지형을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 길을 안내할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백화사' 양춘이 나섰다. "소제가 함께 가서 돕는 게 어떻겠습니까?" 송강이 크게 기뻐하며 세 사람은 산 아래로 내려갔다. 다음 날, 오용은 송강, 이응, 주동, 호연작, 화영, 진명, 서녕까지 일곱 명을 불러 모았고, 오백여 명의 병사만을 데리고 몰래 산을 내려갔다. 그들은 곧장 위하 나루터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이미 이준, 장순, 양춘이 탈취한 커다란 배 십여 척이 와 있었다. 오용은 화영, 진명, 서녕, 호연작 네 명에게는 강가에 매복하라 일렀고, 송강, 오용, 주동, 이응은 배에 타게 했으며, 이준, 장순, 양춘은 배들을 모두 여울 근처에 숨겼다.

사람들은 밤새 기다렸다. 다음 날 날이 밝자 멀리서 징과 북소리가 울리더니, 황색 깃발에 '흠봉성지서악강향태위 숙원경(欽奉聖旨西嶽降香太尉 宿元景, 성旨를 받들어 서악에 향을 올리는 태위 숙원경)'이라 쓰인 관선 세 척이 다가왔다. 송강은 이를 보고 속으로 기뻐하며 생각했다. '예전에 현녀가 "숙(宿) 자가 겹치는 것을 만나면 경사스러운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더니, 오늘 이 사람을 만났으니 필시 방도가 있을 것이다.'

태위의 배가 강 어귀에 가까워지자, 주동과 이응은 각각 장창을 들고 송강과 오용의 뒤에 섰다. 태위의 배가 나루터에 다다르자 길을 가로막았다. 배에서는 자줏빛 옷에 은띠를 두른 우후(虞候, 호위 무사) 스무여 명이 나와 호통을 쳤다. "네놈들은 무슨 배를 타고 감히 대인께서 지나가시는 길을 가로막느냐?" 송강은 몽둥이를 쥔 채 몸을 굽혀 예를 갖추었다. 오용이 배 머리에 서서 말했다. "양산박 의사 송강이 삼가 뵙습니다."

배 위의 객장사(客帳司, 수행 관리)가 나와 대답했다. "이분은 조정의 태위로, 성지를 받들어 서악에 향을 올리러 가시는 길이다. 너희 같은 양산박 도적놈들이 어찌 감히 앞길을 막느냐!" 오용이 말했다. "저희 의사들은 그저 태위의 존안을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객장사가 다시 말했다. "네놈들이 대체 누구길래 감히 함부로 태위를 뵙겠다는 말이냐!" 양쪽의 우후들이 소리쳤다. "조용히 하지 못할까!"

송강이 말했다. "잠시 태위를 육지로 모셔가면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객장사가 대꾸했다. "헛소리 마라! 태위께서는 조정의 명신이신데 어찌 너희와 상의를 한단 말이냐?" 송강이 말했다. "태위께서 만나주지 않으시면, 혹여 저희 부하들이 놀라 태위를 해치기라도 할까 걱정됩니다."

주동이 창에 달린 작은 깃발을 한 번 휘두르자, 강가에 매복해 있던 화영, 진명, 서녕, 호연작이 군사를 이끌고 나타났다. 그들은 일제히

활을 겨누며 강 어귀를 에워싸고 강가에 늘어섰다. 배 위의 사공들은 겁에 질려 모두 선실 안으로 숨어버렸다. 객장사 일행은 당황하여 보고하러 달려갔고, 숙태위는 어쩔 수 없이 배 머리로 나와 자리에 앉았다.

송강이 몸을 굽혀 인사하며 말했다. "송강 등이 무례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숙태위가 물었다. "의사들이 어찌하여 이토록 배를 가로막는 것이오?" 송강이 답했다. "저희가 어찌 감히 태위를 가로막겠습니까? 그저 태위를 육지로 모셔가 드릴 말씀이 있을 뿐입니다." 숙태위가 말했다. "나는 지금 성지를 받들어 서악에 향을 올리러 가는 길인데, 의사들과 상의할 일이 무엇이란 말이오? 조정의 대신이 어찌 이리 쉽게 육지에 발을 들이겠소?"

송강이 말했다. "태위께서 거절하신다면, 아래에 있는 저희 부하들이 태위를 용납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응이 창을 휘두르자, 이준, 장순, 양춘이 일제히 배를 밀고 나갔다. 숙태위는 그 광경을 보고 크게 놀랐다. 이준과 장순은 번쩍이는 칼을 손에 쥐고는 배 위로 훌쩍 뛰어올라, 먼저 우후 두 명을 물속으로 처넣었다. 송강이 급히 꾸짖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귀한 분을 놀라게 할 셈이냐!"

이준과 장순은 곧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어 우후 두 명을 다시 배 위로 끌어올렸다. 장순과 이준은 물 위를 마치 평지를 걷듯 움직이며 다시 배 위로 뛰어올랐다. 숙태위는 혼비백산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송강이 호통을 쳤다. "부하들은 물러가라! 귀한 분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천천히 태위를 육지로 모시겠다." 숙태위가 말했다. "의사들이 무슨 일이오? 여기서 바로 말해도 좋소."

송강이 말했다. "여기는 이야기를 나눌 만한 곳이 아닙니다. 부디 산채로 모셔가 드릴 말씀이 있으니, 해칠 마음은 추호도 없음을 알아주십시오.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서악의 신령께서 저를 벌하실 것입니다!" 이쯤 되니 태위로서도 육지로 올라오지 않을 수 없었다. 숙태위는 어쩔 수 없이 배를 떠나 육지로 올라왔다. 사람들은 말 한 마리를 끌고 와 태위를 부축해 말에 태웠고, 태위는 하는 수 없이 일행을 따라나섰다. 송강은 먼저 화영과 진명을 시켜 태위를 모시고 산으로 올라가게 했다. 송강도 뒤따라 말에 올라타, 배에 있는 모든 사람과 향, 제물, 그리고 '금령조괘'를 빠짐없이 챙겨 산으로 올리라고 명령했다. 이준과 장순에게는 백여 명의 병사를 남겨 배를 지키게 했다.

두령 일행이 모두 산 위로 올라오자, 송강은 말에서 내려 산채로 들어갔다. 그는 숙태위를 부축하여 취의청(聚義廳, 양산박의 집회 장소) 한가운데 앉혔고, 여러 두령이 양옆에 늘어서서 모셨다. 송강은 네 번 절을 올린 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을 고했다.

"송강은 본래 운성현의 작은 관리였으나, 관아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어쩔 수 없이 산림에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잠시 양산박의 물을 빌려 몸을 피하며, 오로지 조정의 초안(招安, 항복을 권유하여 관직을 주는 것)을 기다려 나라를 위해 힘쓰고자 할 뿐입니다. 지금 저희 형제 두 명이 아무 잘못 없이 하 태수의 모함으로 인해 옥에 갇혀 있습니다. 태위께서 가져오신 향과 의장물, 그리고 '금령조괘'를 빌려 화주를 속여내고자 합니다. 일이 끝나면 모두 돌려드릴 것이며, 태위께는 추호의 해침도 없을 것입니다. 부디 태위께서 살펴주십시오."

숙태위가 말했다. "그대들이 향과 물건들을 가져가서 일을 치르다가, 내일이라도 일이 탄로나면 소관(小官, 낮은 관직을 스스로 일컫는 말)이 연루될 것이 아니오?"

송강이 말했다. "태위께서 도성으로 돌아가실 때, 모든 책임을 송강에게 돌리시면 됩니다."

숙태위가 그 무리들의 기세를 보고 어찌 책임을 피할 수 있겠는가. 결국 그는 응낙할 수밖에 없었다. 송강은 잔을 들어 연회를 베풀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고는 태위가 데려온 사람들의 옷을 모두 빌려 입었다. 부하들 중에서 용모가 준수한 자 하나를 골라 수염을 깎게 한 뒤 태위의 옷을 입혀 숙원경으로 변장시켰다. 송강과 오용은 객장사로, 해진, 해보, 양웅, 석수는 우후로 변장했다. 나머지 부하들은 자줏빛 옷에 은띠를 두르고 깃발과 의장물, 제례 도구들을 들었으며, 황제의 향과 제물, '금령조괘'를 받들어 들었다. 화영, 서녕, 주동, 이응은 네 명의 관아 병사로 변장했다. 주무, 진달, 양춘은 태위와 그 수행원들을 정중히 모시며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한편 진명과 호연작에게는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게 하고, 임충과 양지에게도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게 하여 두 갈래로 나누어 성을 치기로 했다. 무송은 미리 서악 문 아래에서 대기하며 신호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게 했다.

이야기는 이와 같다. 일행은 산채를 떠나 곧장 강 어귀로 가서 배를 타고 출발했다. 화주 태수에게 알리지 않고 곧장 서악 묘로 향했다. 대종이 먼저 운대관(雲臺觀)의 관주와 묘의 관리들에게 소식을 전하니, 그들이 배가 있는 곳까지 마중 나와 육지로 안내했다. 향과 꽃, 등불과 초, 깃발과 보개(寶蓋, 보석으로 장식한 덮개)를 앞세워 정중히 차려놓

았다. 먼저 황제의 향을 향정(香亭, 향을 피우는 정자)에 올리게 하고, 묘의 일꾼들이 '금령조괘'를 메고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다. 관주가 태위를 뵙고 절을 올렸다.

오용이 말했다. "태위께서 오시는 길에 병이 들어 몸이 불편하시니, 우선 가마를 가져오시오." 좌우의 사람들이 태위를 부축해 가마에 태운 뒤, 곧장 악묘(岳廟, 서악 묘) 안의 관청으로 모셔가 쉬게 했다. 객장사로 변장한 오용이 관주에게 말했다. "이것은 특별히 성지를 받들어 황제의 향과 '금령조괘'를 가져와 성제(聖帝)께 공양하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고을의 관리들이 소홀히 하여 마중을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까?"

관주가 대답했다. "이미 사람을 보내 보고하였으니, 곧 도착할 것입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 고을의 추관(推官, 지방관의 보좌관)이 부하 50~70명을 거느리고 술과 과일을 들고 태위를 뵈러 왔다. 사실 태위로 변장한 부하가 겉모습은 비슷했으나 말솜씨가 서툴렀기에, 그저 병이 든 척하며 침상 주위에 방석을 둘러쌓고 앉아 있게 한 것이었다. 추관이 보니, 가져온 깃발과 문기, 의장물 등이 모두 내부(內府, 황실 창고)에서 만든 것이니 어찌 믿지 않겠는가? 객장사는 짐짓 드나들며 두어 번 보고하는 척하더니, 추관을 안으로 안내하여 계단 아래 멀찍이서 절을 하게 했다. 가짜 태위는 손가락질만 할 뿐,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체했다.

오용이 그를 앞으로 불러 추관을 나무라듯 말했다. "태위께서는 천자 곁에서 총애를 받는 대신이신데, 천 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성지를 받들어 이곳에 향을 올리러 오셨소. 그런데 길에서 병을 얻어 아직 다

낫지도 않았는데, 이 고을의 관리들은 어찌하여 멀리까지 마중 나오지 않는단 말이오!"

추관이 대답했다. "앞길의 관아로부터 문서가 내려오긴 하였으나, 아직 직접 보고를 받지 못하여 마중이 늦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태위께서 먼저 묘에 도착하셨군요. 본래 태수께서 직접 오실 예정이었으나, 소화산의 도적들이 양산박의 무리와 결탁하여 성을 치려 한다는 소문 때문에 매일 성벽을 지키느라 감히 자리를 비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관이 먼저 와서 술과 예물을 올리는 것입니다. 태수께서는 곧 뒤따라 오실 것입니다."

오용이 말했다. "태위께서는 물 한 모금도 드시지 못하고 계시니, 어서 태수를 불러 예법을 갖추어 상의하게 하시오." 추관은 즉시 술을 가져오게 하여 객장사의 수행원에게 술을 따르게 했다. 오용은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보고를 한 뒤 열쇠를 가지고 나와 추관을 데리고 '금령조괘'를 보러 갔다. 자물쇠를 풀고 향백 주머니 속에서 황제가 하사한 '금령조괘'를 꺼내 추관에게 보여주며 대나무 장대에 끼워 올렸다. 그것을 살펴보니 과연 그 정교함이 비할 데 없이 뛰어났다.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황금으로 두드려 만들고 오색 빛깔로 꾸몄으니, 양옆으로는 술이 달린 금방울이 드리워졌고, 위쪽에는 구슬로 장식한 보개가 걸려 있구나. 황금빛 무늬가 촘촘히 박혀 그 가운데에는 여덟 발 달린 옥룡이 똬리를 틀고 있고, 자줏빛 띠는 아래로 길게 늘어졌으며, 바깥 벽면에는 금빛 봉황 두 마리가 번갈아 날아오르는 듯하구나. 산호와 마노를 마주 박고 호박과 진주로 겹겹이 둘러싸였으며, 푸른 유리 사이로 붉은 비단

등불이 비치고, 붉은 연꽃은 푸른 잎사귀 사이로 어우러져 피어 있도다. 가히 금으로 만든 궁궐과 옥으로 만든 누각에 걸맞으며, 요대(瑤臺, 신선이 사는 언덕)와 보배로운 전각에 걸어둘 만한 귀한 물건이로다.

이 '금령조괘' 한 쌍은 동경(東京, 수도) 내부의 뛰어난 장인들이 만든 것으로, 온통 칠보와 진주를 박아 넣었으며 가운데에는 붉은 비단 등불을 달아놓았다. 이것은 성제께서 전각 중앙에 걸어두시는 물건인데, 내부에서 직접 내려보낸 것이 아니라면 민간에서 어찌 이토록 만들 수 있겠는가? 오용은 추관에게 그것을 보여준 뒤 다시 궤짝에 넣어 자물쇠를 채웠다. 이어 중서성(中書省, 중앙 행정 기관)에서 내려온 수많은 공문을 추관에게 넘겨주었다. 그러고는 태수를 불러 제사 지낼 날짜를 정하게 했다. 추관과 수많은 부하들은 수많은 물건과 문서를 확인하고는, 객장사에게 작별을 고하고 곧장 화주 관아로 돌아가 태수에게 이 소식을 보고했다.

한편, 송강은 속으로 감탄하며 말했다. “저놈이 비록 간사하기 짝이 없으나, 덕분에 저자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속아 넘어갔구나.” 이때 무송은 이미 묘당 문 앞에 도착해 있었다. 오용은 석수에게 날카로운 칼을 숨기게 한 뒤 무송을 돕도록 문 앞에 보냈고, 대종에게는 우후(虞候, 군관 직책)로 변장하게 했다. 운대관 관주는 소채를 올리며 집사들에게 악묘(嶽廟)를 정돈하고 차려놓으라고 일렀다. 송강이 한가로이 서악 묘를 둘러보니, 과연 건물이 훌륭하게 지어져 전각의 규모가 예사롭지 않으니 진정 인간 세상의 천상이라 할 만했다. 송강이 정전에 이르러 향을 피우고 두 번 절하며 속으로 기도를 마친 뒤 관청 앞으로 돌

아오자, 문인이 보고했다. “하 태수가 오고 있습니다.” 송강은 즉시 화영, 서녕, 주동, 이응 네 명의 관군에게 무기를 들게 하여 양옆으로 늘어서게 했고, 해진, 해보, 양웅, 대종에게는 암기를 지니게 하여 좌우에 대기시키게 했다.

한편, 하 태수가 300여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묘당 앞에 도착하여 말에서 내려 무리를 지어 들어왔다. 가짜 객장사 오용과 송강은 하 태수가 칼을 찬 관리들을 300여 명이나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오용이 호통을 쳤다. “조정의 태위께서 여기 계신다! 잡다한 자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사람들이 그 자리에 멈춰 섰다. 하 태수는 홀로 앞으로 나아가 태위를 뵙고자 했다. 객장사가 말했다. “태위께서 태수를 안으로 들여 뵙게 하라 하십니다.” 하 태수가 관청 앞으로 들어와 가짜 태위를 향해 절을 올렸다. 오용이 물었다. “태수, 네 죄를 아느냐?” 태수가 답했다. “제가 태위께서 오신 줄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용이 다시 말했다. “태위께서 칙명을 받들어 이곳 서악에 제사를 지내러 오셨거늘, 어찌 멀리까지 마중 나오지 않았느냐?” 태수가 대답했다. “주(州)에 급히 전해진 보고가 없어 마중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용이 크게 소리쳤다. “게 잡거라!” 해진과 해보 형제는 진즉에 품속에서 단도를 뽑아 들더니, 발로 하 태수를 걷어차 넘어뜨리고는 단숨에 목을 베어버렸다. 송강이 외쳤다. “아우들아, 손을 써라!” 뒤따라온 300여 명의 부하들은 혼비백산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이 묶여버렸다. 화영 등이 일제히 앞으로 달려 나가 그들을 마치 산가지(계산용 막대기) 쓰러뜨리듯 모조리 땅바닥에 쓰러뜨렸다. 그들 중 절반이 묘당 문 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무송과 석수가 칼을 휘두르며 들이닥쳤고, 졸개들이 사방에서 추격하며 살육하니 300여 명

중 살아 돌아간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뒤이어 묘당 안으로 들어오던 자들 역시 장순과 이준에게 모두 죽임을 당했다.

송강이 급히 어향(御香)과 금령조괘(金鈴弔掛)를 거두어 배에 실은 뒤, 모두 화주로 달려가니 성안에서는 이미 두 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일행은 일제히 성안으로 들이닥쳐 먼저 옥에 갇혀 있던 사진과 노지심을 구출했다. 이어 창고를 열어 재물을 챙긴 뒤 수레에 실었다. 일행은 화주를 떠나 배를 타고 소화산으로 올라가 숙태위를 알현했다. 그들은 어향과 금령조괘(金鈴弔掛), 정절(旌節), 문기(門旗), 의장(儀仗) 등의 물건을 모두 돌려드리며 태위의 은혜에 감사를 표했다. 송강은 태위에게 사례할 금은 한 쟁반을 준비하게 했고, 수행원들에게도 지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모두 금은을 나누어 주었다. 이어 산채에서 태위를 배웅하는 잔치를 베풀었다. 모든 두령이 산 아래까지 배웅하여 강어귀에 이르러 모든 집기와 배를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한 뒤, 원래의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일을 마무리했다.

송강은 숙태위에게 작별을 고하고 소화산으로 돌아와, 네 명의 호걸과 함께 산채의 군량과 재물을 정리한 뒤 산채의 울타리에 불을 질러 태워버렸다. 일행은 군사와 말, 식량을 모두 챙겨 양산박을 향해 떠났다.

한편, 숙태위가 배에서 내려 화주 성안에 도착하니, 이미 양산박 도적들에게 군사와 말들이 살해당하고 관청의 창고와 재물이 약탈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성안에서는 군관 백여 명이 죽었고 말들도 모조리 빼앗긴 상태였다. 게다가 서악 묘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숙태위는 즉시 화주의 추관(推官)에게 명령하여 문서를 작

성해 중서성(中書省)에 상소하게 하니, 그 내용은 이러했다. "송강이 먼저 도중에 어향과 금령조괘를 가로챘고, 이로써 지부(知府)를 묘로 유인하여 사람들을 살해했다." 숙태위는 묘에 들러 어향을 피운 뒤, 이 '금령조괘(金鈴弔掛)'를 운대관 관주에게 맡겨두고는 사건을 보고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급히 경사로 돌아갔다. 이는 더 말하지 않는다.

한편, 송강은 사진과 노지심을 구출하고 소화산의 호걸 네 명과 함께 다시 세 팀으로 나누어 군사와 말을 나누어 실은 뒤 양산박으로 향했다. 길을 지나가는 주와 현의 백성들에게는 조금의 피해도 주지 않았다. 먼저 대종을 양산박으로 보내 소식을 알리게 하니, 조개와 여러 두령이 산 아래로 내려가 송강 일행을 맞이했다. 일행은 모두 산채 안의 취의청(聚義廳, 의리를 모으는 집회 장소)에 모여 서로 인사를 나눈 뒤, 한편으로는 기쁨을 나누는 잔치를 베풀었다.

다음 날, 사진과 주무, 진달, 양춘은 각자 자기 재산을 내놓아 잔치를 베풀며 조개와 송강 두 두령, 그리고 여러 두령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다. 이야기는 이쯤 해두자. 어느 날 갑자기 '한지홀률' 주귀가 산으로 올라와 보고했다. "서주(徐州) 패현(沛縣)의 망탕산(芒碭山)에 새로 강도 무리가 나타났는데, 무려 삼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우두머리는 성은 번(樊), 이름은 서(瑞)라고 하며 별호는 '혼세마왕'이라 불리는데, 바람과 비를 부르고 병법을 쓰는 솜씨가 신묘하다고 합니다. 그 수하에는 부장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성은 항(項), 이름은 충(充)으로 별호는 '팔비나타'라 하며 둥근 방패를

쓰는데 그 방패에 비도 스물네 자루가 꽂혀 있고 손에는 철표창을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은 이(李), 이름은 연(兗)으로 별호는 '비천대성'이라 하며 역시 둥근 방패를 쓰는데 그 방패에는 표창 스물네 개가 꽂혀 있고 손에는 보검을 휘두릅니다. 이 세 사람이 형제의 의를 맺고 망탕산을 점거한 채 집집마다 약탈하고 있는데, 세 사람이 상의하기를 우리 양산박 대채를 집어삼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보고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송강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며 말했다. "이 도적놈들이 어찌 이토록 무례하단 말이냐! 내가 다시 한번 산 아래로 내려가겠다!"

이때 구문룡 사진이 일어나 말했다. "저희 네 사람은 이제 막 대채에 도착하여 아직 세운 공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디 저희 부하들을 이끌고 가서 저 강도 무리를 소탕하게 해주십시오."

송강이 크게 기뻐했다. 이에 사진은 즉시 자기 부하들을 소집하고 주무, 진달, 양춘과 함께 무장을 갖춘 뒤 송강에게 작별을 고하고 산을 내려갔다. 그들은 배를 타고 금사탄을 건너 곧장 망탕산으로 향했다.

사흘 만에 멀리서 그 산이 보였는데, 바로 옛날 한나라 고조가 뱀을 베고 의병을 일으켰던 곳이었다. 삼군 인마가 산 아래에 이르자, 길목을 지키고 있던 잔챙이 도적들이 먼저 산 위로 올라가 소식을 알렸다.

한편, 사진은 소화산에서 데려온 인마를 배치했다. 사진은 온몸에 무장을 갖추고 불처럼 붉은 말을 탄 채 앞장서서 진을 쳤다. 사진의 영웅적인 기개가 어떠했는지 시로 이르되,

시가 있어 사진의 용맹함을 증명하니,

화주 성 밖에서 오랫동안 머물렀고, 본래 장원의 농군 출신이라네. 무예를 익혀 담력은 가히 호걸이라. 세 갈래 날이 선 칼은 눈처럼 번뜩이고, 붉은 말은 마치 용이 꿈틀대는 듯하구나.

온몸에는 고리 모양의 강철 갑옷을 입었고, 전포는 바람에 휘날릴 때마다 핏빛처럼 붉었으며, 그 위에는 청색 조각과 옥 무늬가 새겨져 더욱 영롱하게 빛났다.

강호에서는 이를 사진이라 부르며, 별호는 '구문룡'이라 한다.

이때 사진이 가장 먼저 말에 올라타 앞으로 나섰는데, 손에는 세 갈래 날이 달린 도(刀)를 가로로 쥐고 있었다. 사진의 뒤에는 세 명의 두령이 따르고 있었는데, 그중 가운데에 선 이가 바로 '신기군사' 주무였다. 그는 본래 정원현 사람으로, 평생 지략이 뛰어나고 꾀가 많았으며 쌍도(雙刀)를 다루는 솜씨 또한 일품이었다. 그가 진영 앞으로 나아가자, 주무의 뛰어난 능력을 찬양하는 여덟 구절의 시가 흘러나왔다.

도포는 종려잎으로 지어 만들고,
구름 모양 모자는 사슴 가죽으로 깎았네.
붉은 얼굴에 두 눈은 준수하며,
얼굴에는 가느다란 수염이 드리워졌구나.
지혜는 장량을 비견할 만하고,
재주는 범려를 능가할 정도라네.

이제 오용의 몫을 다할 만하니,
주무는 신기한 책략가라 불리리라.

앞장선 말 위에는 한 명의 호걸이 앉아 있었는데, 손에는 흰 점이 박힌 강철 창을 가로로 쥐고 있었다. 그의 별호는 '도간호(跳澗虎)' 진달이며, 본래 업성 사람이다. 그가 창을 들고 말을 달려 진영 앞으로 나아가자, 진달의 용맹함을 찬양하는 시가 한 수 흘러나왔다.

힘센 이들이 호랑이처럼 뛰는 것을 매번 보아왔고,
맹렬한 호랑이가 산골짜기를 뛰어넘는 것도 보아왔네.
과연 진달은 사람 중의 호랑이라,
말을 달려 창을 휘두르며 북소리에 맞춰 용맹히 싸우네.

그 아래쪽 말 위에는 한 명의 호걸이 앉아 있었는데, 손에는 커다란 도(刀)를 들고 있었다. 그의 별호는 '백화사' 양춘이며, 본래 해량현 포성 사람이다. 그가 도를 치켜들고 말 위에 서서 진영의 문을 지키자, 양춘의 용맹함을 찬양하는 시가 한 수 흘러나왔다.

양춘의 이름 또한 화려하고 드높으니,
소화산에서 오랫동안 도적질하며 살았네.
팔다리를 쭉 뻗으니 힘이 아주 세서,
커다란 코끼리도 삼킬 듯한 백화사라네.

네 명의 호걸이 말의 고삐를 당겨 진영 앞에 멈춰 서자, 얼마 지나지 않아 망탕산 위에서 한 무리의 인마가 쏜살같이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 선두에는 두 명의 호걸이 서 있었는데, 앞장선 이는 서주 패현 사람으로 성은 항, 이름은 충이며 별호는 '팔비나타'였다. 그는 둥근 방패를 들고 있었고, 등에는 스물네 자루의 비도를 꽂고 있었는데 백 보 밖에서도 사람을 맞히지 못하는 법이 없었다. 오른손에는 표창을 쥐고 그 뒤로는 '팔비나타'라고 적힌 군기를 휘날리며 걸어서 산을 내려오고 있었다. 항충의 용맹함을 찬양하는 시가 여덟 구절 있어 이를 적는다.

철모는 머리를 깊게 가리고
구리 고리는 턱을 반쯤 가렸네.
옆에는 짐승 얼굴 방패 걸려 있고
날카로운 칼날은 용의 배에 박혔구나.
발놀림은 바람과 불처럼 빠르니
몸놀림에 앞서 재앙이 닥쳐오네.
나타가 여덟 팔을 가졌다고 하지만
이 자는 바로 항충이라네.

그다음 인물은 비현 사람으로 성은 이(李), 이름은 곤(袞)이며 별호는 '비천대성(飛天大聖)'이었다. 그는 둥근 방패를 다룰 줄 알았고, 등에는 스물네 자루의 표창을 꽂고 있었는데 이 또한 백 보 밖에서도 사람을 맞히는 솜씨를 지녔다.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검을 쥐었으며, 그 뒤로는 '비천대성'이라 적힌 군기를 휘날리며 진영 앞으로 나아왔다. 이곤을 노래한 여덟 구의 시가 있어 이를 적는다.

투구는 머리를 덮고, 도포는 가슴을 철갑처럼 가리고 있었다.

가슴에는 땅에 끌릴 만큼 커다란 담력을 품었고, 무성한 털 아래에는 사람을 죽이려는 살심(殺人心)을 감추고 있었다.

날카로운 비도는 옥처럼 빛나며 일제히 쏟아졌고, 거친 문양이 새겨진 방패는 금빛으로 가득했다.

하늘을 나는 듯한 위엄으로 '대성(大聖)'이라 불리니, 이곤의 위용에 모두가 경외심을 품고 우러러보았다.

그때 두 사람이 걸어서 산을 내려가 보니, 사진, 주무, 진달, 양춘 네 사람이 말을 타고 진영 앞에 맞서 있는 것이 보였다. 두 사람은 별다른 말도 없이 부하들에게 징을 치게 한 뒤, 둥근 방패를 휘두르며 곧장 적진을 향해 굴러 들어갔다. 사진 일행은 이를 막아내지 못해 후군이 먼저 퇴각했다. 사진의 전군이 적을 막아내고 주무 일행의 중군이 함성을 지르며 어지러이 흩어져 달아나니, 이른바 사람은 멈추려 해도 말이 멈추지 못하는 형국이라 결국 30~40리나 밀려나며 싸우다 물러났다. 사진은 하마터면 날아오는 비도에 맞을 뻔했다. 양춘은 몸을 돌리는 것이 늦어, 날아온 비도에 전마가 부상을 입자 말을 버리고 목숨을 구해 달아났다. 사진이 군사를 점검해 보니 병력의 절반이 꺾인 상태였다. 그는 주무 등과 상의하여 사람을 양산박으로 보내 구원을 요청할 계획을 세웠다. 한창 우려하며 의논하던 중, 군사가 달려와 보고했다. '북쪽 큰 길 쪽에서 먼지 구름이 일며 약 2천 명의 군마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사진 일행이 곧장 맞이하러 나가보니, 다름 아닌 양산박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고, 선두에는 두 명의 장수가 말을 타고 있었다. 한 명은 소이광 화영이었고, 다른 한 명은 금창수 서녕이었다. 사진이 이들을 맞이하며 항충과 이곤이 거친 방패를 굴리며 몰아치니 군마로도 막을 길이

없었다는 상황을 설명했다. 화영이 말했다. '송강 형님께서 형님(사진)이 이곳으로 오신 것을 아시고 마음을 놓지 못한 채 몹시 후회하시다가, 특별히 우리 둘을 보내 돕게 하셨습니다.' 사진 일행은 크게 기뻐하며 군사를 합쳐 진을 쳤다. 다음 날 새벽, 막 군사를 일으켜 적을 맞이하려는데 군사가 보고했다. '북쪽 큰길로 또 군마가 오고 있습니다!' 화영과 서녕, 사진이 일제히 말을 타고 마중을 나가니, 바로 송강이 직접 군사 오용, 공손승, 시진, 주동, 호연작, 목홍, 손립, 황신, 여방, 곽성을 거느리고 3천 명의 군마를 이끌고 나타난 것이었다. 사진은 항충과 이곤의 비도와 표창, 그리고 굴러오는 방패 때문에 적에게 접근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병력이 얼마나 꺾였는지를 상세히 보고했다. 송강이 크게 놀라자 오용이 말했다. '우선 군마를 정돈하여 진영을 치고 나서 다시 의논합시다.' 그러나 성격이 급한 송강은 곧장 군사를 일으켜 적을 소탕하겠다며 산 아래까지 내려갔다. 이때 이미 날이 저물어 바라보니, 망탕산 곳곳에 푸른 등롱이 켜져 있었다. 이를 본 공손승이 말했다. '저 진영에 켜진 푸른 등롱을 보니, 필시 요술을 부리는 자가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일단 군마를 물리시지요. 내일 제가 진법을 하나 내놓아 저 두 사람을 사로잡겠습니다.' 송강은 크게 기뻐하며 명령을 내려 군마를 20리 뒤로 물려 진을 치게 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공손승이 그 진법을 내놓으니, 이리하여 마왕(魔王)이 두 손을 맞잡고 양산박으로 오르고, 신장(神將)이 마음을 기울여 물가로 귀의하게 되었다. 결국 공손승이 어떤 진법을 내놓았는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60회 — 공손승이 망동산에서 마를 굴복시키고, 조 천왕이 증두시에서 화살을 맞다

公孫勝芒碭山降魔 晁天王曾頭市中箭

이야기는 이러하다. 공손승이 송강과 오용에게 진법 도면을 내보이며 말했다.

"이것은 한나라 말기 삼국시대에 제갈공명이 돌을 놓아 진을 쳤던 방식입니다. 사방팔방으로 여덟씩 여덟 묶음, 즉 예순네 개의 부대로 나누고 그 한가운데에 대장이 자리 잡는 것이지요. 그 형상은 머리가 넷이고 꼬리가 여덟이며, 왼쪽과 오른쪽으로 회전하며 천지의 바람과 구름의 기운을 따르고 용과 호랑이, 새와 뱀의 형상을 띱니다. 적군이 산을 내려와 진 안으로 돌진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양쪽 군사가 일제히 움직여 마치 적을 진 안으로 끌어들이듯 유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칠성기(七星旗)가 휘날리는 것을 보고 진을 긴 뱀의 형세로 바꿉니다. 그때 빈도가 도술을 부려 저 세 사람이 진 안에서 앞뒤로 갈 길도

없고 좌우로 문도 없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감(坎)의 땅에 함정을 파서 저 세 사람을 그곳까지 몰아붙인 뒤, 양옆에 매복해 있던 갈고리잡이들이 일제히 튀어나와 적장을 사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송강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즉시 장령을 내려 크고 작은 장수들에게 명령대로 행하라고 일렀다. 이어 여덟 명의 맹장을 뽑아 진을 지키게 하니, 그들은 호연작, 주동, 화영, 서녕, 목홍, 손립, 사진, 황신이었다. 또한 시진, 여방, 곽성에게는 중군을 맡아 지휘하게 하고, 송강과 오용, 공손승은 진달과 함께 깃발을 들고 앞장서게 했다. 주무에게는 군사 다섯 명을 거느리고 가까운 산 언덕 위에서 진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피며 보고하도록 명했다.

그날 사패시(巳牌時, 오전 9시~11시 사이) 무렵, 군사들이 산 근처에 진을 치고 깃발을 흔들며 북을 울려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망탕산 위에서 스무 개가 넘는 징 소리가 땅이 울릴 정도로 요란하게 울려 퍼지더니, 세 명의 우두머리가 일제히 산 아래로 내려와 삼천여 명의 군사를 배치했다. 좌우 양옆에는 항충과 이곤이 섰고, 중앙 말 위에는 그들을 이끄는 호한이 솟아 있었으니, 성은 번이고 이름은 서이며 본래 복주 출신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전진교의 도사 노릇을 하며 강호에서 뛰어난 무예를 익혔다. 말 위에서 유성추를 휘두르는 솜씨가 귀신같이 신출귀몰하여, 적장을 베고 깃발을 빼앗는 기세에 감히 누구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니, 그 별호가 바로 '혼세마왕'이었다. 번서의 영웅다운 면모가 어떠한지는 다음과 같은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한다.

시가 이르되,

푸른 머리카락은 흩어져 가늘게 늘어지고, 검은 비단 옷에는 수놓은 무늬가 가득하네.
연결된 철갑은 차가운 밤하늘 아래 번뜩이고, 신묘한 구리 망치를 휘두르는 데 익숙하구나.
마치 북방의 진무 대제처럼, 세상의 괴물을 굴복시키고 요괴를 물리치네.
강과 바다를 떠돌며 이름을 떨치니, 혼세마왕이라는 별호가 아깝지 않구나.

'혼세마왕' 번서는 검은 말을 타고 진 앞에 섰다. 그의 위쪽에는 항충이, 아래쪽에는 이곤이 자리했다. 번서는 신통한 도술과 요술을 부릴 줄은 알았으나 진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송강의 군사들이 사방팔방으로 진을 친 것을 보고는 속으로 은밀히 기뻐하며 생각했다. '흥, 진을 쳤단 말이냐? 내 계략에 빠질 줄 알아라!' 번서는 항충과 이곤에게 명령했다. "바람이 일기 시작하면, 너희 둘이 오백 명의 곤도수(滾刀手, 짧은 칼을 쓰는 보병)를 이끌고 진 안으로 돌격하라." 명령을 받은 항충과 이곤은 각자 만패(蠻牌, 방패의 일종)를 쥐고 표창과 비검을 든 채 번서의 신호만을 기다렸다. 번서가 말 위에 서서 왼손으로는 유성동추를 움켜쥐고 오른손으로는 혼세마왕 보검을 든 채, 입으로 주문을 외우며 크게 외쳤다. "빨리!" 그러자 사방에서 광풍이 휘몰아치고 모래와 돌이 날아다니며 하늘은 어둡고 땅은 뒤집힌 듯 해와 달의 빛조차 보이지 않았다. 항충과 이곤은 함성을 지르며 오백 명의 곤도수를 거느리고 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송강의 군사들은 적군이 달려드는 것을 보고는 좌우로 갈라져 길을 내주었다. 항충과 이곤이 진 안으로 파

고들며 강궁과 쇠뇌를 쏘아 적들을 막아냈으나, 겨우 마흔~쉰 명 정도만이 진 안으로 들어갔을 뿐 나머지는 모두 본진으로 되돌아갔다.

송강이 높은 언덕 위에서 항충과 이곤이 진 안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는, 진달에게 칠성기를 한 번 흔들라고 일렀다. 그러자 진세가 요동치며 구르더니 긴 뱀의 형세를 띤 장사진(長蛇之陣)으로 변했다. 항충과 이곤은 진 안에서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달아나며 좌우로 회전했지만, 도무지 길을 찾을 수 없었다. 언덕 위에서는 주무가 작은 깃발로 그들의 방향을 안내하고 있었다. 그들이 동쪽으로 움직이면 주무가 동쪽을 가리켰고, 서쪽으로 움직이면 서쪽을 가리켰다.

한편, 높은 곳에서 이를 지켜보던 공손승은 이미 송문고정검을 뽑아들고 주문을 외우며 크게 외쳤다. "빨리!" 그가 부린 바람은 항충과 이곤의 발치만을 따라 사납게 휘몰아쳤다. 진 안에 있는 두 사람은 하늘이 어둡고 해의 빛이 사라진 듯한 가운데, 사방에 군사 한 명 보이지 않고 온통 검은 기운뿐임을 깨달았다. 뒤따라오던 부하들도 모두 보이지 않았다. 항충과 이곤은 마음이 급해져 어떻게든 길을 찾아 본진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온갖 방법을 써도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없었다. 한참을 헤매던 그때, 갑자기 천둥소리가 크게 울리더니 두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발을 헛디뎌 함정 속으로 굴러떨어졌다. 양옆에 매복해 있던 갈고리 잡이들이 즉시 두 사람을 낚아채 삼줄로 꽁꽁 묶은 뒤, 산 언덕 위로 끌고 올라가 공을 세웠다. 송강이 채찍 끝으로 가리키자 삼군이 일제히 달려들어 공격했고, 번서는 사람들을 이끌고 산 위로 도망치려 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채 군사의 태반을 잃고 말았다.

송강이 군사를 거두자, 여러 두령이 장막 앞에 모여 앉았다. 군사들이 이미 항충과 이곤을 풀어 송강의 휘하로 데려온 상태였다. 송강은 그들을 보고 서둘러 밧줄을 풀게 한 뒤, 직접 술잔을 권하며 말했다.

"두 장사, 사실 너무 원망하지 마시오. 적을 마주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소. 나 송강은 세 분 장사의 대명을 오래전부터 익히 들어, 직접 찾아가 예우를 갖춰 산채로 모시고 함께 대의를 나누고자 했소. 다만 때를 맞추지 못해 이렇게 어긋나고 말았구려. 만약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산채로 돌아가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겠소."

두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말했다. "이미 '급시우'의 대명은 익히 들었으나, 저희가 인연이 없어 직접 뵙지 못했을 뿐입니다. 과연 형님께서는 대의를 품고 계시는군요! 저희 두 사람이 사람 볼 줄을 몰라 하늘과 땅을 거스르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로잡혔으니 만 번 죽어도 마땅하나, 오히려 예우로 대해주시니 송구할 따름입니다. 만약 저희를 죽이지 않으신다면, 목숨을 바쳐 이 큰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번서 그 사람은 저희 두 사람이 없으면 어찌 움직이겠습니까? 의로운 두령님께서 만약 저희 중 한 명이라도 돌려보내 주신다면, 번서가 귀순하러 오겠다고 전하겠습니다. 두령님의 뜻은 어떠하십니까?"

송강이 즉시 대답했다. "장사, 한 명을 이곳에 볼모로 남겨둘 필요 없소. 두 분 모두 함께 귀한 산채로 돌아가시오. 나 송강이 내일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소."

두 사람이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참으로 대장부이십니다! 만약 번서가 항복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그를 사로잡아 두령님의 휘하에 바치겠습니다."

송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그들을 중군으로 모셔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또한 새 옷 두 벌과 좋은 말 두 필을 내어주고, 졸개들에게 창과 패를 들게 하여 두 사람을 산 아래 산채까지 배웅하게 했다.

두 사람은 돌아가는 길 내내 말 위에서 감격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했다. 망탕산 아래에 이르자, 졸개들이 그들을 보고 깜짝 놀라며 산채로 모셔 왔다. 번서가 두 사람에게 어찌하여 왔는지 묻자, 항충과 이곤이 말했다.

"저희는 하늘의 뜻을 거스른 자들이니, 마땅히 만 번 죽어야 합니다!"

번서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형제들, 어찌 그런 말을 하는가?"

두 사람은 송강이 보여준 의로운 기개를 하나하나 말해주었다. 번서가 말했다. "송공명이 그토록 어질고 의리가 깊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되지. 내일 아침 모두 함께 산을 내려가 귀순하세."

두 사람도 덧붙였다. "저희도 그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날 밤 산채를 말끔히 정리하고, 다음 날 날이 밝자 세 사람은 함께 산을 내려가 송강의 진영 앞에 이르러 땅에 엎드려 절했다. 송강은 세

사람을 일으켜 세워 장막 안으로 모셔 앉혔다. 세 사람은 송강을 대함에 있어 조금의 의심도 없이,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으며 평생의 사정을 고했다. 세 사람은 모든 두령을 망탕산 산채로 모셔 소와 말을 잡아 송공명과 여러 두령을 대접하고 삼군의 노고를 치하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연회가 끝나자 번서는 공손승을 스승으로 모셨다. 송강은 공손승이 번서에게 오뢰천심정법(五雷天心正法, 번개를 부리는 도법)을 전수하도록 주선하였고, 번서는 크게 기뻐했다. 며칠 사이 그들은 소와 말을 몰아 산채의 군량과 재물을 챙기고 짐을 꾸린 뒤, 인마를 모으고 산채의 울타리를 모두 태워버렸다. 그러고는 송강 일행을 따라 양산박으로 돌아갔으며, 가는 길에 별다른 일은 없었다.

송강이 여러 호걸과 군마를 거느리고 양산박 근처에 도착하여 나루를 건너려는데, 갈대밭이 우거진 강변 큰길에서 한 대한이 송강을 보고 절을 하는 것이 아닌가. 송강이 서둘러 말에서 내려 그를 부축하며 물었다.

"그대는 성함이 무엇이며, 어디서 온 사람이오?"

그 사내가 대답했다. "소인은 성은 단, 이름은 경주라 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붉은 머리에 황색 수염이 났다 하여 모두 '금모견'이라 부릅니다. 고향은 탁주입니다. 평생 북쪽 땅을 돌아다니며 말을 훔쳐 살아왔습니다. 이번 봄에 창간령 북쪽으로 갔다가 아주 좋은 말 한 필을 훔쳤는데, 눈처럼 하얗고 깨끗하여 몸에 잡색 털이 한 가닥도 없었습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길이는 한 장(丈)이고, 발굽에서 등까지 높

이는 여덟 척(尺)에 달했습니다. 그 말은 키도 크고 덩치도 커서 하루에 천 리를 달릴 정도라 북방에서 '조야옥사자마'라 불리는 유명한 말입니다. 대금나라 왕자가 타던 말인데, 창간령 아래에 있던 것을 제가 훔쳐 왔습니다. 강호에서 '급시우'의 대명을 익히 들었으나 만날 길이 없어, 이 말을 두령님께 바쳐 제 충성을 표하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능주 서남쪽을 지나 증두시를 거치게 되었는데, 그곳 증씨네 다섯 호랑이에게 말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양산박의 송공명님이라고 말했더니, 그놈들이 워낙 상스러운 욕설을 퍼부어 차마 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겨우 도망쳐 나와 이렇게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송강이 이 사람을 살펴보니, 비록 뼈만 앙상하고 체구는 거칠었으나 생김새가 매우 기이했다.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누런 머리카락과 수염이 곱슬거리고,
빠른 발로 천 리 길도 마다하지 않네.
말을 훔치는 데는 능하나 집은 돌보지 않으니,
어찌하여 금빛 털을 가진 개라 부르는가?

송강은 단경주의 모습이 범상치 않은 것을 보고 속으로 기뻐하며 말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우선 산채로 들어가 함께 의논해 보세."

송강은 단경주를 데리고 함께 배에서 내려 금사탄에 상륙했다. 조개와 여러 두령은 취의청으로 마중을 나왔고, 송강은 번서, 항충, 이곤을 다른 두령들에게 소개했다. 단경주도 함께 절을 올렸다. 곧이어 과청의 북을 울려 축하 연회를 베풀었다. 송강은 산채에 인마가 계속 늘어나고 사방의 호걸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드는 것을 보고, 이운과 도종왕에게 명하여 집을 더 짓고 사방의 울타리를 보수하도록 감독하게 했다. 단경주가 다시 그 말의 뛰어난 점을 이야기하자, 송강은 '신행태보' 대종을 보내 증두시에 가서 그 말의 행방을 알아보게 했다.

대종이 사나흘 뒤에 돌아와 여러 두령에게 말했다.

"증두시에는 집이 삼천여 가구 정도 되는데, 그중 '증가부'라고 불리는 집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 영감은 원래 대금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증장자라 합니다. 슬하에 다섯 아들을 두었는데, 이들을 '증가오호'라 부릅니다. 큰아들은 증도, 둘째는 증밀, 셋째는 증삭, 넷째는 증괴, 다섯째는 증승이라 합니다. 또한 교사(教師, 무예 사범)인 사문공과 부교사(副教師) 소정이 있습니다. 그 증두시에는 오칠천 명에 달하는 군마를 모아 진을 치고, 함차(陷車, 죄인을 가두는 수레)를 오십여 대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우리와는 결코 양립할 수 없으며, 반드시 우리 산채의 두령들을 모조리 잡아다 대적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 조야옥사자마는 지금 교사 사문공이 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놈들이 참으로 가증스러운 점은, 시장 아이들이 부를 수 있도록 몇 구절을 지어 노래까지 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철고리와 방울 흔드니 신과 귀신도 깜짝 놀라네. 철수레와 쇠사슬 위아래에는 뾰족한 못이 박혔구나. 양산박의 맑은 물을 쓸어버리고,

조개를 쳐 없애 동경으로 끌고 가자! 급시우를 생포하고 지다성을 산채로 잡아라! 증씨네 다섯 호랑이, 천하에 이름을 떨치네!'"

조개가 이 말을 듣고는 크게 분노하며 말했다.

"이 짐승 같은 놈들이 어찌 이토록 무례하단 말이냐! 내가 직접 가서 저놈들을 잡지 못한다면, 결코 산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송강이 말했다.

"형님은 산채의 주인으로서 함부로 움직이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대신 다녀오겠습니다."

조개가 대답했다.

"자네 공을 뺏으려는 게 아니네. 자네는 이미 여러 번 산을 내려가 싸우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 있지 않은가. 이번에는 내가 대신 가겠네. 다음에 일이 생기면 그때 자네가 가게나."

송강이 간곡히 말렸으나 듣지 않았다. 조개는 분노한 기세를 꺾지 않고 곧장 오천 명의 군마를 일으켰으며, 스무 명의 두령에게 함께 내려가 도와달라고 청했다. 나머지 인원들은 모두 송공명과 함께 산채를 지키기로 했다.

조개는 임충, 호연작, 서녕, 목홍, 유당, 장횡, 완소이, 완소오, 완소칠, 양웅, 석수, 손립, 황신, 두천, 송만, 연순, 등비, 구팽, 양림, 백승까지 총 스무 명의 두령을 지목했다. 이들은 삼군(三軍)의 인마를 이끌

고 증두시를 향해 출정했다. 송강은 오용, 공손승, 그리고 여러 두령과 함께 산 아래 금사탄으로 내려가 송별회를 베풀었다.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더니 조개가 새로 만든 군기(軍旗)를 허리춤에서 꺾어버렸다. 이를 본 사람들은 모두 안색이 변했다. 오용이 간곡히 말렸다.

"이것은 불길한 징조입니다. 형님, 출정은 다른 날로 미루시지요."

송강도 거들었다.

"형님, 막 출정하려는데 바람이 불어 깃발이 꺾였으니 군사에 불리합니다. 차라리 며칠 머물며 상황을 살핀 뒤에 저놈들을 상대하러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개가 말했다.

"천지의 바람과 구름이 어찌 괴이할 것이 있겠는가? 이 따뜻한 봄기운을 틈타 저놈들을 잡으러 가지 않고, 저놈들이 기세를 키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군한다면 그때는 이미 늦는다. 나를 막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반드시 가야겠다!"

송강은 도저히 그를 말릴 재간이 없었다. 조개는 군사를 이끌고 물을 건너갔다. 송강은 마음이 매우 무겁고 답답했다. 산채로 돌아온 그는 다시 대종을 내려보내 소식을 알아보게 했다.

한편, 조개는 오천 명의 군마와 스무 명의 두령을 거느리고 증두시 근처에 이르러, 그 맞은편에 진을 쳤다. 이튿날, 먼저 여러 두령을 말

에 태워 증두시를 살펴보게 했다. 호걸들이 말을 타고 가서 보니, 과연 증두시는 지세가 험하고 좁은 요충지였다. 그 모습은 이러했다.

들판을 한 바퀴 도니 거친 물줄기 흐르고,
사방 삼면은 높은 언덕이 둘러싸였네.
해자 옆 강가와 항구는 뱀이 똬리 튼 듯하고,
해자 아래 버드나무 숲은 비처럼 빽빽하구나.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짙은 초록 그늘에 마을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고;
근처에서 몰래 엿보니,
푸른 그림자가 뒤엉켜 채와 울타리를 숨기고 있네.
마을의 장정들은,
나오는 기세가 금강역사처럼 용맹하고;
들판의 어린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악하기가 귀신 같구나.
과연 철벽과 구리 성벽 같으니,
정말로 사람들은 강하고 말들은 튼튼하도다.

조개와 여러 두령이 살펴보는 와중에, 버드나무 숲 사이에서 칠팔백 명쯤 되는 한 무리의 인마가 튀어나왔다. 앞장선 호한은 잘 닦인 구리 투구를 쓰고 연환갑을 입었으며, 점강창을 든 채 돌격용 말을 타고 있었다. 그는 바로 증씨 집안의 넷째 아들 증괴(曾魁)였다. 증괴가 큰 소리로 외쳤다.

'너희는 양산박의 나라를 배반한 도적 떼로구나! 내 너희를 잡아 관가에 넘겨 상을 받으려던 참인데, 마침 하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어서 말에서 내려 포박당하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느냐!'

조개가 크게 노하여 뒤를 돌아보니, 이미 한 장수가 말을 몰아 증괴에게 맞서 싸우러 나가 있었다. 그는 바로 양산박에서 처음 의형제를 맺었던 호한, 표자두 임충이었다. 두 사람이 말을 맞대고 스무 합 넘게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증괴는 스무 합쯤 싸우더니 임충을 당해낼 수 없겠다고 판단하고는, 창을 거두어 말을 돌려 버드나무 숲 속으로 달아났다. 임충은 말을 멈추고 쫓아가지 않았다.

조개는 군사를 거두어 진영으로 돌아와 증두시를 공격할 계책을 논의했다. 임충이 말했다.

'내일 바로 마을 입구로 가서 싸움을 청해 봅시다. 적의 허실을 살펴본 뒤에 다시 의논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튿날 새벽, 조개는 오천 명의 군마를 이끌고 증두시 입구의 넓은 벌판에 진을 치고 북을 치며 함성을 질렀다. 증두시 쪽에서 포성(砲聲)이 울리자 대부대가 쏟아져 나왔는데, 일곱 명의 호한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다. 가운데는 도교사(都教師) 사문공(史文恭)이었고, 윗자리(상수)는 부교사(副教師) 소정(蘇定)이었으며, 아랫자리(하수)는 증씨 집안의 장남 증도(曾涂)였다. 왼쪽에는 증밀(曾密)과 증괴(曾魁)가, 오른쪽에는 증승(曾昇)과 증색(曾索)이 있었는데, 모두 전신에 갑옷을 갖춰 입고 있었다. 교사 사문공은 활을 메고 화살을 꽂은 채 천리옥사자마(千里玉獅子馬)를 타고 있었으며, 손에는 방천화극을 들고 있었다.

북소리가 세 번 울리자, 증씨 진영에서 함차(陷車, 죄인을 가두는 수레) 몇 대가 밀려 나와 진 앞에 놓였다. 증도가 맞은편을 가리키며 욕설을 퍼부었다.

'나라를 배반한 도적 놈들아, 내 함차가 보이느냐? 우리 증씨 가문에서 너희를 그냥 죽여버리는 것쯤은 사내대장부가 할 일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한 명씩 산 채로 잡아 함차에 실어 동경(東京)으로 압송한 뒤, 갈갈이 찢어 죽일 것이다. 그러니 어서 항복하라, 그러면 다시 이야기해 보겠다!'

조개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창을 들고 말을 몰아 증도를 향해 돌진했다. 장수들은 조개가 위험에 처할까 두려워 일제히 공격을 퍼부었고, 양군 사이에 혼전이 벌어졌다. 증씨 군사는 한 걸음씩 마을 안으로 물러났다. 임충과 호연작은 조개를 밀착 호위하며 동서로 적들을 몰아쳤다. 임충은 지형이 좋지 않음을 보고 급히 말을 돌려 군사를 거두었다. 양측 모두 인마의 손실이 있었다.

조개가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마음속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장수들이 권했다.

'형님, 부디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너무 근심하시면 옥체에 해롭습니다. 예전에 송강 형님께서 출정하셨을 때도 실패한 적이 있었으나, 어찌 됐든 승리하여 돌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혼전 중에 군사가 좀 줄긴 했어도 적에게 진 것은 아니니, 어찌 그리 근심하십니까?'

조개는 그저 우울해할 뿐이었다. 진영 안에서 사흘 동안 연달아 싸움을 청했으나, 증두시에서는 단 한 명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넷째 날, 갑자기 두 승려가 조개의 진영으로 찾아와 의탁하겠다고 청했다. 군사들이 이들을 중군장 앞으로 인도하자, 두 승려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저희는 증두시 동쪽 법화사의 감사(監寺, 절을 관리하는 승려)입니다. 요즘 증씨 집안의 다섯 형제 짐승 같은 놈들이 수시로 본사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금은보화를 내놓으라 협박하니, 못 하는 짓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놈들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 특별히 두령님께서 산채를 습격하여 그놈들을 소탕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조개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두 승려를 앉히고 술을 대접하며 정성껏 맞이했다. 그러자 임충이 간언했다.

"형님, 함부로 믿지 마십시오. 혹시 속임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승려가 말했다.

"저희는 출가한 몸인데 어찌 감히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양산박이 인의의 도를 행하며 지나가는 곳마다 백성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명성을 익히 들었기에, 특별히 찾아와 의탁하러 온 것입니다. 어찌 장군님을 속이려 하겠습니까? 게다가 증씨 집안이 반드시 두령님의 대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의심부터 하십니까?"

조개가 말했다.

"아우님, 의심을 품어 큰일을 그르치지 말게. 오늘 밤 내가 직접 한 번 가보겠네."

임충이 말했다.

"형님, 직접 가지 마십시오. 저희가 군사의 절반을 나누어 산채를 습격할 테니, 형님께서는 밖에서 지원을 해주십시오."

조개가 말했다.

"내가 직접 가지 않으면 누가 앞장서겠는가? 자네는 군사의 절반을 남겨 밖에서 지원하게나."

임충이 물었다.

"형님께서는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시렵니까?"

조개가 답했다.

"두령 열 명과 이천오백 명의 군사를 뽑아 데리고 들어가겠네."

함께 가는 열 명의 두령은 유당, 완소이, 호연작, 완소오, 구팽, 완소칠, 연순, 두천, 송만, 백승이었다. 그날 밤 저녁을 먹은 뒤, 말의 방울을 떼어 소리를 죽이고 군사들은 재갈을 물린 채 어둠을 틈타 빠르게 움직였다. 그들은 두 승려를 은밀히 뒤따라 법화사로 직행했는데, 도착해 보니 그곳은 오래된 고찰이었다. 조개가 말에서 내려 절 안으로 들어갔으나 승려들이 보이지 않자, 두 승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이 큰 절에 승려가 한 명도 없소?"

승려가 대답했다.

"증씨 놈들이 워낙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다들 속세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노스님과 몇몇 시자들만이 탑 근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두령님께서는 우선 인마를 머물게 하십시오. 밤이 더 깊어지면 저희가 직접 그놈들의 산채로 안내하겠습니다."

조개가 물었다.

"그놈들의 산채가 어디에 있소?"

승려가 말했다.

"산채가 네 곳이나 있는데, 북쪽 산채가 바로 증씨 형제들이 군사를 주둔시킨 곳입니다. 그 산채만 친다면 다른 곳은 건드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나머지 세 곳은 괜찮습니다."

조개가 물었다.

"언제쯤 가면 되겠소?"

승려가 말했다.

"지금은 겨우 이경(二更, 밤 9시~11시 사이)이니, 삼경(三更, 밤 11시~새벽 1시 사이)이 되어 적들이 방비가 허술해질 때를 기다립시다."

처음에는 증두시 쪽에서 정해진 시간에 맞춰 북을 치고 경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반 시진쯤 지나자 더 이상 경을 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승려가 말했다.

"군사들이 모두 잠든 모양이니, 이제 가셔도 됩니다."

승려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다. 조개는 장수들을 데리고 말에 올라 법화사를 떠나 승려들을 따라갔다.

다섯 리 남짓 가지 못했을 때, 어둠 속에서 두 승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니 앞장선 군사들이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사방을 둘러보니 길은 험하고 가기 어려운데 민가조차 보이지 않았다. 군사들이 당황하기 시작하자 이 소식이 조개에게 보고되었다. 호연작이 즉시 왔던 길로 급히 되돌아가자 했다.

백 걸음도 채 못 가서 사방에서 금고(金鼓)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함성이 땅을 뒤흔들었으며, 눈앞은 온통 횃불 천지였다. 조개의 장수들이 군사를 이끌고 길을 돌려 도망치려는데, 굽이진 길을 두 번 꺾자마자 한 무리의 군마와 맞닥뜨렸다. 적들은 앞장서서 화살을 마구 퍼부었고, 그중 화살 한 대가 뜻밖에도 조개의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다. 조개는 그 충격으로 말에서 떨어졌다.

그때 호연작과 연순 두 기병이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 적을 막아냈고, 뒤따르던 유당과 백승이 조개를 구해 말에 태워 마을 밖으로 빠져나왔다. 마을 입구에서 임충 등이 이끄는 군사가 지원을 나와서야 겨우 적을 막아낼 수 있었다. 양군 사이에 혼전이 벌어져 동이 틀 때까지 싸우다 각자 진영으로 돌아갔다.

임충이 돌아와 군사를 점검하니, 완씨 삼형제(완소이·완소오·완소칠)와 송만, 두천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목숨을 건졌으나, 데려간 이천오백 명의 군사 중 남은 이는 천이삼백 명뿐이었다. 구팽도 무사히 막

사로 돌아왔다. 여러 두령이 조개의 상태를 살피러 가보니, 화살이 마침 뺨에 박혀 있었다. 급히 화살을 뽑아내자 조개는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말았다. 화살을 살펴보니 거기에는 '사문공(史文恭)'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임충이 금창약(金鎗藥)을 가져와 상처에 붙이게 했으나, 알고 보니 그것은 독이 발린 약전(藥箭)이었다. 조개는 화살독에 중독되어 이미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임충은 조개를 수레에 태우도록 명하고, 완씨 삼형제(완소이·완소오·완소칠)와 두천, 송만을 먼저 산채로 보내게 했다.

남은 열다섯 명의 두령은 산채에서 의논했다.

'이번에 조개 형님께서 산을 내려가셨다가 뜻밖에 이런 변을 당하셨으니, 이는 필시 깃발이 꺾인 흉조가 들어맞은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군사를 거두어 돌아가야 합니다. 증두시는 당분간 함락시키기 어렵겠습니다.'

호연작이 말했다.

'송강 형님의 명령이 내려와야 군사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날 두령들은 모두 우울해했고, 군사들 또한 싸울 의욕을 잃어 모두 산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날 밤 이경 무렵, 하늘이 어슴푸레 밝아올 즈음이었다. 열다섯 명의 두령은 모두 산채 안에서 망연자실해 있었다. 이는 마치 머리 없는 뱀이 나아가지 못하고 날개 없는 새가 날지 못하는 격이라, 그저 탄식

하며 슬퍼할 뿐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처지였다. 그때 매복로를 지키던 소교(小校)가 황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앞쪽에서 네다섯 갈래의 적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횃불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 말을 들은 임충이 즉시 모두 말에 올라탔다. 세 방향의 산 위에서 횃불이 일제히 밝아지니 대낮처럼 환했고, 사방에서 지르는 함성이 산채 앞까지 들려왔다. 임충은 두령들을 데리고 적을 막으러 가는 대신, 산채를 통째로 거두어 말 머리를 돌려 퇴각했다. 증씨 집안의 군마들이 뒤를 쫓으며 몰아치니, 양군은 싸우면서 도망치는 형국이 되었다. 오륙십 리쯤 달리고 나서야 겨우 적을 따돌릴 수 있었다. 군사를 점검해 보니 또 오백~칠백 명의 손실이 더 있었다. 크게 패하여 기세가 꺾인 그들은 서둘러 왔던 길을 되짚어 양산박으로 향했다.

퇴각하던 도중, 마침 대종이 전해온 군령을 만났다. 두령들에게 군사를 이끌고 일단 산채로 돌아가 다른 방책을 세우라는 명령이었다. 장수들은 명령을 받들어 군사를 이끌고 수호채로 돌아왔다. 산에 올라 조개 두령을 살피러 가보니, 그는 이미 물 한 모금, 밥 한 술 넘기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다해 온몸이 퉁퉁 부어 있었다. 송강 등은 침상 곁을 지키며 통곡했고, 직접 약을 발라주며 탕약을 먹였다. 여러 두령도 모두 막사 앞에 모여 상태를 살폈다.

그날 밤 삼경에 이르자, 조개의 몸이 무거워지며 고개를 돌려 송강을 바라보며 간곡히 부탁했다.

'현제(賢弟), 부디 몸을 보중하게. 만약 나를 쏘아 죽인 그놈을 잡는 자가 있다면, 그를 양산박의 주인으로 삼게 하라!'

말을 마친 조개는 그대로 눈을 감고 숨을 거두었다. 송강은 조개가 죽자 마치 부모를 잃은 듯 정신을 잃고 통곡했다. 이에 두령들이 송강을 부축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와 일을 처리하게 했다. 오용과 공손승이 위로하며 말했다.

'형님, 부디 슬픔을 거두십시오. 삶과 죽음의 경계는 정해져 있는 법인데 어찌 이토록 몸을 상하게 하십니까? 이제 큰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송강이 울음을 그친 뒤, 시신을 향탕(香湯)으로 목욕시키고 수의와 건책(巾幘)을 입혀 정결히 단장한 뒤 취의청(聚義廳)에 안치했다. 모든 두령이 모여 조사를 올리며 슬퍼했다. 한편으로 안쪽 관(內棺)과 바깥 곽(外槨)을 짜고, 길한 시각을 골라 정청(正廳)에 모셨다. 영전에는 휘장을 치고 가운데 신주를 세웠는데, 거기에는 '양산박주 천왕 조공 신주(梁山泊主天王晁公神主)'라고 적었다. 산채의 두령들은 송강을 비롯하여 모두 중한 상복을 입었고, 소두목들과 졸개들도 모두 상복 두건을 둘렀다. 조개를 쏜 그 화살은 영전에 공양물로 올렸다. 산채 안에는 긴 깃발을 내걸고, 인근 사찰의 승려들을 불러 모아 조개 천왕의 명복을 빌며 공덕을 쌓게 했다.

송강은 매일 장수들을 이끌고 조사를 치르느라 산채의 사무를 돌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이에 임충이 공손승, 오용 및 여러 두령과 상의

하여 송강을 양산박의 주인(寨主)으로 세우기로 하였고, 모든 이가 그 명령을 받들고자 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향과 꽃, 등불과 촛불로 정성껏 제단을 꾸몄다. 임충이 앞장서서 여러 두령과 함께 송강을 모시고 취의청으로 나아가 자리에 앉혔다. 오용과 임충이 입을 열어 말했다.

'형님, 들어보십시오. 「나라는 하루라도 임금이 없어서는 안 되고, 집안은 하루라도 주인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조개 두령께서 하늘로 돌아가셨으니, 산채의 대업을 어찌 주인 없이 둘 수 있겠습니까? 천하 사람들이 모두 형님의 큰 이름을 듣고 있으니, 머지않아 길일과 좋은 때를 잡아 형님을 산채의 주인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저희 모두 형님의 명을 받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조개 천왕께서 임종하시며 「만약 사문공을 잡는 자가 있다면, 그를 양산박의 주인으로 세우라」고 유언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두령들도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골육의 시신이 식지도 않았는데 어찌 이 일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원수도 갚지 못했고 한도 풀지 못했는데,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오용이 다시 권했다.

'조개 천왕께서 비록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오늘 아직 그자를 잡지 못했으니 산채를 어찌 하루라도 주인 없이 둘 수 있겠습니까? 만약 형님께서 앉지 않으신다면 그 누가 감히 이 자리를 맡겠습니까? 그러면

산채의 인마를 누가 다스린단 말입니까? 비록 유언이 그러하더라도, 형님께서 우선 이 자리에 임하여 자리를 지켜 주십시오. 나중에 따로 방책을 세우면 됩니다.'

송강이 말했다.

'군사의 말이 지극히 옳습니다. 오늘 우선은 임시로 이 자리에 앉아 있겠으나, 훗날 원수를 갚고 한을 푸는 일이 끝나고 사문공을 잡게 된다면, 그가 누구든 반드시 이 자리를 넘겨주겠습니다.'

옆에 있던 '흑선풍' 이규가 끼어들며 외쳤다.

'형님, 양산박 주인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예 대송(大宋)의 황제가 되신들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송강이 호통을 쳤다.

'이 시커먼 놈이 또 헛소리를 하는구나! 다시는 이런 망언을 입에 담지 마라. 네놈의 혀를 먼저 잘라버리겠다!'

이규가 말했다.

'제가 형님더러 한낱 사장(社長, 마을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황제가 되시라는 것인데, 도리어 제 혀를 자르려 하십니까!'

오용이 말했다.

'이놈은 위아래도 모르는 자이니, 형님께서는 저런 자와 상대하지 마십시오. 어서 형님께서 큰일을 결정하시도록 합시다.'

송강은 향을 피워 제사를 마친 뒤, 우선 임시로 주인의 자리에 올라 첫 번째 의자에 앉았다. 상석에는 군사 오용이 앉았고, 그 아래에는 공손승이 앉았다. 왼쪽 줄은 임충이 우두머리가 되고, 오른쪽 줄은 호연작이 우두머리가 되었다. 사람들이 모두 절을 올린 뒤 양옆에 자리를 잡고 앉자, 송강이 입을 열어 말했다.

'제가 오늘 임시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 형제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저의 팔다리가 되어 함께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합시다. 이제 우리 산채는 인마의 수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으니, 여러 형제께 청하여 산채를 여섯 개의 진영으로 나누어 주둔시키고자 합니다. 취의청의 이름은 이제 충의당(忠義堂)으로 고치겠습니다. 충의당을 중심으로 전후좌우에 네 개의 육채(旱寨)를 두고, 뒷산에는 두 개의 작은 진영을, 앞산에는 세 곳의 관문을, 산 아래에는 수채(水寨) 하나를, 그리고 두 여울에는 각각 작은 진영을 두어 오늘 각 형제께 나누어 맡기겠습니다.

충의당에서는 제가 임시로 높은 자리에 있고, 두 번째는 군사 오용, 세 번째는 법사 공손승, 네 번째는 화영, 다섯 번째는 진명, 여섯 번째는 여방, 일곱 번째는 곽성입니다.

좌군 진영에서는 첫째 임충, 둘째 유당, 셋째 사진, 넷째 양웅, 다섯째 석수, 여섯째 두천, 일곱째 송만입니다.

우군 진영에서는 첫째 호연작, 둘째 주동, 셋째 대종, 넷째 목홍, 다섯째 이규, 여섯째 구팽, 일곱째 목춘입니다.

전군 진영에서는 첫째 이응, 둘째 서녕, 셋째 노지심, 넷째 무송, 다섯째 양지, 여섯째 마린, 일곱째 시은입니다.

후군 진영에서는 첫째 시진, 둘째 손립, 셋째 황신, 넷째 한도, 다섯째 팽기, 여섯째 등비, 일곱째 설영입니다.

수군 진영에서는 첫째 이준, 둘째 완소이, 셋째 완소오, 넷째 완소칠, 다섯째 장횡, 여섯째 장순, 일곱째 동위, 여덟째 동맹입니다.

여섯 진영의 두령은 모두 마흔세 명입니다.

산 앞의 첫 번째 관문은 뇌횡과 번서(樊瑞)에게 지키게 하고, 두 번째 관문은 해진과 해보에게, 세 번째 관문은 항충과 이곤에게 맡깁니다.

금사탄(金沙灘)의 작은 진영은 연순·정천수·공명·공량 네 사람이 지키게 하고, 압취탄(鴨嘴灘)의 작은 진영은 이충·주통·추연·추윤 네 사람이 지키게 합니다.

뒷산의 두 작은 진영 중, 왼쪽 육채는 왕애호·일장청·조정이, 오른쪽 육채는 주무·진달·양춘이 지키게 하니 모두 여섯 사람입니다.

충의당 내부 살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 방에서는 문서를 맡은 소양, 상벌을 맡은 배선, 인장을 맡은 김대견, 돈과 식량의 계산을 맡은 장경이 관리합니다. 오른쪽 방에서는 화포를 맡은 능진, 배 만드는

일을 맡은 맹강, 갑옷과 옷을 만드는 일을 맡은 후건, 성벽 축조를 맡은 도종왕이 관리합니다.

충의당 뒤편 두 칸의 방에서 일을 맡을 인원은, 집 짓는 일을 감독하는 이운, 대장장이 총관인 탕륭, 술과 식초를 감독하는 주부, 잔치 음식을 준비하는 송청, 그리고 잡다한 물건 관리를 맡은 두흥과 백승입니다.

산 아래 네 길목의 정보용 주막에는 원래 정해진 대로 주귀·악화(樂和)·시천·이립·손신·고대소·장청·손이낭을 배치하여 이미 인원을 확정해 두었습니다. 북쪽 지역에서 말을 사 오는 일은 양림·석용·단경주가 맡습니다.

분배를 마쳤으니 각자 맡은 바를 엄격히 지키고 결코 어겨서는 안 됩니다.'

양산박 수호채의 크고 작은 두령들은 송강이 채주(寨主)가 된 후 모두 기뻐하며 그의 명령을 받들었다. 어느 날, 송강이 무리를 모아 조개의 원수를 갚고자 군사를 일으켜 증두시를 치자고 논의했다. 그러자 군사 오용이 간언했다.

'형님, 백성들도 상중에는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법입니다. 형님께서 군사를 일으키시려면 우선 백일이 지난 뒤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강은 오용의 말을 따라 산채를 지키며, 매일 정성껏 불사(佛事)를 베풀고 공덕을 쌓으며 조개의 명복을 빌었다.

어느 날, 법명이 대원(大圓)인 스님 한 명이 찾아왔다. 그는 북경 대명부 성안에 있는 용화사(龍華寺)의 승려로, 유람차 제녕(濟寧)에 왔다가 양산박을 지나게 되어 산채 안에서 도량(道場)을 열게 되었다. 재(齋)를 들던 자리에서 한담을 나누던 중, 송강이 북경의 풍토와 인물에 대해 묻자 대원 스님이 말했다.

'두령께서는 어찌하여 하북의 「옥기린」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송강과 오용은 그 말을 듣고 문득 깨달으며 말했다.

'우리가 아직 늙지도 않았는데 어찌 이리도 건망증이 심하단 말인가! 북경성에는 노씨 성의 대원외(大員外)가 있는데, 이름은 두 글자로 준의(俊義)요 별호는 「옥기린」이라 불리며 하북삼절(河北三絶)로 꼽히는 인물이라네. 본래 북경 태생인데 한 몸에 뛰어난 무예를 갖추어 곤봉 솜씨는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지. 만약 양산박에 저런 인물이 온다면 관군이 잡으러 오는 것을 어찌 두려워하며, 병마가 들이닥치는 것을 어찌 걱정하겠는가?'

오용이 웃으며 말했다.

'형님, 어찌하여 벌써부터 기운을 잃고 낙담하십니까? 저 사람을 산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송강이 대답했다.

'그는 북경 대명부의 제일가는 명망가인데, 어찌 그를 불러들여 도적이 되게 할 수 있겠소?'

오용이 말했다.

'저도 한동안 그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그만 잠시 잊고 있었군요. 제가 작은 계책을 하나 써서 그를 반드시 산으로 오게 만들겠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사람들이 그대를 「지다성」이라 부르는 것이 과연 헛된 이름이 아니구려! 감히 묻건대, 군사께서는 어떤 계책을 써서 그를 산으로 유인해 오시겠소?'

오용은 당황하지 않고 손가락 두 개를 꼽으며 이 계책을 풀어놓았다.

이야말로 노준의로 하여금 화려한 비단옷과 보석 장식을 뒤로하고 용담호혈(龍潭虎穴)과 같은 험지를 제 발로 시험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바로,

오직 한 사람을 수호로 끌어들이려다가 백성들로 하여금 병란(兵戈)을 겪게 하는구나.

결국 오학구가 어떤 계책으로 노준의를 산으로 불러들일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